건축사

1997 04 vol. 336

칼럼 수원수구
작품리뷰 영남대 제2 사회관
기획연재 한국의 건축가 [9]-김중업(2)
해외건축 외국의 건축가 [2]-다니엘 리베스킨트

대한건축사협회 발행, 1997년 4월호, 통권336호

건축사

차례 1997 04 336호

영남대 제2사회관(서보광 作)

칼럼	수원수구(誰怨誰咎)	한창진	26
작품리뷰 / 영남대 제2사회관			
	작품－영남대 제2사회관	서보광	28
	대담－지역성+빛과 그림자	최무혁	35
	비평－반세태의 미학 : 무광택, 무변형, 무기교	김억중	44
회원작품	경기 체육고등학교	안길원	50
	영스포렉스	(주)희림건축	54
	영동전문대학교 체육관	이성걸	58
	분당 전람회주택	공일곤	60
	핀란디아	故장세양	62
	국제방송교류재단	정림건축	64
	제주 삼성 어린이집	삼우설계+도우건축	66
작품노트	독도기념관	유 건	68
해외건축	외국의 건축가 [2] －다니엘 리베스킨트	성인수	72
기획연재	한국의 건축가 [9] - 김중업(2)	조인철	84
건축마당	협회소식		91
	건축계소식		98
	현상설계		102
	계획작품		112
	해외잡지동향		118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124
	신입회원		126
	게시판		128

발행인 : 김영수
편집기획 : 편찬위원회
편찬위원 : 방철린(위원장), 승효상(부위원장)
동정근, 심영섭, 양남철
편집 · 취재 : 양원석, 정효상, 조한국, 윤태일
발행처 : 대한건축사협회
(협회창립일 : 1965년10월23일)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 137-070
전화 :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 (02)586-8823
U. D. C : 69/72(054-2) : 0612(519)
인쇄인 : 이봉수/정문사 (02)266-4555

Publisher : Kim Young-Soo
Editor : Editorial Committee
Editorial Member : Bang Chul-Lin, Seung Hchioh-Sang, Dong Jung-Geun, Shim Young-Sub, Yang Nam-Chul
Assistant Editor : Business Expansion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 137-070
Tel : (02)581-5711~4
Fax : (02)586-8823
U.D.C : 69/72(054-2) : 0612(519)
Printer :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 월간 "건축사"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Contents Vol. 336 April 1997

Column

Negative System & Positive System — Han Chang-Jin — 26

Review / The Second Social Hall of Young-Nam University

Works - The Second Social Hall of Young-Nam University — Suh Bo-Kwang — 28

Interview - Regionalism + Light & Shadow — Choi Moo-Hyuck — 35

Critique - Anti-prevalence Aesthetics : Non-brilliance, Non-conversation, Non-artifice — Kim Uk-Joong — 44

Works

Kyeonggi Gymnasium High School — Ahn Gil-Won — 50

Young Sporex — Hee-Rim Architects & Engineers — 54

Gymnasium Yeongdong College — Lee Sung-Geol — 58

Pundang Newtown Exhibition Housing — Kong Il-Kon — 60

Finlandia — Chang Sea-Young — 62

The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ing Foundation — Junglim Architecture — 64

Samsung House for Children in Cheju — Samoo Architects & Engineers, Dowoo Architects — 66

Works Note

Tokdo Memorial — Yu Kun — 68

Overseas Architecture

Architect Overseas 2 - Daniel Liveskind — Seong In-Soo — 72

Serial

Korean Architect 9 - Kim Chung-Up (2) — Zho In-Choul — 84

News & Information

KIRA News — 91

News Wide — 98

Competition — 102

Process Works — 112

Journal Trend — 118

Statistics — 124

Entrant — 126

Conversation — 128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4-6840 · 강북구건축사회/903-3425 · 강서구건축사회/604-7166 · 관악구건축사회/884-0048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52-2275 · 노원구건축사회/933-8076 · 동대문구건축사회/923-6213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5251 · 서대문구건축사회/333-6411 · 서초구건축사회/552-8468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53-2892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88-1486 · 종로구건축사회/735-0905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7356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5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경기도건축사회/(0331)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44)63-890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구리지역건축사회/(0346)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8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42)756-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31)41-7987 · 시흥지역건축사회/(032)694-4121 · 안산건축사회/(0345)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43)49-2698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51)8/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36)635-0545 · 평택지역건축사회/(0333)657-6148

■강원도건축사회/(0361)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91)41-7371 · 삼척지역건축사회/(0394)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92)33-5081 · 영월지역건축사회/(037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71)43-7290 · 춘천지역건축사회/54-2442

■충청북도건축사회/(0431)56-2752 · 53-7342
옥천지역건축사회/(0475)33-3502 · 제천지역건축사회/(0443)43-3253 · 충주지역건축사회/(0441)847-3082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6-4088
공주지역건축사회/(0416)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52)34-3387 · 부여지역건축사회/(0463)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55)64-8500 · 천안지역건축사회/(0417)56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541)32-2755

■전라북도건축사회/(0652)87-6007~8
군산지역건축사회/(0654)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71)33-2000 · 익산지역건축사회(0653)52-3796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31)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62)33-2000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61)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6)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7)434-2541 · 문경지역건축사회/(0581)53-6677 · 상주지역건축사회/(0582)32-5688 · 안동지역건축사회/(0571)57-7464 · 영주지역건축사회/(0572)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36)34-6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5)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62)44-8029

■경상남도건축사회/(0551)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8)635-3432 · 거창지역건축사회/(0598)43-6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25)35-5692 · 밀양지역건축사회/(0527)355-4848 · 삼천포지역건축사회/(0593)33-9779 · 양산지역건축사회/(0523)84-3050 · 울산지역건축사회/(0522)74-8836 · 진주지역건축사회/(0591)745-6403 · 충무지역건축사회/(0557)645-7420

■제주도건축사회/(064)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62-2233

수원수구(誰怨誰咎)

Negative System & Positive System

한창진 / (주)한정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by Han Chang-Jin

신문의 시사만화나 시사만평을 보고 시사를 읽는다. 그래도 막힌 언로가 이만큼 트였다는게 다행스럽다. 그러나 요즈음의 사태들,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인가?

누가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나. 그리고 누가 이것을 속시원히 밝혀주고 누가 책임을 져야하며 국민 모두에게 사과 한마디는 있어야 할게 아닌가? 국민은 그것을 알권리도 있고 알아야 한다.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걱정스러우며 불안을 금치 못한다.

문민정부의 정치행태를 보여준 "노동법 날치기 통과", 정경유착과 권력형 부정부패의 본보기를 보여준 "한보사건"은 우리를 망연자실케 하기에 충분했고 "현철사건"은 뭐라고 하면 좋은가? 어처구니 없다기 보다는 서글프다.

우리에게 누구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나. 무엇을 믿으란 말인가? 통치능력도 위기관리능력도 의심스럽다. 경제권도 정치권도 행정능력도 행정부의 모든 제도조차도 믿을 수 없고 믿으려하지 않는 국민의 무너진 신뢰감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서강대 L교수의 신문 칼럼기사 내용은 오늘을 실감케 한다. 「무정견, 무지, 무능, 무책임의 지도자를 만나면 순식간에 사기를 잃고 혼란속에 빠져든다고 일러주던 옛어른들의 말씀이 새삼스럽다. 4무(無)중에서도 무책임이 제일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그는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사태는 가히 혁명적이다.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지도자도 없고 사태에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갈 조직도 없으며 모든 국민이 존중하는 기강마저 무너졌다.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도덕적 권위를 가진 지도자가 있는가. 내일의 비전을 제시하는 정당이 있는가. 당수들의 지시대로만 움직이는 "인형" 외에 정치인들이 있는가. 권력, 금력의 시녀로 전락한 공무원들을 국민은 신뢰하지 않는다.」

더욱 절실한 충격을 던져준 한 기업인의 호소가 있다.

「뇌물 안 주면 기업 못한다.」

수출현장, 경찰관서, 특허청, 세무서, 소방서 등 어느 한 곳 썩지 않은 곳이 없다고 그는 호소하면서 "세계는 급변하고 있는데 허구헌날 우리는 정쟁에, 파업에, 뇌물에 밤낮을 지새우고 있다. 우리 모두 정신차리자"고 질책했다.

어이가 없는 일들, 백번 공감하고 동조한다.

촌지받고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그들에게 말못하고 당해온 것이 사실이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히 겪어야 하는 과정쯤으로 여기게끔 길들어져 온 터이다.

말하자면 피해자인 동시에 부정부패의 방조자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서글픈 일이지만 이 모든 기정사실을 모두 인정해야하고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 나라를 이 꼴로 전락시킨 원흉들을 질타하고 비판하고 지탄하면서 흥분하고 핏발을 세우고 분개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성을 찾고 생각해보면 웃음이 나온다. 군사독재도, 무능한 문민정부도 우리가 만든 정부임이 틀림없고 옥살이하고 있는 대통령들도 문민대통령도, 어김없이 우리가 선출해서 내세운 대통령이라는 사실 또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그 대통령이 4년동안 스물여덟번이나 개각을 하고 100명이 넘는 장관을 교체하면서 나라를 다스린 결과가 오늘임을 역시 인정해야 한다. 그러고 보면 누구를 탓하면 되나? 누구를 원망하면 되나?

누가 책임을 지고 말고도 없다. 권력의 원천인 국민 스스로가 가슴을 쳐야할 수 밖에. 권력은 대통령의 점유

물도 아니고 관료나 고관대작의 소유물도 아니다. 하물며 그들의 수하나 가족의 것은 더욱 아니잖는가. 국민 스스로가 그 권력을 그들이 휘두르게 방치했을 뿐이다.

의롭고 용감한 기업인 이영수씨가 외친말처럼 "우리 모두 정신 좀 차리자."

총체적 난국,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는 처지는 우리 건축계 또한 마찬가지다.

요 몇년사이 몇가지 사건 이후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인가? 누가 건축계를 이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나. 누구 책임이냐". 그렇게 똑같이 울분을 터뜨리게 하고 있다.

조건반사적으로 파생된 법과 규제와 국면전환용 조치사항들은 건축계의 지각변동을 야기시켰고 우리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게 했다.

- 삼풍사건이 감리부실 때문일까, 으뜸가는 부실은 발주부실과 관리부실일게다. -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술집단의 농간은 건기법(건설기술관리법)을 낳았고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감리협회를 탄생시키면서 건축사협회에 금을 가게 만들어 놓았다. 설계의 연장선상의 감리업무를 앗아간 그들과 한건연(한국건설업체연합회)은 설계까지도 스스로 하겠다고 노리고 있고 힘의 논리상 약한자가 버티기 어려운 처지임을 생각하다 보면 사협의 공중분해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실상이다.

이토록 한심할 수가 있나. 30년 넘게 끙끙거리며 못살게 되어있는 구조 속에서 온갖 수모와 가난을 이겨온 우리가 이룩해놓은 공은 무엇인지 그리고 얻은 것은 무엇인가? 코 닦아주고 뺨맞은 격으로 건축계의 불신은 우리만 한몸으로 받고 있는 까닭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것 또한 누구탓도 아닌 우리 탓이다.

자의식만을 내세우는 모래알 집단.

공동체의식이 결여된 이기주의자들.

대아(大我)보다는 소아(小我)를 택하는 소인배 우리.

체질개선이 절대로 필요한 알레르기 중환자들.

무관심과 오불관주의자들.

아마도 이중 하나에 해당하는 부류가 우리의 실상이 아닐까 싶다. 결국 우리가 현명하지 못했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 자구책을 강구하지 못한 탓이 아니겠는가.

지금은 건축 몇단체인지 모르게 많아졌지만 적어도 건축3단체만이라도 종을 가리지 말고 횡으로 대화하고 결속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 과연 누가 우리 건축인들을 깔볼 수 있었고 불신할 수 있었겠나. 오늘과 같은 수모는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 또한 겸허하게 인정하자. 그리고 이 파국에서 벗어날 궁리를 해야 할 때다. 이대로는 안된다. 변해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뭔가 변혁이 요구되는 절실한 시점에 와 있다. 이 총체적 부실의 시대, 위기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개혁뿐이다.

의식의 개혁, 체질의 개혁으로 자기 갱신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지켜가야 할 공동체 속에 내 자신을 성찰해 볼 일이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가 방위해야 할 직능의 확립도 하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살아왔다. 모두 한길을 걷는 동료들의 갈등에 의해서 찢기고 할퀸 상처와 주위의 냉대와 불신만을 키워 온 과거를 자성해야 한다. 진지하게 실천가능한 개혁연구의 지속을 촉구한다.

건미준 (건축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 걸었던 기대를 저버리지 말기를 바란다. 언로가 막혀서는 안된다. 부단히 대화를 넓히다 보면 공약수와 공통분모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 정부가 풀어주고 고쳐주길 기다릴 수는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열쇠로 우리 스스로 열어가야 할 시기의 도래를 맞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즈음에 우리 손으로 개혁백서라도 작성해서 제시할만도 하지 않을까. 새내각이 들어서면서 경제위기를 타개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1만1천여개에 달하는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개혁에는 "부정적 개혁"과 "적극적 개혁"이 있다고 한다.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부정적 개혁(Negative System)과 자유원칙아래 규제만 예외로 하는 적극적 개혁(Positive System)을 말하는데 과감하게 개혁의 방향을 적극적 개혁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규제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활동하는데 꼭 필요한 규제만을 설정하고 그외는 모두 철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서 접근의 가닥이 잡힐지도 모른다. 서류절차 간소화, 차원이 아닌 핵심규제의 혁파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

영남대 제2사회관

The Second Social Hall of Young-nam University

서보광 / 건축사사무소 동성건축
Designed by Suh Bo-Kwang

영남대학교 제2사회관은 법과대학과 정치행정대학의 강의실 및 연구실 수요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회관 북동측에 제2사회관으로 명명되어 계획되어졌다.

제2사회관의 부지 동측에는 중앙도서관, 북측에는 학생회관, 서측에는 체육관 및 노천강당이 둘러싸고 있어 입지적으로 영남대 캠퍼스의 중심적 위치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학생활동에 있어서도 중심적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제2사회관의 입지선정은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한 설계자와 사용자의 많은 대안에 대한 분석결과로 이루어졌다.

지금의 위치가 연구및 강의동의 조건으로는 알맞지 않는 면도 없지 않다보니, 이들 서로 다른 기능과 행태를 나타내는 건물군 사이에서 강의 및 연구동으로서의 본연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다른 왕성한 학생활동의 선상에서 그러한 흐름에 거슬리지 않는 계획이 요구되었다.

그러한 요구는 강한 독립적 성격을 가지는 'ㅁ'자형의 중정을 내포한 정방형의 평면형태를 낳았으며, 주변과의 연계성 및 개방감 확보에 대한 고려로, 피로티를 통한 중정으로의 두 개의 출입구는 학생흐름의 주축상에 위치한다. 동-서측상에 위치한 중정으로의 피로티는 일종의 초점역할과 열린 공간을 통한 시계의 통과를 유도하는 시각의 축으로 설정하였다.

이 피로티는 본 건물의 관문적 성격과 더불어 정방형매스의 분절과 입면형태의 변화를 나타낸다.

제2사회관의 동측에 위치한 중앙도서관은, 학교주변이 주로 평탄한 지형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멀리서도 영남대 캠퍼스의 위치를 나타내는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하는 20층의 고층건물로서 영남대학교의 상징건물이라고 할 수 있었다. 먼 곳에서 수직적으로, 다가오는 중앙도서관이 캠퍼스로 가까이 접근할 수록 중앙도서관과 하나의 축상에 있는 제2사회관의 수평적이며 당당한 이미지와 어울려진다.

평면계획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평면형태는 외부로는 정직한 정방형의 형태를 가지는 반면에 내부의 중정공간은 3:2의 비를 가지도록하여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유도하였으며, 내부의 중정을 통하여, 둘러싼 각 공간들에 채광이나 환기를 제공토록 하였다.

외부공간과 직접적인 접촉을 가지는 1층에는 관리기능을 가진 실들을 배치하고, 위로 3개층에는 중정을 중심으로 남향 및 동향에는 연구기능을 가지는 교수연구실을, 특히 조망이 좋은 북동향에는 강의실 및 특별활동 공간을 배치하고 서향으로는 기타실 등을 배치하여 공간의 성격에 따른 조닝을 유도하였으며, 실의 용도 및 사용행태에 따라서 자연적 환경조건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입면계획에 있어서는 저층부에 제치장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위로는 붉은벽돌과 화강석을 적절히 사용하여 단조로운 주변환경에 변화를 주고자 하였지만, 시공 및 유지 관리상의 이유 등으로 저층부의 재료가 변경되어 시공에 반영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 동 · 서측면의 피로티부분의 격자형 입면형태는 정형화된 매스의 분절과 입면의 변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동 · 서쪽의 넓은 광장 및 도로에서 입면상의 초점이 되도록 하였으며, 남쪽과 북쪽의 건물로의 주출입구는 완만한 곡선형으로 돌출시켜 외부공간과의 매개체로서 강한 영역성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전체적인 평면배치, 입면, 매스 등은 독립적공간으로서의 자립성을 가지는 동시에 주변의 다기능 공간들에 대한 연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변화하는 대학기능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성장하는 대학의 건축물로서 존재성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북 경산시 대동 영남대학교 캠퍼스
대지면적	2,181,660.0㎡
건축면적	1,883.94㎡
연 면 적	7,428.98㎡
규 모	지하 1층, 지상 4층
주요용도	강의실 및 교수연구실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부마감	붉은벽돌치장쌓기+제치장콘크리트+화강석버너마감
내부마감	페인트+흡음천정재+퍼라이트스프레이
설계담당	김운찬, 이성환, 박승찬, 이주영
설계기간	1993. 11~1994. 8
공사기간	1995. 1~1996. 7
구조설계	동성건축 구조실
설비설계	신아설비연구소
전기설계	보우전기연구소
시 공	(주)보성건설

남서측 전경

The Second Social Hall of Young-nam University was planned to meet the requirements increasement of lecture rooms and research labs from Law School and Political Administration College, and was placed to the northeast of the first Social Hall. Since the east of this site is the Central Library and the north the Student's Hall, with the gym stadium and the outdoor theatre to the west of it, the new Social Hall is located in the heart of the campus, which is also the centre of various activities of the students.

The site was fixed after analyzing many alternatives by both the university and the architect. But the site had some inappropriate conditions for lectures and researches. Thus the program called for a design among clusters that would accomodate, along with the fulfilling its function as lecture halls and research labs, the activities of students. These requirements were met with a plan that is composed around an atrium, whose ground level, by pilotis that connects it to its surroundings, is opened to two ways concerning pedestrian movements. The pilotis along east-west direction acts as a focal point and visual axis. This piloti takes the role of the building's front gate, and reinforces the variety of its mass composition and elevation.

The Central Library, located to the east of the Second Social Hall, with its height of 20 stories in an area of mostly plane area, functions as the landmark building of the campus. Approaching the center of the campus, the viewer can appreciate a striking contrast between the verticalness of the Library and the expanding horizontalness of the Second Social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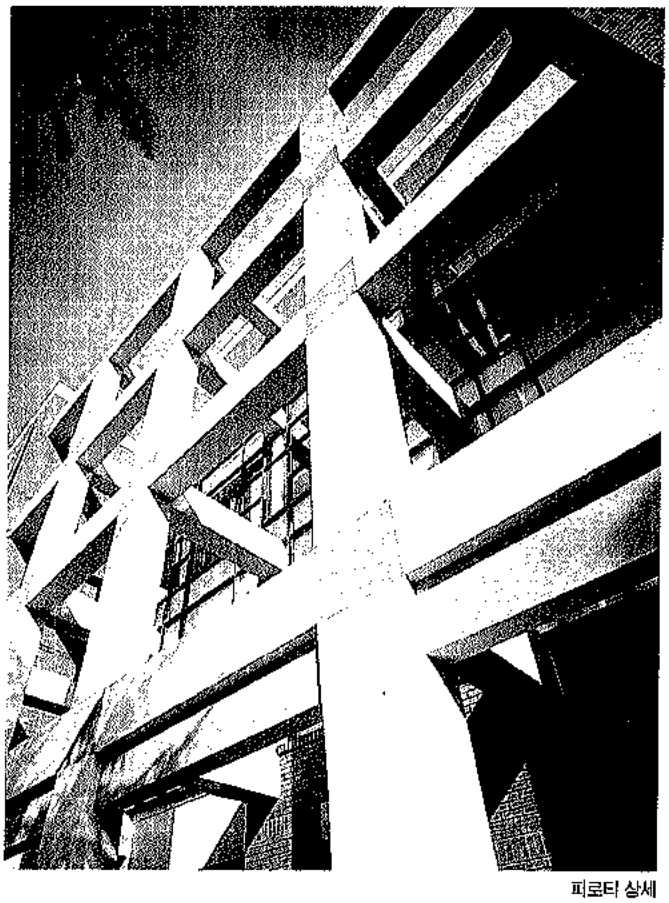
The overall plan takes the form of a true square, whereas the proportion of the atrium in the inside is 3:2. The resulting discordance between solid and void rectangles releases subtle tension in the formal composition. The atrium supplies appropriate light and air conditions to its facing spaces.

The first floor, with its direct accessibility, is composed of programs concerning management and control. The layout of programs in the upper three stories are zoned according to its function and uses, and the natural environment surrounding it. The research labs for the professors are in its east and south. The north-east side, commanding the finest scenery, has the lecture halls and rooms for special activities. The other functional spaces are facing the sou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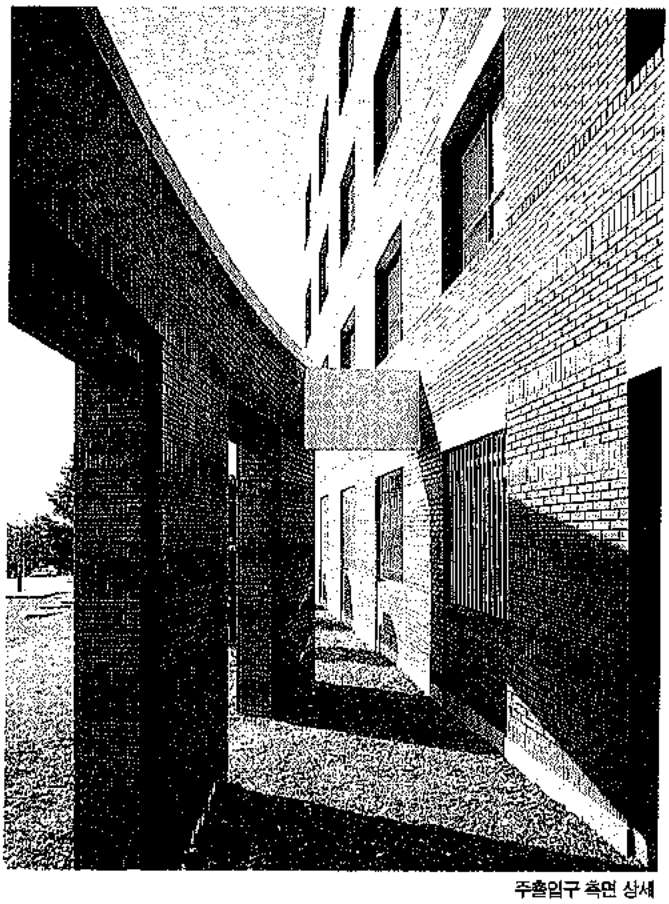
The original plan for the elevation was composed of exposed concrete in the lower floors, with the composition of red bricks and granite on its upper levels, but the former was abandoned from construction and management concerns. The elevation of the piloti area, which is the focal point viewed from the plaza and the road on the east-west direction, was designed with the principle of geometrical composition. The main entrances to the Social Hall in the north and south are projected in a curved shape to present its function as mediator between the interior and exterior. The overall project is comprised of individual spaces that can both function independently and form a connection with surrounding functions. Its purpose was to present an ideal campus building that corresponds to the upcoming requirements of the expanding campus.

Site KyungBook KyungSan City, TaeTong, YoungNam University Campus
Site Area 2,181,660.00㎡
Building Area 1,883.94㎡
Floor Area 7,428.98㎡
Total Floors 4 floors, 1 basement floor
Main Function Lecture Rooms and Research laboratory
Structure Reinforced Concrete
Exterior Finishings Red Brick+Exposed Concrete+Granite
Interior Finishings Paint+Acoustic Absorption Ceiling+Spray
Architects Kim WoonChan, lee SungHyan, Park SungChan, Lee JooYoung
Design Development Period Nov. 1993~Aug. 1994
Construction Period Jan. 1995~Jul. 1996
Structural Engineering DongSung Architects & Eng. Structure Unit
Mechanical Engineering ShinAh Mechanical Research
Electrical Engineering BoWoo Electrical Research
Construction BoSung Construction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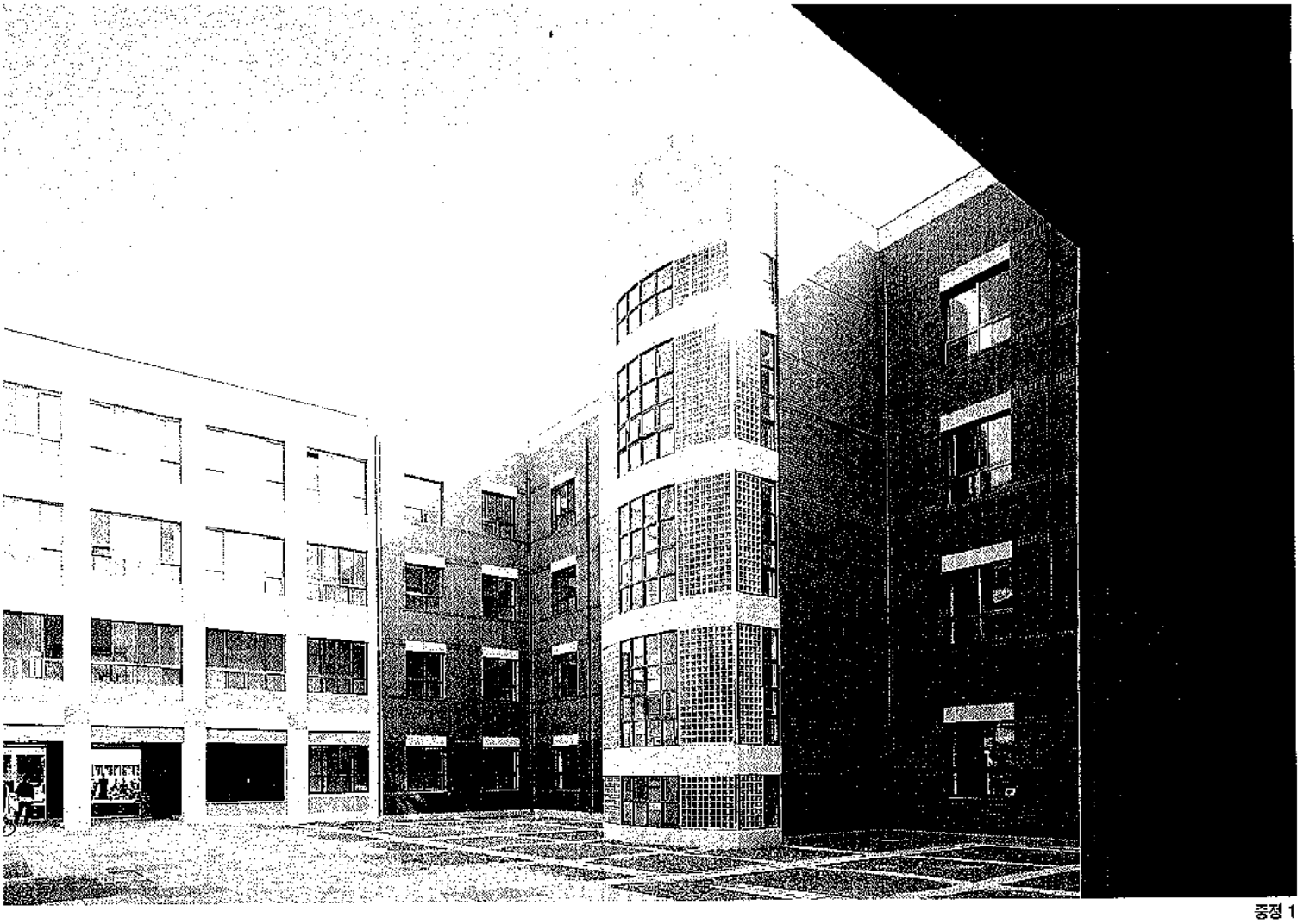
서측 부출입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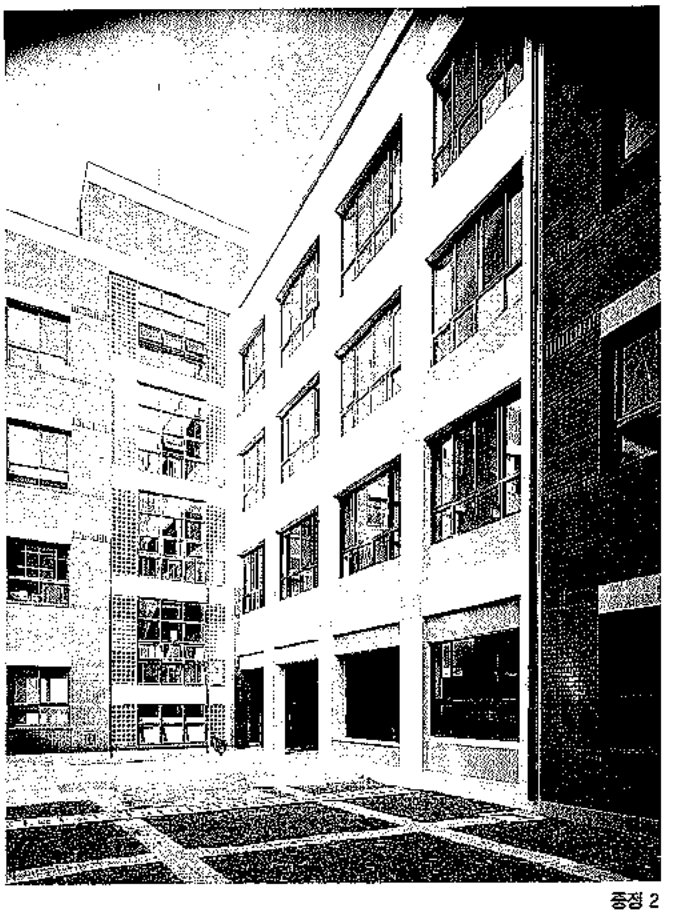
피로티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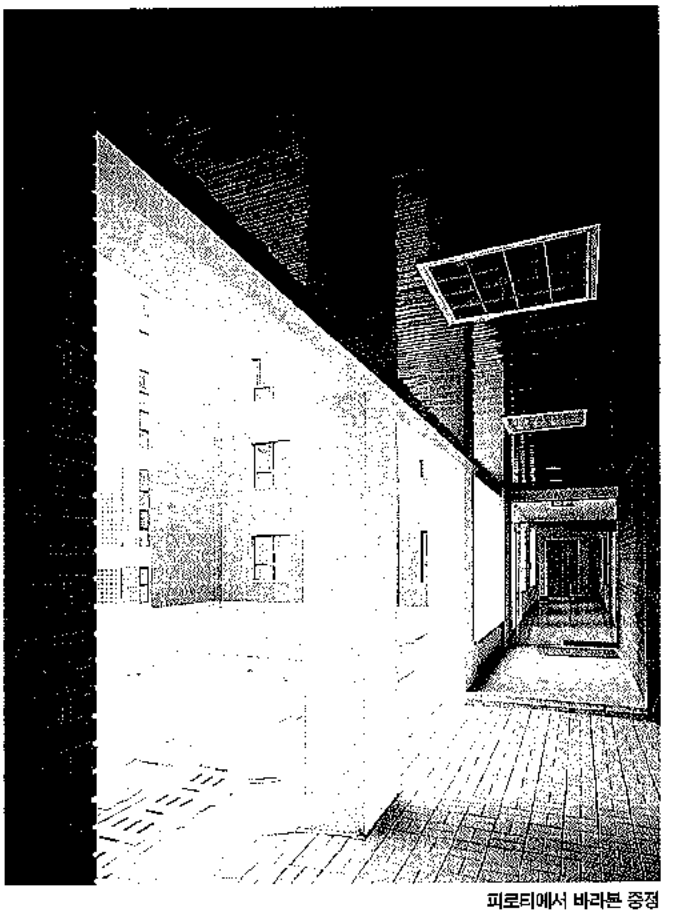
주출입구 측면 상세



중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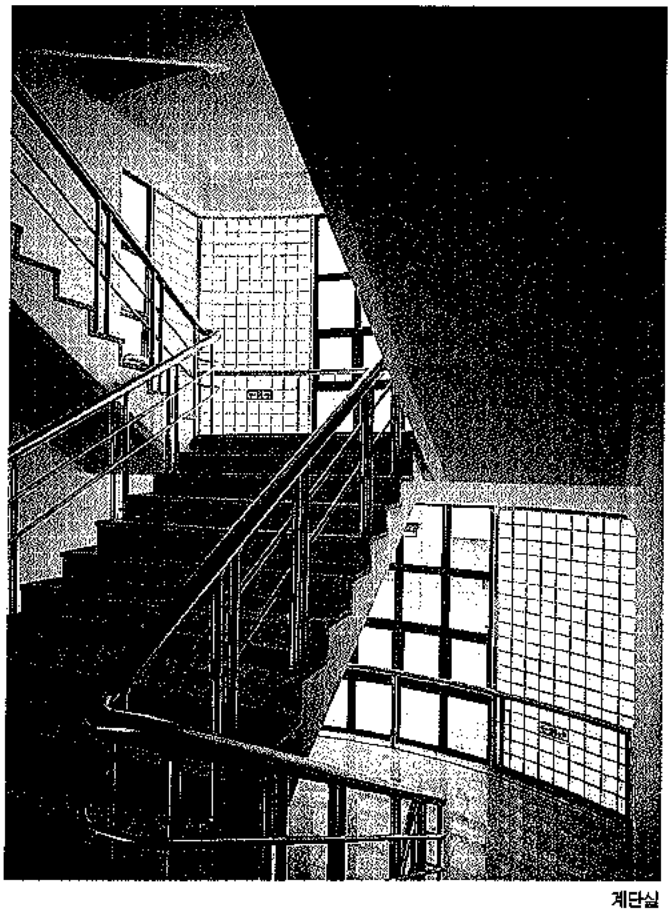


중정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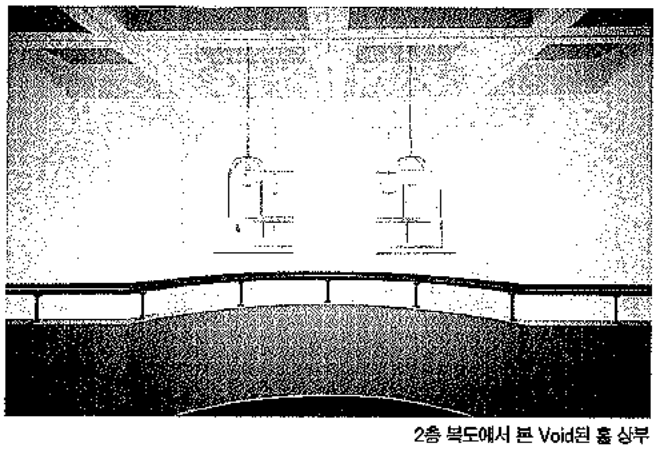


피로티에서 바라본 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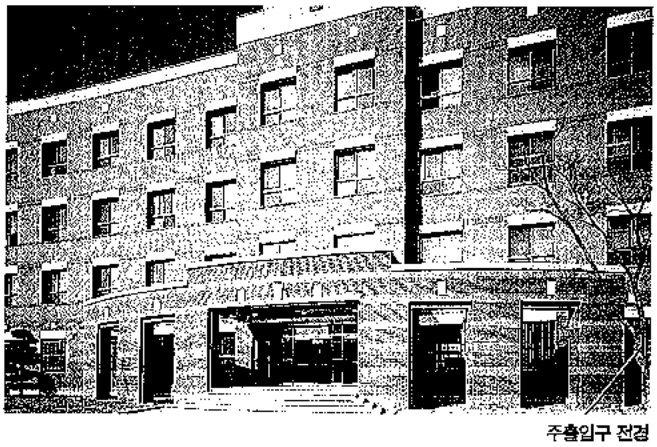
1층 주출입구 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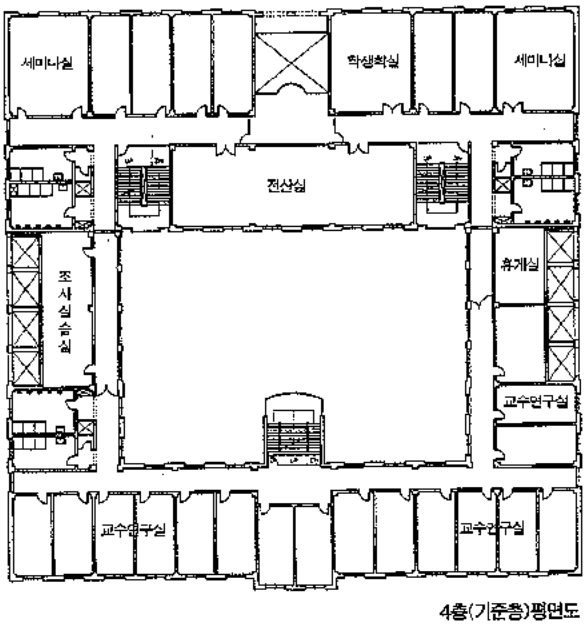
계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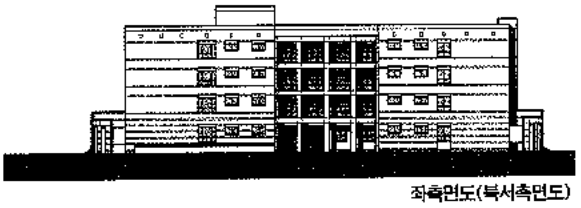
2층 복도에서 본 Void된 홀 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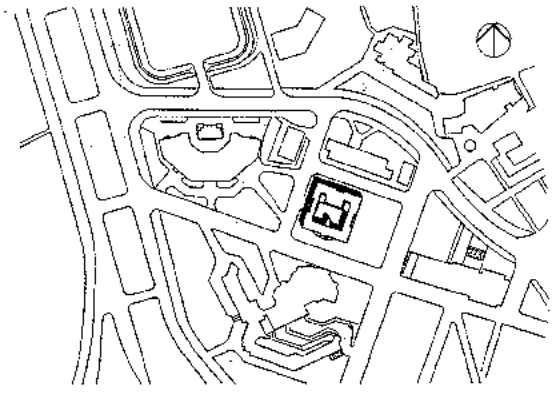
주출입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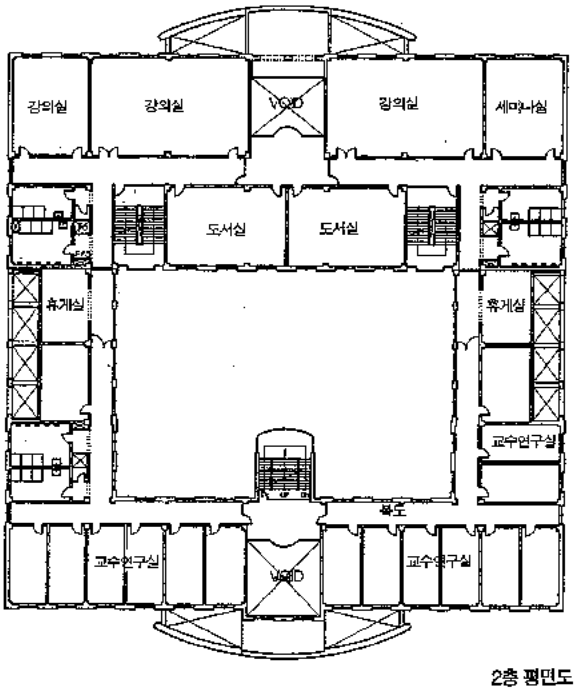
4층(기준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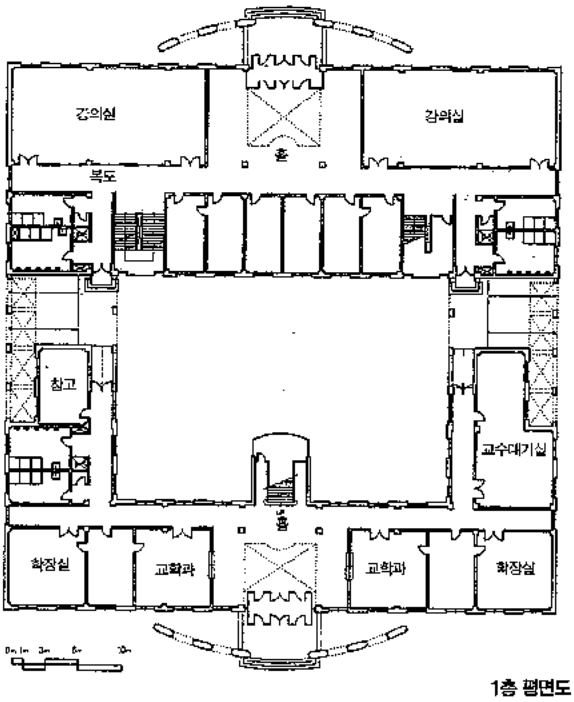
좌측면도(북서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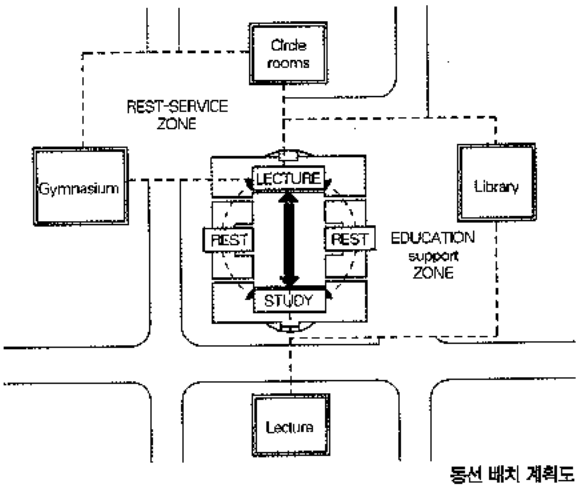
배치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동선 배치 계획도

영남대 제2사회관 대담 interview

The Second Social Hall of Young-Nam University

지역성+빛과 그림자

Regionalism+Light & Shadow

설계자 / 서보광(동성건축) 대담자 / 최무혁(경북대 교수)
Suh Bo-Kwang & Choi Moo-Hyuck
일 시 / 1997. 3. 7. 17시, 장 소 / 동성건축사사무소

대담광경(좌 : 서보광, 우 : 최무혁)

최무혁_____건축가는 작품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반영된다고 봅니다. 많은 이들이 최근의 서선생님 작품에 대해 대체로 보수적이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들이 현대건축 이후에 요구되어지는 지역성에 대한 요구의 반영이란 측면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영남대 제2사회관을 중심으로 그동안 하셨던 여러 작품들에 관해 폭넓게 말씀을 나누므로써 서선생님의 건축관이라든지, 또는 작품속에 반영된 것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 영남대학교는 서선생님의 모교이고 또 제2사회관외에도 모교에 몇 몇 건축물을 남기신 것으로 압니다. 건축가로써 모교에 건축물을 남긴다는 것에 남다른 감회가 있을줄로 아는데 어떠신지요.

서보광_____건축가가 자신의 모교에 작품을 남긴다는 것은 생애 최고의 영광일뿐만 아니라 무한한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모교인 영남대는 건축에 대한 첫만남이 이루어지고 건축을 가르쳐 주신 스승이 계시고, 또 지금은 후배들이 생활하는 제 건축의 고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건축의 고향에 제 작품을 남긴다는 것은 무한한 영광이 아닐 수 없기에 이 작품을 하면서 상당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제가 처음 모교에 작품을 남긴 것은 전문대학원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대명동 캠퍼스에 위치하는 건물로 처음 모교를 설계하는 일이다보니 많은 애착과 성의를 가지고 작업에 임했습니다. 모교라서 그런지, 잘해보겠다는 욕심이 지나쳐서 그런지 매우 조심스럽기까지 했고 시종 겸손한 자세로 임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2사회관과 제2학생회관, 교직원회관 프로젝트를 맡아하게 되었는데, 교직원회관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고 제2사회관과 제2학생회관은 거의 같은 시기에 준공되었습니다.

설계와 공사중에는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거의 실시설계를 마친 시점에서 설계의 기본이 흔들리는 대폭적인 수정작업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된 데는 제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지만 다른 영향들이 많이 작용했습니다. 어쨌거나 건물은 완성되었고 요즘 학교에 들릴 때면 계획과정에서나 시공과정에서의 아쉬움과 그 당시의 어려웠던 기억들이 되살아나기도 하고 자연히 지금 사용자들의 평가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더군요.

최무혁_____영남대 제2사회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캠퍼스내에서 제2사회관이 차지하는 위치나 성격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남대 제2사회관 원경

영남대 제2사회관 모형도

영남대학교 전문대학원(전경)

서보광_____기존 사회관이 있긴합니다만 제2사회관은 용도상 법과대학과 정치행정대학이 사용하는 건물로 주로 학생 강의실과 교수 연구실 그리고 도서실, 세미나실 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이고 면적은 약2천2백평입니다. 위치적인 특성으로는 영남대 전체 캠퍼스가 약 90만평 정도 되는데, 그 부지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영남대에서 가장 상징적인 건물이 중앙도서관이었는데, 지금은 이 제2사회관이 중앙도서관에 인접해 있으면서 더불어 상징적인 건물이 되었다고 봅니다. 모형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중심적인 위치에서 동쪽에 중앙도서관이 자리하고 서쪽에 체육관과 노천강당이, 북쪽에 학생회관이, 남쪽에 기존 사회관 건물이 각각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위치는 제2사회관의 용도와 맞지않는 점이 있기도 합니다. 사실 위치선정 과정중에 상당한 어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 위치가 선정되기까지 기본설계가 두 번이나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는 인문관과 기존 사회관의 중간쯤 되는 위치에 기본계획을 다했다가 휴식장소에 건물을 짓는다고 학생들이 반대를 해 지금의 위치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이 건물의 형태적 특성은 50m × 50m 정도의 규모로 높이는 약 17m이고 20m×30m 크기의 중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중정의 일부를 학생들의 동선을 따라서 개방시켜 놓았습니다.

최무혁_____**위치문제가 거론되어서 하는 말인데 저희 경북대학교 마스터플랜에서도 각 건물을 배치시키면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각 단과대학별로 요구가 많아져서 서로 자기네 영역을 침범한다는 등 자신들 위주의 주장만 내세워 마스터플랜을 세우기가 매우 힘들더군요.**

서보광_____제2사회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계자로서 그런 경우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제2사회관의 경우도 위치선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금의 문제가 있더라도 사용자측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종합분석된 결과는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무혁_____**말씀을 통해 개략적으로나마 제2사회관의 위치나 성격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좀 더 자세하게 서선생님의 일반적인 생각이나 사고를 들어 봤으면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선생님이 주로 종교건축이나, 사회복지시설을 많이 설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외에도 영남대학교 학교건물 등을 비롯해 다른 건물들도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어떤 작품들을 하셨는지 소개해 주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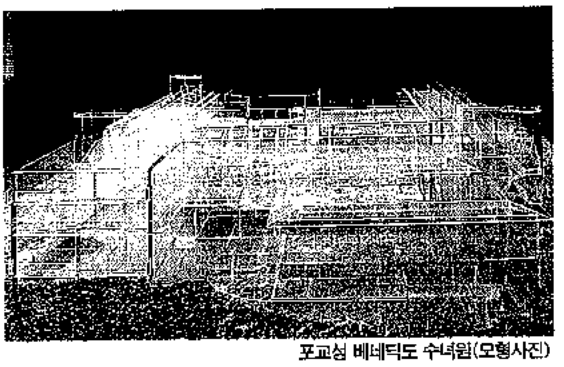
서보광_____많은 분들이 동성이나 저를 생각할 때면 종교건축을 연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가 점차 복잡 다양화하고 전문성을 요구하다보니 건축분야 역시 용도에 따라 점차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건축주들도 그래서 특별한 노하우(Know-How)를 지닌 건축가를 찾게된다고 봅니다. 저 역시도 종교건축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전문화가 된 것 같습니다.

포교 성 베네딕도 수녀원을 비롯해서 평화의 모후원, 성 바오로 안나의 집, 지산천주교회 등 종교건축과 관련된 작품들이 지면을 통해 자주 소개되다 보니 종교건축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종교건축 프로젝트를 수행해오다보니 자연스럽게, 동성건축 고유의 언어도 생기게 되었고 나름의 노하우도 축적되어 도면에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 제 자신이 종교건축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에 정진할 생각입니다만 제 작업들이 종교건축쪽에만 편중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20여년전에 제가 사무실을 개설한 이후 지금부터 10여년전, 주거문화가 아파트 위주로 되기전에는 작품성있는 고급 단독주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는 1년에 서너 작품 정도의 단독주택을 다루었습니다만 이후에 대량생산에 의한 양적인 아파트형 주거문화가 보편화되면서부터는 전원주택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특히 의원건축)과 공공건축이나 학교건축도 상당히 많이 해왔습니다. 특히 학교건축은 영남대학교 뿐만이 아니라 경북대학교나 상지대학, 포항수산고등학교 등이 있습니다. 종교건축에 가리워진 것 가운데에는 리조트시설도

포교성 베네딕도 수녀원(전경)

포교성 베네딕도 수녀원(중정)


포교성 베네딕도 수녀원(모형사진)

있는데 코오롱그룹과 관계하면서 근 10여년간 리조트시설을 다루었습니다.

최무혁_____서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가톨릭신자시고 많은 작품들이 종교건축이다 보니 일반건축에도 종교건축의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축을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Void한 측면과 Solid한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Void한 것은 없거나 투명성으로 나타나고 Solid한 것은 벽체로써 나타난다고 봤을 때, 서선생님께서는 Solid한쪽을 주로 택하면서 그것을 벽돌로써 마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벽돌로 된 건물을 많이 봐왔습니다만 서선생님만큼 벽돌의 색깔이나 형태를 적절히 집아가는 분은 드물다고 생각됩니다. 종교인이어서 또 종교건축을 주로 다루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일반건축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신지요.

서보광_____종교건축 특히, 가톨릭건축을 많이 다뤄왔고 가톨릭신자로서 종교건축을 하다보면 내면적으로 많은 희열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다른 건축도 하나하나 신경을 안쓰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종교건축의 경우에는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제게 주신 능력이 건축이니 만큼 그 능력을 정성껏 최선을 다해 활용하므로써 하느님의 집을 완성하는 것이 제게주신 은총에 대해 보답하는 길이라고 늘 생각하면서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실 평생에 한 번도 종교건축을 못 다뤄보는 건축가도 적지 않다고 보는데 제 경우는 많은 종교건축을 접하게되다보니 제 개인적으로, 종교인으로서 굉장한 축복이며 특히, 수녀원이나 수도원 같은 종교건축을 보면 그 용도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지도 않고, 또 수녀님이나 신부님들의 기도생활과 사회봉사 활동이 상당히 적극적인데 반해 안에서의 그분들 생활은 굉장히 폐쇄적인 상반된 관계도 있습니다.

여러해 동안 종교건축을 다루어 오다 보니 어느 정도의 노하우도 생겼습니다만 그런데도 아직껏 계획과정에서 풀어내기가 어려운 문제점들이 적지않게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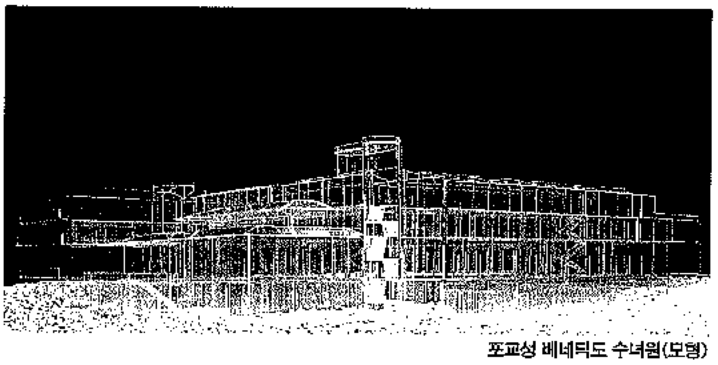
저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작업에 임하고 있으며 종교인으로서의 소명의식 역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믿음대로 건축물이 완성되니까 결과도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최무혁_____작년에는 작품활동도 하시고 작품전시회도 개최하시느라 굉장히 바쁘셨던 것으로 압니다. 서울 경인미술관 후원으로 서울과 대구에서 두차례에 걸쳐 '라스메니나스의 지형학전' 이라는 작품전시회도 갖고 작품집도 발간하셨는데 지역건축계를 대표하는 건축가의 한사람으로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지방에선 보기힘든 행사였기 때문에 저도 관심있게 지켜봤는데 다녀간 분들의 반응과 성과, 그 의의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해 주시지요.

서보광_____아직도 제 자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고 작품집을 발간하겠다고 결정하기까지 상당한 고심을 했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 대구는 보수적 성향이 강하고 폐쇄적이어서 전시회 하나를 열더라도 주변에서 격려보다는 많은 얘기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 상당히 주저했던게 사실입니다. 작년이 저희 동성건축 창립20주년을 맞는 해였고, 제 개인적으로도 지나간 세월에 대한 정리의 기회가 필요했을 즈음에 주최측의 제안도 있었고 해서 내일을 위해 지난작품들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자료들을 정리하다보니 옛날에 한 작품들이 요즘의 시각에서 볼때 상당히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많이 드러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걸어온 길들을 정리해 한권의 책을 만들고, 전시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동성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작은 보답이라도 해야겠다는 심정과 주변의 질책은 아낌없이 받아 내일을 향한 정진과 비전을 약속하려는 다짐의 표시였다고나 할까요.

서울에서의 건축작품전은 가끔씩 접할 수 있지만 지방에서는 대구건축대전이나 학생작품전 이외에는 개인



포교성 베네딕도 수녀원(모형)

꾸르 실료 교육관(내부)

건축작품전이 거의 드문 일이어서 많은 분들이 전시회에 오셔서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따끔한 질책들도 있었지요. 그런 것들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더 나은 작품을 위한 원동력으로 삼을 생각입니다.

최무혁_____제가 보기에 그 전시회가 대구에 상당한 자극을 줬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대구에 있는 건축가들과 건축주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많은 자극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대구지역이 건축적으로 뒤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건축에 대한 일반대중의 관심도가 그 만큼 낮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들 대중들에게 건축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일반 대중 중에는 작품전에 와서 서선생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기회도 있었을 것으로 아는데 그때 어떤 교훈이나 느끼신 점이 있었는지요.

서보광_____개인건축전이란 것이 일반인들에게 얼마나 생소한 것이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술, 조각, 음악, 사진 등의 예술분야들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기회가 있지만 개인건축전의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했나 봅니다. 더구나 전시회 명칭이 '라스메니나스의 지형학전' 이다보니 일반인들로서는 더욱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시회포스터나 팜플렛에는 「서보광 건축작품전」이라고 명시해서 개인작품전임을 알렸던 것입니다.

건축이 일반인들에게 어느정도 예술로서 자리잡고 있는지 회의가 생기던군요. 이러한 오늘날의 건축의 위상은 우리 건축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세월동안 건축활동이 주로 양적생산에만 치우치다보니 - 전부가 그렇지는 않지만 - 일반인들에게 올바른 건축을 심어줄 기회가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이 일반인들에게 올바르게 자리잡고 친근감을 주기위해서는 학교든 사회에서든 우리 건축인들이 적극적으로 다가갈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작은 전시회를 통해서나, 길거리를 걷다가 접하는 작은 건물 하나에서도 참된 건축을 느낄 수 있도록, 건축인 뿐만 아니라 일반대중과도 같이 호흡하고 대화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무혁_____이제 서선생님의 건축관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으면 합니다. 조금전 일반인들이 '라스메니나스' 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라스메니나스' 는 사실 건축전문인들에게도 생소한 것입니다. 전시회나 작품집에서의 '라스메니나스' 가 서선생님의 작품과도 상당한 관계가 있는 듯 싶은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보광_____제가 '라스메니나스' 를 처음 본 것은 약 10여년전에 몇 몇 건축가들과 같이 외국을 여행하면서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프라도미술관에서 였습니다. 라스메니나스는 스페인의 궁정화가인 벨라스케즈의 작품명입니다. 여기서 '메니나스(Meninas)' 는 궁정의 시녀들이란 뜻입니다. (화집을 펼쳐보이며 -하단 그림 참조-) 이 그림에서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이 어린왕녀이고 좌우로 시녀인 소녀들이 조심스럽게 왕녀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화면우측에는 난장이 여인과 남아난장이가 엎드려 있는 개의 등을 발로 차고 있습니다. 전면을 채우고 있는 다양한 인물의 뒷면에는 남녀시종인이 서 있고 또 그후면에는 열린 문을 통하여 계단에 서 있는 인물이 방안을 넘겨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물배치와 방구조는 깊이있는 공간을 나타낼 뿐아니라 변화있는 실내정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림을 그린 벨라스케즈 자신이 이 그림속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벨라스케즈가 그림을 그리는 대상은 벽에 걸린 거울속에 비춰진 왕 필리페4세와 왕비 마리아나입니다. 즉, 왕과 왕비의 초상화를 제작하면서 왕녀와 시녀들이 구경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지요. 작가는 문을 통해 채광되고 있는 실내 분위기를 나타냈고 또한 거울을 사용해 전체공간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 그림은 실내로의 빛의 도입과 거울속에 비춰져 있는 왕과 왕비로 인해서 또 하나의 공간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나타나는 것 이외의 허공, 비어있는 공간이 존재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속에서 의미하는 '비어있는 공간', '빛

전시회 테이프컷팅 광경

라스메니나스의 지형학전

라스메니나스

의 도입', 등을 제 작품과 관련시켜서 작품명으로 인용하게 된 것 입니다.

최무혁_____말씀을 듣고 보니 의미가 굉장히 깊군요. 벨라스케즈의 '라스메니나스'에서 나타난 '보여지는 공간'과 '보여지지 않는 공간', '빛의 도입' 등이 생각이상으로 깊은 의미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영남대 제2사회관에 대해 말씀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서선생님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의 하나가 투박하면서도 친근감을 주는 벽돌색깔과 그에 어울리는 노출콘크리트와 석재, 그리고 중정공간의 도입, 대칭적인 입면, 빛의 도입 등인데 이들 모두가 라스메니나스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도 특별히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는지요.

서보광_____외장 재료로 붉은벽돌을 주로 사용한다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 작품이 붉은벽돌만을 많이 써 왔던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생각, 건강상태를 어느정도 알 수 있듯이 건물의 얼굴 역시 용도나 성격에 따라 어느정도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붉은벽돌은 주로 종교건축이나 학교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많이 써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건물들이 비상업적이면서도 시류를 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붉은 벽돌을 보면 한가지 색이 아니라 여러 가지 컬러가 있어서 컬러선정에도 상당한 계획과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외장재료로 붉은벽돌을 사용한 것은 그 건물의 용도에 맞춰서 선택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대칭적인 입면구성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칭적인 입면을 특별히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몇몇 작품에서 그렇게 표현되어졌을 뿐입니다. 많은 것들이 비대칭적이지요. 공간에 있어서 빛의 도입은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빛의 도입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정이나, 광정, 선큰 등을 이용한 빛의 사용에 있어서 항상 빛으로 충만한 공간만이 활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유념하고 계획에 임합니다. 어떤 공간에는 어둠이 더한 생명을 줄 때가 있지요. 그런 까닭에 적절한 빛과 어둠의 참다운 조화가 이루어질 때 인간이 만든 공간에 더 큰 생명과 활력이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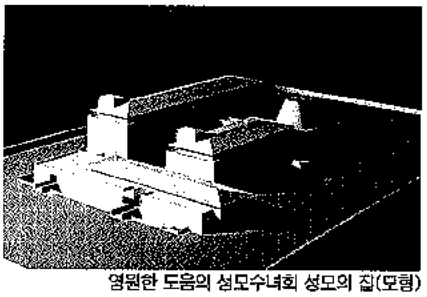
최무혁_____건축에 있어 '빛'을 가장 잘 활용한 건축가로 '칸'을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종교건축에 있어서도 '빛'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 봅니다. 제2사회관의 경우에는 빛의 중요성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 있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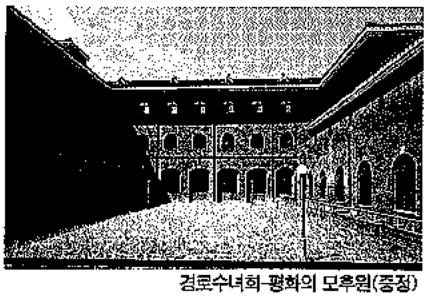
서보광_____아쉽게도 제2사회관에서의 빛의 사용은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이루어진 영남대학교 전문대학원 건물에의 경우에는 다양한 어휘로 빛의 사용을 시도해 보았습니다만, 제2사회관의 경우엔 그림자라는 빛에 대칭되는 요소가 시간이라는 벡타와 어울려 건물내부의 빈공간, 중정에 연출해내는 드라마를 기대해 봅니다. 마당을 지나는 빛과 그림자는 각층을 통하여 수직적인 순환을 거듭함으로써 시간을 알리고, 이것은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특별한 장소로서 특별한 기억을 갖게하는 장치로서 작용합니다.

최무혁_____건물이 대칭적이란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건물자체의 변화보다는 처음부터 빛의 연출을 노리고 계획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서선생님 작품의 평면에서 Void로 처리된 중정과 같은 공간들을 우리 전통건축과의 관계에서 맥을 찾아야 할지 아니면 서양에서 그 원형을 찾아야 할지 그 관계가 궁금하고, 또 서선생님께서 추구하시는 방향이 어떠한 카테고리에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보광_____한옥에서의 마당은 서구식 주택의 마당과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한옥의 마당은 무엇보다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공간입니다. 그것은 서구주택의 거실에 상응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방에서 건넌방을 건너갈 때, 부엌에서 사랑방으로 밥상을 나를 때, 이웃사람이 찾아왔을 때, 바깥으로 드나들 때, 혼례를 치를 때, 큰 잔치를 치를 때 등 모든 활동이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 성모의 집(모형)


경로수녀회-평화의 모후원(중정)

경로수녀회 -평화의 모후원

마당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물론 제 작품에서의 중정의 역할과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비어있으면서도, 공간 상호간의 매개체이자 초점의 역할을 하였으면 하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폐쇄적인 듯 하면서도 개방적인 공간, 개방적인 듯 하면서도 폐쇄적인 공간, 그리고 중정공간의 적당한 열림과 닫힘은 많은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지요. 저는 제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마당들이 한국적이다, 아니면 서양식이다라고 단정하여 구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떤 양식의 차이, 행태의 차이로 구분하여 생각하고 편을 가르는 것은 편협한 쪽으로 흐를 수 있겠지요.

최무혁_____우리 고건축을 보면 많은 중정공간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중정공간을 정적인 공간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동적인 공간으로 보아 정중동(靜中動)의 한국적인 모티브가 담겨져 있는 중정공간으로 보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2사회관에서 측면이 개방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어떤 의미에서입니까?

서보광_____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2사회관의 위치는 학생생활의 중심적 위치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강의동으로써 자기 나름의 정적인 공간성격을 가져야하는 반면에, 다른 왕성한 활동의 선상에 존재하기에 그러한 동적인 흐름에도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중정공간이 어느정도의 폐쇄성과 정체성을 가진다면 중정공간에의 적당한 열림과 닫힘은 활력과 흥미를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최무혁_____중정공간이란 것이 단순히 폐쇄성내지는 단절, 차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의미도 많이 있는 것이군요

서보광_____상대적일 수 있겠지만, 중정을 둘러싼 건물들은 외부공간에 대하여 한편으로 폐쇄적일 수 있습니다. 외부는 선별하여 받아들이고 '내부화된 자연' 으로써 자연에 대해서는 개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보면 한마디로 폐쇄적이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최무혁_____제2사회관의 경우 프로그래밍 단계나 디자인컨셉 단계에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이외에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이 있습니까?

서보광_____제 작업들의 대부분은 도시공간 속보다는 한적한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용자요소에 대한 검토는 당연한 것이고, 프로그래밍 단계에서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것들, 자연적인 요소에 대한 것들이 가장 중요시되곤 했습니다. '자연친화적 건축' 을 추구했다고나 할까요. 이제는 건축이 개발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환경을 우선시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2사회관의 경우엔 건축주로부터 몇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주변 건물과의 형태 및 마감재의 조화, 학생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출입구 배치, 주어진 실들의 향별 배치제약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과 전술한 위치적 특성에 따른 양면성 등에 치중하고자 하였습니다.

최무혁_____조금전에 언급된 얘기입니다만 설계를 하다보면 설계가 끝나가는 과정에서 건축주의 요구에 의해 설계를 다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절름발이 건축물을 만들게 되는데 제2사회관의 경우는 이러한 에피소드가 없었는지요.

서보광_____건축물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건축가나 건축주, 시공자 모두가 좋은 건축물을 - 좋은 건축물에 대한 서로의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 만들고자 하는 생각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기준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이겠지만, 순수 건축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시공적인 측면을 조합하여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건축가의 끊임없는 연구와 끈기, 건축주의 세심한 배려나 시공자의 성실한 시공자세가 잘 어우러졌을 때 훌륭한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트레싱지위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샬트르 성 바오로수녀회, 부산 아동심장센터(전경)

샬트르 성 바오로수녀회, 성바오로 안나의 집(전경)

오운문화재단 청소년수련마을 보람원

땅위에 자리잡았을 때 어떤 것들은 희열을 주는 반면, 좌절과 회의를 안겨주는 것들도 많게 마련입니다. 주로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하거나, 현장기술자의 능력부족 등에 기인한다고 미뤄도 보지만, 모두를 남 탓으로 돌리기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가들이 앞장서서 일종의 의식개혁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나 할까요. 제2사회관의 경우에도 다른 프로젝트들이 그러하듯이 계획과정이나 실시설계, 시공과정에서 설계자의 의도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이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기단부의 노출콘크리트가 벽돌로 변경된 것이나, 측면의 노출콘크리트 격자후레임위의 페인팅 처리, 정교하지 못한 마감처리, 설계도서와 다른 재료사용 등 아쉬운 점들이 있었지요. 미완성된 중정내의 조경과 주변환경을 잘 정리하면 좀 더 좋은 건축물이 될 것입니다.

최무혁_____중정내의 조경은 신경써서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정은 활성화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아주 죽어버리는 공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로, 충남대학교에서도 중정을 도입한 건물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거의 찾지않는 그런 삭막한 공간이 되어버린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건축이란 예술적 특성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실제로 사용되어지는 공간이기에, 건축가뿐만 아니라 전기, 설비, 토목, 조경, 인테리어, 기타 여러전문가들이 건축가의 주도하에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종합예술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야기들도 있지요.

서보광_____일반적으로 건축을 일컬어 종합예술이라고 표현합니다. 훌륭한 건축물은 전기나, 조경, 설비, 인테리어, 토목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공동작업에 의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건축물이 탄생되기까지에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무수히 그렸다가 지우고 다시 그리는 고뇌와 좌절이 연속되기 마련이죠. 또 도면이 완성되어 현장에서 건축물이 준공될 때까지 관계분야 전문가들과 수많은 협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제 종교건축중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포교 성 베네딕도 수녀원 역시 저 개인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고 여러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일궈낸 것으로 그들의 피와 땀이 건물에 배어 있습니다. 특히 성당내부 인테리어의 강마태아수녀님, (주)강남조경, 삼양건설(주) 현장소장의 성실성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최무혁_____문제점 보다는 칭찬을 많이 해 주시는군요(웃음). 저는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서보광_____아무래도 칭찬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어느정도 작품성이 있는 건물일 것입니다.

건축물이 완성되고 나면 설계에서부터 준공때까지의 어려운 문제점들이 눈녹듯이 뇌리에서 녹아버리고 내면적인 희열로 승화되어 좋은 점만 생각케 되나 봅니다.

그 동안 설계, 감리를 하면서 건축주와 설계자와 시공자가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 노력은 해봅니다만 끝까지 노력해도 맞지 않으면 중도에 포기해 버릴 때도 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가 반드시 훌륭한 결과만을 낳았다고 말씀드릴 수만은 없습니다.

최무혁_____이제부터는 서선생님의 개인 신상에 대해 몇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흔히 훌륭한 제자위에는 훌륭한 스승이 있기 마련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서선생님에게 영향을 준 스승이나 건축가가 있으신지요? 아니면 특별히 좋아하는 건축가라도….

서보광_____제가 건축공부를 처음 시작한 모교 교수님들의 가르침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사과정 지도를 해주셨던 서울대 이광노교수님과 영남대 박두용교수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외국건축가로는 처음 건축을 시작할 때부터 F.L 라이트의 작품에 대해 상당한 동경을 느꼈고 지금도 그런 작품을 한번쯤 해보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요즘엔 붉은 벽돌을 자주 만

오운문화재단. 청소년수련마을 보람원(전경)

김천 공단 종합사회복지관 및 강당

지다보니까 시저 펠리의 작품도 주의깊게 살펴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건축계의 많은 선.후배님들의 도움이 있었으며, 특히 故김인호 선생님과 이홍노 선배님의 영향이 컸습니다.

최무혁_____제가 알기로는 서선생님은 '자연과 조화' 라는 의미에서 라이트를 좋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시저 펠리는 우연하게도 제가 3월 27일에 준비하고 있는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생님께서는 작품활동도 하시면서 꾸준히 학문연구를 계속해 학위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아마 국내에 몇몇 안되는 분들 가운데 한분이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학위가 있으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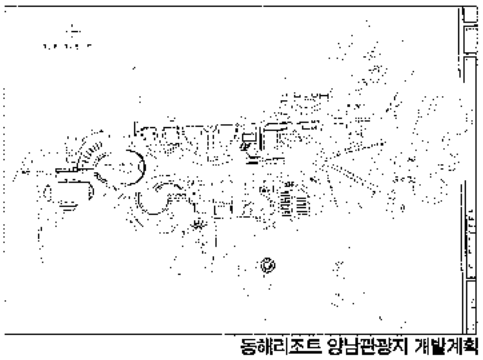
서보광_____대학을 졸업한 후, 건축을 해오는 동안 저 자신 스스로 많은 면에서 부족함을 느껴왔습니다. 제 자신의 능력부족이기도 하겠지만 실무적인 면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부족한 면을 채워보고자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사실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가정의 식구를 가진 사람으로서 대학원에서의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마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연구나 실무 어느 한 쪽에 전념하기가 어려웠던만큼 두쪽 다 부족하다 할지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는 말못할 노력이 필요했었습니다. 그 학위과정은 저에게는 부족함을 채워주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항상 공부하는 자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최무혁_____어떤 지면을 통해 본 기억이 있는데 동양고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신 줄 압니다. 동양고전이 작품과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서보광_____평상시 남들보다 조금 부지런하다 보니 새벽에 일어나 사서삼경을 십수년째 읽어 왔습니다. 동양고전의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건축은 결과적으로 인간이 쓰는 공간이기에 물리적이고 기능적인 해결만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소외되지 않는, 인간의 혼이 담긴, 인간 삶의 중심적인 요소가되는 인본주의(Humanism)적인 건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너무나 부족하고 모르는 부분이 많지만, 건축과 연관하여 생각하면, 건축이 신이 만든 자연 속에 인공구조물을 놓는 일인 만큼 사서삼경중 주역 같은 경우엔 자연의 이치와 그에 거슬리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은 인간이 행하는 가장 큰 창조행위이고 자연과 우주에 얼마나 순응하고 조화롭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생활수단으로서의 건축물보다는 대자연 속의 일부분으로 흡수될 수 있는 자연미가 우선되어야 하기에, 주역의 사상은 그런 면에서 건축과도 관계가 깊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배치계획에서나 평면, 입면 구성시에도 동양사상의 접목을 한 번쯤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그것들은 제 건축에 영향을 미치든지, 그렇지 않든간에 저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며 관심이 가는 공부입니다.

최무혁_____서선생님께서는 대구에서 출생해 이곳에서 공부하고 작품활동도 하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고집스런 지역성' 이란 것이 나타나 보입니다. 또 외국을 자주 여행하시는 분으로서 비교되는 무엇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구지역건축의 특성에 대해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보광_____제가 대구에서 나서, 대구에서 공부를 하고, 대구를 작업의 터전으로 삼고 있지만 의외로 제 작업들은 대구보다는 타지에 더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은 모든 분야에서 혼란의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의 도시는 탐욕의 공간, 즉 욕망으로 가득찬 공간으로 어느 특정한 사조가 이시대를 지배한다기 보다는 재현과 번복, 파괴가 마구 혼재되어 나타난다고나 할까요. 우리나라의 건축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들은 꾸준히 그 생명을 이어왔습니다. 대구라는 어느 특정한 작은 지역의 지역성은 엄밀하게


동해리조트 양남관광지 개발계획

김천 시청사

남재우 정형외과(전경)

보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다른 지역보다 조금은 보수적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지금의 시대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물론 이말이 전통적이라는 것이 지역적인 건축이라고 바로 연결하여 말할 수는 없는 문제이지만, 한국이라는 지역에 맞는 건축을 생각하고 키워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최무혁_____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현대건축에 있어 모더니즘의 실패원인 역시 국제주의적인 성향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성이 더욱 필요해질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우리도 전통에서부터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고 또다른 측면에서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경북대를 비롯해 여러 강단에서 후배들에게 좋은 건축관을 들려주셨는데 최근엔 워낙 바쁘셔서 학교에는 나오시질 못하셨습니다. 이 기회에 건축학도나 건축에 입문하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보광_____꼭 바빠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건축에 한발씩 더 들어갈수록 만사가 조심스럽고 어떻게 보면 말 한마디에도 신경이 쓰이게 되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렇다 보니 강단에 설 때나 후배들에게 어떤 얘기를 할 기회가 생겨도 선뜻 나서지지가 않는군요. 그래서 건축을 인간이 행하는 가장 큰 창조행위이자 깊이있는 예술이라 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누구든 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특별히 신의 능력을 타고난 거장이 아닌 이상, 항상 성실하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을 시작하는 학생들에게는 직접적인 체험을 통하여,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여행을 꼭 권해 봅니다. 저희들이 젊을 때만해도 해외여행은 꿈도 꾸기 어려울 정도였지만 요즘은 기회가 많지요. 그리고 다양한 책자들을 통한 간접적인 체험 또한 꼭 필요하겠지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의 훌륭한 건축물을 보고 꿈을 키우고 자신의 건축에 밑거름으로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건축은 다른 전문분야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분야이기에 젊을때부터 자기체력관리에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건축공부와 병행해서 늘 건강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으로 건강을 보살폈으면 합니다.

앞으로 제가 해보고 싶은 일이라면 여러 방면에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건축적으로 욕심나는 프로젝트들도 아직 많고, 소홀했다면 소홀했던 가정에도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좋은 가장, 좋은 아버지가되고 싶고, 종교적으로도 좀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원초적인 것들이라면, 제 마음 한 구석에는 아직 밝히기에는 이르고,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 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꼭 해보고 싶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 소망이 이루어진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제가 못하면 다른 어떤분이라도 꼭 해주셨으면 하는 일이지요. 자세한 것은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회가 꼭 오길 빌어봅니다.

최무혁_____시간관계상 정리하는 의미에서 끝맺음 말씀을 해주시죠.

서보광_____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들을 종이위에서 다시 접하게 되면 항상 부끄러운 마음과 섣부르게 행동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하느님의 창조물인 우주대자연의 공간속에서 조화로운 건축을 만들기 위해서 소박하고 겸손하게 자연에 순응하는 자세로 연구노력하여 건축전문직을 통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산 천주교회(전경)

지산 천주교회(내부전경)

영남대 제2사회관 **비평 critique**

The Second Social Hall of Young-Nam University

반세태(反世態)의 미학 : 무광택, 무변형, 무기교

Anti-prevalence Aesthetics : Non-brilliance, Non-conversion, Non-artifice

김억중 / 한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Kim Uk-Jo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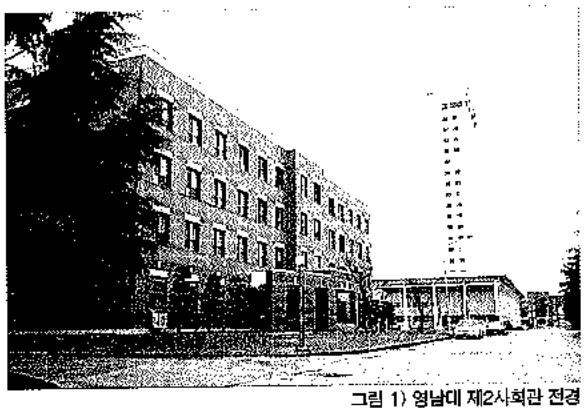


그림 1) 영남대 제2사회관 전경

1. 모든 길은 크로컬랜드로 통하고 있었다

19세기 초엽 북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국가들은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멀리 남아메리카 호온 곶을 우회하여 항해하여야만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다. 때문에 영국을 비롯한 연안국들이 가까운 북대서양 항로를 개척하려고 무척 노력하였다. 영국 정부는 대탐험가 로스 형제에게 항로개척을 의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로스 형제는 기지를 출발해서 몇 시간 항해하지 않아 그만 선수를 되돌려 돌아 올 수 밖에 없었다. 북쪽 해안을 따라 얼마 항해하지 않아 바다가 끝나고 거대한 산이 항로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후 아메리카 연방 정부에서도 피어리 제독에게 의뢰를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여서 단지 그의 보고서에 따라 그 거대한 산 이름을 크로컬랜드(Crockal land)라 명명하고 지도에 올리게 되었다.

이렇게 새로 얻은 영토를 미 연방정부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여 크로컬랜드 탐험대를 조직하고 기지를 출발시키게 되었다. 탐험가들은 처녀지앞에서 환호성을 지르고 정신나간 듯 들뜨고 있었다. 그들은 빙해를 더 이상 항해하기가 어려워 정박을 시키고 도보로 행군을 시작하였다. 몇 시간을 행군하였지만 금방이라도 손에 잡힐 듯 했던 그 산은 도무지 가까워지지 않는것이었다. 그러나 처녀지에 정신을 빼앗긴 대원들은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석양녘을 맞이하였다. 그런데 서쪽 빙원 너머로 해가 넘어가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그들 앞을 우람하게 가로막고 있었던 산이 별안간 자취를 감춰 버린게 아닌가? 그리고 사방이 거칠 것 하나 없는 망망한 빙원으로 트여 있었으니,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도깨비에 홀린 듯 했었을 그들의 모습! 훗날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 크로컬 랜드는 태양빛의 복사에 의한 신기루였다니…

(유익서, "우리들의 축제"에서 재인용)

약속의 땅, 희음의 땅 크로컬랜드! 정체불명의 땅 크로컬랜드! 석양녘이 되어서야 비로소 본색이 드러나는 허무와 망연자실의 땅, 크로컬랜드! 예정된 좌절의 땅 크로컬랜드!

나는 크로컬랜드의 신기루 이미지를 떠올릴 때마다 건축가 서보광을 비롯하여 동시대 건축가들이 다함께 겪어온 질곡의 역사를 생각하게 된다. 돌이켜보건데 우리 근대건축의 여정은 경제개발의 기치아래 실로 숨가쁜 변혁의 세월로 점철되었다.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던으로 다시 해체로 이어지기까지 숫한 건축사조의 이입과 명멸이 반복되어 왔다. 어쩌면 서구 근대건축의 발빠른 변신의 도정을 뒤따라가며 수용과 대응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교훈을 정리하거나 평가하지도 못한 채 늘 허덕여왔다고 한다면 너무 지나친 자학일까? 비평의 거리를 유지할 수 없었던 저간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서구 모더니즘은 대안의 땅 크로컬랜드가 아니었던가?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았으므로 그곳으로 향하는 대열에서의 일탈이란 곧 실패를 뜻했다. 세월이 흘러 거장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대다수가 공유할만한 패러다임이 무너져 버린듯한 지금 대중들도 건축은 패션이라고 말할만큼 문화적으로 숙성(?)되었고 그에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흉내라도 내어야 하는 분위기가 도처에 창궐하기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서 들뜬 대중들은 이제 크로컬랜드야말로 유토피아라도 되는 듯 그리로 향하는 것을 진보로 여기는데 주저함이 없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럴 듯 해보는 아방가르디스트의 재촉이나 유혹이라고나 할까… 집 안팎에는 아무런 저항없이 서구 모더니티를 은유하거나 차용한 기호들이 범람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마다 거리는 세계화의 기치에 걸맞게 때묻은 기억도, 역사도 말끔히 씻어내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 건축가들은 물론 학교 학생들의 작품 속에도 서구의 최신판 형태언어들이 내면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덧씌워진 채 크로컬랜드의 환상은 실험정신의 고취라는 명분으로 설득력있게 포장되어 그 위용을 더해가고 있다. 모든 길은 크로컬랜드로 통하고 있었다.

이것이 건축가 서보광이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는 건축세태의 리얼한 단면이다. 그러나, 크로컬랜드로 향하고 있는 동시대 건축가들의 대열에서 달구벌 동성건축의 대부 서보광의 면면은 아무래도 찾아 볼 수가 없다. 남들이 재기 발랄한 형태와 미적인 감흥에 매달릴 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무광택, 무변형, 무기교의 미학을 고집하며 크로컬랜드의 존재를 끊임없이 부정하려 하고 있다. 이른바 그의 체질화된 반세태 미학의 보수적 성향을 띨 수 밖에 없는 연유가 거기에 있다.

2. 무광택의 미학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가히 현 세태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건축은 르 꼬르뷔지에의 말처럼 "빛아래 숙련되고 정확하고 장엄한 유희"("Le jeu savant, correct et magnifique sous la lumiere")로 충만된 모습이다. 다만 그 본래의 말뜻과는 달리 여기서 빛은 건물을 축복하기보다는 한껏 광택을 내기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있을 뿐이다. 이대로라면 본질은 눈부신 광택에 철저히 가려져 더욱 드러날 수가 없다. 그 빤질빤질한 광택의 위력에 힘입어 당분간 크로컬랜드에는 석양녘이 찾아오지 않을 전망이 유력해 보인다. 광택은 문명의 상징이요, 진보의 기표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우리 세대에 도시의 광택내기를 다 끝마치기라도 할 것처럼 '역사'도 서슴없이 밀어내고 갈아치우기 위해-길이 후손에게 물려줄 영광된 조국의 모습이 바로 이것인가?-개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광택은 후손을 생각하게 하는 한치의 여유도 허락치 않는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광택이 문화라는 편리한 옷을 걸쳐입고 설쳐댈 때이다. 광택을 거부하고 소박한 기억에 연연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촌스런 사고방식이라고 수치심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는 "지금 이대로가 최고"라고 설득하면서 왜곡된 모더니티의 편안함과 세련됨에 안주하도록 세뇌한다. 그리하여 건축은 껍데기의 변화만을 부추겨, 거리엔 '인테리어' 풍(?)의 캐쥬얼한 화싸드가 광택과 더불어 세련됨을 뽐내면서 호들갑스럽게 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사정은 그러하건만 서보광의 건축에는 애써 공들인 광택내기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자기 주장을 유보한 채 마냥 덤덤할 뿐이다. 정교하거나 화려한 디테일도 없으며 값비싼 재료의 남용은 더더군다나 없다. 그저 건강하기만 하면 그뿐이다. 그러므로, 집의 존재를 드러내되 너무 튀지 않게 하려는 배려는 광택으로 현란하기만한 이 시대에 커다란 덕목이 아닐 수 없다. 이 모두가 크로컬랜드의 자로 재면 분명 모자람일 수 있을 터이지만 세태의 건강을 우려하는 시각으로 보면 미덕이라고 해야 옳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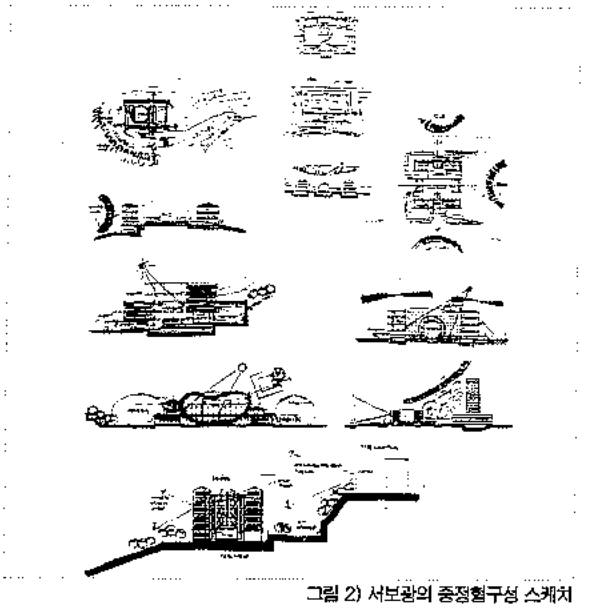


그림 2) 서보광의 중정형구성 스케치

그의 광택없는 건축을 그저 평범하다고 말하는 것은 일견 그에 대한 모독으로 비쳐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무광택의 미학은 그 스스로 광택을 숭배하는 세태에 저항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한 전략의 실천인만큼 백번 옹호되어야 할 건강한 가치로 평가해야만 한다.

3. 무변형의 미학

외부로부터 밀려드는 이미지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이들은 별다른 고민도 없이 대세를 쫓아 편하게 옷만 갈아입으면 되었다. 또 어떤 이들은 갈피없이 어제했던 말들을 쉽게 부정하고 오늘도 어차피 내일의 부정을 위해 복무하고 있다. 요컨대 최신판 서구 사조의 어휘와 기법만을 차용하여 상업적 인기에 영합하기 쉽기만 한 오늘날의 건축세태는 체질적으로 가벼울 수밖에 없는 듯하다. 그 틈새에서 불안을 대변이라도 하듯이 진정한 감흥보다는 쎈세이션을 갈구하며 작가의 변신을 미덕으로 치부하고 있는 세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외부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이유로 작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작가의 능력과 성실성을 가늠케하는 척도가 아니라 오히려 시대착오적이라는 평가를 받기 십상이다. 한우물 파기는 이제 클라식한 장르에 편입된지 오래된 모양이다.

그러나 포교 성 베네딕도수녀원 작품이래 최근의 영남대 제2사회관(그림 1)과 한티 피정의 집에 이르기까지 서보광의 행보를 따라가다 보면, 변신은 커녕 지루하리만치 중정형 구성의 한쪽 방향을 고집하며 무척이나 더디게 움직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대세를 따라 쉽게 편승할 수 있는 길이 지천으로 널려 있건만 그는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불순(?)하게도 비동시적인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 중의 하나이다. 건축가의 생존전략으로 치자면 다양한 유형의 작업방식에 비해 경쟁력도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무모하게 보이기 십상이다. 요컨대 순발력과 재주만을 미덕으로 여겨, 형태를 유통과정에서의 소비재처럼 마구 쓰고 버리는 세태를 가로지르며 하나만의 유형을 고집하여 그 뿌리로부터 형태 생성에 집착한다는 일이 상업적으로 얼마나 비효율적인 것인가? 어쩌면 탈진을 전제로 하는 소모전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라고 그것을 모를 리 없다.

그러나, 모두가 크로컬랜드의 신기루를 찾아 떠났을 때도 그렇게 그는 허둥대지 않고 자신의 궤적을 쉽게 일

그림 3)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중심형 교회 스케치

탈하지 않은 채 외길을 올곧게 걸어 온 셈이다. 그렇다고 작업의 추동력이 미진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다만 한 번 중정형이면 영원히 중정형인양 그는 끈질기도록 유형의 천착에 매진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런 연유로 인해서인지 그의 유형학적 탐구를 보여주는 스케치를 보면 마치 르네상스 시기의 건축가들의 학구 정신만큼이나 치열함을 느낄 수 있다.(그림 2)

그렇다면 그는 어떠한 기틀을 잡아 유형의 천착에 몰입하고 있는 걸까? 그는 기존 언어에 대한 해체적, 체계적, 전면적 전복을 시도하는 것일까 아니면 발전적, 비판적, 부분적 계승에 목표를 두고 정진을 하는 것일까?

전자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이태리 초기 르네쌍스 시기 건축의 중심테마에 나타나는 중심형 공간구성이 있다. 당시의 건축가들 스케치를 보면 허구헌날 중심에 원 또는 정다각형을 그려놓고 거기다 주변의 요소를 반복하여 매어다는 형식의 평면이나 볼류메트리를 수도 없이 그려놓고 있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필치로 보아 중심형 공간이라는 명제는 적지않은 강박관념으로 자리했던 듯하다. 이처럼 기존의 장방형 평면의 방향성이 강조되었던 공간구성에서 중심형으로의 전환은 단순히 외형상의 변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궁극적으로는 현실의 토대가 소위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면서 공간의 구조도 그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이른바 신 · 구 패러다임의 대체와 궤를 같이 하는 유형의 전복이었던 것이다. (그림 3)

후자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안드레아 팔라디오가 해당된다. 그는 유형을 탐구하되 미래의 수요에 대비하려는 구도 하에 로마시대 주거유형의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무수한 변형을 시도해보면서 실현가능한 경우의 수를 검증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그는 무수히 많은 로마주거 유형을 고집하며 대지조건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각양각색의 훌륭한 작품을 남겼던 것이다. 그의 작품을 보면 하나의 유형학적 상상력과 그에 따른 생산성에 감탄하게 된다. (그림 4)

그런 측면에서 현단계에서 보여지는 서보광의 작업방향은 분명 후자의 경우에 가깝다. 아직은 중정형 구성에 우수히 담겨있는 잠재적인 표현 가능성을 탐색함으로써 풍부한 건축형태 언어를 실험하는 과정에 매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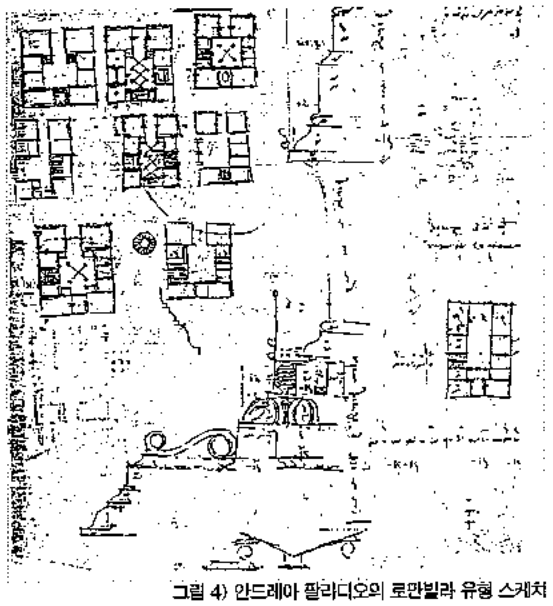


그림 4) 안드레아 팔라디오의 로만빌라 유형 스케치

다른 한편으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면 그가 그토록 유형의 천착에 매달리고 있는 의미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필리베르 드 로름(Philibert de l'orme, 1510년경~1570)의 건축이론서를 보면 '좋은 건축가'와 '불량한 건축가'에 대해 서술하면서 좋은 건축가가 지녀야 할 중요한 덕목을 역사에 대한 건축가의 인식 여부와 그에 따른 작가적 태도에 집약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즉, 모든 기존하고 있는 유형에 대해 - 그것이 대자연이든, 사람이든 보다 밀접한 과거의 훌륭한 건축물이든 간에 - 건축가 자신이 그의 이성과 감성을 그 곳으로 향하여 개방하고 있는가 하는 점과 나아가서는 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의 연속성 안에 자신을 정위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매우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다.

건축가 서보광의 작품이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특정 유형의 지속적인 탐구를 통한 무변형의 미학에서 비롯된다 할 것이다. 동일 유형의 해석이 반복된다는 이유로 그의 작품이 외견상 시대착오적이라고 한다거나 진부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 그것은 오히려 참다운 유형의 천착없이 차용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세태를 거슬러 역사적인 정위의 일환으로 평가해야 옳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제 중정을 중심으로 하는 유형의 지속적인 천착을 통해 그가 다다라야 할 목표는 명백하다. 작품이 곧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할 때, 시험의 반응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작품을 통해 얼마만큼 자신의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느냐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유형을 완숙하게 재현, 반복해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얼마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 크게는 체계의 개혁으로부터 작게는 체계의 변형에 이르기까지 일탈하여 자기세계를 구축하느냐가 관건이라는 뜻이다. 그럴 때 유형의 탐구는 그만의 '토착성'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인 동시에 '세계성'에 합류할 수 있는 창조적 쉬프트로 작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그의 작업이 유형의 전복을 통한 새로운 전형의 창출로 이어질지 아니면 기존 유형이 지니고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더욱 더 풍부하게 드러낼 것인지 그 미래진행형의 추이가 자못 기대되는 것이다.

그림 5) 필리베르드로름의 건축가 이미지 스케치

4. 무기교의 미학

정보가 지천으로 널려 있는 요즘 건축가의 중요한 덕목은 창의력과 상상력보다 순발력과 기지로 대체되어 가고있다는 인상이 짙다. 건축형태의 생산주체여야 할 건축가가 어느 사이 정보로 가공된 형태를 단순히 차용하는 소비자로 그 자리를 바꾸어 가고 있는 현실이다. 창의보다는 기교가 존중받는 세태인 것이다. 각종 재료, 시공기술의 생산과 소비도 예외가 아니어서 기술로부터 비롯되는 서정성보다는 다양한 기교의 몰입에 가치를 두어 무슨 형태든 자유로운 파격과 유희가 가능하다는 신념이 건축동네에 만연해 있다. 이른바 기교 만능주의라는 또하나의 크로컬랜드가 그 위력을 키워가고 있는 듯하다.

세태가 이러할진대 서보광의 작품은 외견상 요즘 잘 나가는 하이테크 건축과 결별한 듯해보인다. 날렵하고 투명한 경구조가 대종을 이루는 것과는 달리 그는 무겁고 폐쇄적인 중구조를 선호하고 있으며 표현방식에 있어서도 무기교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의 FM같은 개념스케치(그림 2)들을 보라. 세부설계에 있어서도 가능한 복잡한 기교를 요하지 않는 디테일을 그릴 뿐이다. 그는 특별한 사연이 없는 한 전통적인 조적조의 방식만을 고집하며 그 안에서의 하이테크를 이뤄내려는 노력을 묵묵히 하고 있을 뿐이다. 그는 작금의 하이테크 건축을 특정사조를 지칭하는 개념처럼 여겨 우리시대 만의 전유물인 듯한 착각에 빠져있는 세태에 나름대로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어느 시대건 당대의 물적, 정신적 조건내에서 하이테크란 늘 존재했던 법이라고 믿는 편이다. 그는 기술은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어서는 안된다는 본질을 체질적으로 깨달은 건축가인 것이다. 그는 풍부한 수단을 동원하여 기교에 치우치는 건축을 추구하기 보다는 오히려 수단이 궁핍했던 시대를 상기하는 자세로 재료와 기술의 제약조건과 같은 문제의 근원으로부터 실마리를 풀어가는 쪽에 승부를 걸고 있다. 그는 그것이 오히려 가장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상상의 질료〉임을 믿고 있는 것이다. 건축가 서보광의 반세태 미학은 바로 그러한 수단의 내핍 또는 절제에 기초하고 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과제는 무기교의 미학을 고수하면서도 나름대로의 완성도를 유지해내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기교를 부리다만 형상도 금물이지만 무기교의 논리를 끝까지 펼치지 못하고 적절히 타협하는 데서 오는 어설픔도 경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5. 크로컬랜드에는 산수유가 피지 않는다.

서보광의 작품 포교 성 베네딕도 수녀원에 갔던 날, 뒷마당에는 산수유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터진 대롱마다 매달린 노란 꽃은 비록 가냘프고 날아갈 듯 여리지만 군집을 이루어 비로소 장관을 드러내고 있었다. 겨우내 잎과 열매가 모두 소멸된 여린 나뭇가지에 어떻게 저런 생성의 비밀을 담고 있었던가. 기실 아름다움을 유보하고 추위와 매선 바람을 이겨낼 수 있기까지 그 건강의 내력은 무엇일까? 겨우내 그 모습은 흡사 서보광의 건축을 닮지 않았을까 싶다. 무광택, 무변형과 무기교를 고집하며 겨울을 저항하였으니 말이다. 그의 반세태 미학은 곧 자생의 미학이었던 셈이다. 서보광은 침묵으로 말한다. 크로컬랜드에는 산수유가 피지않는다고… 아! 불임의 땅 크로컬랜드여!

1. All roads lead to Crockal land

In the early 19th century, nations in the North Atlantic, in order branch out into the Pacific, had to sail as far as Cape Horn in South America. The Ross brothers, known for their daring expedition, were hired by Great Britain to explore a new route to the Pacific, only to return after a few hour's sail. It was because of the colossal mountain that blocked their way at the northern end of the sea. A few years later, the Americans asked Admiral Perry for the same purpose, but was also in vain. From Admiral Perry's report, this strange mountain was then named 'Crockal land'.

After gaining this mystical land, the American Government set out a full-scale exploration. Explorers were eager to conquer this virgin land, and as an iceberg made the navigation impossible, began to march by foot. But as time passed, the mountain didn't seem to get any closer, which the obsessed explorers failed to notice. Only when sunset came did they understand the whole situation. Their destiny, the gigantic mountain just vanished into thin air, and left the explorers baffled by the view of endless plain. It was later proved that the mountain was merely a mirage created by the radiation of the sun…

영남대 제2사회관

(excerpted from Our Festival)

Crockal land, either the promised land or the land of death, reveals itself only in the time of dusk. It is a land destined for discouragement of the will.

The image of Crockal land always remind me of the history our Korean architects passed through. The history of Korean modern architecture was that of rapid and enormous changes. Various styles from the West, from Modernism to Post-Modernism to Deconstructivism, had repeatedly invaded into and withdrew from this land. It wonders me whether it would be an unjust self-torment if we consider this as a history of total chaos, by absent-mindedly catching up with emerging styles, impotent of any accommodation or opposition, not to mention regulation and evaluation. Notwithstanding our failure to attain any critical distance, the Western Modernism was our land of choice, in other words, our Crockal land.

No one dared to suspect this highway of advancement, and any deviation from it was considered a failure. This is true even today, when the majority of people have culturally matured(?) to the level of where they consider architecture a kind of 'fashion.' In a time when a basic paradigm is lost, the excited crowd are single-mindedly running towards the Crockal land, considering it the utopia of our era. Perhaps it could be called the temptation of the Avant-Gardists... to be seeking the total wash out of every memory and history. This tendency, which can be found among both the architecture practitioners and schools, is all the more prevailing with the nominal cover with the title of 'daring experiments.' All the roads certainly lead to Crockal land.

This is today's situation, which Suh Bo-Kwang, one of Korean contemporary architects, the executive of DongSung Architects, faces. But his name is nowhere to be found in the list of the major flow towards the Crockal land. When exuberant skills and forms are the deciding factor among other architects, Suh is continuously objecting the Crockal land, maintaining his own aesthetic of non-brilliance, non-conversion, non-artifice. This aesthetics of anti-prevalence can thus only be considered conservative.

2. The aesthetics of non-brilliance

Most architecture of today's prevailing style, as in the definition of Le Corbusier, are "le jeu savant, correct et magnifique sous la lumiere." Only this light of benediction has degraded into a tool of embellishment today. The truth is buried under the dazzling shine. This brilliance would surely postpone the sunset in this Crockal land, for light, shine, brilliance is the dominating symbol of civilization and development in this e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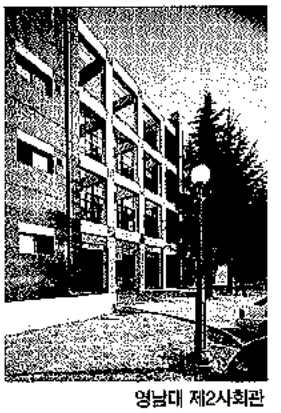
We are lightening the city, considering it an advancement, as if we have to finish this task in our generation, and discharging every 'dust', even history, on its way. This act of lightening is even executed with the comforting title of culturization. This results in the devaluation of any retrospective memories, reproaching it as falling behind the times. People are tamed to consider "the best way is the way it is." This tranquility and elegancy of the distorted modernity is reified in architecture as extravagant envelopes, the brilliant facades.

This sort of brilliance is hardly noticeable in the works of Suh. It's as if he withholds his own assertions. There are no subtle or splendid details, and, of course, no extravagant use of expensive materials. There are only traces of healthiness. These are certainly shortcomings in the apparatus of the main current towards Crockal land, but in the eyes of those who are concerned about the serious illness of this age, are a good sign of health. It would be unjust to call this non-brilliance simply characterless.

3. The aesthetics of non-conversion

In a time of invading flow of images and information, some architects chose to the easy way to change their crust, and others rejected yesterday's concepts, made today's notions, only to discard them tomorrow. The Korean contemporary architecture, commercially importing the forms of recent Western styles, can only be ultimately light. In the flow of ephemeral forms, an architect's insistence on constant style is only marked anachronistic.

But following the works of Suh, from the St. Benedict Convent to the Second Social Hall of



영남대 제2사회관

YoungNam University and Hanti Catholic House, we cannot find any transformation of styles. Instead, we are presented with constant, even tiresome, form of atrium. He is one of the violators of current flow, a contemporary insolently dreaming an uncontemporary dream. As for the survival of an architect in a world of keen competitions, his strategy seems to be reckless. It can be said that when everyone else left for the mirage of Crockal land, Suh calmly chose to conserve his own way. This does not imply that his volition was weak. Once he has decided on the form of atrium, he is continuously exerting himself on the form of atrium, that can be expressed as his persistence in type. The sketches which show his persistence, its energetic will can even be compared to those of Renaissance architects. (pic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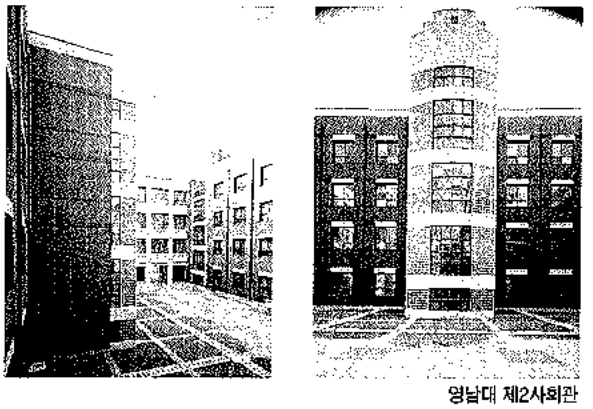
The next question, then, is what makes him persist in certain types? Is he trying a deconstructive, systematic, complete subversion of existing architectural languages, or is he constantly advancing to accomplish a developmental, critical, partial succession of them?The former tendency can be found in the centralization of space composition in Renaissance architecture. The transition from the obsessive rectangular composition to its centralized one is not just a transformation in architectural forms, but implies the change of the bases of human thought from God to mankind. The latter can be traced in the works of Palladio. He has worked on a type but sought various alternative forms of Roman housings to meet future requirements of that field. Every single pieces of his works shows the endless imaginative thoughts on types and the productivity derived from them. In this view, Suh's works can, without doubt, be classified to the latter. He is continuously seeking to uncover the expressive latency and the various architectural languages in the composition of atriums. (pic 4)

Another point is the valuation of his persistence in style itself. The theory of Philibert de l'Orme discriminates the 'good' architect from a 'bad' one in his perception on history and the resulting attitude of the artist. (pic 5) It is important for an artist to be opened to any kind of types-be it nature, mankind, or precious architectural heritage-and further more, to position himself in the continuous line of time from past to present to the future. The healthiness in Suh's works come from his aesthetic of non-conversion, from a persisting research on a certain type. His continuous adherence to the atrium should now be the criterion of his own identity. Whether he would create a new type subverting the old one, or discover the potent characteristics of the existing type, we should see.

4. The aesthetics of non-artifice

With the overflow of information, the required aspect of an architect seems to have changed from inventiveness and imagination to wit and quickness. This is also true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construction and material manufacturing, where the poetry of technology is overshadowed by formal amusements. The search for exploitive technical tricks is another sign of our Crockal land.

And again, Suh seems to be totally disregarding today's high-tech extravaganzas. Instead of the light, shining, transparent materials that are in general use these days, Suh's works are using heavy, concrete materials by the principle of non-artifice. His conceptual sketches (pic 2), or even the plan for details, are without complicating technical sleight of hand. Without special demands Suh still uses bricks, searching for the so-called high-tech in the old method. The expression high-tech is used as if it is our exclusive, privileged technology, but Suh believes that every era, within its own technological and spiritual constraints, has looked for and accomplished high-tech. He is one of those who truly understand that technology cannot be an end in itself. The abundance of new skills has not penetrated Suh's work, which, retrospective to the times when the demands for technique were unfulfilled, takes as its starting point the basic problems of architecture, such as the limitations of materials and technology. (pic 6) He understands that this is the basic and ultimate material of imagination. His aesthetic of non-artifice is based on the shortage or temperance of technological skills. If his aesthetic of anti-prevalence, that is non-brilliance, non-conversion, and non-artifice, can be compared to the flower in winter, sustaining the blizzard waiting for a time to bloom, it can be said that his aesthetic also is that of self-growth.



영남대 제2사회관

경기 체육고등학교

Kyeonggi Gymnasium High School

안길원 /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Ahn Gil-Won

형태 기본계획

경기체육 고등학교 형태계획의 기본은 체고가 가지는 특수성의 조화있는 반영에 두어, 꿈 · 이상을 상징하는 수직선과 협력 · 공동체 생활을 나타내는 수평적 요소들을 노출된 골조, 띠창, 오픈 회랑 등의 형태언어로 형상화하고 삼각형, 원형 등의 형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강조와 조화의 형태요소로 사용하였다. 본관 및 종합체육관은 독립된 단위 기능을 갖는 교실, 체육장, 관리지원실, 위생보건실, 식당 등을, 중정을 중심으로 연속된 복도에 끼우는 형태 요소로 사용하여 매스에 변화를 주고, 표면의 색과 질감, 동일 모듈의 창과 그리드 패턴으로 통일성을 꾀하였다. 기숙사동은 남자기숙사와 여자기숙사가 코치숙소를 중심으로 90°각으로 대칭되는 형태를 취하여, 거주기능이라는 본질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요란한 강조 요소를 배제하고 간단하면서도 각 실기능에 잘 부합되는 파사드 및 색, 재료를 수용하였다. 구기체조관은 노출된 골조와 피라밋 형태의 천창을 통해 메시브한 체육관 이미지에 변화를 주고 도옴 형태의 지붕으로 수직 요소들을 흡수하였다. 관사는 중정을 중심으로 ㄷ자형의 배치를 수용하였고 옆 건물인 구기체조관의 지붕 및 벽의 형태 구성요소를 반영하므로써 조화감을 꾀하였다.

본관 및 종합체육관 배치계획

종합체육관과 본관은 중정을 사이에 두고 오버 브릿지로 한 덩어리로 묶음으로서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내 · 외부 공간의 다각적인 연결기능을 형성하였다. 건물로의 진입은 보행자와 차량이용자가 구분된 경로로 접근하여 하나의 입구로 이루어 보차분리와 관리의 용이성을 모두 추구 하였고, 운동장의 단축에 평행하게 건물의 장축을 배치하여 일체감을 형성하였다. 또한 대지의 고저차를 이용하여 식당 및 주차장을 계획함으로써 토지 이용효율을 증대하였고, 현관-홀형복도-중정-홀형복도-옥외 정원으로 연결되는 내 · 외부 공간의 상호 침투와 연속성으로 공간 경험의 질을 높였다.

기숙사동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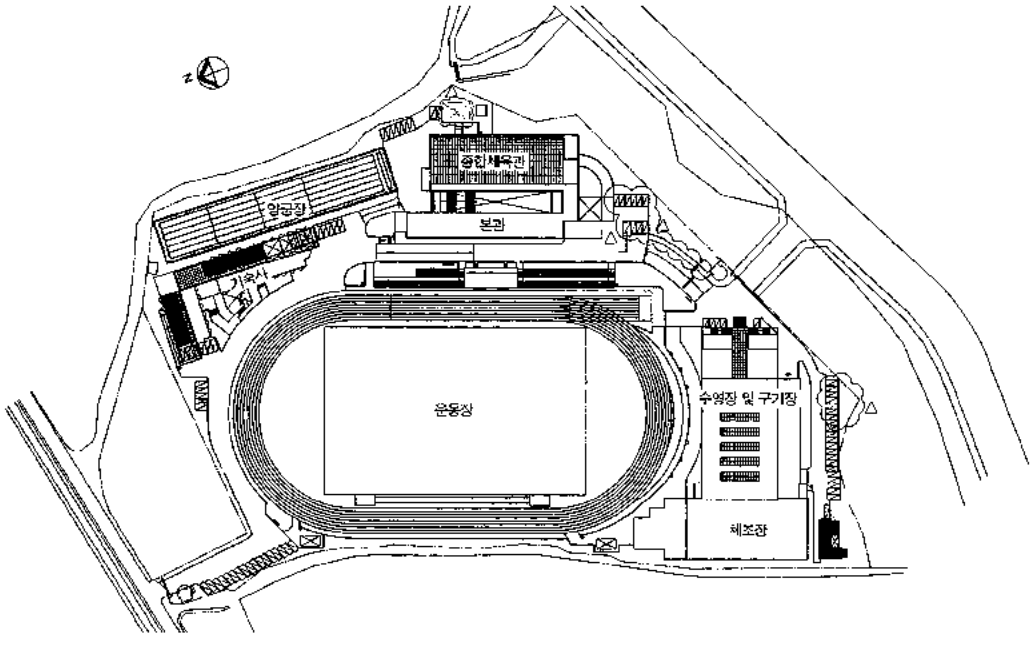
기숙사는 개실의 복합체로 인식, 주거기능의 편리성, 개실의 프라이버시, 관리지원 기능의 효율적 구성을 전제로 하여 대지의 형상에 따라 앙궁장과 평행하고 운동장의 장축에서 약간 기울어지게 건물의 장축을 정하여 대지내 주도로와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여자기숙사와, 남자기숙사 및 코치숙소로 진입 동선을 양분하여 분리된 현관을 설치하였고, 인접한 10m도로로부터의 완충공간으로서의 성격과 옥외 휴게 기능을 함께 수용한 진입광장을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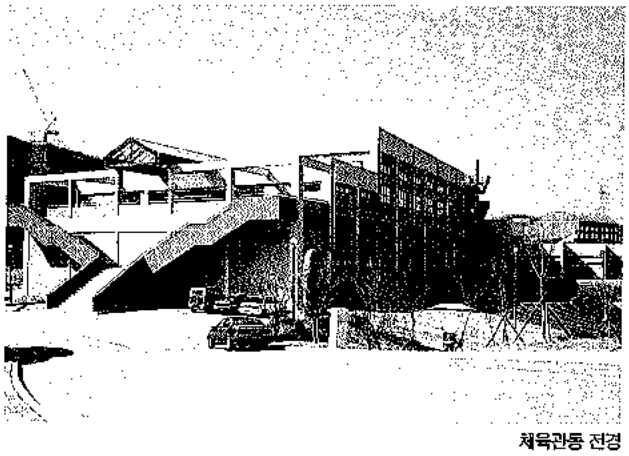
조망과 채광을 고려하여 향이 안 좋은 서측과 북측에 공용공간을 유도하였고, 내부 공간의 보호를 통한 주거 기능 확보를 위해 내외부 공간의 상호 침투를 억제하는 공간을 배분하였다. 남자기숙사와 여자기숙사 사이에 물리적 차폐인 벽체와 더불어 심리적 차폐인 코치숙소를 겸하여 입체적 완충공간을 형성하였다.

건축개요

대지위치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30-1번지 외 23필지
대지면적	40,398.00㎡
지역지구	자연녹지 지역
건축면적	8,018.18㎡
연 면 적	21,206.16㎡
건 폐 율	19.85%
용 적 률	45.88%
규 모	본관동 - 지하2층, 지상4층 체육관동 - 지하 1층, 지상 2층 기숙사동 - 지하 1층, 지상 5층
구 조	본관동 - 철골조+철근콘크리트조 체육관동 - 철골조+철근콘크리트조 기숙사동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본관동 - 화강석+석재뿜칠 체육관동 - 외단열 시스템 기숙사동 - 외단열 시스템
감리담당	김인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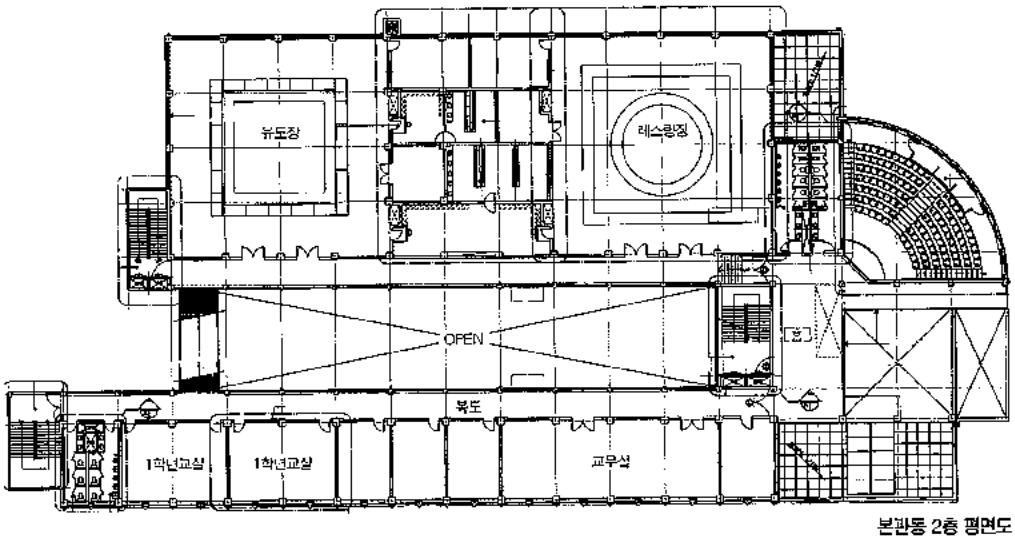
본관전경




체육관동 전경

기숙사동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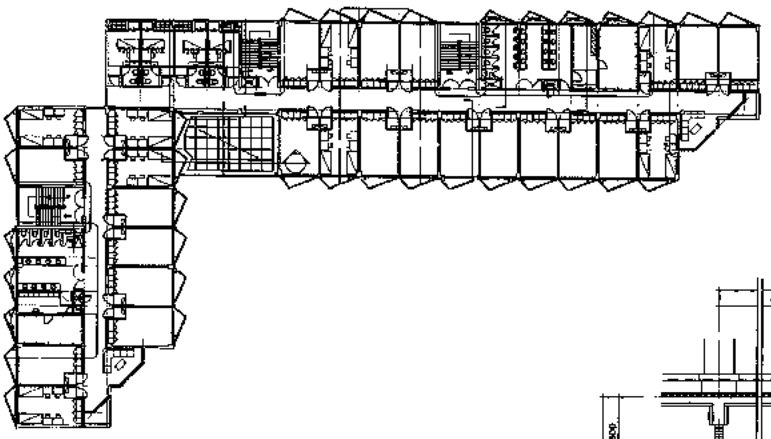
체육관동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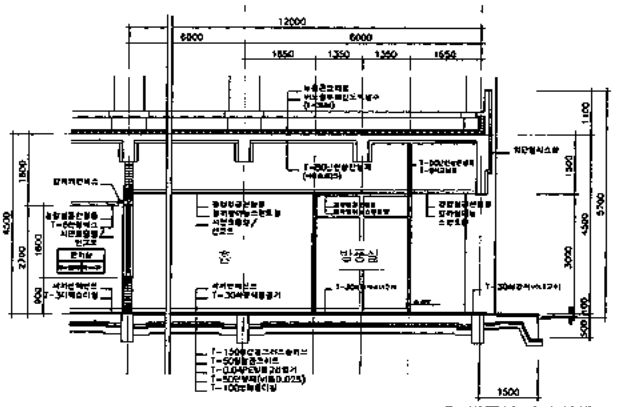
본관동 2층 평면도

본관과 종합체육관 사이의 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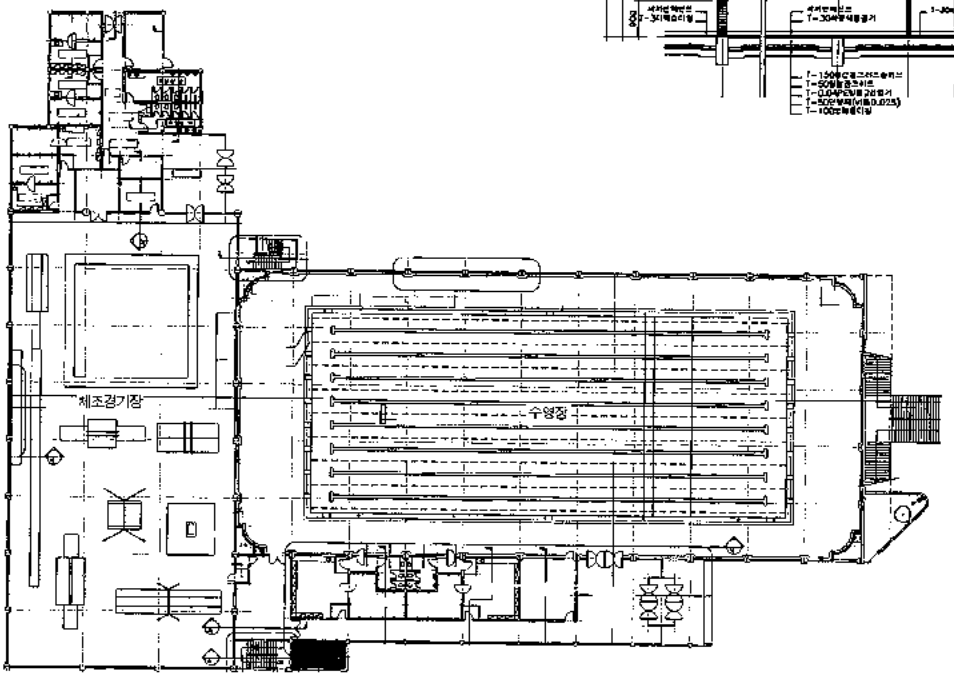
체육관동에서 본 학교전경



기숙사동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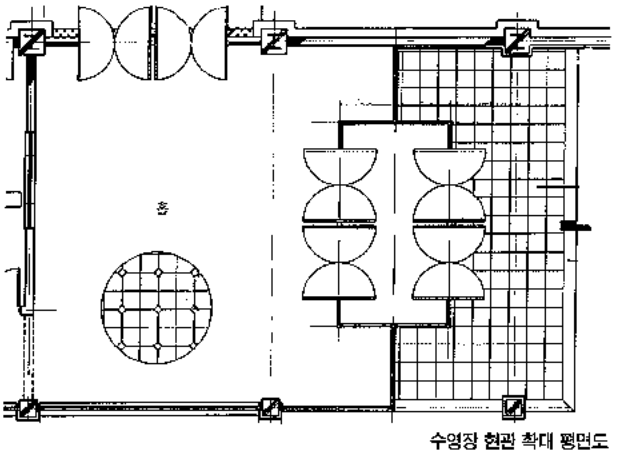


홀, 방풍실 단면 상세도



체육관동 1층 평면도

조감도



수영장 현관 확대 평면도

영스포렉스
Young Sporex

(주)희림건축
Designed by Hee-Rim Architects & Engineers

차를 타고 경인 국도변을 달리다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문화적 상징물. 이번에 개관한 영스포렉스는 극장, 식당, 체육시설 등을 고루 갖춘 레져문화 여가시설로서, 지역 주민들을 문화공간으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일 수 있도록 계획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서울과 인천을 잇는 35m도로에 주접근 방향을 설정하여 지역주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건물이 시각적으로 부각되도록 하였으며 활성화된 성격의 주 진입부와 차량간의 명쾌한 동선 분리를 꾀하였다. 또한 전면부의 공개공지는 다양한 외부공간 연출을 위해 조경시설물 계획과 적극적인 옥외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다양한 기능수용에 따른 효율적인 공간구성을 위해 각기 다른 기능과 동선을 자연스럽게 접합하고 분리하여 공간의 변화감과 가변성을 도모하여, 1층과 2층의 층별 레벨을 이용한 연결 공간을 둠으로써 내부동선의 연계를 자연스럽게 하였다. 2층 로비에서 동선의 집약을 고려하여 시설별로 출입구를 분리하였고, 3층 및 4층으로의 수직동선은 엘리베이터로 수용토록 하였다. 4층 극장은 무대 및 음향, 조명시설 등을 고루 갖추었고, 6층 수영장은 2개층을 오픈하여 자연광이 흘러들어오게 계획하였으며, 유지 관리 측면에도 유리하게 하였다.

건물의 구성과 매스는 강한 기하학적 형태의 대비로 역동성과 생동감이 넘치도록 구성하여 문화시설이 갖는 기념비적 표현성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역동적인 타원형과 점진적인 흐름의 스카이라인으로 원과 선이 조화를 이루고 하부에 안정적인 색조의 조화로 면을 구성하였다. 외장재는 스포츠센터의 특수성을 살려 현대적인 감각을 유지하도록 상부는 알루미늄 복합패널, 하부는 파스텔 복층유리를 사용하였다.

전체적으로 각각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수용하면서 시각적 중압감과 지루함을 배제키위한 연속 및 분할을 통해 단순하면서도 경쾌한 정직성을 건물에 부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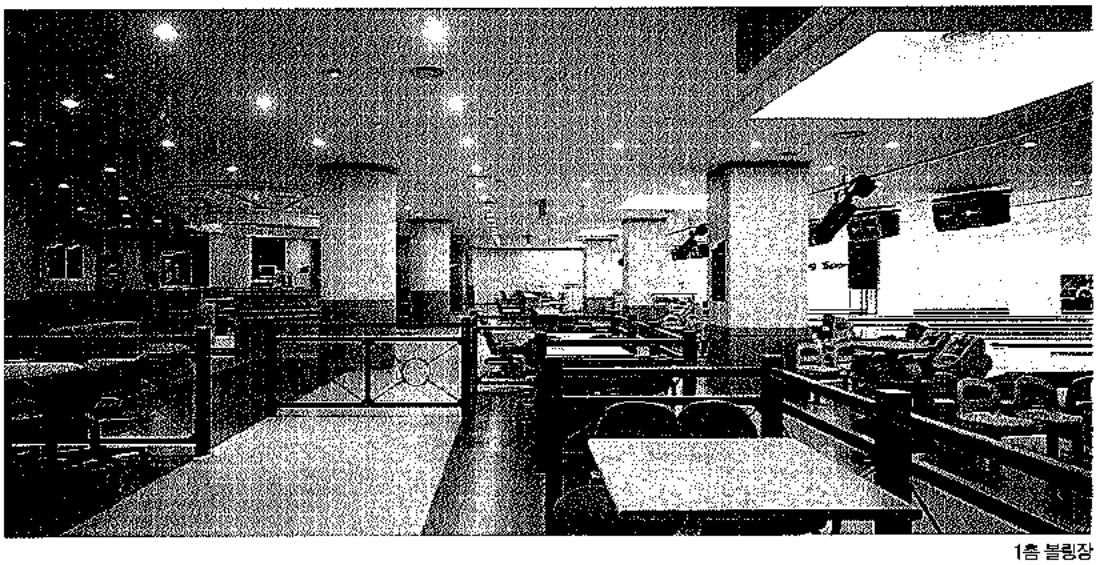
끝으로 이 건축물이 부천시민의 건강과 문화생활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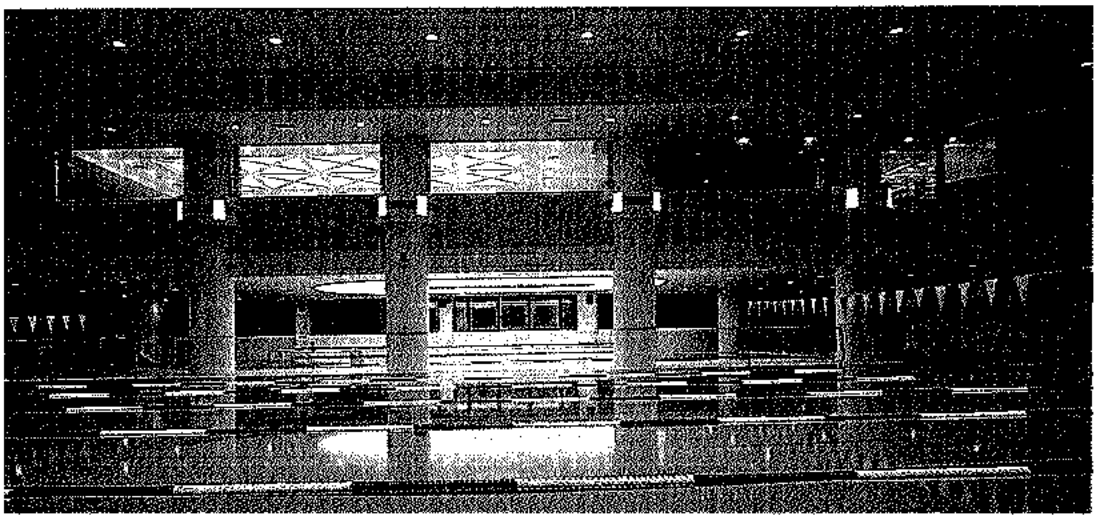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554외 2필지	용 적 률	334.26%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도로현황	전면 35m도로, 측면 10m	주차대수	147대
용 도	운동, 업무, 근생, 관람집회시설	구조설계	서진구조연구소
규 모	지하 3층, 지상 9층	기계설비	(주)다운엔지니어링
대지면적	3,378.50㎡	전기설비	(주)대일이엔씨
건축면적	2,015.51㎡	시 공	금강 종합건설
연 면 적	18,570.08㎡	설계기간	1993. 11~1994. 4
건 폐 율	59.66%	공사기간	1994. 9~1996.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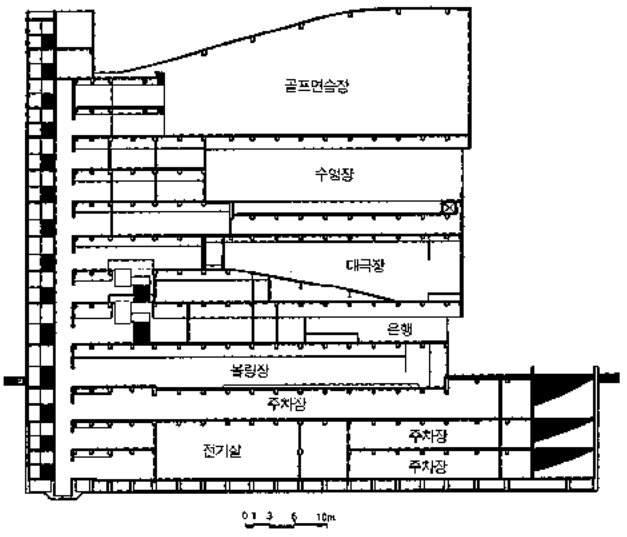
남동측 전경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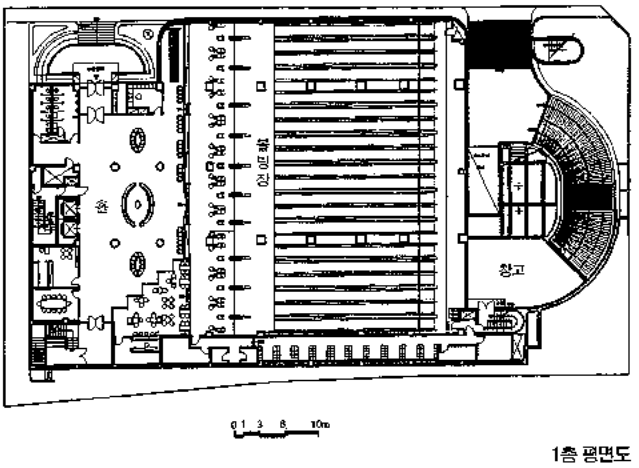
1층 볼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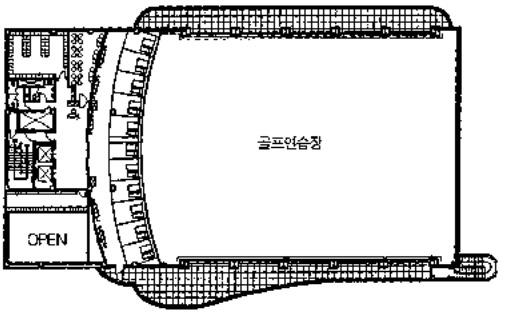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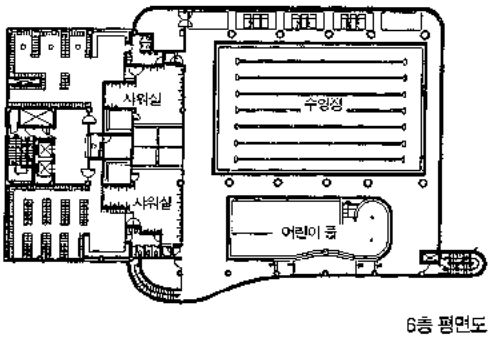
남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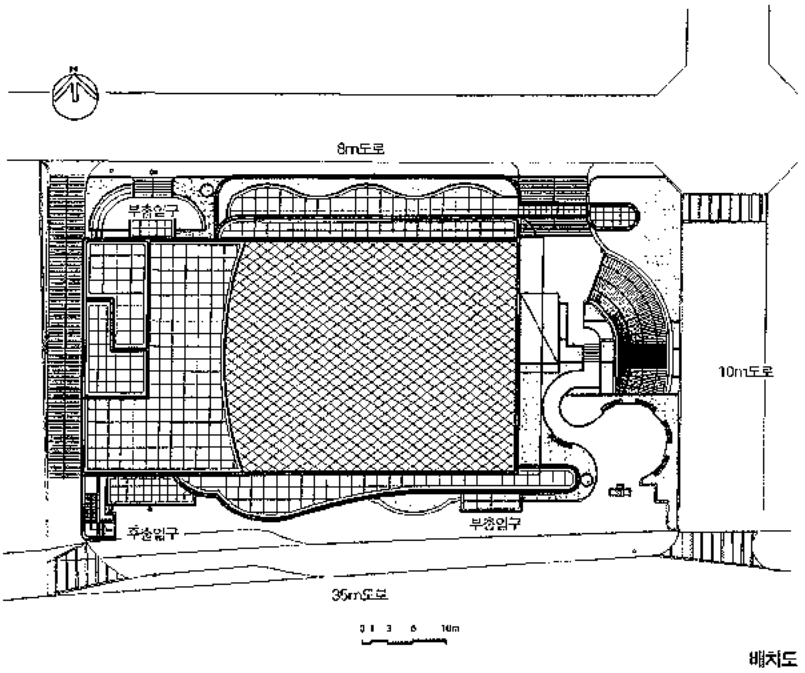
1층 평면도



8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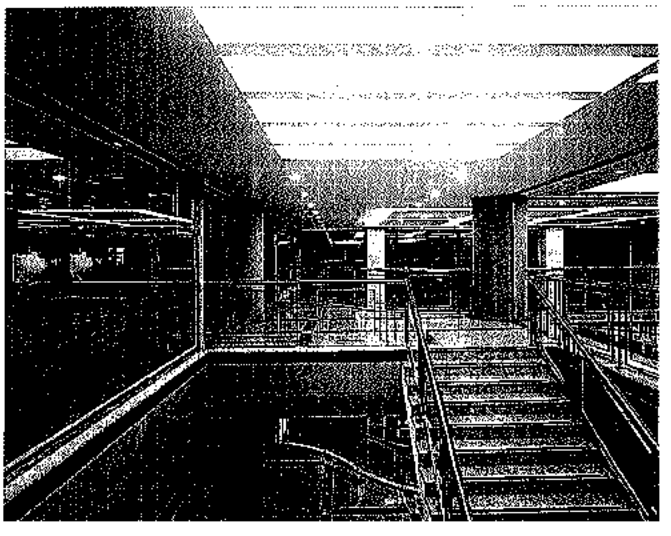


6층 평면도



배치도

중앙계단실 홀



영동전문대학교 체육관

Gymnasium, Yeongdong Colle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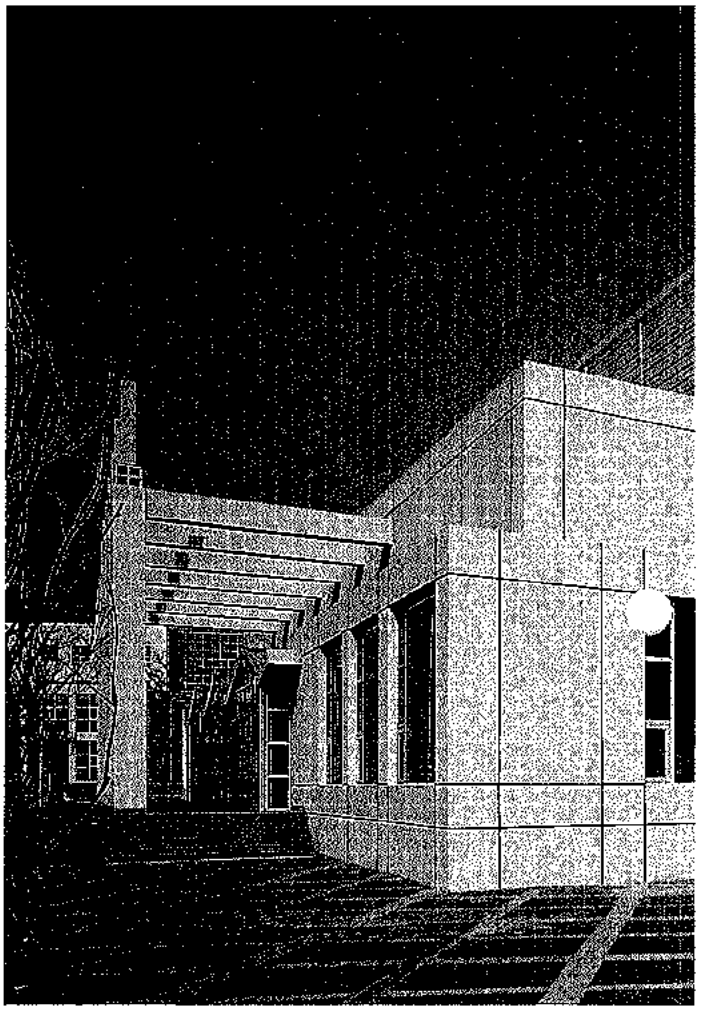
이성걸 / (주)경진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Sung-Geol

강릉의 하늘은 서울의 하늘과 다르다.

완공 직전 방문한 나에게 다가온 강릉의 하늘은 머리 속에서나 생각되던 건축물의 배경이었다. 대상(Object)의 모습을 최대한 드러내어 주어 최상의 모습을 과시할 수 있도록 배려된 무대 배경인 듯이. 서울이라는 무대 배경에는 어떤 대상들이 계획되고 있을까. 기존 건축물과 대지의 주된 축이 없는 조건에서 산만한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고자 했던 계획자의 의도가 차분히 녹아들어 구현된 모습이 좋았다. 교사동들이 무표정한 모습과 다른 형태의 면에서, 재료의 면에서, 색의 면에서 대조적인 수법이 주위의 임목을 배경으로 앉아 있는 건물의 위상을 높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항용 그러하듯 공사중 몇몇 부분이 삭제되거나 변형되기도 하고 사소한 오류가 내포되어 있기는 하지만 꾸지람하기는커녕 있는 그대로보다 훨씬 나아 보이도록 애써 주는 그런 강릉의 하늘이, 건축가가 항상 그려오던 무대배경으로 자리한 그런 강릉의 하늘이 고맙다. 이제는 당신들의 것이므로 당신들에게 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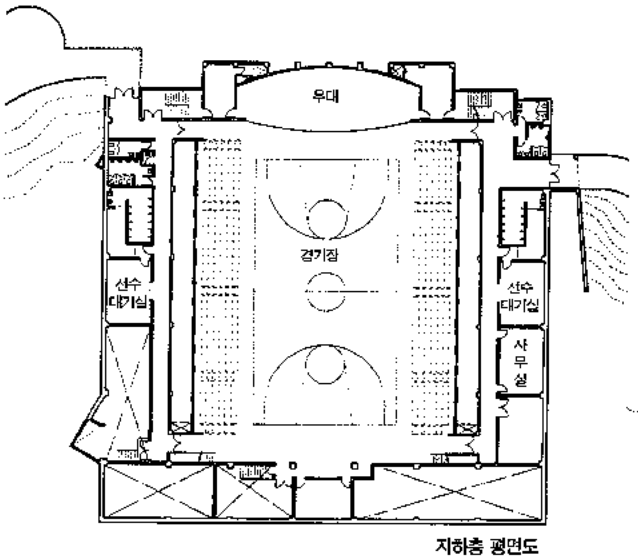
체육관

가관 식이라는 전통있는 행사를 학생과 학부모들과 지방의 유지가 모두 축하해 주는 자리에서 의미있게 치룰 수 있도록 체육 행사와 집단 집회가 치루어질 수 있도록 가동식 의자가 설치되고 음향설계에 의한 시설도 구비되어 있다. 지형의 고저에 따른 계획으로 정문에서 진입시 과도한 부피감을 줄여 기타 건물 군들과의 조화를 이루게 하고 행사의 시작과 사이, 후에 밖으로 나오면 학생회관과의 사이에 블록으로 포장된 그에 어울리는 광장을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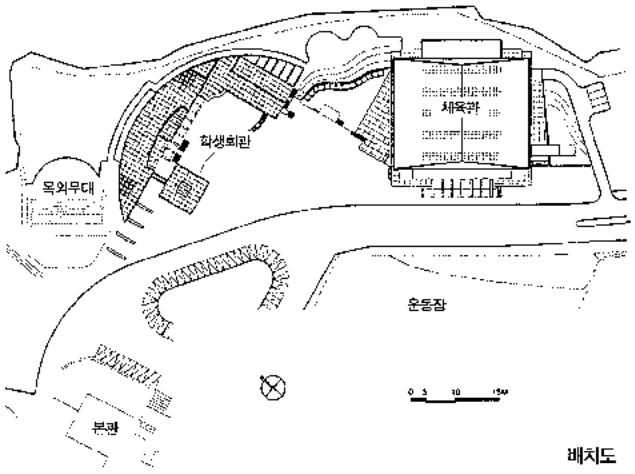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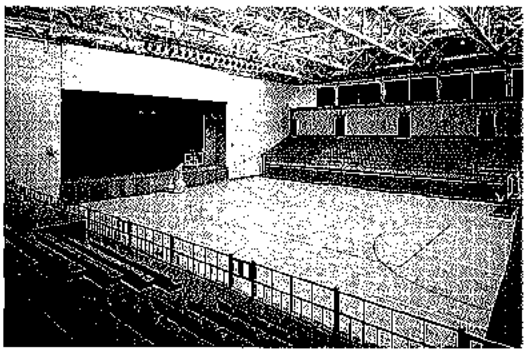
대지위치	강원도 강릉시 영동전문대학교 내
대지면적	112,612㎡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철골 트러스
층 수	지하1층, 지상1층
건축면적	2,578.06㎡
연 면 적	3,304.88㎡
용 적 률	2.9%, 건 폐 율 2.3%
외장재료	외벽 : 외벽단열 System+무기질마감재 미장
	지붕 : 일반 스라브, 샌드위치 패널
	창호 : 16mm복층유리+유리블럭, 알미늄 후레임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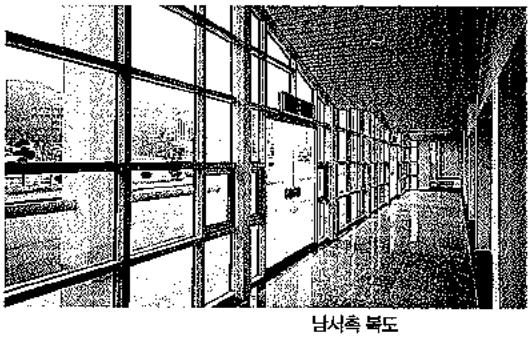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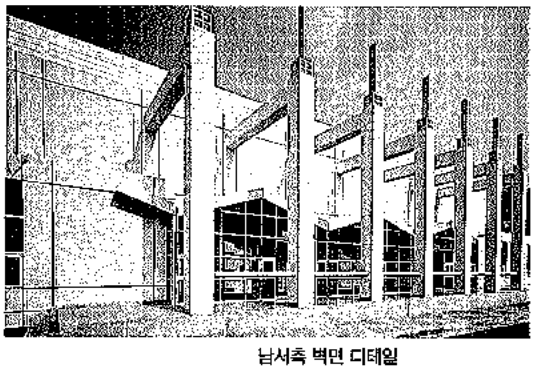
체육관 실내전경

남측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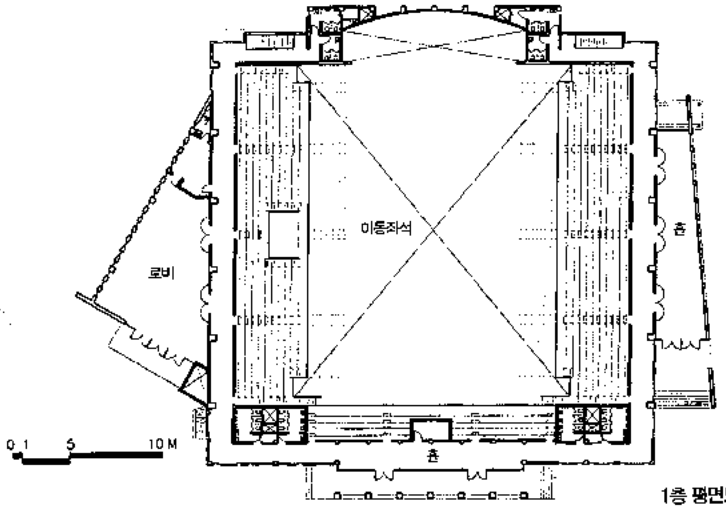
북측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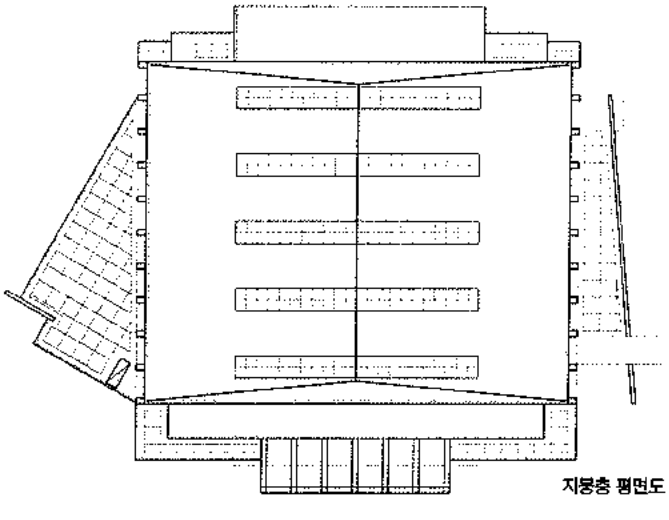
남서측 복도



남서측 벽면 디테일



1층 평면도



지붕층 평면도

분당 전람회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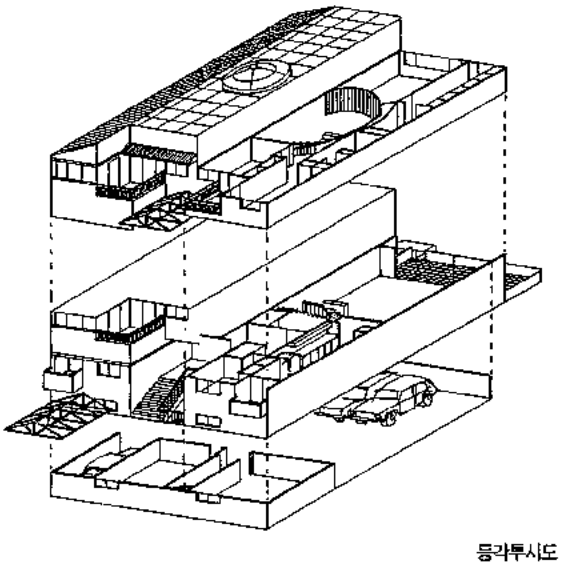
Pundang Newtown Exhibition Housing

공일곤 / 향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ong Il-K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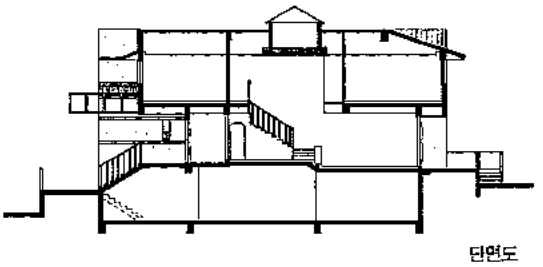
연립주택은 각 세대가 자기땅이라는 개념을 갖도록 각 세대의 거실앞에 정원을 확보하고 공동의 외부공간도 두어 소규모 공동체개념을 유지하도록 배려하였다. 1층의 거실 식당 등의 생활공간은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인 구역인 2층의 침실도 장래 자녀수의 감소 등을 고려하여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벽체를 융통성있게 설치하였다.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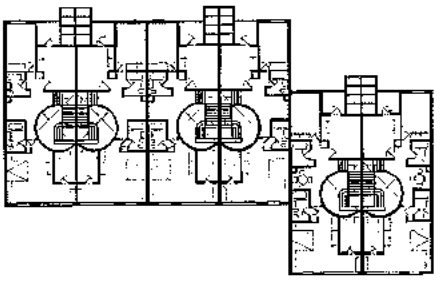
위 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60-4
주요용도	연립주택
대지면적	1,640.8㎡
건축면적	716㎡
연 면 적	1,778.5㎡
건 폐 율	28.31%
용 적 률	74%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주차대수	17대
구조방식	라멘조
내부마감	벽 - 포벽지, 본타일, 벽지
	바닥 - 화강석, 모노륨, 장판지
	천장 - 포벽지, 벽지
외부마감	벽 - 드라이비트
	지붕 - 컬러아스팔트 싱글
시 공 자	한화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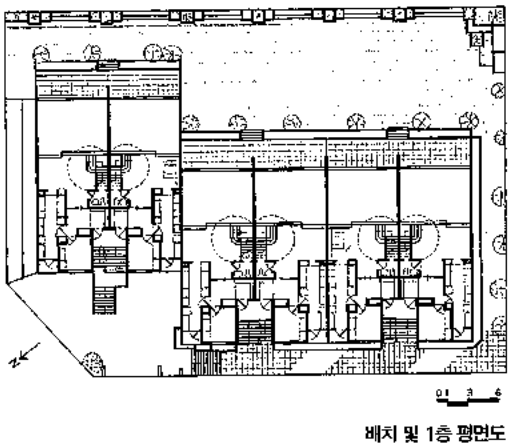
등각투시도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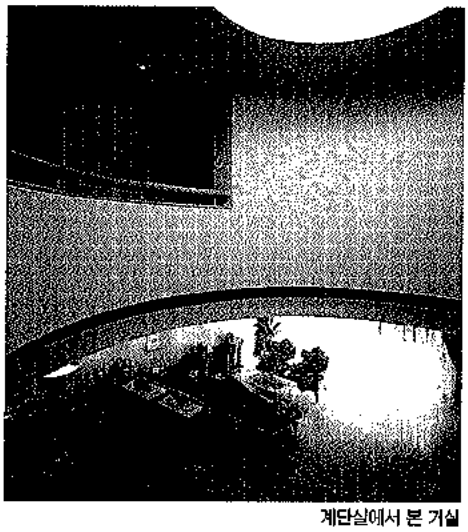


2층 평면도



배치 및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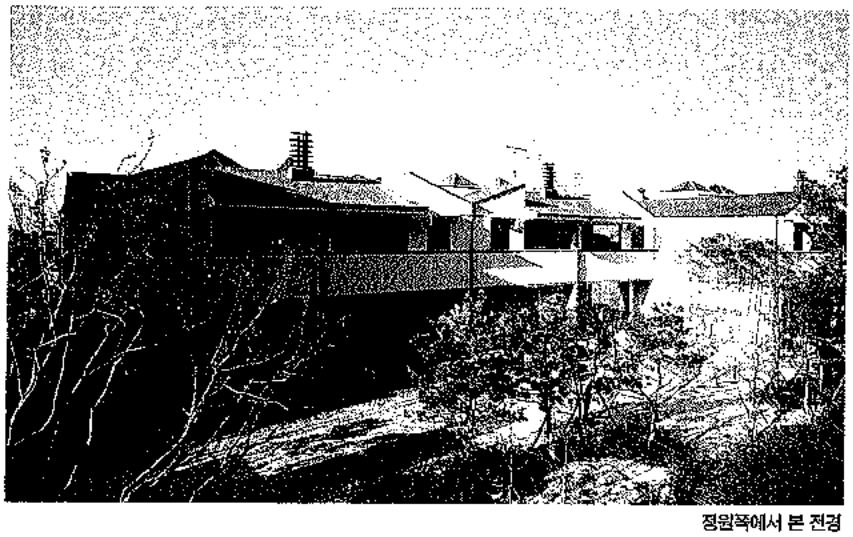
전경



계단실에서 본 거실

2층 주인 침실

주출입구(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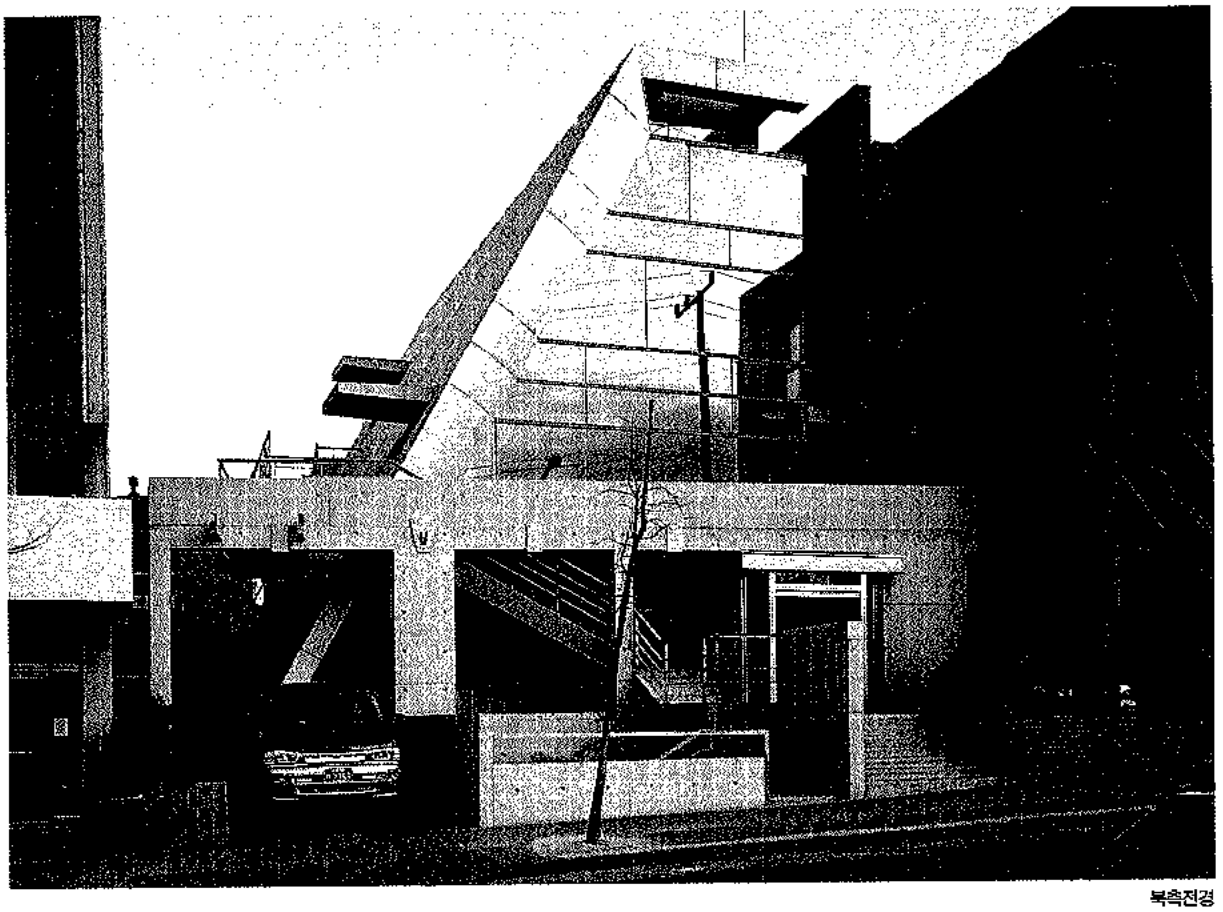


정원쪽에서 본 전경

핀란디아

Finlan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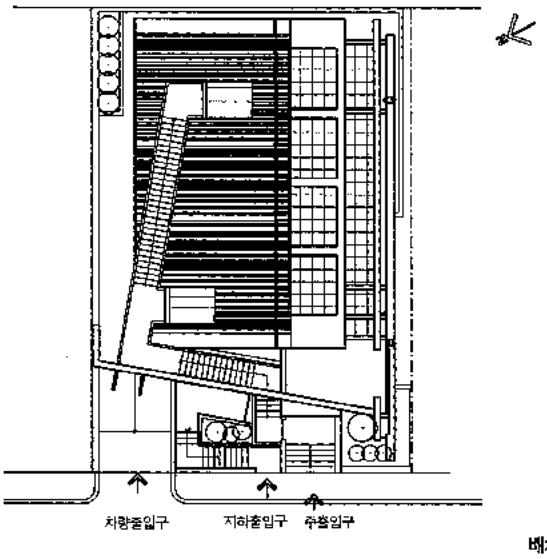
故 장세양 /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ang Sea-Yo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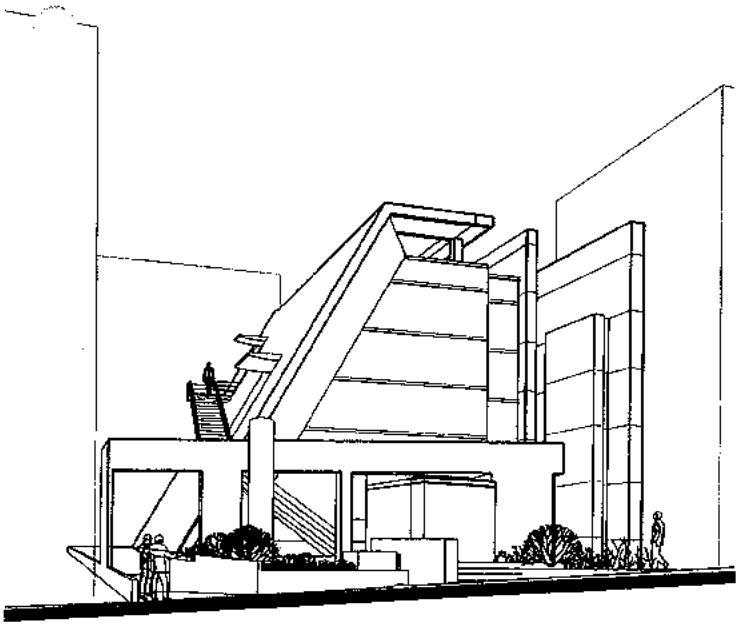
북측전경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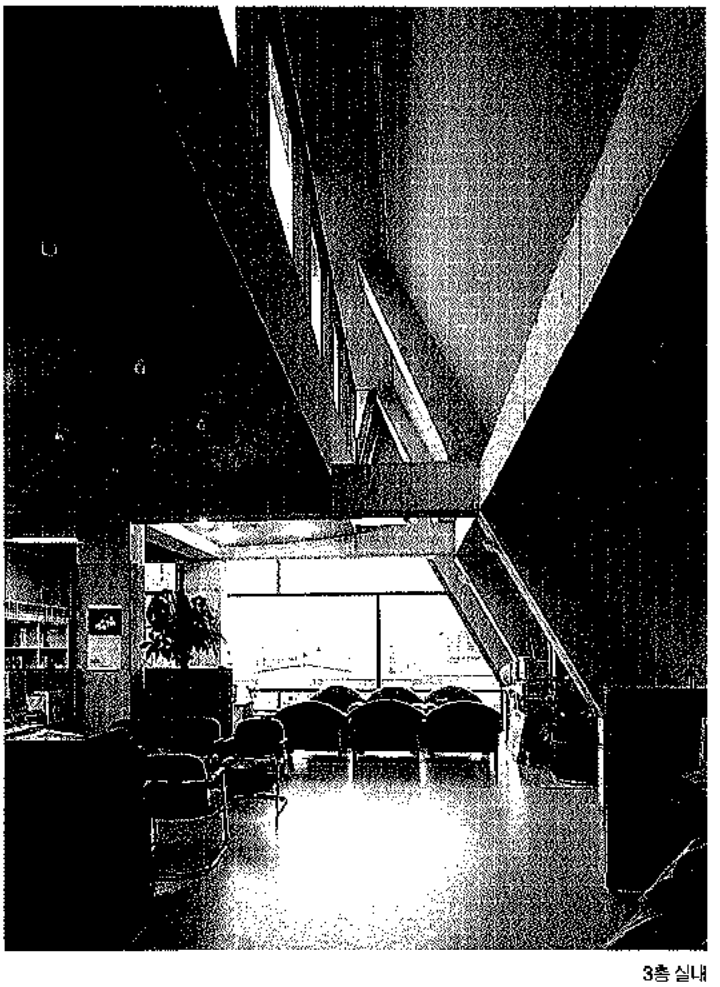
위 치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96-13
용 도	근린생활시설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집단5종미관지구
대지면적	345.64㎡
건축면적	206.04㎡
연 면 적	661.45㎡
건 폐 율	59.6%
용 적 률	136.54%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외부마감	THK 18 복층유리, 치장벽돌쌓기, 노출콘크리트
조경면적	20.02㎡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5대
시 공 자	삼협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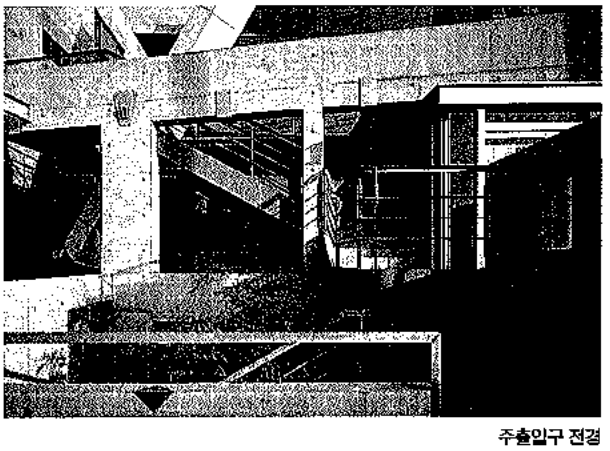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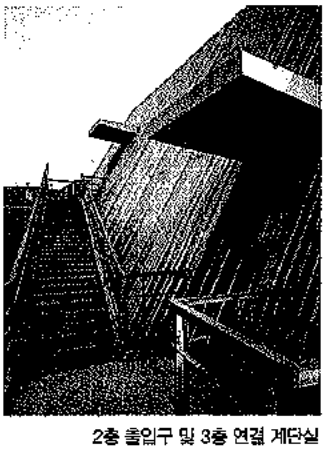
투시도(초기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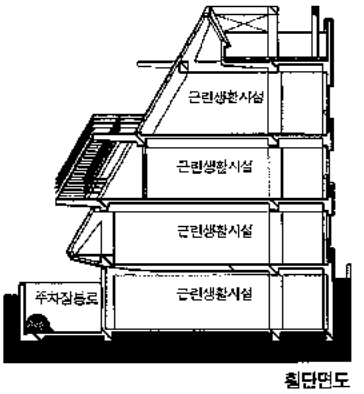
3층 실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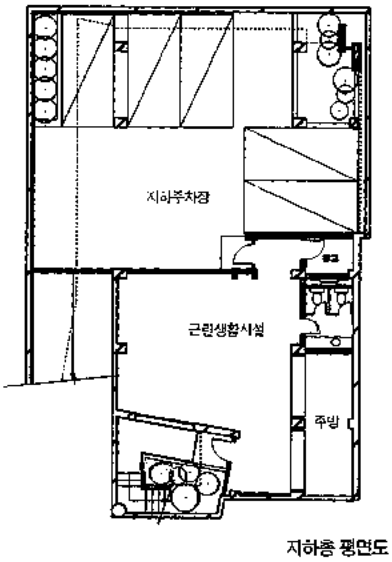
주출입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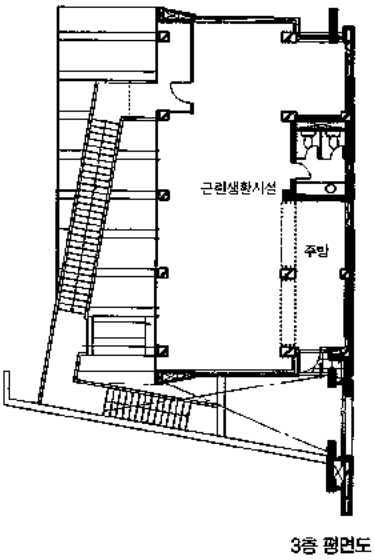
2층 출입구 및 3층 연결 계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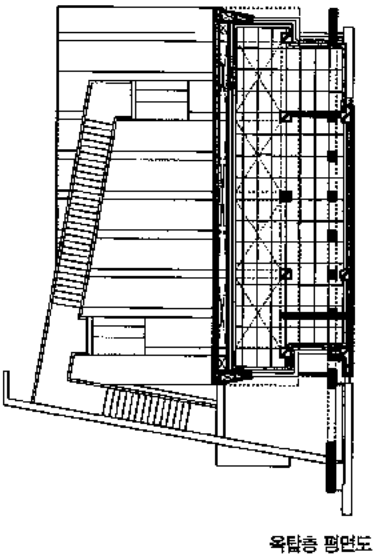
횡단면도



지하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옥탑층 평면도

국제방송교류재단

The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ing Foundation

정림건축
Designed by Junglim Architecture

만남

1992년 6월말 장마가 시작될 쯤, 방송관련시설에 인연이 깊던 구설계6실 입구에 "경고 - 외부인 출입금지"라는 푯말이 내걸려지면서 4주간의 현상설계는 시작되었다. 김철성부사장님께서 그당시 설계실의 선장임무를 맡으시면서 처음 시작된 현상설계 Project인지라 선장이하 갑판원까지 혼연일체가 되어 좌초아니면, 정복이라는 돛을 내걸고 노를 저어댔다. 그리하여 7월 30일 마지막 장마비를 맞으며 계획안은 제출되었다.

도시문맥과 배치

예술의 전당 - 국립 국악원의 문화공간과 서초구지정 "문화예술의 거리"라는 장소성에 대한 도시문맥의 올바른 해석과 수용방법 그리고 각 Studio와 이것을 지원하는 시설의 기능별 유기적인 Zonning화 작업은 이번 Project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일이었다. 우선, 도시문맥적 측면에서 그러한 문화적인 외적요소와 접목시키기 위해 전면도로와 Mass를 가능한 이격시켜 개방감을 확보하는 동시에 간접문화공간 - 길거리 전시회 등 - 으로서의 활용성을 부여하였다. 4면이 도로로 둘러싸인 대지의 주변중에 3면이 주거지로서 소음, 진동에 민감한 Studio Zone을 주거지 방향으로 배치하되, 상대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지원시설 등의 기능은 남부순환도로변으로 배치하여, Studio를 가능한 음향 은폐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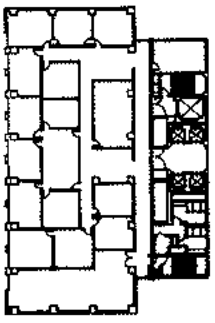
형태와 평면

업무용도 보다는 방송 Program제작, 즉 영상예술적 성격이 부각되는 시설로서 내부의 그러한 행위의 Image를 기하학적 건축형태로 표출되도록 하여, 예술행위의 Motive를 형태에서 감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Mass들의 분명한 윤곽과 외형적인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해 면적인 요소에 대비되는 선적인 요소를 전체 입면에 적용하였으며, 전체적으로 화강석재를 사용하여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평면계획에 있어 시설별 동선계획은 Program제작 부분과 지원시설부분으로 분할하는데 역점을 두어, 크게 지하에서는 Studio와 주차장으로, 지상에서는 Studio와 부대시설로 구분하되, 분할구성된 각 공간들은 매개역할을 하는 Core로 연결, 상호유기적인 연계성을 갖도록 하였다. Studio는 기능상 외부음환경의 악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므로, 지하에서는 중앙에 Studio를 배치하고, 주변에는 지원 및 부대시설과 Core로 에워싸는 형태를 취하여, 남부순환도로 및 주변도로, 옥내주차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의 전달을 가능한 차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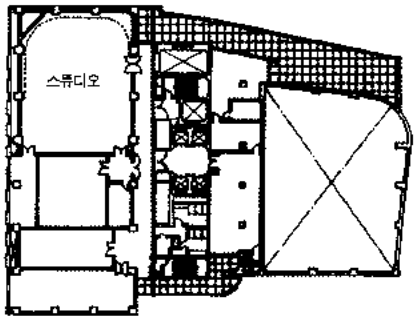
단면계획에 있어, 대지의 Level차를 이용, 전면에서의 진입은 2층로비 및 Sunken Garden과 연결하고, 후면에서는 Piloti를 통하여 1층과도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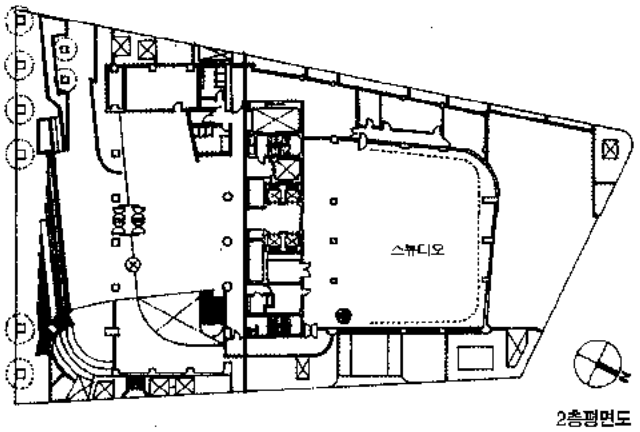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67-80외 3필지	주요용도	방송통신시설
대지면적	3,097.7㎡	구 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지역지구	일반거주지역, 4종미관지구, 주차장정비지구	외부마감	THK30㎜ 화강석 버너구이+물갈기, THK24㎜ 컬러+파스텔 복층유리
건축면적	1,746.25㎡		
연 면 적	23,964.39㎡	준 공	96년 12월
건 폐 율	56.37%	설 계 팀	김철성, 김상진, 이병호, 손재하, 엄경영, 김재국, 이원, 배완덕, 신황일, 김정록, 이정환, 이미연, 김태은, 김영근, 김동렬, 윤규섭
용 적 률	395.09%		
규 모	지하6층, 지상1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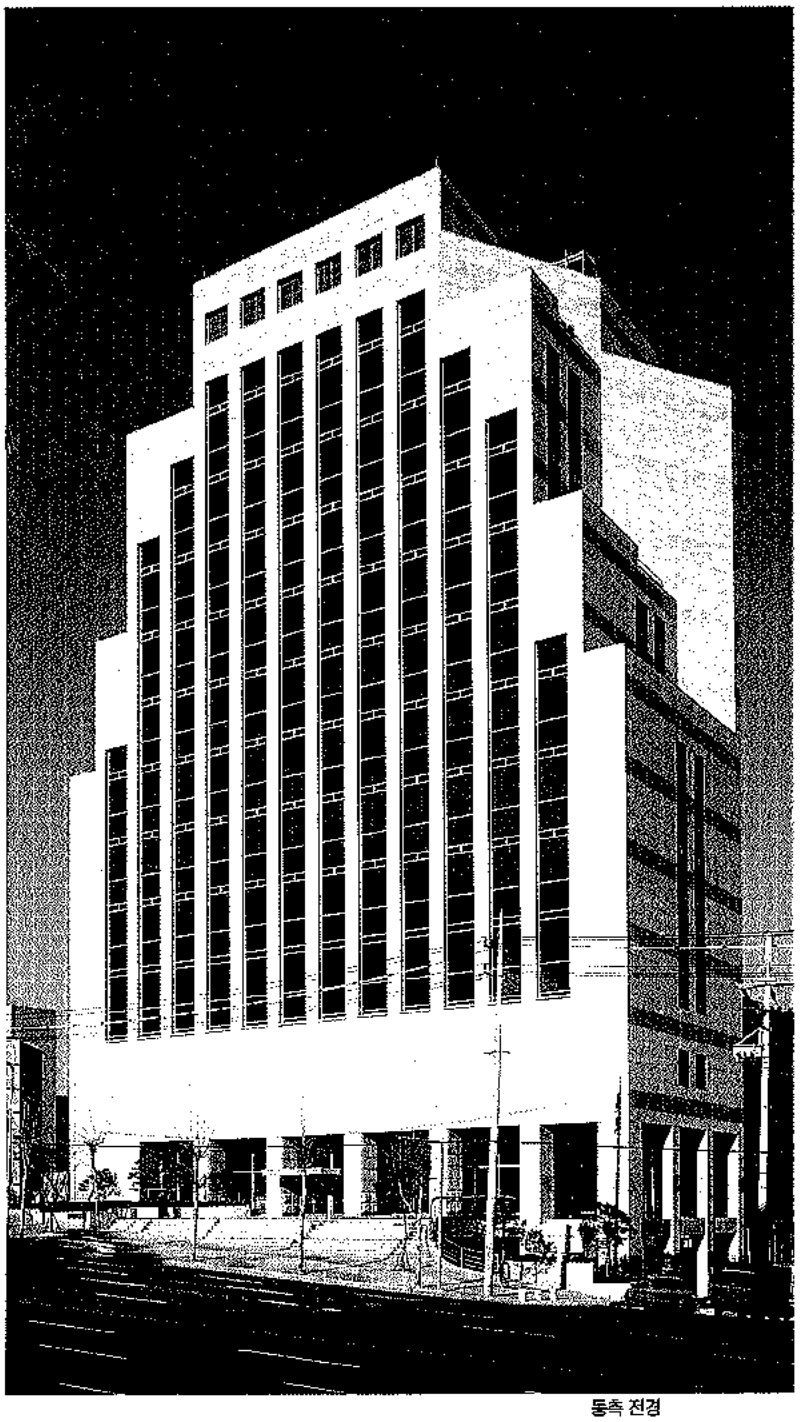
7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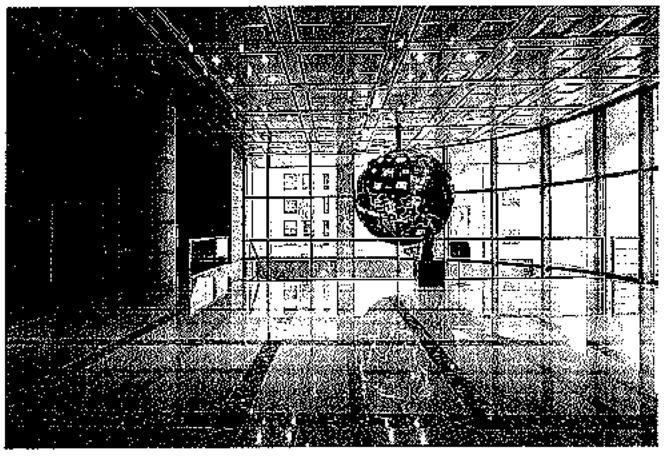
3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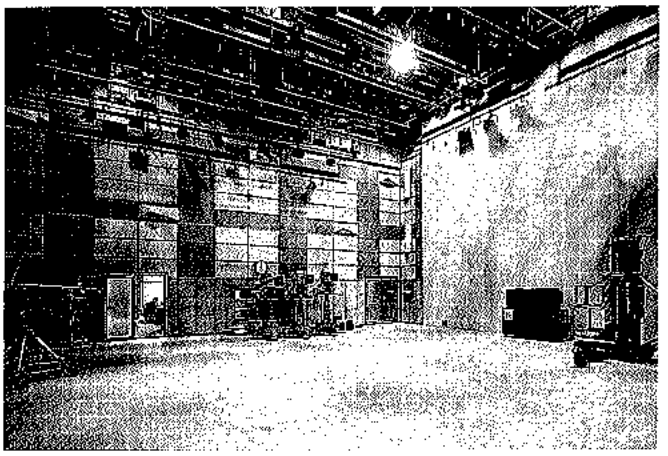
2층평면도



동측 전경



2층 로비



지하4층 다목적 스튜디오

제주 삼성 어린이집

Samsung House for Children in Cheju

삼우설계+도우건축
Designed by Samoo Architects & Engineers, Dowoo Architects

제주도…

제주도에 사는 이들은 물에사는 이들을 육지 사람이라 부른다. 육지 사람들은 졸업여행을, 신혼여행을, 효도여행을 그곳으로 간다.

제주 삼성 어린이집은 삼성생명 보험(주)이 벌이는 보육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프로젝트이다. 대지는 남쪽으로 24m계획도로(현 14m도로)를 사이에 두고 삼성혈을 마주하고 뒤로는 APT단지를 접하고 있다. 근처엔 제주자연사박물관이 있다.

제주시는 관광지이다. 앞엔 삼성혈이다. 심의가 요구되었고 원색이 제한되었다. 규모에 따른 대지의 법적 제한은 적었지만 건축심의, 인근지역 문화재에 따른 도(道)사전 승인, 예민하게 제기되는 인접한 APT주민들의 민원 등은 부담이기도 했다. 충분함 이상의 철저한 사전준비만이 해결책에 가깝게 가는 길이었다.

대로에 접한 대지 여건으로 건물은 도로와 멀리한 안쪽에 배치되고 외부 놀이공간을 감싸는 ㄱ자형태로 가닥을 잡았다. 주출입은 남쪽대로에 두고 서비스 동선과 주차는 좌측으로 접한 이면도로를 통하도록 했다. 전체적인 규모, 세부 실면적, 외장재, 색채는 계획단계 이전에 정하여진 사항들이었다. 현관과 계단실을 축으로 삼고, 사이의 홀을 통하여 좌우 보육실을 이용한다.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다워야 한다. 지극히 당연하지만…

평면과 입면에 도입된 곡선은 어린이들에게 부드러움으로 다가설 수 있게한다. 입면에 사용된 원, 기울어진 사각형, 물결모양, 부분적으로 사용된 원색은 어린이의 호기심 요소이며 건물의 액센트 역할을 한다. 같은 반경의 두원이 어긋나게 만나며 이루는 주 Mass는 입면에서 이질재료로 구분되어지고 좌우로 Box가 중첩되면서 저층부를 이룬다. 부분적으로 사용된 유리블록은 창문들을 연결해주고 부드러운 빛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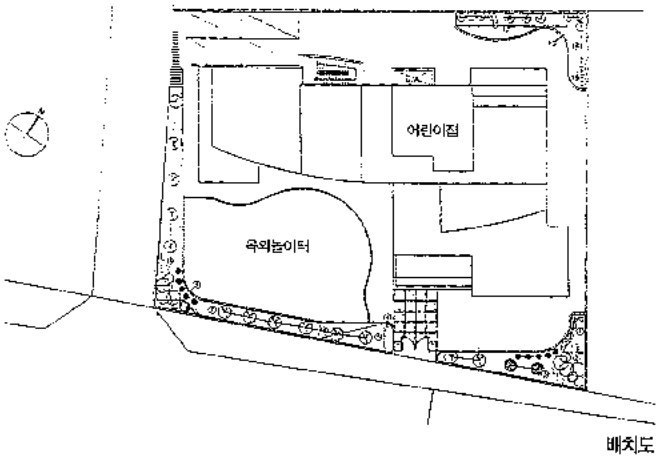
Mass의 점진적 삭제는 안정감과 변화감을 갖게하며 애써 갖다 붙인다면 한라산의 닮은꼴이랄 수도 있지않을까! 주 외장은 드라이비트 마감이며 일부 제주산 화산석 벽돌을 사용하여 지역성을 표현코자 하였다. 기대 이상 어울려 주었고 자칫 한가지 재료가 가질 수 있는 단조로운 느낌을 없애주기도 했다. 통일화된 투시형 담장도 어린이집을 돋보이게 한다.

좋은 건축은 사용자, 건축가, 시공자가 함께한다.
이곳을 사용하는 이들이 불편해 하지 않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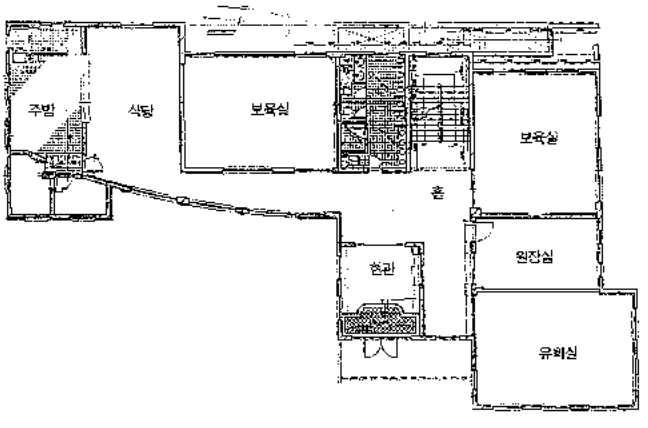
건축개요

위 치	제주시 이도1동 1692-22	건축면적	413.62㎡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	건 폐 율	36.85%
용 도	노유자 시설(보육시설)	연 면 적	982.10㎡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용 적 률	77.40%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조경면적	56.12㎡
대지면적	1,122.40㎡		

남측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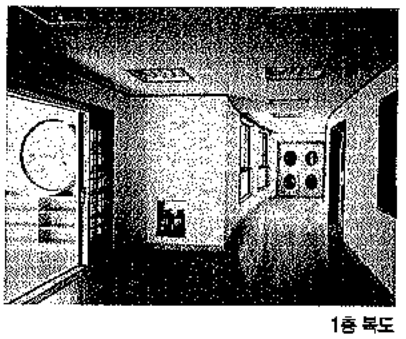
배치도



1층 평면도

2층 테라스와 서측 벽면

남서측 전경



1층 복도

2층 테라스에서 올려다 본 모습

독도 기념관
Tokdo Memorial

유 건 / (주)시 · 상건축
by Yu K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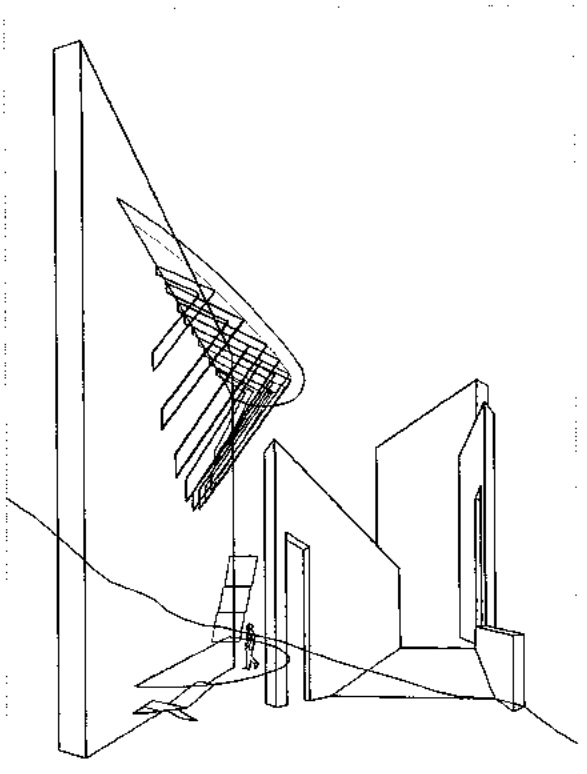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과 같은 전시시설의 경우, 사업성을 추구하는 건물의 종류가 아니므로 경제성, 시공성 등 건축가의 입장에서 타협하기 만만치 않은 어려움들을 작품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극복하기가 비교적 용이한 건물 유형이므로 한 번쯤은 설계하고 싶은 매력적인 성격의 건물이다.

설계실적의 중요도에 대한 인지가 낮은 상태에서 설계사무소를 시작한 후 누군가의 소개로 몇 년 전에 개인 박물관 설계문의를 받은 적이 있었다. 전시시설 설계실적을 전화로 문의한 후, 없다는 대답에 알았다는 말과 함께 그것으로 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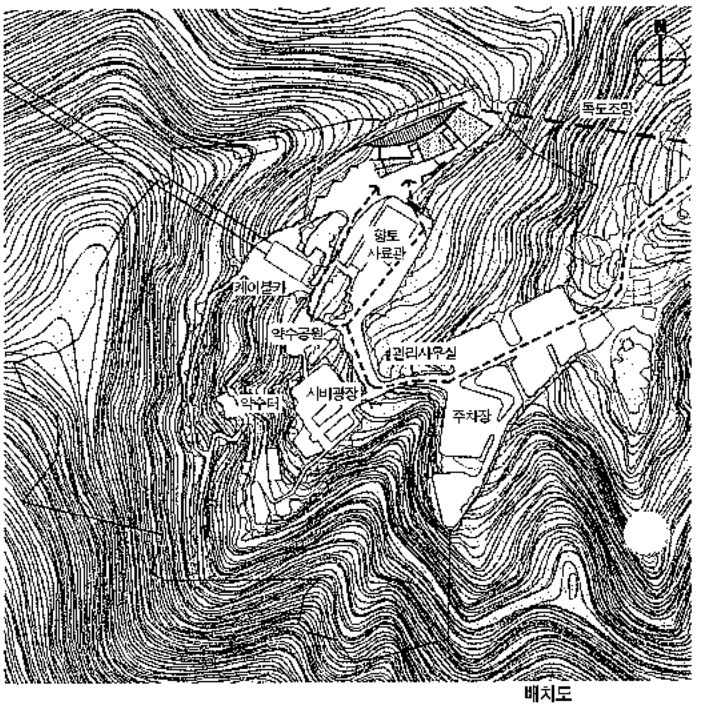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음에 대한 아쉬움이 없어질 즈음, 해외 출장 중에 사무소의 동료로부터 호텔 방으로 전화가 왔다. 어떤 재단에서 선배 건축인으로부터 추천받았다고 하면서 일주일 내에 기공식에 전시할 수 있도록 투시도를 그려서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고 한다. 다시 주어진 기회에 몸은 멀리 있으니 안타깝기만 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독도기념관 설계위임을 받고, 설계대상 부지 방문 후에 구상한다는 개인적인 원칙도 무시한 채, 어떠한 배경으로, 어떠한 이유나 목적으로 건물을 짓고자 하는지에 대한 사전지식도 없이, 대지 형태도 모르는 채로 그야말로 투시도만 대충 만들어 들고 울릉도에서 거행되는 기공식에 참석하였다.

현장 방문길에 들기로는 우리 나라 역사관련 자료를 오랜 기간동안 사재를 들여 수집해 온 서지학자 이종학 선생께서 따로 독도의 영토와 관련된 역사자료를 중심으로 울릉도에 기념관을 건립하여 일반에게 자료를 공개할 목적으로 후원자를 물색중, 삼성 문화재단 사업의 일환으로 결정되어 재단에서 건물을 지어 기부 체납하기로 했다 한다. 그래서 울릉군에서 관광객의 방문이 가장 잦은 도동 약수공원내의 독도가 보이는 위치에 신축부지를 제공하기로 결정된지 약 일년만에 설계자의 결정과 함께 광복절을 기공식 일자로 정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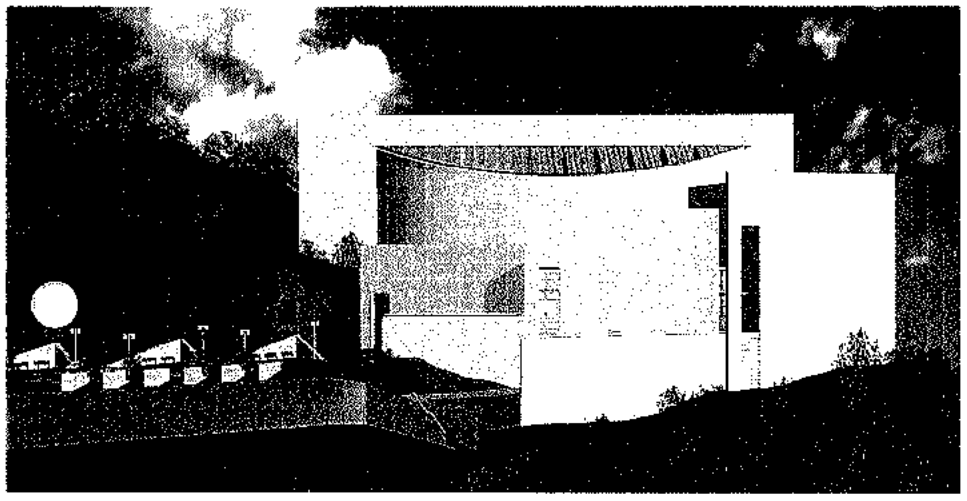
행사가 끝난 후 찬찬히 둘러본 대지는 그야말로 도전 그 자체로 느껴졌다. 산등성이 자락에 정지작업을 한 지하1층, 지상 2층 연면적 사오백평 건물이 들어설 약 40평 남짓한 대지. 경사도 40도의 가파른 풍화토. 육지에서나 겨우 가능한 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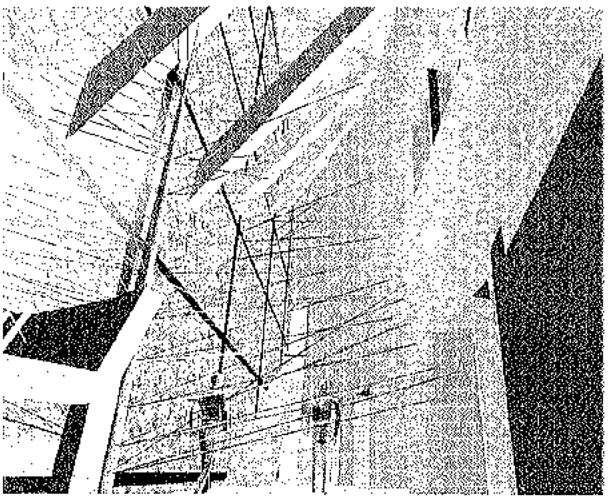


구성도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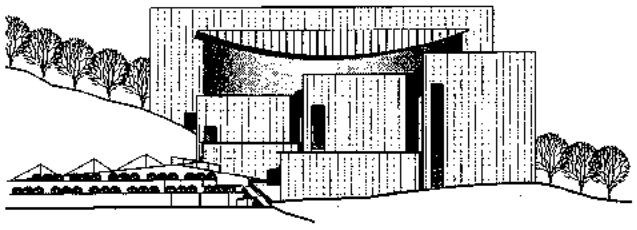


공사비도 고려되지 않은 예산, 기존의 향토 사료관과 신축예정인 삭도 시설 부지 사이로 겨우 확보된 폭 6미터의 진입로, 방향을 가르켜 주며 2층, 3층에서는 보일 거라는 지상에서 육안으로는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 독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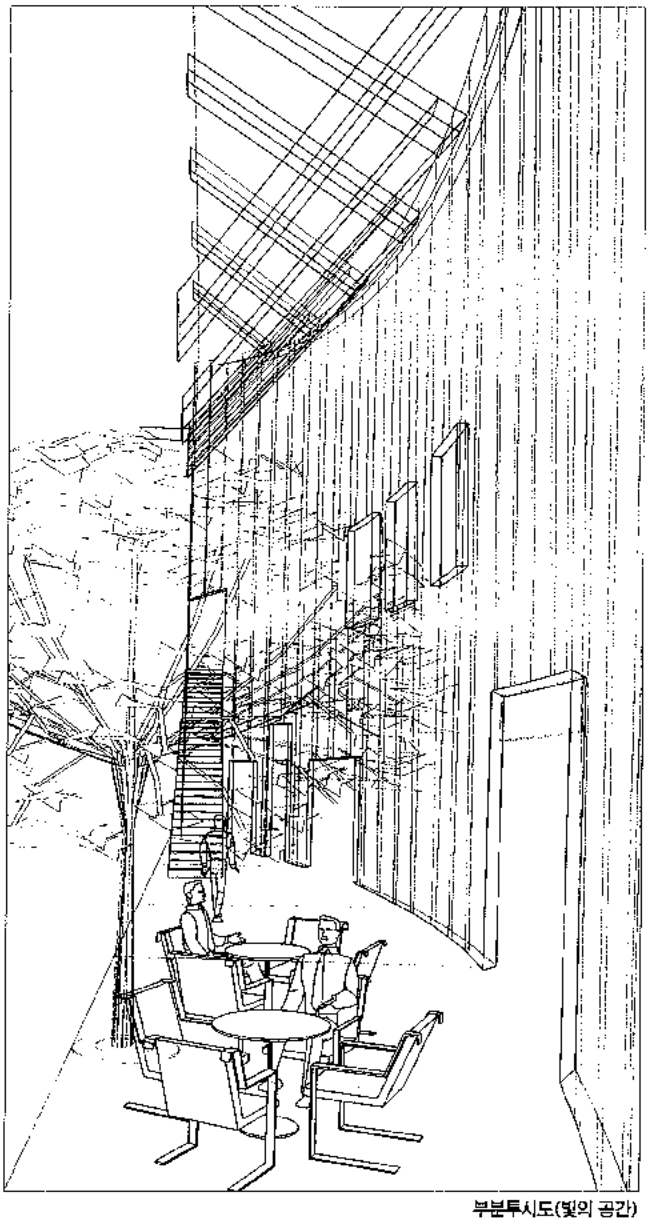
박물관으로는 비교적 소규모 건물이므로 프로그램의 전개나 그에 따른 기능의 해결은 비록 대지조건이 열악하지만 큰 무리없는 진행이 가능하리라 판단되었으며, 오히려 일본과의 영토분쟁 관계를 고려하여 '독도 기념관' 이라는 이름 자체가 내포하는 시사성과 상징성이 표현되도록, 독도의 영토성과 역사성이 적절히 형태 및 공간 구성에 반영되어 건물의 이름에 부합될 만한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건물의 형태 구상과 공간의 의미 부여는 독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징 대상 요소를 채택하는 방법으로 시작하였다. 제도판 위에서 실질적인 설계에 착수하기 이전에 나열하여 놓은 의미의 형상화 대상 리스트에 가장 먼저 적혀 있는 것은 독도라는 말의 이해였다. 나름대로 해석하기에는 '국토의 가장 동쪽으로서 망망대해에 홀로 우뚝 솟은 섬' 이라는 문자의 직설적인 풀이를 시작으로,

- 오래전부터 불려오던 독도의 또다른 이름은 '삼봉도'
-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동해의 일출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장소
- 물, 주민, 나무(국제법상 암초와 구별되어 섬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필요한 세가지 요소로서 물은 바위틈에서 나오며, 주민은 몇 년 전에 이주하신 분이 있으며, 나무는 열심히 심어놓고 살리도록 노력 중이다.)
- 부지의 위치는 오각형 형태의 섬인 울릉도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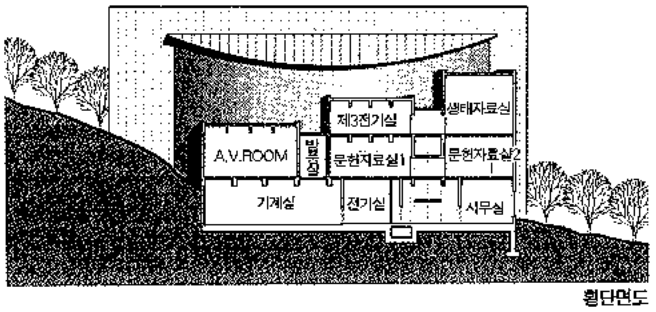
이상의 여러 가지 중에서 의미 표현의 요소로서 상징성도 강하며, 개인적으로 어필하는 것은 독도의 홀로독(獨)자였다. 일본의 끊임없는 집적거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한국의 영토임을 과시할 의미, 바다 한 가운데 서있는 늠늠한 자태. 그 다음으로는 죽도가 아닌 삼봉도, 왜 삼봉도로 불리게 되었는지는 고사하고, 일본인들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은 우리끼리만 공유하는 이름이며 건축의 요소로도 활용하기 용이한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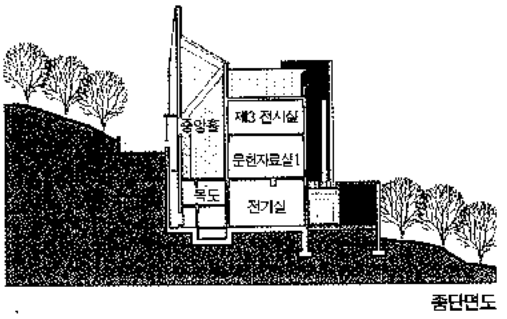
정면도



부분투시도(빛의 공간)



횡단면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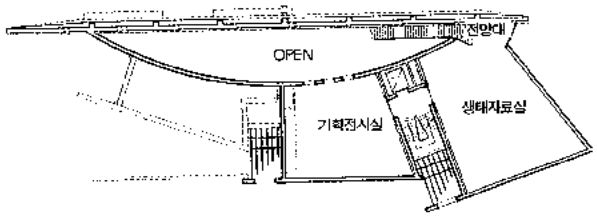
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동해와 일출이 형상화될 수 있다면 건물형태에의 의미부여와 공간의 상징성 진작에 결정적이리라 생각하였다.

우선 '獨' 자를 의미하는 커다란 벽을 하나 설정하고 필요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절토의 흙막이 벽으로 활용하도록 계획한 후 동해바다에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의 공간을 디자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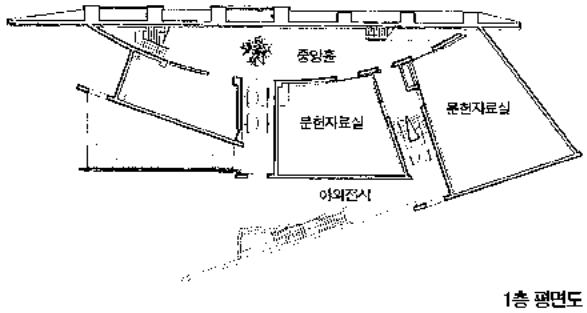
일출은 태양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형태인 원의 일부분과 빛, 바탕이 되는 바다와 빛의 반사로 되어 있음을 그대로 공간의 형태로 형상화하여, 빛을 주제로한 중앙공간을 떠오르는 태양의 모습인 호의 형태로 평면을 계획하였고, 지붕전체를 유리로 덮어 일출의 빛을 의미하도록 하였으며, 지붕으로부터 들어오는 빛은 홀로 선 벽면에 반사되어 내부로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햇빛이 바다면에 반사되는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내부 공간의 설계상 중요한 이미지가 외부의 형태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건물전체에서 가장 주가 되는 Mass로 표현하였으며, 중심 공간에 면하여 삼봉도를 의미하는 세개의 실을 종속적인 관계의 별도 Mass로 구성하여 일반적이 아닌 오각형의 내각이 연상되도록 기하학적으로 배치하였다. 통상적으로 로비로부터 진입한 전시공간은 다음 전시공간으로 연결되도록 설계한다. 그러나 독도 박물관의 경우 각 전시실의 규모와 전시실 수가 작은 편이기도 하고 가급적 중앙공간을 여러 각도 및 높이에서 적극적으로 느끼도록 각 전시실과 주공간의 관계가 개별로 직접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공간의 형태가 세장하며 변화가 있는 경우, 보는 위치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는 점을 활용하여 1층과 2층, 중앙과 끝에서 느끼게 함으로써 공간경험의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도록 단일 공간을 일련의 Sequence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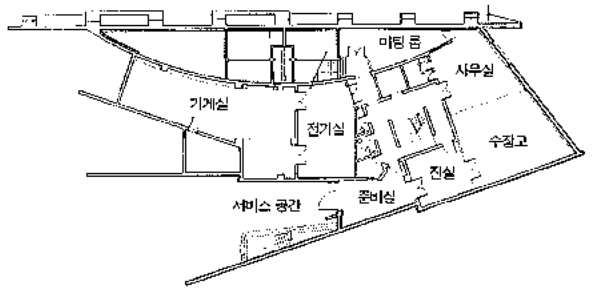
연초에 태풍주의보가 해제되기를 기다려 방학중인 딸 애와 마감재료 협의차 울릉도에 갔다. 난공사임이 분명한 기부체납할 건물에 설계자 못지 않은 관심과 정성을 기울이는 삼성문화재단과 삼성건설의 예상 밖의 열의에 놀랐다. 또한 그날 현장회의에 참석한 울릉군청의 담당인 이충성 계장의 집요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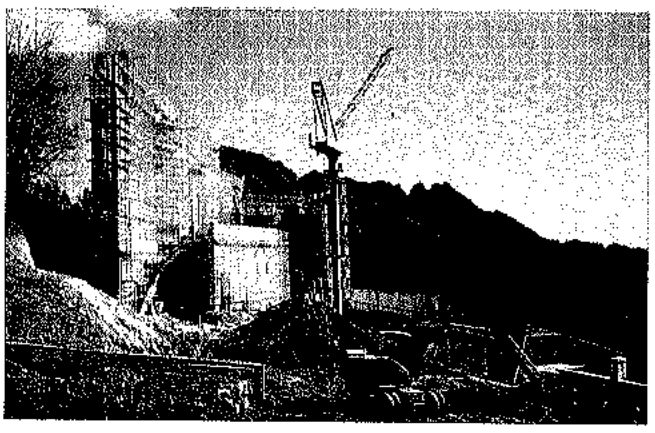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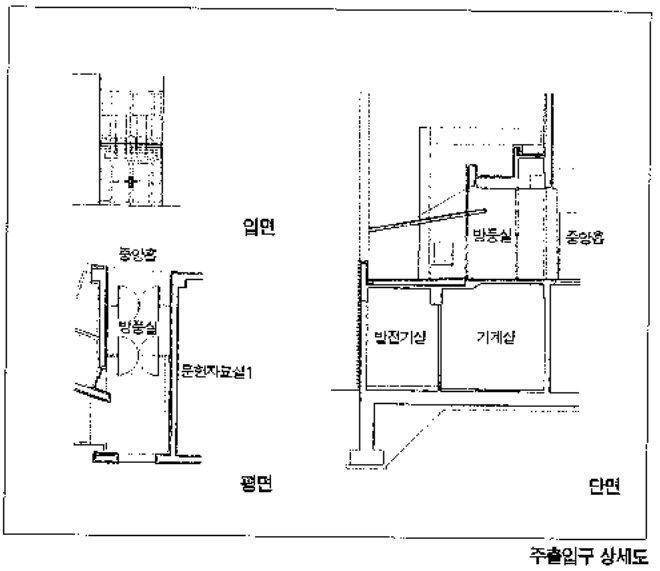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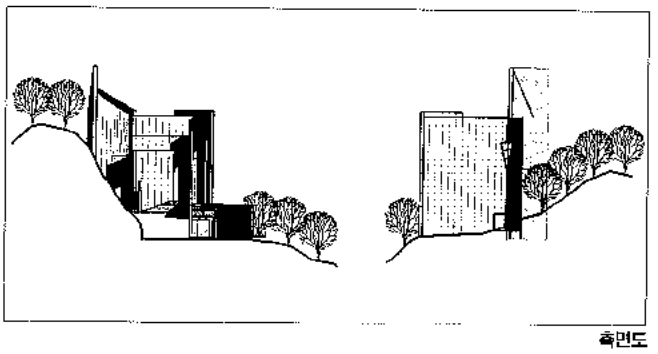


나름대로의 독도박물관 사랑에 다시 한 번 놀랐다. 그분들보다 독도 사랑이 덜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배멀미와 1박 3일의 출장은 싫지만 준공전에 몇번 더 협의차 방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하는 분들이었다. 설계시에 적지않은 고려와 시간을 필요로했던 의미의 전달이 사용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잘 느껴지도록 울릉도에서 처음 먹어본 홍합밥도 다시 먹어볼 겸 이번 달에는 현장을 다시 찾을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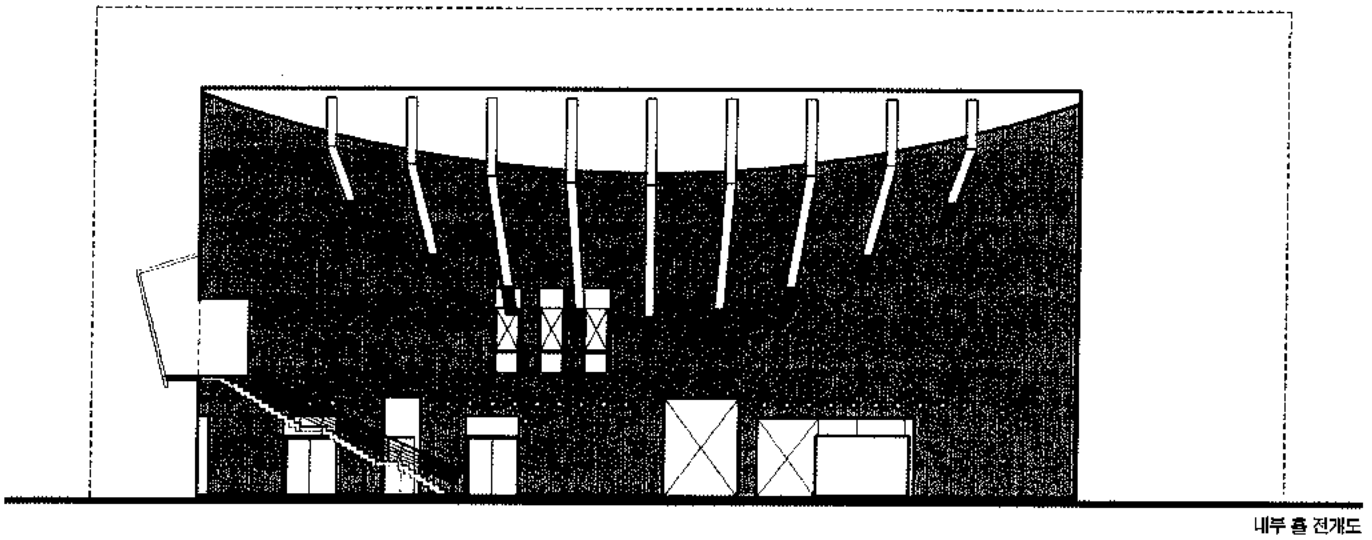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581-1외 2필지
국토이용	도시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주요용도	전시시설, 공사종별 신축
구 조	철근 콘크리트구조
외부마감	외벽 - 화강석 버너구이
	창호 - THK 24.3 라미네이트유리
대지면적	8,068.00㎡(2,440.56평)
건축면적	677.36㎡(204.90평)
연 면 적	1,599.87㎡(483.95평)
건 폐 율	8.40%, 용 적 률 13.10%
조경면적	972.59㎡(법정 10% - 806.80㎡)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설계담당	백수홍, 주정영, 이상신



주출입구 상세도



측면도



내부 홀 전개도

외국의 건축가 2 - 다니엘 리베스킨트

Daniel Liveskind : A Permanent Jewish Architect

다니엘 리베스킨트 : 영원한 유태인 건축가

성인수 / 울산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by Seong In-Soo

인간성은 질서와 무질서라는 두 가지 위험요소에 의하여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1] - 폴 발레리 -

Nulla dies sine linea (눌라 디에스 씨네 리네아) - but there may well be weeks.
글쓰지 않는 날은 하루도 없이 - 그러나 여러 주일 중에는 있을 것이다. - 발터 벤야민-
(선을 긋지 않는 날은 하루도 없이 - 그러나 여러 주일 중에는 있을 것이다.)

1. 리베스킨트 : 별자리로 향하는 건축가 : 미완의 세계적 음악가

'디트로이트 뉴스' 신문[2]이 전하는 내용은 리베스킨트의 영국에서의 활동이다. 미국건축가 리베스킨트가 1996년 5월 17일(금요일)에 런던의 유명한 빅토리아와 앨버트 미술관의 전혀 새로운 현대적 모습으로의 증축계획〈사진 1, 2〉을 맡았는데, 이 계획안은 10층의 조각 같아 보이는 것으로 이미 대중적 냉소를 받고 있다.

"우리가 바라는 이 건물은 (21세기 미래를 위한) 런던의 새로운 항로표지이다." 미술관의 대변인 로빈 콜 해밀튼은 말했다. 이전 최대규모의 설계위임건은 베를린 미술관이었던,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아이디어는 여러 개의 출품작 중에서 선정되었다. 리베스킨트의 계획안 사진들을 본 런던 사람들은 강력한 인상을 받지 못했다.

"이거 농담이죠?" 학생 크리스 한센은 묻는다, "이 건물은 수학적 퀴즈나 아니면 지진이 난 대지 같아요." 다른 신

◇ 연 재 목 차 ◇

(격월 게재)

1. 렘 콜하아스 Rem Koolhaas
2. 다니엘 리베스킨트 Daniel Libeskind
3. 파올로 솔레리 Paolo Soleri
4. 딜러+스코피디오 Diller+Scofidio
5. 니콜라스 그림쇼 Nicholas Grimshaw
6. 에릭 오웬 모스 Eric Owen Moss
7. 라파엘 모네오 Rafael Moneo
8. 베르나르 쭈미 Bernard Tschumi
9. 아키텍토니카 Arquitectonica
10. 건축 스튜디오 Architeture · Studio

다니엘 리베스킨트(사진출처 : El Croquis, 1996 IV)

건축의 성질은 '맥락주의'와 '유토피아'라는 두 가지 위험요소에 의하여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고 리베스킨트는 생각했을 것이다. 두 가지 위험을 벗어나서, 새로운 건축을 향하려는 건축가. 다니엘 리베스킨트. 앞에 거론된 라틴어는 유태인 철학자 발터 벤야민의 글 "일방통행의 거리"의 글 중에서 옮긴 것이다. 아마도 리베스킨트에게는 다음의 의미로 보일 것이다. "유태인 대량학살의 역사적 의미를 하루도 생각하지 않은 날은 없다. 그러나 여러 주일 중에는 쉬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라틴어 '리네아' (Linea)는 '선'(線)의 의미도 있고 동시에 '글'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고 한다. 리베스킨트는 수많은 선을 사용하고 있다. 그가 사용하는 선의 의미는 무엇일까? 건축은 별을 그리기 위한 선으로부터 출발했지만,
삼각형과 역삼각형이 이루는 그 별은?

문에 난 반응은, "거대한 수정의 화장실과 빅토리안 화장실간의 만남처럼 보일 것이다." 였다.

영국의 '빅토리아 와 앨버트(V&A) 미술관'은 세계에서 장식예술 미술관으로는 규모가 큰 미술관이다. 1852년에 남부 켄싱턴 미술관으로 세워졌으며, 1899년 빅토리아 여왕과 앨버트 왕자를 기념하기 위하여 빅토리아와 앨버트 미술관[2]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오늘날 아름다운 빅토리아 및 에드워드 왕조식 건물은 조각, 가구, 패션, 직물, 회화, 은세공, 유리, 도자기, 보석, 책, 판화, 사진 등을 145개 전시실에서 전시하고 있다.

V&A 미술관은 이미 흔하게 존재하는 다른 미술관이나 무미건조한 미술관의 범주에 포함되려는 폐쇄성을 교묘히 회피하여, 새로운 종류의 경험을 제안한 것이다. 계획안은 3차원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예술과 역사의 소용돌이, 외부와 내부의 소용돌이, 미로와 발견의 소용돌이 등 대립되는 내용을 번안하여 기능적으로 관련되는 공간들을 밀착시켜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리베스킨트가 제안한 새 미술관은 런던의 가장 역사적인 지구들 중 하나에 위치한 빅토리아형 건물의 전면과 스카이라인을 압도하고 있다. 이 건물은 '보일러실'로 불릴 것이며, 2개 층의 로비와 전망 데크가 있는 개방된 현대 전시실의 모습을 갖출 것이다. 상대적으로 비좁은 대지 내에 자리잡고 있지만, 영국건축의 보수와 진보 진영간의 살아있는 논쟁의 중심장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내에서 현대건축에 대한 가장 혹독한 비평을 하고 있는 찰스 황태자는 이 계획안에 대하여 평을 하지 않고 있다. 황태자는 가장 단호한 근대주의자의 계획내용들이라도 해부해 볼 능력을 소유했다고 이미 증명되었는데도 말이다. 미술관장 알란 보르그는, 런던 시와 미술관은 모두 파리에 있는 루블 미술관내에 위치한 이오 밍 페이의 유리 피라미드와 경쟁하기 위하여 불만한 건물로의 증축을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영국 사람들은 영국의 황금시대를 찬양하기 위한 대단히 흥미로운 여러 건의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영국인 그 누구도, 지금도 얻을 수 있는, 런던 안에서 흥미로우며 도전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보르그는 말한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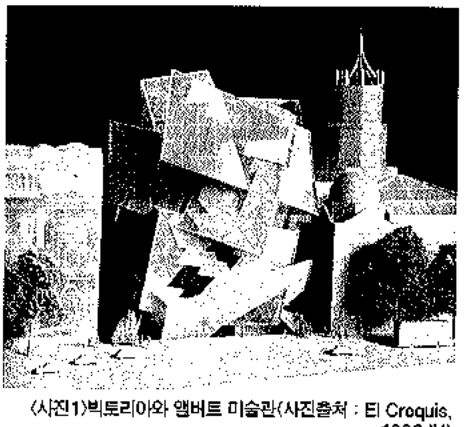
영국의 찰스 황태자가 비평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과, 영국은 파리의 루브르 피라미드 이상의 건축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가간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황태자가 이 건물에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일대기는, 적은 규모의 수상에서조차 이 건축가의 탁월한 아이디어를 기리고 있는, 영예와 성취로 가득차 있다. 그렇다고 해도, 친숙하지 않지만 이해를 자세하게 도와 리베스킨트를 잘 알게 해주는, 그의 생애와 작품 중에서 그의 면모들을 조금 들추어내는 것이 중요하다.[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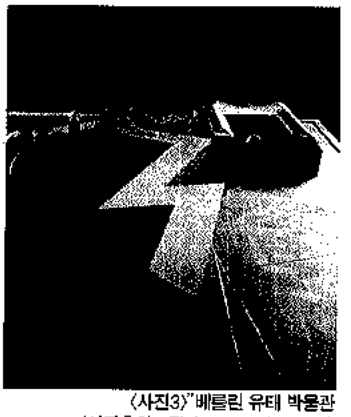
그는 1946년 폴란드에서 태어났다. 그의 이력서에 의하면 1959년 13세의 나이로 미국-이스라엘 문화재단으로부터 음악공부를 위한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스라엘에서 청년기를 보낸 리베스킨트는-아이삭 스턴이나 이차크 펄먼과 똑같이 - 유명한 음악 장학금으로 미국으로 간다. 그러나 그가 음악을 공부하고 연주했고 나이 15세 때에 콘서트 피아니스트로서 경력을 쌓았지만 건축가가 되기 위하여 음악을 그만 두었다. 그리고 쿠퍼 유니온에서 건축으로 졸업했다.

쿠퍼 유니온 이후, 리베스킨트는 영국 에쎅스 대학 대학원에서 요셉 리쿼르트 교수 밑에서 학위를 받기 위하여 건축이론과 역사공부를 하며 5년간을 살았다. 그리고 A. A. 스쿨에서 한 유니트를 맡아 강의했다. 이런 특수한 훈련을

1) "Humanity is permanently threatened by two dangers : order and disorder.",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 설명서 중에서, 『건축과 환경 Korean Architects』, 1996년 3월호, p.140.
El Croquis, 『Daniel Libeskind 1987-1996』, (Madrid: El Croquis Editorial, 1996), IV, p.86.
2) 1996년 5월 18일자 '디트로이트 뉴스' 신문.
http://www.detnews.com/menu/stories/48396.htm
3) The Victoria and Albert Museum, http://www.vam.ac.uk/welcome.html
4) http://www.detnews.com/menu/stories/48396.htm
5) 켄트 클라인만, http://www.tuns.ca/architecture/Libeskind.html


〈사진1〉빅토리아와 앨버트 미술관(사진출처 : El Croquis, 1996 IV)

〈사진2〉빅토리아와 앨버트 미술관
(사진출처 : El Croquis, 1996 IV)


〈사진3〉"베를린 유태 박물관
(사진출처 : El Croquis, 1996 IV)

쌓은 것이 훗날 그의 작품에서 풍토성의 지양은 물론 폭넓은 지식으로 나타난다.

다니엘 리베스킨트는 크랜부룩 예술아카데미에서 건축을 가르쳤다 - 아마도 그가 밀라노에서 자신의 학교를 설립하고 3년 동안 비영리 조직을 통하여 자신만의 방법으로 건축교육을 계속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니엘 리베스킨트가 세계적 명성을 지닌 대부분의 대학에서 강의했고 설계를 위한 방문교수였으며, 심지어 동독의 정치,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학교인, 이전의 동베를린지역에 있으며 잘 알려지지 않은 바이쎈지 아카데미의 초빙교수였다. 그의 경력은 너무나 다양하고, 세계적인 초청을 받고 있는 편이다.

2. 대량학살(Holocaust)과 평행선

역사의 절대적인 사건은 유태인 대량학살이며 진보의 역사 속에서 인본주의 진보주자의자가 재로 변했다는 것이다. 인본주의와 역사가 동시에 일을 벌인 듯한 진보성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가 나가사끼와 히로시마를 어찌 잊을 것인가? 역사 속의 이 사건은, 이의 농축-유태인수용소와 절멸-과 함께, 인본주의의 그리고 베를린 도시의 의미있는 발전의 연료고갈이라고 나는 믿는다.

- 다니엘 리베스킨트, 선과 선 사이[6]

> 홀로코스트를 겪은 여인이 비행기의 꼬리로부터 하늘에 궤적을 남긴, 길게 이어지는 선을 희망의 표시로 보았을까?"
> 아니면, 절망의 선으로 보았을까?
>
> 베를린 유태 박물관 지하에는 세 개의 선이 있다고 한다. 〈사진 3〉
> 하나는 홀로코스트 보이드로 가는 길이고, 〈사진 4〉
> 하나는 호프만의 망명과 이민의 통로로 가는 통로,
> 하나는 위에 박물관의 나머지 부분으로 가는 박물관의 중앙계단으로 가는 통로.[8]

리베스킨트가 보여주는 건축작품의 단서는 무엇인가?

무엇을 위하여 끝없는 선을 사용하는가? 리베스킨트에게 끝없이 남아있는 생각은 비극으로 점철된 유태인의 역사였다. 유태인의 역사는 그 역사를 표현하는 단어-홀로코스트(Holocaust : 대량학살)에 압축되어 있다. 정신나간 한 부류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 죄없는 다른 부류를 죽게 한 사실로부터 인간 존재의 약점 또는 인간의 근본적인 결함에 대한 리베스킨트의 분노와 반작용은 과거의 역사적 지식, 앎, 철학, 형이상학에 대한 분노를 건축적으로 표출했다.

히틀러로 대표되는 독일 나치가 유태인을 집단적으로 살해한 대량학살(Holocaust)은 우리에게, 또는 서구인에게, 그보다는 유태인들과 세계에 흩어져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유태인 후원 그룹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인간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고, 그렇게 믿어왔던 진보에 대한 끝없는 의문을 일으켰다. 도대체 근대(Modern Age)라는 시대로부터 신주단지 모시듯 떠받들던, 지식, 진보, 이성이란 무엇인가?

이점에 대해 리베스킨트는 깊은 회의를 품고 있었고 그것이 그가 음악을 포기하게 된 이유도 될 것이다. 확실한 것은 그가 포스트모더니즘을 낳게 한 지나간 시대의 철학적, 인문적 문제를 결벽증을 지닌 채 전지하게 다룬다는 것이며, 홀로코스트로 인하여 그것은 서구문명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났고 이것을 건축적으로 표현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유태계 가문으로 폴란드에서 태어난 리베스킨트의 어린시절이나 집안내력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진 것은 없지만 아마도 대량학살을 겪은 가족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스라엘에서 보낸 어린시절과 그곳에서 받은 장학금이 그런 짐작을 하게 한다. 세계적인 음악가가 될 것이 확실하고 촉망받던 음악가의 길을 포기하고 건축을 택한 것은, 자신의 생각을, 메시지를 담을 미디어로 건축을 택하게 된 계기를, 스스로 찾은 것이 아닐까?

"선과 선 사이" (Between the lines)란 말은 서로 화해할 수 없는 평행선으로서의 두 벽과 그 두 벽 사이에 있는 갈등을 묘사하고 있다. 그 갈등이란 표면의 분열과 형태적 변종, 돌연변이로 나타났다. 그것이 불신이 아니면,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평행선을 암시한다. 그는 최소한 독일인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독일에서

6) http://ecila.visual.arts.uwo.ca/helpd/Elac/roady/joel/quotations.html
7) El Croquis, "Daniel Libeskind 1987-1996", (Madrid: El Croquis Editorial, 1996) Ⅱ, p.7.
8) El Croquis, "Daniel Libeskind 1987-1996", (Madrid: El Croquis Editorial, 1996). Ⅳ, p.11.

〈사진4〉 강력한 선을 보여주는 내부 모형사진, 베를린 유태 박물관
(사진출처 : El Croquis, 1996 Ⅳ)

많은 당선작을 내고 있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선과 선 사이"로 불리는 베를린 박물관 프로젝트는 정식 명칭이 '베를린 박물관에 연결된 유태미술관의 증축계획안' (1989년)이다. 〈사진 5, 6, 7〉

유태미술관의 증축계획안에 나타난 형태적 의미는 무엇일까? 리베스킨트는 그 단서로 4가지 측면을 말하고 있다.

- 독일과 유태인 사이의 연결고리
- 아놀드 쉔베르크
- 베를린에서 추방된 개인들
- 발터 벤야민의 '일방통행로'

이중에서 직접적으로 형태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벤야민일 것이다. 리베스킨트가 유태인 철학자 발터 벤야민의 글 "일방통행의 거리"[9]를 인용한 것은, 리베스킨트의 작업이나 비평적 모습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된다.

"지그재그 형태로 60개의 단면이 계속 이어지며 각 단면은 발터 벤야민이 '베를린 묵시록'에 묘사된 '별의 정거장들'[10]을 나타내고 있다."[11]

'별'이라는 것은 두 개의 삼각형을 겹쳐 만든 6개의 축을 지닌 별을 말한다. 나치에 의해 유태인들이 가슴에 달았던 별. '노란 색의 아주 낡고 일그러진 별', 이스라엘의 별, 시오니즘의 상징, 팔레스타인 지역 시온 산에 모여든 별. 베를린 박물관에 이어진 유태박물관의 모양은 그 별의 파편들이다. 떠도는 별들이 쉬어야 하는 정거장으로서의 박물관을 세운 것이다.

"일방통행의 거리"중에, 글과 비평에 관한 내용도 있다. 그 상황을 건축으로 바꾸어도 가능할, 예술가의 태도와 비평가의 태도를 지적한 내용이 있다. 그 중에서 건축적으로 환원해도 될 말은,

눌라 디에스 씨네 리네아 (Nulla dies sine linea - but there may well be weeks.)

글쓰지 않는 날은 하루도 없이- 그러나 여러 주일 중에는 있을 것이다.

(선을 긋지 않는 날은 하루도 없이 - 그러나 여러 주일 중에는 있을 것이다.)

라틴어 Linea 는 '선'(線)의 의미도 있고 동시에 '글'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고 한다. 리베스킨트는 수 없는 선을 사용하고 있다. 그가 사용하는 선의 의미는 무엇일까?

"유태인 대량학살의 역사적 의미를 하루도 생각하지 않은 날은 없다. 그러나 여러 주일 중에는 쉬는 시간이 있을지 모른다." 비문에 새겨져 늘어서 있는 유태인 사망자 명단 〈사진 8〉은 그의 도면 속에서 자주 눈에 띈다. 모형의 바닥에 펼쳐져 있기도 하고, 입면에 조각으로 붙어 있기도 하며, 전시 도판에 등장한다.

3. 오브제 : 개념적 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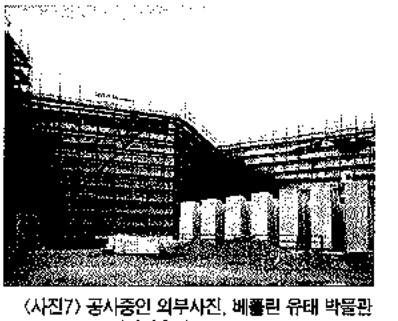
그는 설계의 시발점으로써 서구건축의 고전주의나 모더니즘 중 그 어느 것도 출발점으로 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맥락주의'나 '유토피아'에 대한 리베스킨트의 생각으로도 확인된다. 현대건축과 도시화는 '맥락주의'나 '유토피아'라는 전통적 생각을 따르기 보다,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논박하면서 기존 현실의 변형을 수용하는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머리 속에는 인간역사에 대한 혼돈으로 가득하다. 예로 든 복잡한 도면은〈사진 9〉 그가 버리고 싶은 서구건축의, 인류건축의 모든 쓰레기들이고 그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수 없는, 만들어 내어서도 안되는 것이다. 그런 건축적 대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림이다. 만약 그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낸다면 그것은 인류의 역사가 다시 그런 비극을 재현할 것이란 것을 암암리에 암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9) One way street.
10) Stations of the Star
11) Architectural Monograph No16, 'Daniel Libeskind-ountersigru.(London:Academy Editions,1991), p.80.

〈사진5〉 주위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베를린 유태 박물관
(사진출처 : El Croquis, 1996 IV)

〈사진6〉 공사중인, 베를린 유태 박물관
(사진출처 : El Croquis, 1996 IV)



〈사진7〉 공사중인 외부사진, 베를린 유태 박물관
(사진출처 : El Croquis, 1996 IV)

궁극적 공간[12] 이라고 명명된 글에서 리베스킨트는 합리와 비합리가 뒤섞인, 자발적인 것과 강제적인 것이 뒤섞인, 혼돈으로 나타난 상황을 선에 의한 드로잉으로 보여준다.〈사진 10〉 즉, 그림은 건축디자인의 원천으로서의 그림이라기 보다 홀로코스트의 비극을 직면한 뒤의 그의 심리적 상황, 그런 전쟁의 비극을 연출한 결함을 지닌 인간 의식내부의 혼선을 그려낸 것이다. 리베스킨트가 말한 '궁극적 공간', '최후의 공간' 또는 '마지막 공간'에서 말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대에서의 건축 도면들은 싸인(Sign)의 특성을 취하고 있다. 건축과 건축시공의 압도적인 노력들 속에서 싸인들은 부동의 자세로 침묵하는 공범자가 되었다. 이런 방법으로, 싸인 자체의 열리고, 그리고 잘 알 수 없는 지평은 기술의 '선험적' 응집력으로 선언하는 정도로 격하되었다. 싸인 들은 단지 기술적 부가물로 생각하거나 자명한 단계로 만들어진 연속적 실험으로 협조하면서 모든 외부의 참고자료로부터 저지되고, 순수한 공식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소멸의 자재들로서 싸인들은 나타난다. 재현을 위하여 잘 정돈된 이론을 시작하고 또 그것들을 통합하려고 시도하므로써 건축도면의 고전적 공리들이 오더의 모든 이론 속에서 애써 유용함을 만드는 가운데, 지금의 형태체계는 그 스스로 수수께끼-아직 발견되지 못한 용법을 위한 알려지지 않은 도구들-로 보여준다. 오늘날, 우리는 좀처럼 우리가 일반적 견해로 격상시킨 특수한 조건으로 시작하려 하지 않는다 - 도리어 우리는 일반적 견해로부터 특수한 문제로 격하시킨다. 어쨌든, 이러한 경향에서 의미있는 것(추상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이 뒤바뀐 곳에서)은, 도면의 감소가 드로잉의 성질을 해방시키려는 선언이다. 드로잉이 줄어드는 것이 지식의 기계적 작용을 증폭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 드로잉이란 '현실'의 새로운 영역에서 충격으로서 밝혀내는 기구이다.[13]

여기서 "싸인 들은 부동의 자세로 침묵하는 공범자가 되었다"는 것은 대량학살의 장면에서 그런 건물의 벽과 공간을 형성한 그 많은 선으로 이루어진 '싸인'에 대한 원망이 담겨있다.

건축물에 유동적인 여러 켜의 발판을 만들게 하는 보이지 않는 배경은, 우리가 합리성에 대한 내적 가정으로부터 제거된 인식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드로잉들은, 의식의 심연에서, 그 핵심이 자발적인 것과 어쩔 수 없는 것 사이의 마찰인, 기하학적 질서의 내적 움직임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릴 수 있을 것 같은 때만 받아들이는 경험을 증명하는 역동적인 바탕을 가리키는 능가할 것이 없는 조건으로서, 다시 한번 이러한 이중성(사실주의-형식주의 같은 것처럼)은 나타난다 : 선 자체가 그리도록 허락할 때만 그려라.[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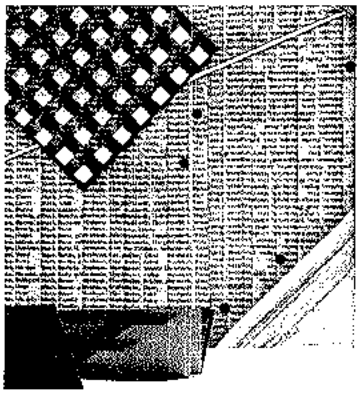
이러한 내용은 리베스킨트의 초기 오브제에서도 확인된다.

• 독서용 기계 (Reading Machine): 중언부언 돌아가며 같은 내용을 전달해 온 텍스트로서 역할을 해온 8권의 책이 선반 위에 얹혀져 목재 원판과 함께 돌아간다. 책의 각 글자들은 앞으로 움직이기 위하여 스스로 뒤로 회전해야 하는 자기존재를 망각하므로써 말을 시작한다. 책들은 자기 무게가 아닌 나머지 7권의 무게로 비교되기 위하여 움직인다. 이 기계는 연애시로 유럽 근대문학 최초의 인물인 이탈리아 시인 페트라르카에게 바쳐졌다. 아교를 쓰지 않고, 현대적인 에너지원 없이 '중세적' 방법으로 움직이며, 이 기계는 물질에 대한 정신적 승리를, 어둠에 대한 촛불을 표상한다.[15] 〈사진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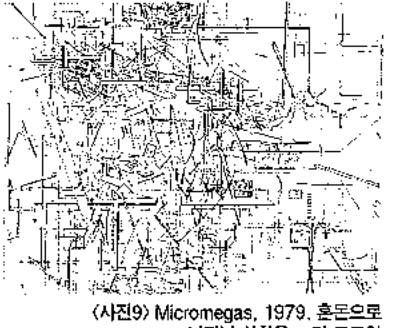
앞에 앉은 독자에게 같은 영향을 주거나, 이해될 수 없는 또는 잘못 이해된 고전으로서의 과거의 지식을 전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서구의 형이상학에 대한 반발로서의 독서용 기계이다.

• 기억 기계(The Memory Machine) : 기

12) End Space, Micromegas, 1979.
13) Architectural Monograph No16, "Daniel Libeskind Countersigru,(London:AcademyEditions, 1991). p.14-15.
14) Architectural Monograph No16, "Daniel Libeskind-Countersigru,(London:AcademyEditions, 1991). p.15.
15) Architectural Monograph No16, "Daniel Libeskind-Countersigru,(London:AcademyEditions, 1991). p.46-49.



〈사진8〉 모형 바닥에 붙여진 유태인 사망자 명단을 연상시키는 전화번호부 명단
(사진출처 : Architectural Monograph No 16)



〈사진9〉 Micromegas, 1979. 혼돈으로 나타난 상황을 그린 드로잉
(사진출처 : Architectural Monograph No 16)

〈사진10〉 조립된 것을 풀어버리는 작업(Deassembly) : 혼돈으로 나타난 상황을 그린 그림으로, 건축을 다시 시작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사진출처 : Architectural Monograph No 16)

억의 기계는 건축에서 아직도 기억될 만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근대 문헌학의 선구자인 네덜란드의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에게 바쳐졌다. 기억 기계는 단지 무대배경으로 구성되었는데, - 그 장관은 무대배경을 감싸며 모두 외부에 펼쳐져 있다. 인간의 르네쌍스 방식으로 이루어진 기억의 기계는 여러 종류의 발명들과 공상적인 작품들이 풍부하다. 나무와 '매달려 있는 종이들'로 실행된다. 무대배경은 핏빛 붉은 색이 등장하는데, 이름 없이 사라진 것에 바쳐진 성소 내부가 외부처럼 역설적으로 뒤집어져서 빛나는 면으로 나타난다.[16] 〈사진 12〉

• 필기용 기계 (Writing Machine) : 볼테르에게 희망을 보내는 검은 색의 필기용 기계는 기억과 읽는 자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확한 생각으로 투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볼테르는 선구적으로 계몽주의운동에 헌신한 사람으로 프랑스 혁명을 사상적으로 준비한 사람이다. '팔마노바' 같은 도시뿐만이 아니라, 문화로서 책에 기억된 모든 장소가 수집되어 배열된다. 계몽으로 이루어진 전망을 통하여 지식의 무작위적인 짜 맞추기가 7열씩 7칸으로 수집되어 각기 4면으로 나뉘어 비추인다. 회전하지 못하는 손잡이가 특히 선명하게 부각되어 있다.[17]〈사진 13〉

어찌 보면 서구의 문명이나 문화는 확석화되어 검게 되어버린 문자들의 인쇄용 주조활자처럼 보인다. 아마도 계몽의 시점으로 되돌아가 볼테르에게, 계몽의 작업을 제대로 다시 시작해서 인류의 비극을 미리 막았으면 하는 내용의 메시지로 해석된다. 리베스킨트는 빅토르 위고의 예언도 곁들인다. 베를린, 도시의 경계[18]에서는 모형을 바라보면, 바닥에 건축도면, 성서, 전화번호부, 지폐 등 쉽게 찢어지는 종이를 꼴라쥬하여 주위를 만들었다. 여기서 전화번호부를 보이려 하는 것은 잊혀져 간 유태인의 명단일 것이다. "지워진 선-역사의 축/지렛대/고체의 선/영역으로서의 장/던져짐/직선을 누르는 곡선/최후의 점" 등이 표제어로 등장한다. 잘못된 역사로 가득 찬 도시의 경계에서 하늘로 승천하는 건물이 길게 용트림하고 있다. 1985년 베니스 비엔나레에 도시경계 프로젝트[19]가 '거대한 기계들'로서의 건축으로 전시되었다. 〈사진 14,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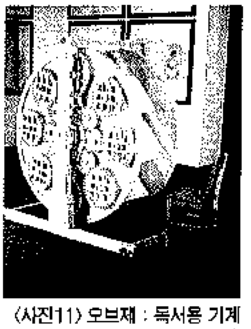
"우주의 희망의 축을 따라, (자신의) 장소를 벗어난 이름들과 끊어진 선들, 인위적인 점들을 재 정렬시키며, 도시와 그 건축의 실체는 여행을 떠난다."[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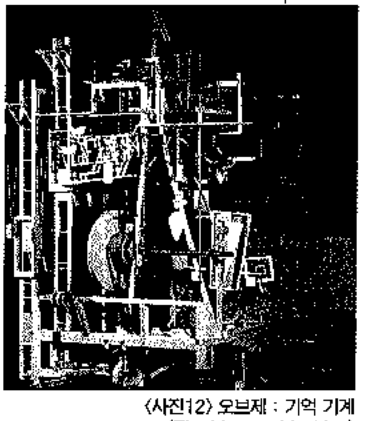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갤러리 마 전시회[21] 『주요한 침묵』에서, 입구에서부터 20미터의 트랙이, 유리벽을 지나 서서히 왕복하여 한끝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2미터 직경의 원판이 있는 정원으로 이어진다. 이 기계의 명칭은 "선과 바퀴"이다. 트랙 옆 전시장의 중앙에는 거대한 스케일의 자동측정기계를 닮은 다른 오브제가 있다. 6개의 다른 크기의 원반들이 알루미늄을 씌운 경사진 원통 위에 가볍게 삽입되었는데 알루미늄 모델이 회전하도록 하고 있었다. 특정한 방향없이 소리없이 움직이는, 이러한 두 개의 오브제들은 침묵 속에서 어떻게든 외치는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것이 독특한 리베스킨트의 대립된 세계이다.

4. 건축에서의 이론

영국, 런던에서 1993년 6월 13일 토요일에 벌어진 『아카데미 인터내셔널 포럼 : 건축에서의 이론과 실험법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22] 에서 처음으로 질문을 받은 사람은 리베스킨트였다. 기존의 건축가들을 당혹하게 만든 그의 새로운 표현방법은 건축에서의 이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는 어떤 이론 하에서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는지 의문을 품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그 초반부를 번역한 것이다.

16) Architectural Monograph No16, 『Daniel Libeskind-Countersign』,(London:AcademyEditions, 1991). p.50-53.
17) Architectural Monograph No16. 『Daniel Libeskind-Countersign』,(London:AcademyEditions, 1991). p.54-61.
18) Berlin, City Edge, 1987. Architectural Monograph No.16,『Daniel Libeskind- Countersign』, (London:Academy Editions,1991) p.65-83.
19) the 1985 Venice Biennale the City Edge project
20) "A voyage into the substance of a city and its architecture entails a realignment ofarbitrary points, disconnected lines and names out of place along the axis of Universal Hope." Architectural Monograph No16, 『Daniel Libeskind-Countersign』,(London: Academy Editions, 1991) p.65.
21) 1994년 3월9일-4월16일 전시회, http://www.toto.co.jp/GALLERIMA/hist/en/exhibi/libesk.htm.
22) Andreas Papadakis,'Theory+Experimentation : An intellectual Extravaganza』, (London: Academy Editions, 1993). pp.33-71.


〈사진11〉 오브제 : 독서용 기계 (Reading Machine)
(사진출처 : Architectural Monograph No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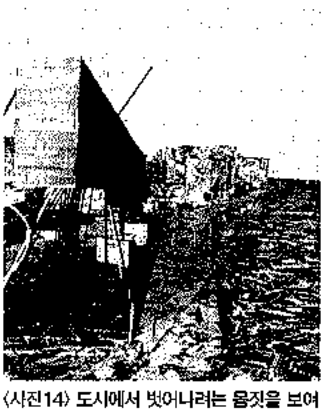

〈사진12〉 오브제 : 기억 기계 (The Memory Machine)
(사진출처 : Architectural Monograph No 16)

〈사진13〉 오브제 : 필기용 기계 (Writing Machine)
(사진출처 : Architectural Monograph No 16)

로버트 맥스웰(Robert Maxwell) : 일반적으로 엄격함을 지닌 영국 문화가 현대시대에 가져다주었던, 이런 지적 광상곡(狂想曲)을 마련해준 안드레아 파파다키스에게 개인적으로 특별히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빌어 여러분을 환영한다. 베르나르(쭈미)와 나는 공동의장으로 이곳에 있다. 내가 아일랜드 사람처럼 비교적 쉽게 말하기 때문에 초청된 것 같고, 터놓고 말하려 한다. 베르나르는 그의 실제 건축작업에 확고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같이 진행을 하면서 서로 상대방의 의사를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 어쨌든 첫 연사를 모시기 전에 "이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려 한다. 이 자리에 있는 누구든, 지난 10년동안 진행된 이론들의 아이디어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누구이든, 첫 마이크를 받았으면 좋겠다. 스탄 앤더슨의 기본주제는 누구든 모래를 확보하는 방법을 안다면 그것은 건축을 위한 꽤 좋은 재료라는 것이다. 이것은 이론에 대한 과학적 사고다. 다니엘 리베스킨트, 당신이 우리에게 무엇이 이론인지 말해주실 수 있습니까.

다니엘 리베스킨트(Daniel Libeskind) : 맥스웰 교수로부터 무엇이 이론인지 말해주기를 요청받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 질문은 이미 우리를 천년전의 과거로 되돌린다. 안 그런가? 1000년경에 유럽전역에서 이런 회의를 수없이 개최했다. 그들은 귀신론에 대해, 허무주의 그리고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토론했다. 우리는 역사로부터 믿을 수 없이 어려웠던 시기였음을 알고 있고, 그 당시 르네쌍스의 시작들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후에 이것은 12세기 르네쌍스로 불렸고 지금도 그러하다. 이것이 우리가 과학의 시작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랬는지 나는 잘 모르겠으나, 정치에 따라 맞대응해서 이데올로기가 바뀐 것처럼, 이론들은 건축물에 관련된 그 역할이 변해왔다. 그러므로 건축에 관여하는 정치적 이슈들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론에 대한 논의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나는 건축에서의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것(Radicality)은 글, 문학, 음악, 그리고 예술 등도, 말하자면, 정치적 맥락으로 이미 속박당하고 있으므로 그 모두가 정치적인 것이며 정치적 맥락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건축의 정치적이란 것은 건축의 실현을 말한다.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것은, 건축가는 누구이며 누가 실무를 할 수 있는지, 말을 해도 되는 사람은 누구인지, 정치적으로 개방한 사람은 누구인지 하는, 중압감을 주는 한계로서의 가능성이다. 물론 이것은 시인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나-책으로 발간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누구나 계속해서 글을 쓸 것이다; 작곡가의 작품은 바로 연주되기 어렵지만, 그러나 악보를 기록하기는 쉬울 것이다, 이것이 제한된 행동의 정치적으로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것"(Radicality)이다. 지어진 건물을 확보한다는 것은 많은 종류의 공간적 크기에 대한 정치적 행동이다. 정치적 행동은 대규모로 대중이 관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실재적으로 환경적 자원을 필요로 하며, 경제적 감각뿐만이 아니라, 이에 못지 않게 정신적으로도. 나는, 급진적으로 정치적인 시기에 우리가 들어서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대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선형과정을 벗어난 건축을 깨닫는 중이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건축이론에 대하여 말한다면, 나는 당신들이 언급할 이론을 과학적 이론- 과학이론이나 물리학의 이론-으로 제한하려하지 않고, 정치적 이론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것은 먼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의 첫 출현과 상봉하게 되는데, 나는 항상 이 책에 대해 놀라곤 한다. 형이상학에서는 "모든 인간은 알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란스러운 거짓말이다. 나는, 그렇게 믿을 수 없는 비경험주의적인 언명을 가지고 어떻게, 아리스토텔레스와 그리스 철학전통이 아무도 도전할 수 없도록 성공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시작에서부터, 이론은, 우리의 경험에 의하여 간단하게 증명되지 않은, 보편적 욕망의 종류로 여기는, 소용없는 토대로부터 발전되었다. 이러한 전제는 아테네에는, 항상 알고자 노력했던 사람, 그리고 언제나 이러한 아이디어를 전세계와 우주에 확장했던 사람과 아이디어를 인간성 및 지식에 거의 관심없는 사람들의 세계의 취약점에 병치시키려 했던 사람들, 세 종류가 있었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그것이 내가 이론과 실험법이라고



〈사진14〉 도시에서 벗어나려는 몸짓을 보여주고 있는 '베를린, 도시의 경계'의 모형
(사진출처 : Architectural Monograph No 16)

〈사진15〉 베를린, 도시의 경계'의 모형
(사진출처 : El Croquis, 1996 IV)

부르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이론과 실험법' 이라고 이름지을 수 있는 표상은 무엇이고,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나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나, 이것은 동물원에 있다. '이론과 실험법' 을 위하여, 건축을 위하여 또 도시발전을 위하여 내가 제안하려 하는 동물원의 표상은 뿔달린 동물들의 표상이다. 나는 뿔들(양도논법)에 대하여 생각한다: 환상적인 어떤 것에 대한 단단한 껍질. 살아남은, 끝까지 살아남은, 동물들의 한 측면이 있다. 그것은 영원하고 비활동적인 것이다. 〈사진 16,17〉

레비어스 웃즈(Lebbeus Woods) : 나는 최근 기억 속에 실제로 건축적 이론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이론이 담당해야 할 것은 미래에 특정한 조건 아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언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과학의 주요 목적이다. 그후에 실험주의자는 일련의 사건들을 어떻게든 예측이 가능하도록 확고하게 조금씩 작업하게 된다. 이것이 나에게는 희망하는 아이디어가 대단히 강력한 것으로 들린다: 건축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이디어를 그들의 목적에 맞추어 적용시키는데, 그러나 이것은 정확히 이론은 아니다. 그래서, 비록 이론화하는 방법들이 있었지만, 나는 어떤 이론이 있었는지 도전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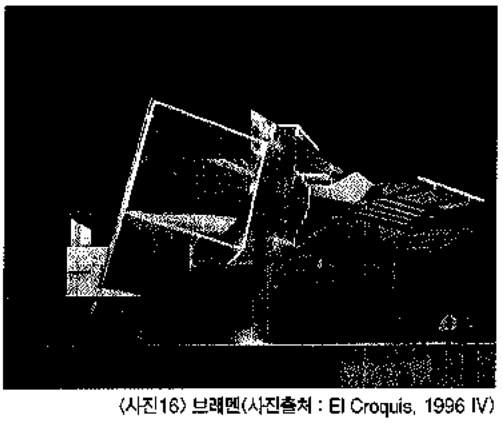
에릭 오웬 모스(Eric Owen Moss) : 아마도 '이론' 의 아이디어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생물학적 '속' (屬)(Generic) 의 개념으로 가정할 수 있다. 만약 우리에게 유용한 이론이 있다면, 그것은 반이론적이며 그것은 누구든지 자신의 개인적 이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가 "누구든지 알고자 한다"고 말했을 때, 필연적으로 잘못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완전한 문장은 아니었다.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그 '무엇' 이 사적인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는 옳았다.

다니엘 리베스킨트(Daniel Libeskind) : 그리스에서는 사적인 상태의 개인은 '타고난 백치' 이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맥락에서 그것은 사실일 수 없다.

에릭 오웬 모스(Eric Owen Moss) : 그것은 사실일지 모른다.

로버트 맥스웰(Robert Maxwell) : 당신이 의미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느냐? 비트겐슈타인은 사적 언어이론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만약 당신 이론이 사적인 것이라면, 이것은 세계에 있는 건축학도들이 그들의 계획안의 근저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말할 때, 이에 상응한 영향을 보인다. 학생들이 말하기를, "나는 여기에 벽을 두기로 했다, 이 벽은 경계벽인 동시에 연결점으로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벽에 대한 기존의 지엽적 의미를 해체한다." 그러자 모든 회색 턱수염이 난 회원들은 문제가 생겼다. "사적으로" 정의된 이론은 디자이너를 위하여 우수한 율동체조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론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는 분명히 공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중이다. 프란시스 베이컨이래 계속되어 온 과학이론은 헤겔 식의 감각으로 누적적이고 정상을 향하여 쌓여 가는 것으로 생각되는, 그리고 계몽의 마지막 단계로 이끄는 지식 안에서의 이론이었다. 그래서 당신들은 항상 추가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의 실험실에서 별로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이 그의 실험실에서 역시 무반응을 확인하지 않는 한, 이론은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효과적인 이론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존경해야 할 것이, 기술까지 포함하여 과학 등이 있었는데,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하여 도움을 준다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이제 세상을 먹어 치우는 도깨비의 한 종류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인간이 신으로부터 힘을 효과적으로 전수 받았다면, 과학을 통하여 진리는 증명되고 확립될 수 있다는 가정은 그런 일의 행위 도구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의 그런 측면을 존중해야 하고, 우리가 그런 건축이론을 활용한다고, 아마도, 비난할 수 없다. 내가 이것을 1979년에 말했는데, 나는 건축에 두 가지 이론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는 유용한 정보 중에 10% 정도를 다루는 과학적 이론이고, 그리고 다른 이론은 완전히 문



〈사진16〉 브레멘(사진출처 : El Croquis, 1996 IV)

〈사진17〉 비스바덴(사진출처 : El Croquis, 1996 IV)

화적이고 생각을 변환시키는, 따라 움직이게 하고, 결코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론이다. 이 자리의 누가 과학적 이론에 대한 토론을 진전시키기를 원하는가, 이 토론을 잠재우지 말고.

켄 카플란(Ken Kaplan) : 나는 실험이라는 것에 이론을 직면시키려는 프로그램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내 생각에 과학자들이 작업하는 방법은 먼저 실험을 하고, 그 뒤, 어떤 면에서 가설을 만들고; 그들은 절차와 방법을 발전시키고, 만약 몇 년뒤에 그들이 동의할 만한 이론을 도출한다면, 그들은 즉시 회의를 열어 새로운 방법을 시험하려 할 것이다. 실험 앞에 이론을 투여하려는 생각은 내가 보기에 앞뒤가 바뀐 것 같다. 건축가에게 재미있고 적절한 이론은 실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은 최소한 내가 건축에서 이해한 것으로 알게 된 - 글쎄, 최소한 실험될 수 있는 - 단어이다.

베르나르 쭈미 (Bernard Tschumi) : 몇 분 전에 로버트 맥스웰이 이론의 문화적 측면을 말했는데, 켄 카플란이 지적했던 것이며, 그가 말하기를, 돌려하기 보다, 실험은 마땅히 이론을 진척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작은 이야기하나 하겠다. 인류학자들은 레비 스트로스에 매우 안달하곤 했는데, 그것은 스트로스가 이론을 발전시키면서 온 생애동안 파리의 작은 방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고, 자신의 이론을 확인하려 할 때만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계란과 닭의 상황으로 보지 않는다. 어쨌든, 재미있는 것은, 건축에는 항상 이론이 존재했다는 것이고 그 이론은 다양한 형태를 낳았다는 것이다: 비투르비우스에서 듀랑, 르 꼬르뷔제, 오늘날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러나 이론은 항상 그 시대의 과학과 문화와 관계가 있었다. 듀랑의 건축이론은 과학, 실증주의 등에서의 발전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마도 비투르비우스, 듀랑과 르 꼬르뷔제에게 건축이론의 목표는 건축의 중심에 다가가는 것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오늘날, 그 목표는, 실험을 필요로 하는 영역인, 건축의 주변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당신의 초점으로 돌아가면, 건축은 다른 것, 수학, 물리학, 문학과 같이 바로 지식의 한 형태이며, 분명히 주변을, 실험 또는 분석적, 이론적 접근을 바라보아야 할, 한계에 흥미가 있는 사람들에게 지식의 형태를 확장하기 위하여 : 다시 나는 위계질서를 만들지 않을 것이며, 양자간의 우월을 정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것은 기본적 생각이 될 것이나, 이것 또한 건축이 이미 변했다는 정의를, 아마도 정의가 주변에 있고 그리고 중심에서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보톤드 보냐르(Botond Bognar) : 전통적 원리들은 무너지고 있고 건축의 영역은 엄청나게 확대되었다. 정말로 건축은 중심이 아니라 주변이라고 나는 베르나르에게 동의한다. 기계적 의미의 세계는 무너졌고, 세계는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그리고 상상 또는 허상…….

로버트 맥스웰 : 그렇다. 기술이 과학의 소산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 해도, 이것은 분리된 힘이 아니다. 기술은 과학의 발견이기 때문에 서구에서만 개발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거론할 때, 서구적 감각에서 과학의 응용이라는 결론적 요점에 관하여 언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진 18, 19〉

에릭 오웬 모스 : 당신이 말한 것은 흥미롭다. 나는 당신이 마지막에는 이러한 과학적 실증주의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게 될 거라고 본다: 진보하는 것을 암시하는 기술이란 부가적이고 누적적이라고, 사물이 향상된다고, 하나의 이론은 다른 이론을 능가하고, 지식은 증가한다. 〈후략〉

5. 빅토리아 와 앨버트 미술관 : 영국의 변화

런던, 빅토리아 와 앨버트 미술관 증축[23]을 통하여 다니엘 리베스킨트는 자신의 건물들이 이해되길 원하고 있다. 레이먼드 라이언은 리베스킨트에게 영국사람다움과 사물이 확립되는, "정신"에 대하여 말한다.

"만약 건물이 스스로 말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건물을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찰스 왕자가 '영국의 비젼'에서 글을 썼다. 책임감과 공개적으로 나타난 것에 대한 찰스 왕자의 변명은 물론 전후 기능주의의 단절되었던 오브제나 다홍색 색채에 반응한 것이다. 영국 도시들의 특징은 바우하우스 아류의 관료정치로부터 다양한 영향을 받았다. 시민들은 그들의 물리적 주위환경으로 특성화 할 수 없었다. 건축은 예술로부터 분리되었다.

더욱 역사적인 접근을 위한 찰스 황태자의 욕망은 근래 역동적이고 놀랍게도 기대하지 못한 반응으로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작품 속에서 발견된다. 분명히, 신고전주의와 해체주의, 파운드베리와 유태박물관은 분명한 같은 성질을 지

〈사진18〉모든 현대예술과 앞으로 태어날 예술활동까지 수용할 선형 공간 : 뚜르 현대예술센터(사진출처 : El Croquis, 1996 IV)

니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심술궂어 보이는 논쟁의 두 가지 측면들은 장소에 대한 의미와 역사와 문제들을 심사숙고하게 한다.

리베스킨트의 벽과 평가는, 있음-대-비어있음(Solid-to-Void)의 측정과 표면의 교묘한 처리는 모두 틀과 해독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그의 목표는 서로 참여하는 감각 속에서 이해되는 것이다. 사실, 현재 하노버 사람의 취향에 관계없는 리베스킨트의 건축은 이상하게도 영국적인 것이다.

"나는 외국인이라고 별로 느끼지 않는다." 폴란드에서 태어난 리베스킨트는 영국에서 생활하고 건축하는 것에 대하여 말한다. "그곳에 사는 사람처럼 지내는 것이, 내 일대기의 특징이다."

말이 많은 그러나 총명한 '지식의 천사'를 닮은 리베스킨트는 아직도 역사와 이론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데, 디트로이트의 크랜부룩에서,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자신의 건축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으면서, "독서/필기/인쇄 기계들"을 베니스 비엔나레에, 베를린 IBA에는 수평적 고층건물을 출품했었다. 독일에서 여러 역사적인 대지에 재배열하면서, 리베스킨트는 V&A 미술관을 위한 용장한 대중적 선언으로 런던의 종기를 다시 터트리기 위하여 지금 런던으로 돌아왔다.

'보일러실'은 예술, 수공예와 디자인을 새롭게 해석하게 해주어, 일반 대중들이 현대 디자인의 새로운 경지로 몰입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일상적인 미술관 공간과는 전혀 다른, 이 미술관은 방문자들에게 V&A 미술관을 살아 움직이듯이 역동적으로 경험하도록 해 줄 것이다.

그러나 1996년 8월 15일[24] 뉴스에 이 건물의 다른 진행사항이 실려있다.

다니엘 리베스킨트는 일반 대중들이 건물의 높이와 전체 크기에 대하여 큰 우려를 표명하자 'V&A 보일러실' 계획안을 수정하기 위하여 돌아갔다. 어쨌든, 미술관의 충격은 결코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V&A 미술관 측은 말했다. 설계경기 우승자는, 계획안 전시회 방문자들에게 조사한 의견을 존중하여, 지금 5%정도의 건물 크기와 건물의 외곽선을 줄이려 하고 있다. "우리는 V&A미술관의 틀 내에서 좀 더 자연스럽게 조절하기 위하여 건물의 선을 조절하려 한다" 미술관의 프로젝트 담당책임자는 말한다. "건물은 조금 얇아지고 더욱 우아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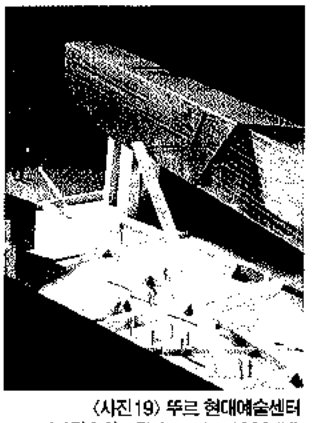
1000명 이상의 방문자들은 언론에 대규모로 나타난 계획안에 대한 일반인들의 반응을 궁금해했다. 전시회 첫주 마지막날에 210명이 관람하고 지나간 직후, 건물의 높이에 반대하는 관중들의 반응이 나타났는데, 관람객의 57%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평했다. 3%의 의견은 "보존하면서" 건축이 이루어지기를 바랐다. 어쨌던, 전체 전시회 과정 속에서 불만족은 줄어들었는데, 부정적인 견해는 48%로 떨어졌으며, 한편으로 처음에 긍정적인 반응은 39%였다. 이 비율은 전시회 동안 서서히 40%정도를 약간 상회했다.

건물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 리베스킨트의 설계가 다른 V&A 미술관의 건물이나 싸우스 켄싱턴 도시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너무 크고 작은 대지 안에서 너무 웅크리고 있다는 것이다: 타일들은 적당하지 않고, 특히 제안된 색체가 어울리지 않고 건물은 "관심만 끌어 모으려" 한다는 지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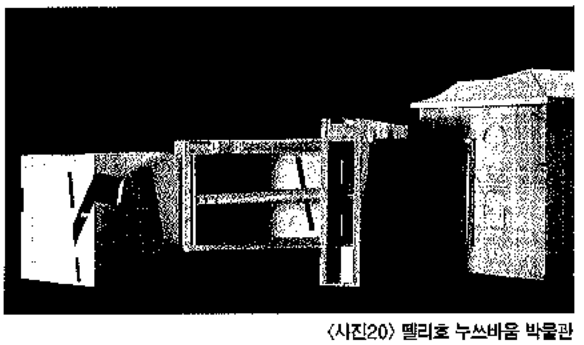
임페리얼 대학 애스턴 웹 건물에서 스크린으로 실내를 들여다 본 다른 사람들은, 이 건물이 경제적인 내부공간을 지녔는지 의문을 지녔다. 이 '보일러실' 같은 미술관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21세기를 위한 V&A 투자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했고, 국립미술관의 세인즈버리 별관처럼, 기존 미술관에 혼성작품을 덧붙이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라고 여겼다.

진행과정은 표출된 견해에 대한 V&A 미술관 측의 의도를 보여주는 선언이 될 것이며, 6개월이라는 기간에 최종설계를 위하여 계획안은 보완될 것이다. 발전된 계획안으로 장차 전시회가 9월이나 10월중에 V&A미술관에서 있을 예정인데, 왕실 예술위원회와 영국재단은 가을에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완공에는 5년이 걸릴 것이다.

23) Extension to the Victoria and Albert Museum, London, http://www.archinet.co.uk/blueprint/lib. html
24) 1996년 8월 15일 화요일, http://www.cmap.com/news/AJNEWS/815-114.htm



〈사진19〉 뚜르 현대예술센터
(사진출처 : El Croquis, 1996 IV)



〈사진20〉 델리호 누쓰바움 박물관
(사진출처 : El Croquis, 1996 IV)

6. 끝없는 모순 : 건축과 인간 그리고 예술

"정치적 망명의 좌절감과 더불어 비인간적인 억압에 대한 저항 예술의 비애(悲哀感 Pathos)"를 표현하기 위하여 형태가 완결되지 않아 노출된 갤러리로 단절되고 왜곡된 시간을 표현하며 기존 박물관과 연결된다. "출구없는 박물관"[25]으로 이름지어진 '펠리호 누쓰바움 박물관'은 기존건물과의 연결장치를 노출시키므로서 발생한, 붕괴된 공간감으로, 한 예술가 누쓰바움의 비극적 삶을 건축적 형태로 유추하였다. 정치적 망명의 좌절감과 비인간적인 억압에 대한 끝없는 저항 예술로서 나타난다.[26]〈그림 20, 21, 22〉

"태어나지 못한 영혼의 흔적들"[27]로, 명명된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은 베를린에는 유태인들이 탄압을 받은 대표적 장소를 상징한다. 태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도시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지칭하기도 한다. 이 작품에서 그의 태도 '맥락주의'도 반대하고 '유토피아'를 믿지 않는 리베스킨트의 태도가 나타났다. 이런 태도는 다른 작품에도 나타난다.[28]〈그림 23, 24, 25〉

맥락주의는 과거에 대한 건축적 반응이며, 이 상황을 추구하는 이상주의는 인간의 미래를 믿는 마음에서 유래 할 것이다. 리베스킨트가 둘 다 믿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태어나지 못한 영혼의 흔적들"은 다른 의미로, 홀로코스트로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 때문에 태어나지 못한 후손들도 상징한다. 이 설계경기에서 한 표 차로 낙선한 것도, 장점으로 보이는 베를린의 지역적 성격에 대한 명확한 해석보다는, 단점으로 이야기 될 만한 지나친 유태인 문제에 대한 집착 때문이 아니었을까?

묘비명에 끝없이 나열된 유태인 희생자들의 이름이 이루는 선의 평행선과 선들의 행렬들은 가끔 모형의 바닥에, 모형용 벽에 등장한다. 탁월한 수상과 계획안 속에 그의 명성을 가능하게 했다. 리베스킨트의 전시작품은 건축가들이 받는 건축적 훈련의 집단적 기억을 다시 묻고 있다. 물론 서양에서 건축물 공부한 사람에게는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겠지만, 우리도 그럴까?

브레멘은 리베스킨트에게 특별히 개인적 흥미를 지닌 곳이다. 브레멘, 뮤지컨 브레멘 음악당은 도시의 평면처럼 대지로부터 자유로이 일어난다. 리베스킨트는 단언한다. "이것은 새로운 방법으로 역사를 다루는 하나의 참여공간이다"

"모든 대지는 땅을 파헤친 폭력의 조각들이며 세계사에 참여하는 우리 자신의 과정을 가리키는 어떤 물체를 세우는 것이다."[29]

베를린에서, 편집자는 리베스킨트에게 두 'A'(Architecture, Art)에 대하여 질문을 했다. "건축은 예술인가?" 리베스킨트의 대답은 "절대적으로, 건축은 항상 예술이었다."[30]

질문[31] : 당신은 건축을 예술의 한 종류인 '건축예술'(Baukunst)로 정의했다. 어떻게, 당신이 말하는, 예술로서 건축의 개념 속에서 암시되는, 공간 내에 있는 자유를 정의할 수 있겠는가?

리베스킨트 : 건축은 예술로서 뿐만 아니라, 또한 문화로서의 건축이기도 하다. 건축이 개발을 위한 면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외에, 건축은 순수한 자본주의 방법으로 투자되고 회수되는 방법만이 아닌 것도 될 것이다. 이것은 인간존재의 사활을 위하여, 영적인 존재로서 필요한 일 중의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그것 없이는 진정으로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없을 것이다. 아마도, 개발의 행복감, 바로 건물의 행복감은, 광범위하게 도시에서 중요한 면모를 없애고 있는데, 당신이 긍정적이건 부정적인 방법으로 전시회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사람들이 전시회를 돌아 볼 때, 당신은 전시회에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방법을 모두 보게된다.

질문 : 나는 정치력뿐만 아니라 예술은 철저하게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다고 믿는다. 당신이 건축을 할 때, 누구를 염두에 두는지 말해주면 고맙겠다. 누구를 위하여 집을 짓는가?

〈사진21〉 펠리호 누쓰바움 박물관
(사진출처 : El Croquis, 1996 IV)

〈사진22〉 펠리호 누쓰바움 박물관
(사진출처 : El Croquis, 1996 IV)

〈사진23〉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
(사진출처 : El Croquis, 1996 IV)

리베스킨트 : 꼭 말해야겠다. 그것에 대해 생각했었다. 나는 건물은 이곳에 없는 누군가에게 제공되는 것이라고 본다. 건물은 시나 예술작품같이 제공되지 않는다.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를 보라: 그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과 말을 나누고 있다. 모든 좋다는 건물은 대중이 접근하기 좋지 않고, 다가가서 편안하다는 것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에게 접근해야 한다, 두 가지 면에서, 과거나 미래의 사람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손상된 마음으로 유태와 베를린의 역사를 재통합하려는 생각은, 히브리어어로 "희망하는 것의 실체, 보이지 않는 사물의 증거"[32]라고 말한다. 폴란드의/이스라엘의/미국의/이탈리아의/독일의 성격을 지니는 리베스킨트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리베스킨트에 대하여, 피터 쿡은 "경이로운 예술가"로, 피터 아이젠만은 "이 분야에서 가장 명석한 친구"라고 평한다.

리베스킨트가 '챔버 워크'에서 보여준 드로잉은 리베스킨트의 건축적 작업의 시작으로 보인다. 초기 작업으로 1983년에 발표된 이 작업은 건축이 아닌 드로잉이다. 리베스킨트의 드로잉이 음악작곡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축에 의한 구조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아이젠만은 건축의 전통적 도면에 대한 비평이라고 말한다. 글쓰기에서의 해체는 건축도면의 경우 조립을 푸는 일(De-assembly)이다. 쿠퍼 유니언에서 시작된 이 작업은 구성주의자, 지고주의자, 요소주의자의 것과 유사하지만 다르다.[33] 건축의 한계 밖에서 새로이 건축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 26〉

이러한 작업의 시작은 이미 그가 "마이크로메가"(1979년)에서 이미 인용한 볼테르의 글에 담긴 인간에 대한 경고와도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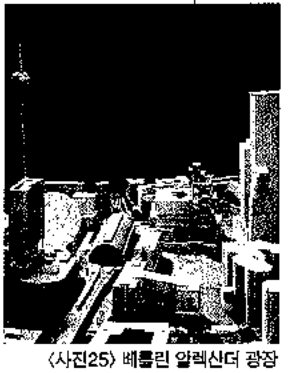
> "약 450년에 걸친 인간의 시대에서, 어린 시절이 끝나갈 무렵에, 인간은 직경 100피트를 넘지 않을, 수많은 작은 곤충들을 해부했는데, 이 곤충들은 정상적 현미경으로는 보이지 않았고, 이 곤충으로 인간은 매우 이상한 논문을 썼고, 이 곤충들은 인간에게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켰다."
>
> - 볼테르 (Voltaire)[34] -

이것이 최근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성공을 이해하는 열쇠이다. 물론, 다시 통일된 독일에서 유태인에 대한 주제를 그가 어떻게 다루는지 알 수 있는 재미있는 순간이기도 하다. 리베스킨트는 샤로운과 싱켈의 지지자이며 생태적으로 자연적으로 성장한 결과로서의 그의 도시를 좋아한다. 그가 좋아하는 베를린은 여러 가지 시간이 누적적으로 쌓여있고, 중심이 없어 집중되지 않았고, 다양한 가치가 있는 곳이어서 좋아하는 편이다. 폴란드의/이스라엘의/미국의/이탈리아의/독일의 성격을 지니는 체리히(Zelig) 닮은 주인공은 모든 상황에 들어맞는다. 그러나 뉴욕에서 해체주의자 전시회 이후 진전된, 1980년대의 솔직하게 이국적인 그의 실험의 시적(詩的) 가능성을 깨달으면서, 리베스킨트는 지금 중간선으로 사회적 참가와 사회적 조직의 새로운 패턴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기 위하여 유태인이 되어야 할까? 그는 왜 그렇게 설계했을까? 리베스킨트는 리베스킨트일 뿐이다. 한국의 건축가 OOO는 우리에게도, 그 자신에게도 OOO 일 뿐이다. 우리의 작업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나?

25) The museum without exit.
26) 『건축과 환경 Korean Architects』, 1996년 3월호, p.114.
27) Traces of the unborn.
28) 『건축과 환경 Korean Architects』, 1996년 3월호, p.141.
29) http://www.archinet.co.uk/blueprint/lib.html
30) http://www.archinet.co.uk/blueprint/lib.html
31) http://studwww.rug.ac.be/~jvervoor/architects/libeskind/
http://www.saad.kent.edu/Architronic/v5n2/v5n2.05.html
32) 『건축과 환경 Korean Architects』, 1996년 3월호, p.166.
33) Architectural Monograph No16, 『Daniel Libeskind Countersign』,(London:Academy Editions, 1991).
pp.120~123.
34) Architectural Monograph No16, 『Daniel Libeskind Countersign』,(London:Academy Editions, 1991), p.32, 「Micromegas: the architecture of the end space」, 1979, 중에서.

〈사진24〉무질서 내의 질서 : 단지 내를 관통하는 선이 있다.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
(사진출처 : El Croquis, 1996 IV)


〈사진25〉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
(사진출처 : El Croquis, 1996 IV)

〈사진26〉Chamber Works
(사진출처 : Architectural Monograph No 16)

한국의 건축가 9 - 김중업(2)

Korean Architect, Kim Chung-Up

대담내용 - 김중업 건축과 샤머니즘

조인철 / (주)정림건축 Q.C부 팀장
by Zho In-Choul

◇연 재 목 차◇
(계재월)

1. 이혁태 (9503~9505)
2. 김정수 (9506~9508)
3. 김수근 (9509~9512)
4. 정인국 (9601~9605)
5. 박길룡 (9607~9608)
6. 박동진 (9609)
7. 강 윤 (9610~9612)
8. 이천승 (9701~9702)
9. 김중업 (9703~9707)

1. 김중업 건축의 바탕
—김중업의 일생
2. 대담내용
—김중업 건축과 샤머니즘
3. 대담내용
—김중업과 르꼬르뷔제
4. 김중업 건축의 해석
—꿈과 시와 낭만의 건축
5. 김중업 건축의 해석
—김중업 건축의 어휘

대담일시 : 1987년 11월 10일 오후 12시 30분~14시
대담장소 : 김중업 설계연구소 응접실

샤머니즘의 건축

조인철 : 선생님! 종교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김중업 : 종교는 없지만 불교에 가깝지, 집안이 불교니까. 내가 특별히 믿는 것은 아니지만……

조 : 선생님께서 지난 79년에 귀국하셔서 공간사에서 김원씨와 좌담[1] 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작품에 '샤머니즘적인 미스테리를 집어넣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의 이후 작품에 그러한 의지가 어떻게 표현되어질까 하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 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여러 작품에서 구사하고 있는 건축어휘들은 다른 형태를 취하긴 하지만 공통적인 맥락이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지붕 위에 안테나 모양의 어휘는 샤머니즘적인 미스테리와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인지요?

김 : 일단 샤머니즘이란 것은 말이야, 일단 뭐인가 하면, 무속적인 전통을 말하는 건데, 무속적인 전통이란 것은 소위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를 놓고 보더라도 불교가 일단은 순수불교라기 보다는 재래종교와 합치된 불교란 말이야. 그러니까 절에 가 보더라도 칠성각이 있질 않나. 칠성각 같은 것은 사실 불교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었는데 우리나라 원시종교인 샤머니즘과 직결되어 나가고 또 더욱이 단청의 상황을 보더라도 맨처음 단청을 칠했을 당시에는 굉장히 원색적이고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굉장한 바이탈

1) 김원, "건축가의 프라이드. 사회적 의미," 『공간』, 서울-공간사, 1979.3, p.43.

리티(Vitality)라고 할까 그런 것이 내포되어 있거든. 그런 것이 이제 샤머니즘하고 불교하고 합치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서 샤머니즘이라는 것을 놓고 볼 적에는 한 개의 문화적인 가치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어. 그것이 오늘날까지 전수되어 내려온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를 볼 적에는 상당히 색감이 풍부하고 말하자면 발랄한 역사적 사실을 많이 우리가 발견을 해요.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상당히, 그 말하자면 사람들이 격하다고 그럴까 뭐 이러한 성격이 그런데서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그러한 것이 자연히 건축에도 반영이 돼 내려 왔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말하자면 건축의 다양성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우리가 논의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나는 그러한 한 개의 바이탈리티한 원초적인 그러한 것이 내몸에 비축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한 것이 작가로서 자연히 삐쳐 나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볼 적에는 곡면같은 것을 굉장히 중요시 한다던가, 자네가 얘기한대로 지붕 위에 무언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런데서 오는 어쩔 수 없는 반영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지.

조 : 지붕 위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은 원시인들의 사고방식과 같이 하늘과의 교섭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늘과 같이 공존하고 싶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김 : 그럼! 공존하고 싶은 거지!

조 : 선생님께서 쓰신 글들을 보면 '신화나 꿈의 재생' 이라는 내용이 자주 나타나는데, 신화는 근대에 접어들면서 탈 신성화되고, 또 그럼으로써 현대인의 심성은 좀더 황폐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선생님께서 꿈이나 신화의 재생에 대하여 언급하시는 것은 이러한 병든 인간성의 회복에 비중을 두고 계신 건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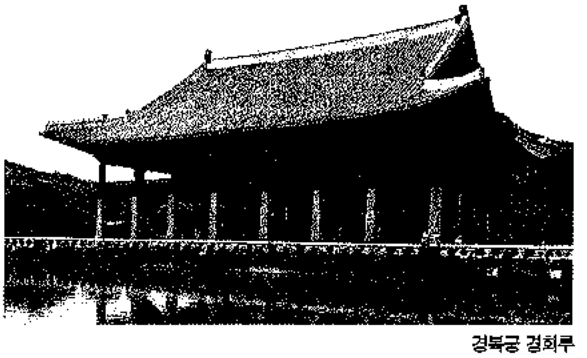
김 : 그건 자네 생각이 옳아. 말하자면 인간 회복이라는 것이 제일 첫째 강하게 나타나겠고 그러니까 내가 흔히 얘기를 자주 하는 것이 소위 어떠한 땅, 땅자체는 어떠한 것을 짊어지고 싶은 의욕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그러한데서 나타나는 내 직감적인 한 개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 또 일단 '건축이라는 것이 인간이 던져주는 강렬한 사인이다' 라는 얘기도 내가 자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위 자연을 갖다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그 자연 자체도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사람의 하나야. 그러니까 그 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말하자면 건축이라는 것이 절대지존의 가치가 있는 것은 일회성의 작업으로써 이루어 놓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단지(團地)에는 물론 똑같은 것이 서로 모여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조건도 다르고 그 대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른데 같은 것들이 놓여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일단 그 땅에서 오는 해석, 아주 동양적인 사고방식이겠지. 나는 그런 대지가 짊어지고 싶은 의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그 의지를 건축가는 일단 그 의지를 살려서 그 위에 '한 개의 일회성의 꿈' 을 집어넣어 주는 거란 말이야 '건축이라는 게 한 개의 인간의 꿈을 살려 두는 작업' 이야. 휴머니즘 이런 거와 통하는 얘기겠지만 말이야. 그러니까 내 얘기는 딴 얘기가 아니고 소위 건축이라는 것은 일회성의 한 개의 결실로서 나타나는 거다. 그렇다면 그 일회성이라는 것은 어쩔 수없이 그 대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지하고도 어울려야 된다, 맞아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므로써 말하자면 그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나가는데 개체로서의 생명을 불어넣어야 된다 이런 것을 나는 강조하고 있는 거지. 그게 나의 건축관의 하나이지.

조 : 자연도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것이므로 거기에 속하는 건축도 살아있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선생님 작품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느낀 것은 하나의 건축행위가 원시인들이 추구한 중심성의 회복이라고 할까, 카오스의 세계를 코스모스의 세계로 만들려는 그러한 작업처럼 느껴지는데요. 근대 이후부터 건축물은 원시인들이 추구했던 균질공간의 위계공간화가 다시 균질공간화로 전개되어 갔다고 볼 수 있는데 선생님의 작품은 이러한 균질의 공간, 즉 인간이 살 수 없는 공간을 의미있는 공간 내지는 공간의 위계화, 질서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김 :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건축에 있어서의 지붕

조 : 그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선생님 작품에서 지붕 또는, 기둥에 이러한 것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지붕만 하더라도 불란서 대사관의 경우를 보면 소위 여성적이고,비애의 곡선으로 대변되는 우리 전통의 지붕선(線)에 대한 표현이라기 보다는 전통 지붕의 가벼움, 날렵함의 측면을 강조하는 작품으로 생각됩니다. 지붕을 건축적인 어휘로 보면, 비나 바람을 막아 주고 덮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선생님 작품에서는 덮는 역할은 포기하고 가벼



경복궁 경회루

움이라든지 경쾌함이라든지 어떤 힘이 느껴지는 역동적 성격이 강렬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지. 말하자면 자네가 경복궁에 가서 경회루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잔 말이야. 그러면 경회루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지붕의 양을 가지고 있어요. 보륨(Volume)이라는 게 굉장히 큰 거라구.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전체 비례로 봐서 지붕이라는 것이 지나칠 정도로 말하자면 큰 비중을 갖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붕이 가볍게 보이지. 인간을 압박한다던가 하는 느낌이 들지 않지. 소위 하늘에 띄워주고 싶은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다구. 그것을 제대로 표현한 것은 한민족 밖에 없어. 전세계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지붕을 사뿐히 띄워 올렸다'는 것은 대단한거라구. 디자인에서나 또 인간에게 주는 감동에 있어서나 상징성에 있어서나 그러한 것은 현대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더 좋은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가야한다는 그런 얘기지. 그러기 때문에 불란서대사관을 보더라도 그 관저(官邸)의 지붕이라는 게 굉장히 커요. 크지만 그것이 큰 것이, 말하자면 한 개의 양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사뿐히 하늘에 치켜올린 그런 기분'이 들게할려고 내가 애쓰고 있는 거지.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의 전통의 지붕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야.

조 : 근래에 지붕에 대한 여러 건축가들의 자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해석과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선생님의 경우는 우리 전통건축의 지붕은 소위 여성적이고 우아한 곡선을 살린다는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전통지붕의 곡선에 내재된 또하나의 의미로 사뿐히 띄워 올림, 치켜올림에 주안점을 두고 계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비슷한 의미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디자인의 출발점에서 여성적인 곡선의 표현에 목표를 두느냐, 가벼움이나 경쾌함에 주안점을 두느냐하는 것은 결과에 있어서는 굉장한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개념으로 생각됩니다.

김 : 나는 그렇게 보지. 한국 사람이 기질적으로 한국에 정착했다는 얘기는 인간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느냐 할 적에 한국의 문화하고 유관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국의 산들이 뭐 하여튼 인간을 압박한다던가 말하자면 그 산이 가지고 있는 보륨(Volume)으로써 육박해 오는 산들은 적어요. 거기다가 한국은 준공원(準公園) 같은 지대고 거기에서 산들도 그렇게 인간에게 위협을 주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한민족이 산을 대해 올적에 하나의 친근감으로 대해 왔지 위협의 존재로써 대해 오진 않았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야. 한국의 자연이 일단은 말하자면 군무(群舞)가 많았고 뭐 하여튼 그 상당한 위협한 그러한 물줄기가 아니고 상당히 우아함이 우회해서 돌아서 바다까지 내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직류들이 적었다 말이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하면 말하자면 강(江)도 인간에게 큰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친근할 수 있는 존재로서 받아들여졌다는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을이 형성되는 것을 보더라도 강이 있으면 강을 남쪽에다가 놓고 마을들이 옹기종기 일어났단 말이야. 또 산들이 다 우아하기 때문에 산에 사람을 묻더라도 일단 둥그런 무덤으로서 일단 산에다 사인을 던져준 것도 한국이 가지고 있는 한국의 풍토적인 성격에 바탕을 둔 것이고 거기 살아오는 사람들의 감정에서 나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와지붕을 보더라도 기와집이라는 것이 다 지붕이 사뿐하다고. 기와집은 중국에 가면 굉장히 그 말하자면 끝에 가서 치켜올리고 뭐 별걸 다했는지 우리 나라만큼 그렇게 우아한 곡면의 지붕이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초가지붕은 뒷동산하고 닮은 게 꽤 있고 이러한 것이 한국사람들에게 평화스럽고 하여튼 어쩔 수 없는 한 개의 친근감을 나타내는 것인데 우리나라 전통에서 무시할 수 없는 거야. 그게 한국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람이 굉장히 격정적인 면이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넘보지 않았다는 것, 침략을 한다던가 말하자면 영토를 확장하겠다던가 뭐 이런 것이 폭발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러한 자연에서 오는 본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 강의 모습이라던가 자연의 모습하고도 너무나도 평화스럽게 공존돼 왔기 때문이라고 나는 봐. 그러한 것이 자연히 건축에도 꾸준히 이어내려 왔다고 나는 보는 거지.

조 : 지붕 자체를 샤머니즘적으로 해석하면 지붕은 새의 날개로 보고 기둥은 새의 다리로 볼 수 있는데[2] 선생님께서 사뿐히 띄워올렸다, 치켜올린다라고 하시는 것은 더욱 새의 날개로 비유될 수 있는 실마리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김 : 그렇지 사뿐히 하늘에 치켜올려 버리고만 거지. 사뿐히 하늘에 치켜올렸다는 사실 자체는 중요한거라구. 한국의 건축에서 보면 그런 것이 신라의 탑에서도 전부 나타난 거지.

조 : 선생님의 작품에서 보면 원시인들이 다산이나 풍성한 수확을 기원한다는 의미로 남성 성기를 많이 숭배했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서산부인과라든지, 외환은행 계획안 같은 경우는 남성 성기 모양이 연상되는데 그러한 형태

불란서 대사관

가 과연 샤머니즘과 연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 작품의 배경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죠.

김 :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지. 말하자면 성기 신앙이라는 것은 한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지. 서구라파에도 있었고 또 소위 아프리카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한국에야 틀림없이 있고 한국에야 워낙지. 소위 한국의 장승이라는 것도 따져 놓고 보면 성기에서 발전되어 온거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성기 숭배라는 것은 물론 원시시대부터 내려왔지만 그거는 말하자면 소위 한국에 종교적인 입장에서 왔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일단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네들이 숭상하고 받들어 왔다는 것은 한 개의 한국인의 마음속에 꾸준히 자라온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내작품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야. 그건 일부러 뭐 내가 그런 것을 꼭 조작하려고 한건 아니고,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하고 유관한 작업이 나오는 거지. 나는 작업을 할 적에 일단은 첫째가 이거야. 뭐인가 하면 우리 것을 내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땅에 우리 것을 내보여야 된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지. 또 우리가 세계적으로 놓고 볼 적에 우리와 다른 민족들이 구분되고 내 작업하고도 확연히 구분되는 것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떳떳해지지 않느냐. 말하자면 내 작품이 외국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런 우리 것을 내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소위 그렇지 않으면 문제될 하등의 까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주대본관 같은 거라던지 불란서대사관 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쪽에서 상당히 알려진 작품이지만 그러한 작품이 외국에서도 특이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은 말하자면 자기네 하고 있는 작업하고 워낙 다르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은 엑조틱(Exotic)하다느니 뭐 동양적이니 하지만 한국적이기 때문이야.

조 : 외환은행의 경우는 은행이니까 다산이라든지 발전, 축적의 개념에서 보면 그 상징성이 맞아떨어지고, 서산부인과 같은 경우도 산부인과라는 특수성으로 생산의 개념으로 본다면 원시인의 사고와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김 :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

조 : 민족대성전계획 하실 때 민족대성전이 산의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것이 기독교의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어떤 샤머니즘적인 종교관에서 탄생되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위치라든가 어떤 형태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전혀 교회 같은 기분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기독교 자체는 유일신을 강조하는 교리 때문에 우리의 정서와 잘 섞이질 않으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선생님께서는 서구 교회를 그런 형식으로 디자인 하셨는지요?

김 : 아니 그것도 물론 직결되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절을 구상했다 할 것 같으면 정상에 올리질 않아요. 나는 그 산세를 보아서 거기에 제대로 포옹되는, 말하자면 한 개의 조화로움이라고 말할까 그러한 형태를 추구했을 거야.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호전적인, 나는 기독교를 호전적인 종교로 보거든 말하자면 한 개의 소위 강인한 기개라든가 식민지 개척이라든가 이런 게 다 종교하고 직결되어 있는 요소 아니까 말이야. 그런 것을 나는 직설적으로 일단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산봉우리를 선택하게 된 것이고 봉우리에서도 높이 추켜 올라가는걸 구상했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종교가 가지고 있는 한뜻, 그런 거하고 일단 유관한 거지 무관한 게 아니야.

조 : 산이 한국 내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상적으로 채택된 산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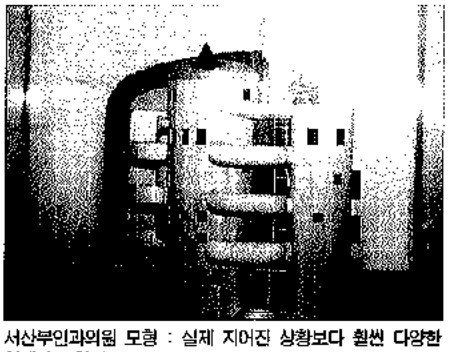
김 : 아니야 그건 맨 처음에 주어진 요건이 결정해준거지.

조 : 산 이름이 무엇이죠?

김 : 북한산 뒤에 있는 조그만 봉우리라고 했으니까. 나한테 주어진 거는……

조 : 선생님 작품 중에서 박시우치과의원의 경우는 상당히 완결된 형태로 느껴지는데요. 굉장히 그로테스

2) 이왕기, "한국전통건축의 샤머니즘적 상징성," 『공간』, 서울: 공간사, 1984.12, pp.137-143.



서산부인과의원 모형 : 실제 지어진 상황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가 표현됨

외환은행 계획안 모형 : 프랑스의 조그만 시골마을에 머물면서 계획한 작품

이두재씨의 장승조각품 : 1988. 5. 27~6. 2 東崇美術館

크(Grotesque)한 기둥과 매끄러운 외관이 결합되어 있고, 옥상부분에는 퍼고라가 걸쳐있는 형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대지의 의지에 부응하여 그대로 앉힌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 작품에 대하여 좀 설명해 주시죠.

김 : 그건 그거야. 말하자면 소위 건축이라는 것을 놓고 볼 적에 일단은 의지라는 것이 나타나거든. 가령 나는 어떤 의지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건축은 제대로 구상된 작품이라고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의지라는 것이 있는 데 서산부인과 박시우치과병원 그것만 하더라도 대지가 굉장히 좁아요. 대지가 좁고 코너고 그런데 그걸 놓고 볼 적에 말하자면 조그만 매스를 가지고 있고 조그만 작품이라도 어떠한 다양성과 일단 각별한 자기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그건 직결되는 얘기야. 그래서 우선은 그 빌딩이건 무엇이건 어떠한 작품이 눈을 끌어야 된다고, 눈을 끈다는 것은 자기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 그러니까 자기를 주장하면서도, 소위 자길 주장하다 보니까 다채로워지는 거고 또 말하자면 소위 비일상성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사각의 건물에 둥그런 원이 올라가고 그것이 또 빨간 색으로 표현된다던가 뭐 이런 것이 그런데서 연유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

조 : 그 퍼골라 같은 경우에는 지붕을 '띄워 보내는' 극단적인 표현이고 굉장히 추상화된 형식으로 이해되는데 비행접시 같이 느껴집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중에 꿈과 동시에 어떤 미래지향적인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하신 적이 있는데, 제나름대로는 그 퍼골라를 여러 가지의 의미가 함축된 것으로 굉장히 크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그 지붕의 띄워 보냄에 대한 표현임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표현이라면 퍼골라를 잡고있는 괴기스러운 원통형의 계단은 과거 신화의 표현으로, 주된 입면을 구성하는 매끄러운 유리창호는 현재의 거울로 해석 될 수 있는데, 결국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로 꼴라쥬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 : 한 개의 꼴라쥬(Collage)지! 그거 잘본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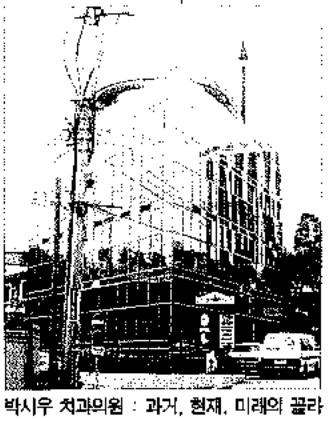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야. 작품을 구상한다는 것은 일단은, 아까 이야기 한 것같이 그 위치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서산부인과 의원 대지도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에 무엇을 올려 놔주고 싶었느냐 하는 거기부터 나는 일자체에 들어가는 거야.

건축에 있어서의 기둥

조 :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계속 지붕에만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어 왔다고 생각되는데 제나름대로는 지붕에 못지않게 기둥도 건축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둥이 갖고 있는 이미지라고나 할까 기둥이 선돌에서부터 시작되어 장승으로 연결되고 건축화되면서 기둥으로 이어졌고 음양으로 보면 기둥은 남성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되어지곤 하는데요. 그것이 선생님 작품에서 보면 기둥 자체가 어떤 선돌의 이미지 자체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한국 미술관의 기둥에서도 나타나는데, 건축 부재의 하나로서 건축의 일부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뿐만 아니라 선돌처럼 기둥 자체로서의 의지를 강렬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김 : 그건 무엇인가 하면 일단 건축이라는 것은, 빛과 그림자의 한 개의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소위 건축이라는 것이 이제 빛을 받아서 바꾸어 말하자면 소위 한 개의 양성(兩性) 이겠지. 음양으로 따지면, 양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그림자를 그리면서 음적인 그러니까 양과 음의 법칙이 있는데 양과 음의 문제가 건축이예요. 그러니까 양과 음에 있어서 일단은 난 그거야! 양과 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건축에 지워진 한 개의 그, 말하자면 어쩔 수 없는 속성이라고 본다면 거기에 일단 거기에 나와 있지만 말하자면 해군 공관의 지붕을 뚫었다던가 말하자면 이제 자네가 이야기한 한국 미술원이랬나, 한국 미술관 이랬나, 이태리 대사관이었는데, 거기에 기둥이 올라가주고 기둥을 따라 빛을 끌어내린다던가 하는 작업이 일단은 빛과 그림자로써 구성되는 건축에 있어서 좀더 강렬하니 자기가

민족대성전 계획안 : 신꼭대기에 위치한 기독교 교회


박시우 치과의원 : 과거, 현재, 미래의 꼴라쥬

서산부인과의원 : 꿈의 표현인 지붕위의 어휘들은 모두 삭제됨

말하자면 주장하고 싶은 것 소위 외국에 진해 해군 공관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일단 소위 빛을 끌어당겼다 하는 걸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마치 국내에 그런 것을 이제 뿌려놨다는 것은 일단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지.

조 : 선생님 작품 중에서 이탈리아 대사관은 잡지에 소개될 때 건물의 기능이 주택으로 나오기도 하고 대사관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설계 당시에 대사관으로 계획하신 것입니까?

김 : 아니야 이경호씨댁으로 계획한 거야. 원래 주택으로 되어 있던 것을 대사관으로 사용하다가, 한국미술관으로 쓰게 된 거지. 운명적으로 그건 개인 집이었어요. 이경호씨댁이라고. 이경호씬 돌아가셨지만 지표면에 어떠한 것이 놓여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담는 문제, 문제 자체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사람이 들어가서 일단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저 건축이라는 것이 일단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그 이태리 대사 관저로 쓰고 있는 그 건물만 하더라도 일단은 관저로 쓰여지다가 말하자면 개인의 관저나 개인의 집이나 비슷한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미술관으로 기능을 바꾸었는데 그 기능이 크게 모순이 없다는 얘기는 일단은 인간을 담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 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미술관이라는 것도 일단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담은 그릇이고 거기에 음영의 존재도 미술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거야. 어떠한 것을 규정지어 준다면 그 규정지은 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상대적인 거다. 그러니까 그것이 앞으로 무엇으로 또 사용될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인간에게 충분히 포용할 수 있는, 인간하고 같이 더불어 말하자면 움직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부여해 준다 하는 것에 중점을 두겠지.

조 : 선생님의 작품과 외국 작품에 비교해서 설명하는 평론가들이 많이 있다고 봐지는데요. 선생님께서는 다보탑 이라든지 가우디의 라사그라다 파밀리아와 같은 작품에 대하여 상당한 애착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미술관 : 빛의 내림

김 : 내가 좋아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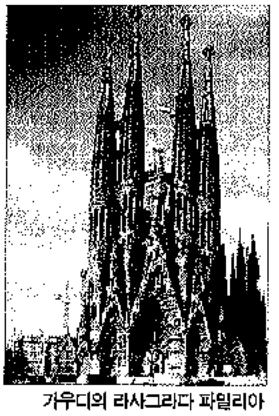
조 : 그런 작품과 선생님 작품은 사용 어휘에 있어서 동질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김 : 물론!

조 : 그러니까 가우디의 작품이나 루이스칸의 메디컬 센터라든지 르꼬르뷔지에의 롱상교회 같은 작품들과 선생님 작품하고는 어떻게 연관시켜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 : 그러니까 다 일맥상통한다고 봐야 될 꺼야. 그러니까 일단 인간이 형성되어가는 문젠데. 그러니까 인간 김중업이가 어릴 때 태어나서 말하자면 유년시기를 어떻게 지냈느냐, 유년시기가 제일 중요한 거고 난 평양에서 나서 평양에서 자라났으니까 그때 하여튼 처음으로 인간으로서 눈 뜬 시기란 말이야. 그 눈뜬 시기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다 신비롭고 말하자면 알고 싶어서 애쓰는 거고 또 일단 어린애라는 것은 어른이 하는 것을 흉내를 내가면서 자라나는 거란 말이야. 자라날 적에 어드메서 태어나서 어드메서 자라나느냐 하는 것이 나중에 낙인이 찍혀져요. 그건 어쩔 수 없이 난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라났다는 한국적인 것이 어렸을 때부터 숙명적으로 나한테 따라 다니는 거라고 볼 수 있지. 그래가지구서 성장하면서 어떠한 과정을 겪었느냐 그러니까 나는 과정을 겪었다는 것을 일단 난 구라파하고의 말하자면 소위 유대 관계를 가져가지구 그래가지고 거기서 물론 있었고 또 바르셀로나에 가서 가우디의 작품을 보고 감동을 했고 또 아크로폴리스에 올라가서 일단 밟새도록 일단 소위 나한테 주는 한개 소위 어쩔 수 없는 숙명적인 한 개의 영향이겠지. 그러한 것을 받으면서 나는 성장을 해왔다는거 이러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야. 그것들이 내 작품 구석구석에 나타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겠지. 그러니까 일단 바탕은 한국의 바탕인데 일단 나로서는 선택된 길을 걸어왔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선택된 길 위에서 나타난 일들이 가우디와의 만남이라던가 르꼬르뷔지에 하고의 만남이라던가 또는 파르테논 하고의 만남이라던가 여러 가지의 그러한 만남이 내게 굉장한 중요성을 던졌고 내 형성돼 나

불국사 다보탑


가우디의 라사그라다 파밀리아

오는 과정에서 그러한 것과의 공존상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나는 공존상태라고 표현하지 무슨 뭐 소위 무슨 절대적인 어떠한 것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니야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영향만 받는 것도 아니고 영향을 주는 것만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데서 형성되면서 내 작품세계가 전개되고 그러면서도 어디까지나 내 비석이 있는 곳은 우리 한국의 샤머니즘적인 기질 내지 영향이겠지 그것이 내 끝장까지 가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나는 뭐 인가하면 우리가 전세계에 있어서 한국이라는 문제를 놓고 볼 적에 전 세계의 문제지 어떠한 한국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어디까지나 지표면 상의 한 점을 점령했다는 얘기는 일단 전세계하고 연관성을 가졌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세계하고 연관성을 가졌을 때에 나의 작품은 내가 존재하는 의미 이러한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 할 도리가 없겠지. 작가니까. 그런 점에서 일단은 나는 남과 다른 작업, 남과 다르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바탕을 둔 작업, 남이 나한테 소중한 것 그래야 일단 전 세계를 놓고서 나자신의 오리지날리티라든가 내 자신의 중대한 한 개의 사고라든가 이데아라든가 이러한 것을 나는 당당히 펼쳐 보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점에선 상당히 의지가 강하니까 하겠지. 저력이 있는 거고 아마 현대에선 제일 강한 인간의 하나일 거야.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볼 적에 또 그렇게 인정들 받고 있고 하니까 그런데서 내 생존의 가치가 있다고 봐야겠지.

조 : 선생님 혈액형이 A 형이십니까?

김 : 아니 AB형! AB형이 천재들이 많이 난다고 하지. 르꼬르뷔제 선생님은 날 갖다가 거의 매일같이 천재라고 그랬으니까. 그분은 날 굉장히 인정해 주셨다고 (불어로 말씀후) 그러니까 '너는 참뜻의 존재다' 이런 말씀을 르꼬르뷔제 선생님이 매일 같이 해 주셨으니까. 그런 점에서 나는 누구의 영향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겠지. 그 양반 말씀 속에 들어 있는 것은 뭐냐하면 새로운 것을 자꾸 창조해 나아갈 수 있는 뉴 바이탈리티가 조금은 있다.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한국인으로서 샤머니즘적인 사고방식에 철저하면 그거는 창조적인 인간이 안될 도리가 없는 거지. 건축가라는 것이 말하자면 '건축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꿈이라고' 그러니까 소위 꿈없이는 건축가는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그 어떠한 것을 비판한다든가 어떠한 것을 직설적으로 받아만 들인다 하는 자세는 건축가로서 가치가 전혀 없는 거야. 건축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에 던지는 큰 사인을 하는 사람이니까 무시무시한 사인을 하다 가는 사람이 건축가야. 그러다 보니까 꿈이 바탕에 깔리지 않아 가지고는 건축가라는 것은 생존할 가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나는 꿈이라는 것을 가꾸어 왔고 그러니까 내가 젊었을 때에 자작시도 많이 썼다는 것 그림도 많이 그렸다는 것 뭐 이러한 것이 내 꿈하고 연관되는 얘기겠지.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선 말하자면 나를 포에틱 아키텍트(Poetic Architect)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시인 건축가라고 직설적으로 나를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시심이 깊다는 것 풍부하다는 것 이런데서 나오는 내 한 개의 말하자면 과정이고 궤적이겠지.

조 : 선생님께서는 상당한 독서량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어떤 사상가랄까 철학자랄까 아니면 좋은 책이랄까 동양철학, 서양철학 등 영향을 끼친 사상이라면……

김 : 물론, 그러니까 나는 독서에 있어서는 거의 하루에 한권정도 매일 읽고 있지. 아마 수천 권의 책을 읽었을 거야 그것도 골라서 읽었겠지. 닥치는 대로 읽은 건 아니니까. 그 중에서 나한테 굉장히 공감한 작가들이 여럿이 있지. 공감하는 작가 중에 가장 크게 나한테 영향을 미쳤다 할 만한 작가들을 든다면 내가 노자를 좋아하고 장자를 좋아하고 말하자면 동양에 있어서의 한 개의 고전이지. 논어나 맹자보다 나는 소위 장자나 노자를 좋아했다 하는 것이 한국의 바탕에 깔려 있을 거고 또 서양으로 말하자면 내가 좋아하는 작가는, 시인들을 좋아했어, 보들레르를 좋아했고 그리고 나한테 굉장한 공감을 준 건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소설 있잖아, 라이너 마리아 릴케를 내가 미치도록 좋아했고 그 사람들이 그 분이 살다간 집들까지 내가 찾아다녔으니까. 그 정도로 내가 좋아했고 더군다나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두이노의 비가라든지 올코이츠의 소네트는 줄줄이 외다시피 했고, 그렇고 작가로서는 난 도스토예프스키를 정말 탐독을 했고 또 거기에 굉장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지. 그 사람의 그 작품에 나타난 바이탈리티 그 '죄와벌' 보다도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같은 작품, '까라마조프의 형제'는 말하자면 굉장히 보륨(Volume)이 큰 작품인데 그걸 아마 7번 정도 읽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건 한 개의 그 나하고 공통된 한 개의 바이탈리티 한 개의 샤머니즘에서 오는 한 개의 전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추리소설 같은 걸 아주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나한테 있어서 음악에 있어서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지만 물론 나야 소위 베에토벤부터 시작한 사람이니까. 젊었을 때 베에토벤부터 출발해 가지고 베에토벤의 강인한 의지, 강인한 자기사고가 특출했지. 누구나 거의 비슷할 거야. 그 궤적은, 바하나 모짜르트 또 그러면서 굉장히 낭만적인 작가로서의 슈베르트나 리하르트 슈만 그러면서 내게 지대한 영향을 다시 끼치게 되는 것이 일단은 소위 바그너지. 바그너의 그 드라마틱함 그 말하자면 소위 지나치리 만큼 다혈질적인 그런 작품 그러면서 최근에 와서는 소위 말하자면 바르토크 벨라 바르톡의 작품이라든지 그런 작품을 좋아하게 된거라구.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이제 내가 성장해 오는데 내게 상당한 내 한 개의 인격이라든가 내 한 개의 감성이라든가 내 자체의 작가정신이라든가 이런데 강렬한 영향을 끼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다음호 계속)

전계획 등을 주요의제로 다루게 된다. 협회는 현재 회원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참가신청을 받고 있는데 참가비는 체제일정 및 숙박형태에 따라 6박7일(9. 30~10. 6)코스가 미화 1,000~1,300불, 4박5일(10. 2~10. 6)코스가 800~1,100달러로 체재기간중 하루는 인도고아 관광이 포함돼 있다. 한편 이 행사를 주최하는 영연방건축연맹은 지난 1965년 7월 말타에서 설립돼 현재 세계 38개국에 4만4천여 회원을 두고 있다.

건축계소식 news wide

건축감리회사 설립기준 완화

올해 후반기부터 감리전문업체의 등록기준 및 대표자자격 대폭 완화

오는 7월이후에는 감리전문업체의 등록기준과 대표자자격이 대폭 완해돼 감리회사 설립이 지금보다 쉬워지는 한편 감리원의 책임한계가 명료해지며 감리원 작성서류도 현재보다 간소화된다. 또한 올 상반기이후에는 건축감리회사의 경우 현재 건축사만이 할 수 있도록 돼있는 것을 개정, 건축시공기술사도 대표가 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지난 3월 16일 건설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감리업계의 전문기술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지나치게 까다롭게 만들어진 감리업체의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해 감리전문업체의 설립이 증가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현재 감리업체가 부문별로 특화된 전문영역 구분이 없이 업무수행을 하기 때문에 전문기술 축적이 안된다고 분석하고, 일단 감리전문회사의 설립을 적극 유도해서 전문화를 시켜나갈 계획이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종합감리회사의 경우 현행 등록기준이 자본금 10억원에 인력 50명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이를 5억원에 30명으로 낮출 방침이다. 또한 토목·건축감리전문회사는 현재 자본금 3억원에 30명의 인력을 갖춰야 하나 앞으로는 인력 15명에 자본금 1억5천만원으로 절반을 줄일 예정이다. 또 설비전문감리전문회사는 현재 인력 20명에 2억원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차후에는 자본금 1억에 인력 10명만 있으면 설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감리원의 업무영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를 주관업무와 협조업무로 구분해 나갈 방침이다.

부실설계·부실감리 손해배상보증제도 시행

7월부터 단계적으로

지난 3월 19일 건설교통부는 부실설계나 부실감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하는 보증제도를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현실적으로 부실설계나 부실감리가 발생해도 대다수의 설계사무소와 감리회사가 이를 배상할 만한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해 제대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보고 우선 1단계로 7월부터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손해액을 배상하는 보증제도를 도입한 후 앞으로 배상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보증기간을 공사착공 시점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로하고 보증수수료는 설계나 감리원가에 반영토록 했다. 손해배상보증제도의 도입은 이미 지난 1월 건교부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이를 명문화하고 보증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한 바 있다.

외국의 경우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는 설계회사들이 설계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들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프로젝트보험을 통해 설계보험을 들도록 하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설계기준 표준화

6월부터 표준화설계기준 적용 공동주택에 한해 실시계획 승인

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 25일 건설분야 표준화 추진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건설분야 표준화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확정된 추진계획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표준화 설계기준이 적용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한해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우체국, 경찰서, 학교, 지자체청사 등 공공건축물의 표준화 설계기준은 오는 9월까지 제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표준화가 완료된 석고판, 보통합판 등 18종의 자재를 대상으로 사용이 의무화되며 내년 1월부터는 공공건축물에도 표준화설계기준 적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이행여부를 설계심의시 확인키로 했다. 건교부가 이번에 확정한 97년도 건설분야 표준화 사업계획은 올해부터 오는 2002년까지 예정된 건설분야 표준화 장·단기 추진계획의 올해분에 해당된다.

홍익대 동문회, 모교에 제도책상 기증

모교 건축학과 발전 위한 기금 모아

홍대 건축학과 동문회(회장 오기수)에서는 제40회 졸업생 배출과 홍익건축전을 기념해 그간 모교 건축학과 발전을 위해 모은 기금으로 5천만원 상당의 설계제도책상 300개를 구입해 이를 지난 3월 14일 학교측에 전달했다. 또 홍익대 건축학과는 설계교육에 보다 내실을 기하기 위해 김기철(동명건축), 이상헌(이가건축), 정명원(서울건축), 유원재(다건축), 한충국(진양건축), 최재희((주)건원), 천근우(Studio P&P) 씨 등을 겸직교수로 선임했다고 밝혔는데 이로써 현재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진은 전임교수 10명을 비롯해 겸직교수 7명과 전공별 강사들로 구성되게 되었다.

한 · 영 만남 200주년 기념 건축세미나

이달 18일부터 '미래도시 건축전' 도 열려

한 · 영 만남 200주년을 맞아 주한 영국대사관과 영국문화원은 영국 왕실 글로체스터 공작 방한에 즈음해 영국 왕립건축가협회와 영국 통상성 주최로 건축세미나 및 전시회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오는 4월 18일 오전 9시부터 호암 아트홀에서 개최되며 전시회는 'Crities of Future(미래 도시 건축전)'란 주제로 4월 18일부터 25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세미나 및 전시회 입장은 무료이며 세미나 참석자에게는 간단한 음료와 식사가 제공된다.

문의 : 영국대사관 상무과 이지영(02-735-7341)

영국문화원 Ms Lily Ficko(02-737-7157)

하버드 아시아 · 태평양 디자인 콘퍼런스

위가건축 민선주씨 주제발표자로

민선주(위가건축 대표)씨가 하버드 건축대학원 아시아계 학생들이 주최하는 「Havard Asia Pacific Design Conference(아시아 건축과 도시에 관한 학술토론회)」에 학생들이 선정한 올해의 한국건축가로 초대되었다. 민선주씨는 '아시아의 도시화 - 변화와 연계'를 주제로 오는 4월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하버드대 디자인 대학원에서 개최되는 이번 학술토론회에서 함께 초대된 김태수, 김준성씨 등과 함께 '한국의 도시미학'이란 주제로 주제발표를 하며 또한 세계 각국의 60여 학자 및 건축가들과 토론회를 갖게 된다.

건축역사학회 특별학술발표회

'건축문화유산의 현재적 재조명'을 주제로

한국건축역사학회에서는 오는 4월 19일 오전 10시부터 국립민속박물관 강당에서 '건축문화유산의 현재적 재조명'을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박표회에서는 장경호 경기도립박물관장과 안경모(신흥전문대), 김봉열(국립한국예술학교 미술원), 김성우(연세대) 교수 등이 건축문화유산의 의미와 활용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며 이어 오후 3시30분부터는 종합토론이 열린다.

「제2회 건축비평상」 심사결과 발표

우수작 없이 가작 등 3점 선정

건축비평 무크지를 발행해온 현실비평연구소가 제2회 건축비평상 공모전의 수상작을 선정, 발표했다. 지난 2월에 작품을 공모했던 이번 공모전에서는 우수작 없이 가작과 입선작만을 선정했는데 가작에는 경희대 건축과 대학원에 재학중인 김정후씨의 「내다보기, 들여다보기」가, 입선에는 서울대학교 산업대학원 재학중인 오창섭씨의 「이념에서 가능성으로」가 각각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4편이 응모했는데 우리 생활문화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한국학파의 가능성을 기저에 두고 현재를 실제로 비평한다는 공모의 취지를 환기시켰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소득이 있었으나 한국의 문화라는 테마를 조형문화 일반의 현실적 주체군으로 편성하려는 주최측의 의지를 충분히 받아들이는 데는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것이 자체평이다.

초고층시대 - 시카고건축전

초고층 설계의 현주소에 대한 강연회 열려

초고층시대의 막을 연 시카고건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다. 한국건축가협회(회장 강석원)는 지난 3월 25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 서울 포스코센터빌딩 서관 2층 전시실에서 「초고층 시대 - 시카고의 옵티멈구조의 개념」 전시회를 개최한다. 특히 전시 첫날인 3월 25일에는 전시기획자인 마사미 다까야마 박사를 비롯해 김상경 고려대 교수와 김종성 (주)서울건축 대표가 '시카고학파 그 이후 - 초고층 설계의 현주소'란 주제로 강연을 해 첨단 산업사회의 초고층건물 설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경기대 건축 특강 및 세미나

개교50주년 기념해 전문가 초청 강연회 등 개최

경기대 건축공학과와 건축대학원에서는 개교 50주년을 맞아 건축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특강 및 세미나를 개최한다. '소비시대의 건축설계', '백두대간

남단의 건축문화', '건축비평과 삶의 비평' 등 건축과 밀접한 주제를 가지고 5월 말까지 총 13회에 걸쳐 열리는 이번 특강 및 세미나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강은 수원캠퍼스 건축공학과 시청각실과 서울캠퍼스 건축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세미나는 서울캠퍼스 건축대학원 세미나실과 초급 스튜디오에서 각각 열린다.

문의 : 경기대학교 건축공학과 (전화 : 02-390-5154), 건축대학원 (전화 : 02-390-5245~6)

■ 특강 일정

- 경험과 인식/조병수(건축가, 경기대 건축대학원 겸임교수)/수원캠퍼스 3. 20(목) 17:00, 서울캠퍼스 3. 14(금) 16:30
- 소비시대의 건축설계/김성홍(건축가, 창조건축)/수원캠퍼스 4. 3(목) 17:00, 서울캠퍼스 4. 11(금) 16:30
- 현대 서구 가구 디자인의 전개와 한국 전통가구의 정신/최병훈(목조형가, 홍익대 교수)/수원캠퍼스 4. 17(목) 16:30, 서울캠퍼스 4. 25(금) 16:30
- 매크로 모델을 통한 디자인과 색채연구/권은숙(KIST교수)/수원캠퍼스 5. 1(목) 17:00, 서울캠퍼스 5. 9(금) 16:30
- Systematic Tectonic/박경수(건축가, POSEC)/수원캠퍼스 5. 22(목) 17:00, 서울캠퍼스 5. 16(금) 16:30

■ 세미나 일정

- 토속기공 한마당/양운하(토속기공 회장)/건축대학원 세미나실, 3. 19(수) 11:00
- Magic & Calculation/김준성(건축가, 경기대 교수)/초급 스튜디오, 3. 21(금) 10:00
- 분장과 감정이입/김기진(분장연구가)/건축대학원 세미나실, 3. 26(수) 11:00
- Logic & Design/정진원(경기대 교수)/초급 스튜디오 3. 28(금) 10:00
- 백두대간 남단의 건축문화/이왕기(목원대 교수)/건축대학원 세미나실, 3. 28(금) 16:30
- 방송과 광고/박홍식(종합유선방송 심의부장)/건축대학원 세미나실, 4. 2(수) 11:00
- 연출의 양식/임경식(연극연출가)/건축대학원 세미나실, 4. 9(수) 11:00
- 건축비평과 삶의 비평/민선주(위가건축, 경기대 건축대학원 겸임교수)/초급 스튜디오, 4. 18 10:00

한국CM협회 창립총회 개최

초대회장에 이내흔 현대건설 사장

건설관리기법(CM)에 대한 전문적 연구개발 · 보급을 위해 설립된 「한국CM협회」창립총회가 지난 3월 27일 서울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이내흔 현대건설 사장이 초대회장에 선출됐다. CM협회는 지난 95년 7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추진준비작업을 해왔으며, 현재 30여 건설업체와 5개 연구기관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다.

대한건축학회 건축캐드 워크숍 개최

「건축설계과정에서의 모델개발」 등 주제발표

대한건축학회는 지난 3월 28일 사당동 건축학회 대강당에서 「'97 캐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이론분야로 '건축설계의 협동작업을 지향하는 지능형 캐드엔진의 개발', '건축설계과정에서의 모델 개발', '건축설계의 효율성 협력을 위한 가상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실행분야로 'CALS체계의 건축분야에서의 적용', 'GIS시스템을 이용한 건축물에서의 Facility Management', 'Web과 건축정보'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건설 · 건축기자재 국제박람회 참관단 모집

파리 INTERMAT전, 모스크바 STROYTEKH '97 참관

세계 각국의 건축박람회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는 리더스산업연구원에서는 오는 4월말 파리와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건설장비 및 건축기자재 국제박람회 참관단을 모집중이다.

참가자들은 오는 4월 23일부터 30일까지 7박 8일의 일정으로 파리 건설장비 및 건축기자재전(INTERMAT/Equipment & Techniques for Construction Exhibition)과 모스크바 건축기자재 박람회(STROYTEKH' 97/Int'l Exhibition Equip & Material for Building)를 직접 참관하게 된다.

파리 INTERMAT전은 3년에 한 번씩 건설자재를 비롯한 기계 및 설비굴착기 장비 등을 종합해 전시하는 행사로 개최국인 프랑스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약 1천 2백여 업체가 참가한다.

또 러시아 건설시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모스크바 STROYTEKH '97은 러시아 최대규모의 건축기자재 및 설비 박람회이다. 참가비용은 1인기준 168만원으로 신청마감은 4월 11일까지이다.

문의 : 리더스산업연수원 연수부 (전화 02-725-1707)

건축신간안내

김석철의 세계건축기행/
풍수지리와 건축

◇ 김석철의 세계건축기행

이 책은 「예술의 전당」, 「베네치아 비엔날레 한국관」 등을 설계해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김석철(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반 대표)회원이 20여년간 돌아본 세계 각국의 도시와 건축물 가운데 탁월한 예술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만을 선정해 소개한, 24편의 재미있는 건축 에세이이자 기행문이다. 이 책에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인 인도의 '타지마할'을 비롯해 시각예술의 정수 '예루살렘 반석위의 돔', 나폴리에 피어난 예언적 도시 건축 '메가리데성' 등 세계적 건축물들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어 독자로 하여금 새로운 건축의 세계에 빠져들게끔 인도한다. 또 이책은 저자가 대상지역을 돌아다니며 쌓은 감동들을 적은 「건축기행」 이외에도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돌여다보기」 난을 통해 건축을 쉽게 풀이해 놓았으며 120여 컷의 컬러사진과 50여개의 도면 및 그림들이 함께 수록되어 있어 세계 천년건축의 정수를 만날 수 있다.

창작과 비평사 펴냄/변형 크라운판/304면/1만2천원/문의 :02-718-0543,4

◇ 풍수지리와 건축

「사람은 집의 氣를 받고 살고, 집은 사람의 氣를 받고 산다, 집과 사람은 곧 그 기운을 주고 받으며 공생한다. 따라서 집은 사람과 함께 살아있는 생명체이다. 풍수건축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저자인 박시익(도봉건축사사무소 대표) 회원은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전통사상인 풍수지리가 신비적 차원에서 벗어나 내가 사는 집, 우리가 사는 집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30여년간 건축을 하면서 풍수지리를 현대건축의 계획이론으로 정립하고자 노력해 온 저자는 현대건축이 비록 규모와 시설면에서 큰 발전을 해온 반면 '인간적인 공간 창조'란 측면에서는 실패를 거듭해 왔다며 공간을 생명력있는 기운으로 해석하는 풍수지리의 공간이론이 현대건축 이론의 잘못된 점들을 바꿀 수 있다고 보고있다.

이책은 '방위에 따른 주택의 길흉', '풍수 인테리어', '풍수지리 이론에 따른 명당설계의 실례', '풍수지리 연구과정' 등 총 18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쉽게 풍수지리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교재의 역할도 하고 있다.

박시익 지음/경향신문사 펴냄/정가 9천원/문의 : 02-3701-1351~3

◇ 건축현장의 사람들

이 책은 현재 일본에서 건설관련 컨설턴트로 활약중인 오가타 타가노부씨의 '건축현장의 드라마에서'란 책을 기산건설 김성웅회장이 우리말로 옮겨놓은 것으로 저자가 40여년간 일본의 건설현장에서 보고들은 생생한 체험이 담겨있다. 이 책에는 실제 건설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56개의 에피소드가 7개의 장으로 나뉘어 소개되어 있어 저자의 실질적 현장체험이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문화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적잖은 공감을 줄 것으로 본다.

도서출판 고도 펴냄/232면/6천원/문의 : 02-785-2428

◇ 도시계획, 삶의 문화의 틀짜기

이 책은 저자인 황용주씨가 중앙대 건설대학원 교수직을 정년퇴임하면서 지난 30여년동안 도시계획가이자 정책자문가로 활동하면서 발표했던 연구논문들을 주제별로 재구성한 것으로 산업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공간계획의 역할과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발전방향, 교통문제 등에 남다른 식견과 지식을 지닌 저자의 철학이 잘 나타나 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돼 있는데 제1부에서는 도시계획의 정의와 살만한 도시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또 제2부에서는 도시계획의 지평이란 주제로 많은 도시계획에 직접 참여했던 저자의 경험을 토대로 국내 도시문제를 진단하고 있으며 3부에서는 우리나라 광역개발계획의 구상과 구현을 사례중심으로 통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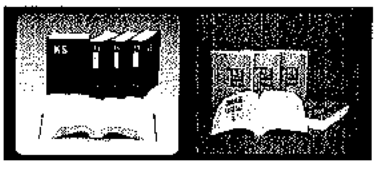
◇ KS건설 특집판 및 핸드북

「KS건설특집판」 및 「KS건설핸드북」은 건설부문의 KS규격을 발췌·편집한 것으로 KS규격에 준한 제품생산의 지침서이다. 이 책에는 국가가 지정한 각종 법령·시방서·KS규격 등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어 현장에서 '기술사전'적 구실을 하고 있다. 특히 KS건설특집판은 구조재료, 철강재, 도료, 내외장 재료, 창호재 등으로 규격정보를 세분화해 놓았으며 KS건설핸드북은 각 권별로 제1권 - 시험방법편, 제2권 - 일반구조/재료제품편, 제3 ~ 5권 - 재료·제품편으로 구성돼 있다.

「KS건설특집판」: A4판 / 전10권 / 세트가 2백만원

「KS건설핸드북」: A5판 / 전5권 / 세트가 30만원

문의 : 한국표준협회 02-785-2428



포천군 문화예술회관

남제주군청사

과천시 갈현동 다목적회관

감리교 신학대학 100주년 기념관

전북도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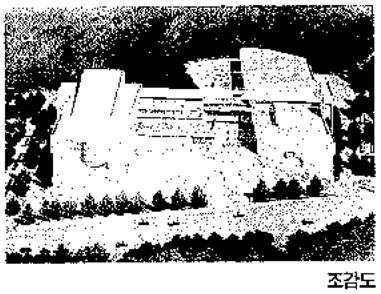
대전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

포천군 문화예술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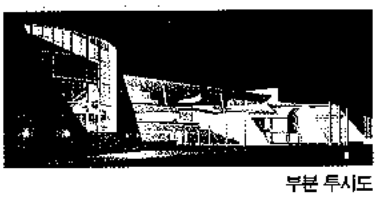
Pocheon Culture & Art Center

경기도 포천군에서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대외적으로 포천군의 위상을 높이고, 대내적으로 포천군민의 문화, 예술적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수준높은 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현상설계경기를 실시, 지난 2월 28일 (주)POS-A.C(심인보)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여 발표했다. 총 20개 작품이 접수된 이번 설계경기의 우수작은 서건건축(엄 웅)안이, 가작으로는 매사건축(전재근)안이 각각 선정됐다.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홍대형(서울시립대교수), 이영한(서울산업대교수), 홍갑표(연세대교수), 이영수(홍익대교수), 김경호(대진대교수), 박항섭(한터건축), 강석원(그룹가건축), 민경식(민경식건축), 조창호(포천군의회의원), 이화순(건교부도시계획과), 장금태(포천군 주택과장)

▶ 당선작 / POS-A.C(심인보)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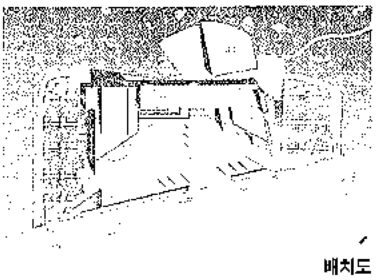


부분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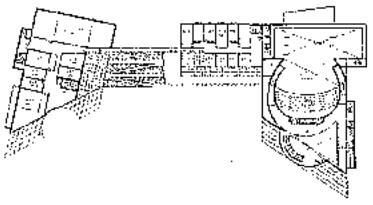
대지위치	포천군 군내면 하성북리 592-2번지동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공공시설지구
대지면적	24,648㎡(전, 답, 대지, 임야)
건축면적	3,768㎡
연 면 적	10,135㎡
건 폐 율	15.28%
용 적 률	37.1%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 조	철골 · 철근 콘크리트조
주차대수	외부주차 104대
조경면적	9,863㎡
주요외장재	포천석 물갈기/버너구이, T=24 복층 착색 유리
주요시설	대/소 공연장, 전시실, 향토사료전시실, 향토사료보관실, 회의실, 사무실, 기타 부대시설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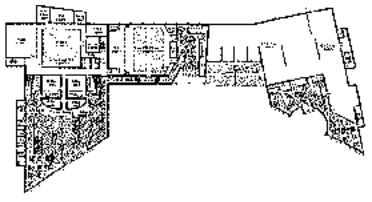
- 기본개념
  - · 자연지형에 순응하도록 배치하므로써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인근 환경과 조화되도록 한다.
  - · 전면도로에서 대지로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공공성을 높이는 동시에 인근시설과 차별화되는 문화회관의 독자적인 외부공간을 가지도록 한다.
- 자연지형에 대한 고려
  - · 계획대지 중앙부에 위치한 완만한 경사의 계곡면에 전시동 및 여성회관을, 북측 경사면에 공연동을 배치시켜 전체적으로 대지등고선에 순응하도록 배치한다.
  - · 비교적 완만한 경사의 대지하부에 주건물을 배치시킴으로써 절토 및 성토량을 최소화하고 기존 자연환경을 보존한다.
- 진입성 및 공공성에 대한 고려
  - · 이용객의 동선을 행사가 없을 시에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전면도로를 향하여 열려져 있는 형태로 배치한다.
  - · 대지의 세로축을 따라 성격을 달리하는 외부공간이 구성되도록 하여 이용객으로 하여금 다양한 외부공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성이 강한 전면광장과 사적인 성격이 강한 후측의 산책로 및 야외극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여 이 지역 전체를 활성화시키고 공원으로서의 문화회관 성격을 부각시킨다.
- 외부공간에 대한 고려
  - · 기존의 육중한 단일건물 형태의 문화회관 유형을 탈피하여 개방적이고 선적인 형태로 건물을 배치하므로써 다양한 외부공간이 형성되도록 한다.
  - · 전면도로에서 후면의 보행자도로 및 야외극장으로 이르는 각기 공간에 점차적인 위계성을 부여한다.
- 기능구획 및 배치
  - · 남북방향으로 장축을 가지는 대지의 형태를 고려하여 건물의 매스를 수평적으로 배치하고, 이 배치에 따라 공연동, 관리동, 전시동의 각 기능을 수평적으로 분배한다.
  - · 수평적으로 배치된 각 기능들은 각기 독립적인 출입구를 가지게 하여 독립성을 부여하는 한편 데크(deck)및 브릿지(bridge)를 통하여 상호 연결되도록 한다.
- 대지의 양측에 주차장을 배치시켜 보차도분리를 유도하는 한편 차량이용객의 접근을 용이하도록 한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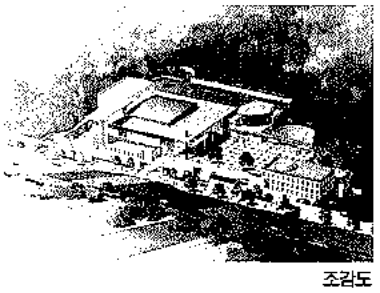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횡단면도

▶ 우수작 / 서건ENG. 건축(엄 웅, 이상철)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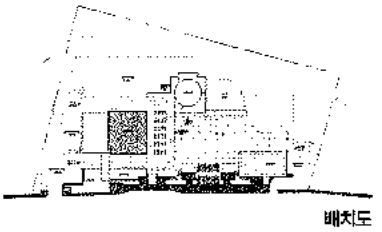
위 치	경기도 포천군 군내면 하성북리 592-2번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공공시설지구
대지면적	24,648㎡
건축면적	4,237.2㎡
연 면 적	11,571.0㎡
건 폐 율	17.19%
용 적 률	24.37%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 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
주요설비	F.C.U+정풍량 단일덕트 방식
주요용도	관람집회시설(문화예술회관)
외부마감	포천석 잔다듬, 포천석 물갈기, 크리어 그라스, 컬러 알루미늄 쉬트 패널
계획담당	이항렬, 홍계열
설계담당	엄정용, 이동훈, 손태일, 이칠환, 유형선, 김연정, 조수연

설계주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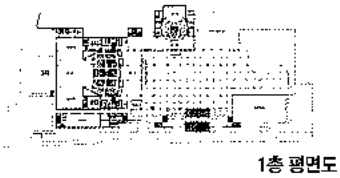
포천문화예술회관에 접근하는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 입지할 대지의 해석과 그에 따른 장래 주변환경의 도시화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문화회관에서 보여지는 Mass의 육중함, 옥외공간과 건축의 분리보다는 건축을 통해 하늘과 산을 바라보는 막힌듯이 열린 옥외공간과 그 건축형태, 단순한 선과 면으로써 한국건축에서 보여지는 공간의 재해석을 시도하였다.

배치계획

- Event(열린음악회 등…)를 위한 광장의 확보 :
  남북으로 긴 광장은 Event의 유치와 문화회관과 여성회관의 매개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 대지의 레벨차를 이용하여 계획된 주차장은 내부공간과도 자연스레 연계성을 갖는다.
- 자연 레벨을 이용하여 인공의 광장내부에 순수자연에 대한 대비와 조화를 함께 이루는 조경을 연출한다.
- 자연과의 조화, 지형과의 접목들을 고려한 배치로 효율적인 공사 및 사토처리의 합리화를 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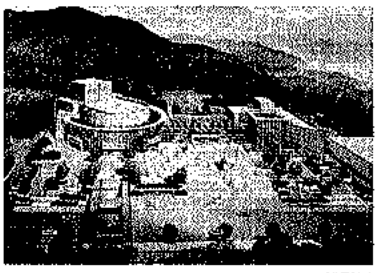
배치도



1층 평면도

횡단면도

▶ 가작 / 매사건축(전재근)



조감도

위 치	경기도 포천군 군내면 하성북리 592-2번지등
대지면적	24,648㎡
건축면적	3,672.90㎡
연 면 적	11,678.44㎡
건 폐 율	14.90%
용 적 률	25.54%
구 조	철골철근 콘크리트
주요외장	화강석버너구이, 24㎜컬러복층유리
옥외시설	야외공연장, 전시장, 놀이마당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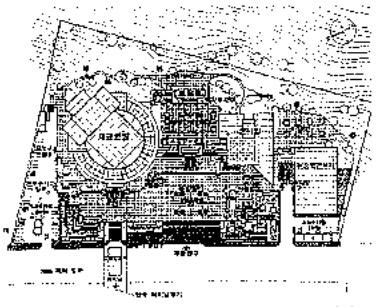
- 건물배치
  - 주변의 스카이라인(Sky-Line)과 조화를 이루며, 건물의 스케일(Scale)에 비례하는 전면의 오픈스페이스(Open Space)확보
  - 도심방향의 정면성확보와 도시의 Landmark적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는 배치축 설정
- 외부공간체계
  - 완충곤간-중앙광장-놀이마당-자연녹지로 이어지는 매개공간구성→각 동으로 유도되는 동선의 흐름을 명료하고 다양하게 전개
  - 터미널고의 연계성을 고려한 브릿지 도입→장래 문화 · 예술의 중심지로서의 조형성 및 Identity부여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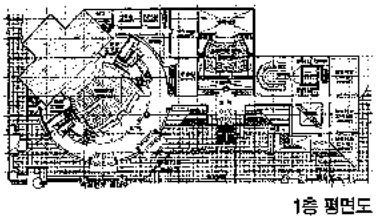
- 지하1층
  - 지하1층은 대공연장 부속실군, 소공연장, 소공연장 부속실군, 전시장 부속실군 등의 4개군으로 구성
  - 소공연장의 진입은 선큰에 의한 진입과 직접 진입할 수 있도록 동선의 융통

성 및 주차와 각 동으로의 진입의 편의를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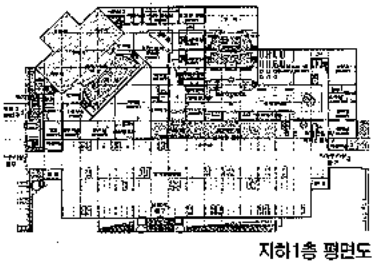
- 지상 1, 2층
  - 대공연장, 전시장 등의 배치로 건물의 주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실로 구성
  - 각각의 Zone은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끔 독립적인 Zoning이 되도록 하였으며 관객영역과 Staff영역을 분절, 각각의 동선을 가짐으로써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계획
  - 1층에서 중앙 광장을 중심으로 각각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연계적으로 융통성있게 활용되도록 계획
- 지상 3층
  - 전시장의 관리군과 연구사무실군으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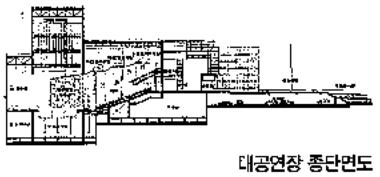
배치도



1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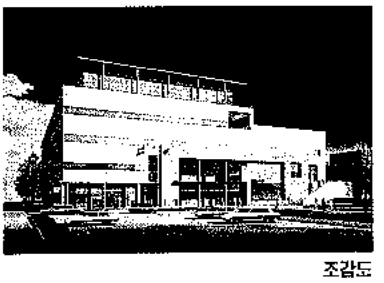
대공연장 종단면도

남제주군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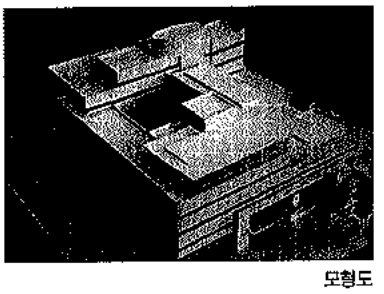
Nam Cheju-gun County Office

남제주군에서는 새 청사 건립을 위한 현상설계경기를 실시, 총 14개 작품이 응모한 가운데 신예건축(김성래)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지난 2월 14일 발표했다. 우수작으로는 제주 천미건축(허영주)안이 선정됐다. 참여한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김태일(제주대 교수), 문기선(제주대 교수), 주종원(서울대 교수), 강병기(한양대 교수), 강행생(제주건축사회회장), 관련공무원 2명

▶ **당선작** / 신예건축(김성래)



조감도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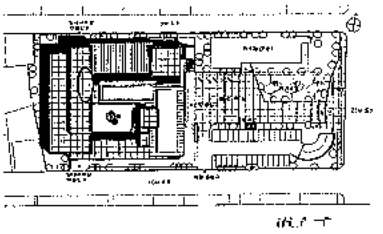
대지위치	제주도 서귀포시 서홍동 440-1외 7필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
대지면적	8,016㎡
건축면적	3,150.3㎡ - 본청 2,616.6㎡ - 의회 533.7㎡/기존
건 폐 율	39.3%(법정 60%)
연 면 적	14,705.85㎡ - 본청 12,875.7㎡ - 의회 1,830.15㎡/기존
지상층면적	12,020.8㎡ - 본청 10,534.5 - 의회 1,486.3㎡/기존
용 적 률	150.0%(법정 400%)
규 모	지하 1층, 지상 6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조경면적	2,297.1㎡, 28.7%(법정 15%)
주차대수	160대(지상 30대, 지하 130대), 법정 148대 - 본청 129대, 의회 19대
최고높이	24.9m
외 장	파스텔북층유리, 국산화강석

현상설계 마감일, 계획안과 더불어 자책감과 부끄러움을 함께 보냈다. 결국 너무 큰 아쉬움만 남긴채, 과분한 결과는 걱정만 앞서 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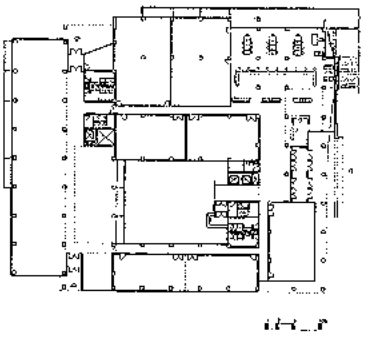
대지여건, 지침, 그리고 너무 여유없는 Space Program 등에 대한 어려움은 생략하고 계획안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서술하기로 한다.

남제주군청사 현상설계는, 일부를 임대사무실로 계획한 관상청사이다. 지침은 1층의 일부와 2, 3층을 임대사무실로, 그 나머지 6층까지를 군청사로 요구하였다. 또한 약 600평이상의 기준층이 지침으로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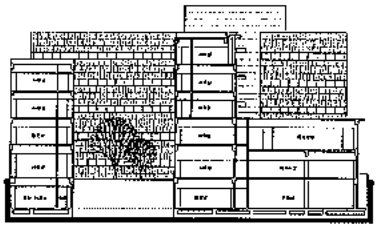
- 우선 600평이상의 넓은 실깊이는 중정(中庭)을 두므로써 제주의 바람을 피하고 또다른 녹색공간을 제공하여 부담을 줄였다.
- 지침상 임대사무실을 관통하게 되는 수직동선은, 임대존을 별도 형성(1~6층의 서측동)하여 청사의 추후 확장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대회의실을 2층에 두어 별도 출입구를 설치하므로써 지역사회의 문화행사 등에 대여할 수 있는 배려를 하였다. 〈글 / 신예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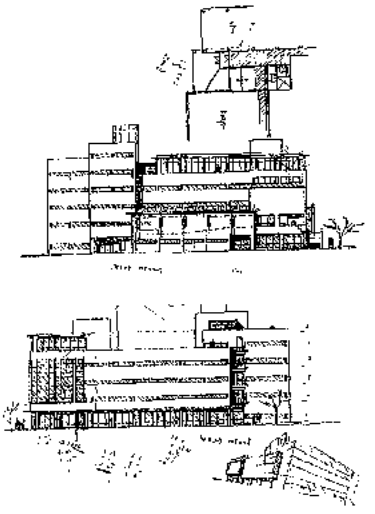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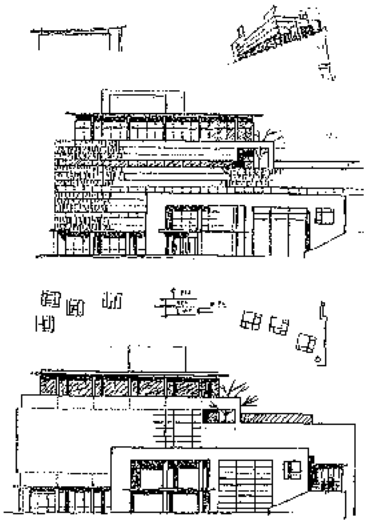
1층 평면도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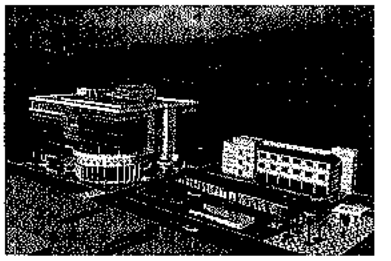


스케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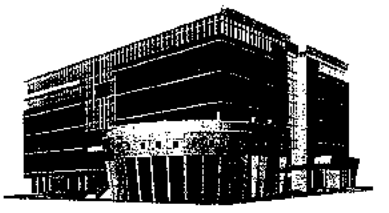


스케치 2

▶ **우수작 / 천미건축(허영주)**



조감도



CAD 모델링

대지면적	8,016㎡
규 모	지하 1층, 지상 6층
소요예산	약 150억원(지하 주차장 등 2차공사 제외)
건축면적	2,915.95㎡
연 면 적	12,899.96㎡
건 폐 율	36.37%
용 적 률	135.25%
주차대수	158대(자주식)
조경면적	1,946.17㎡
구 조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외부마감	30㎜화강석 건식 붙임+24㎜컬러 복층 유리
정화시설	오수 정화조
최고높이	24.95m

배치계획

- 도시적 스케일의 옥외공간 확보(Open Space) : 전면 도로에서 상당부분 후퇴 배치하여 전면에 옥외 개방공간을 확보하므로써 도시내의 건물의 이미지를 확정시키고 대형 건물의 시각적 공간을 확보한다.
- 점진적 접근과 접근의 기능 분리
  전면도로에 도입부인 벤치 등 휴게 공간을 두고(起), 건물과의 사이에 개방공간을 확보하여(承), 청사의 주현관과 임대 사무실(2층, 3층)출입구를 분리 설치하여(轉), 목적 공간에 이르게 한다.(結)
- 시민공간 확보 : 차량의 대부분을 지하주차장으로 유도하여 지상부분을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한다.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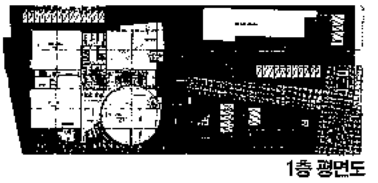
- 청사시설 진입부와 임대시설 진입부 분리 : 청사시설과 임대시설의 출입구를 분리 설치하여 임대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청사 기능의 평면적 통합 : 1층의 종합민원실은 Core를 중심으로 임대시설과 구분되며 4, 5, 6층의 청사시설은 중정을 매개로 그 기능이 통합된다.
- 기능적인 평면계획 : 중앙 Core배치 방법을 선택하여 경제적이면서 기능적인 평면 계획을 유도한다.

입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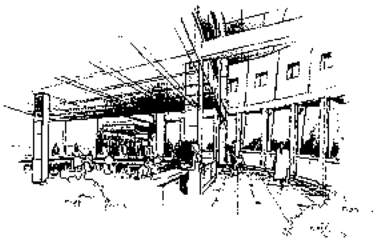
- 제주의 이미지 : 수평적 요소의 적극 도입, 커튼월의 수평선 강조로 제주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수직 요소인 루버를 연속 사용함으로써 수평적 표현으로 통합한다.
- 저층부의 부가적(Over-lap) 수법으로 안정적인 형태를 확보한다.
- 청사와 임대 시설의 통합 이미지 : 청사의 권위적 이미지를 전면의 대칭된 Shaft로 표현하고 임대 시설의 사무적 이미지를 커튼월이라는 수평적 표현으로 통합시킨다.

단면계획

- 기능의 수직적 통합 : 상층부의 청사시설을 중정으로 기능을 통합하여 이미지의 단일화를 이룬다.
- 외부 진입에 의한 임대 시설의 독립
- 저층부의 중층화 : 민원실을 중층화함으로써 쾌적한 민원 업무 효과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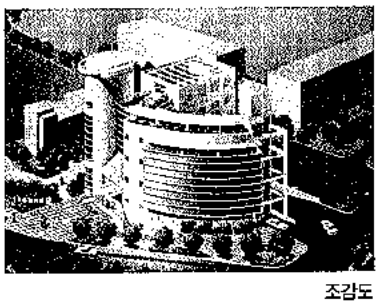
실내투시도

과천시 갈현동 다목적 회관

Multiple-Purpose Hall, Gaihy-eon-dong, Kwacheon

경기도 과천시는 갈현동에 청소년 휴게시설 및 주민복지시설 등 복합기능의 다목적회관 건립을 위한 현상설계경기를 실시, 총 25개 작품이 응모되어 다원건축(김영택)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지난 2월 14일 발표했다. 우수작으로는 부광건축(홍순덕)안이, 가작으로는 마인건축(신삼호)안과 토우건축(신언학)안이 각각 선정됐다.

▶ **당선작 / 다원건축(김영택)**



조감도

대지위치	과천시 문원동 576번지 일대
대지면적	1,205㎡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내 개발제한구역
도로현황	전면 6m 계획도로
건축면적	476.38㎡
연 면 적	2,992.16㎡
지상층연면적	1,712.60㎡
건 폐 율	39.53%
용 적 률	142.12%
규 모	지하 2층, 지상 4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12대(장애인주차 1대포함)
주요외장재	화강석물갈기+버너구이/18㎜ 컬러 복층유리 커텐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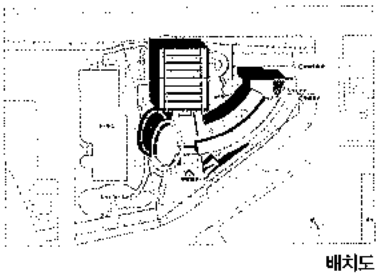
기초 자치단체에서 운영되는 다목적회관의 현상지침상의 기능이 영·유아시설, 청소년 휴게시설 및 주민복지시설등 서로 다른 성격의 용도를 수용하여야 하는 복합적인 기능의 건물이므로 각 용도별 프라이버시 확보 및 수평, 수직동선의 교차를 피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주민의 민원 및 사회복지기능의 복합적수용에 따른 합리적이고 쾌적한 공간구성에 계획의 주안점을 두었다. 대개의 관공서 발주 건물이 그러했듯이 상자형 건물이 주는 단순함 내지는 권위성, 지루함 등을 탈피하고자 부드러운 곡선요소를 과감히 도입하여 건물을 접하는 지역주민들이 친근감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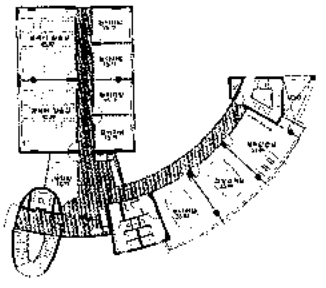
- 주위환경과의 연계성 고려
- 합리적 동선체계 확립
- 타당성 있는 오픈스페이스 확보
- 건물의 인지성 확보(Land mark)
- 일조 및 채광고려
- 옥외공간의 유기적 연계

외부동선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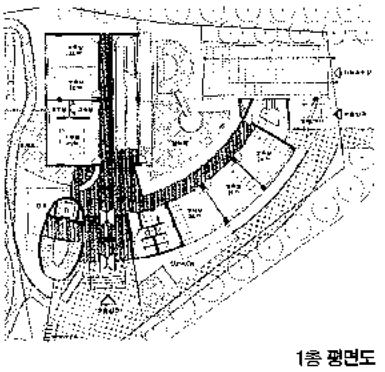
- 차량동선
  - · 대지상황에 순응하면서 대지내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계획
  - · 주차시설과 건물코아와 인접계획하여 이용자에게 편리성 제공
  - · 보행자와 주차동선의 분리로 안전성 및 편리성 확보
- 보행자동선
  - · 보행동선의 단순화
  - · 기존시설물과의 연계
  - · 녹지공간과 휴게소와의 연결로 쾌적한 보행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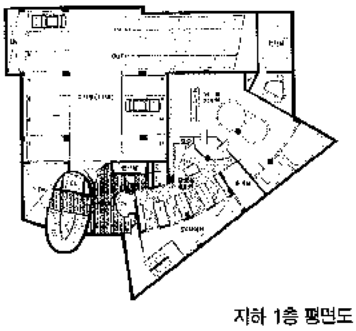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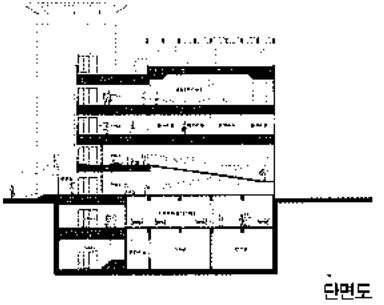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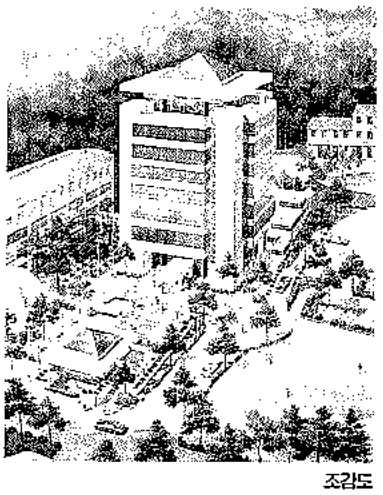
단면도

감리신학대 100주년 기념관

The Hundredth Anniversary Monument of Methodist Divinity Univ.

감리교신학대학교는 현재 대학 및 대학원생의 복지시설 및 활동 공간의 부족 등의 해결을 위해 100주년 기념관을 건립코져 총 5개사를 지명, 설계 경기를 실시하여 이중 (주)신 · 연희 건축(신영천)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 **당선작** / (주)신 · 연희 종합건축



조감도

위 치	서울시 서대문구 냉천동 31
지역지구	일반 주거지역 풍치지구
대지면적	24,360.3㎡
건축면적	1,305.93㎡
연 면 적	9,921.19㎡
건 폐 율	18.62%
용 적 률	69.35%
규 모	지하 3층, 지상 7층
구 조	철근 콘크리트조
주요설비	FCU+공기조화 방식
주요용도	도서관, 교수연구실
외부마감	THK 30 화강석
설계담당	김회봉, 정 호, 김성범, 박중문, 최유경, 하태순

배치계획

- 계획의 전제

배치의 계획에서의 주된 요소는 개방감, 접근성, 독자성, 정면성을 확보하면서 주위건물과의 유기적 관계의 설정을 이루도록 한다.

- 캠퍼스내의 접근성

캠퍼스의 주진입은 도심에서 무악재로 이어지는 의주로와 동서로 이어지는 충정로 사이에 위치하며 캠퍼스내에서는 정문을 지나 캠퍼스의 핵심위치라고 할 수 있는 기존의 교무, 학생처 건물 위치이다. 보행자 진입은 전면 옥외 휴게공간과 상징공간을 지나 기념관의 주출입구에 접근하며 보행과 차량을 분리하여 처리한다.

- 결론

캠퍼스의 핵심적 위치에 기념관을 건립함으로써 기능, 성격 및 외관에 있어서 주위건물과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였다. 또한 캠퍼스의 주진입동선에서 보행자 동선과 차량 및 주차동선을 분리시켜 전면의 개방감 확보 및 상징적 공간을 도입하였으며 기념관으로서의 독자성을 확보하면서 강한 흡인성을 내포하므로 캠퍼스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배치계획을 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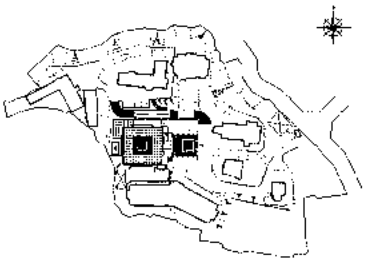
평면계획

- 규모 및 조직의 변경에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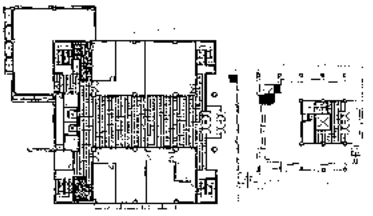
기준층에서의 시설배치는 조직개편을 전제로하여 표준적 패턴을 고려하는 동시에 배치동에 대해서는 직원의 증감 등 변화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각부의 사무자동화에 적합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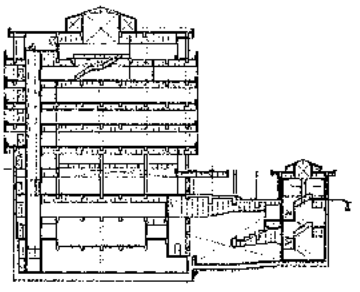
장래의 사무자동화 발전단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기기 도입시에 그 배치를 자유롭게 변경시킬 수 있도록 계획한다.



배치도



1층 평면도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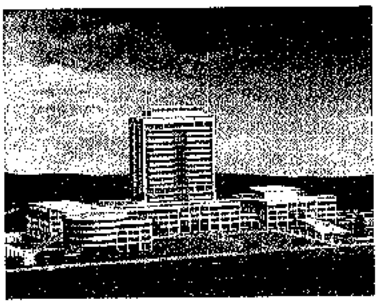
전북도청사

The Administration Hall of Jeollabuk-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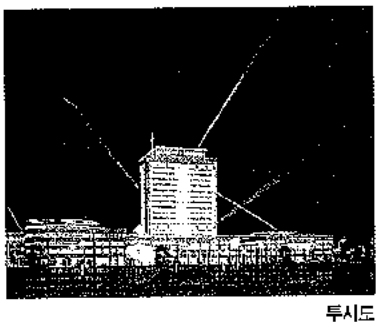
전라북도청에서는 새청사 건립을 위한 현상설계경기를 실시, 반도건축(우양근)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지난 2월 26일 발표했다. 총 16개 작품이 응모한 이번 설계경기의 우수작은 토문건축(한남수)안이, 가작으로는 POSAC(심인보)+제3건축(전병갑, 전주)안과 담건축(오평국)안이 각각 선정됐다.

참여한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이정덕(고려대 교수), 박영기(연세대 교수), 윤도근(홍익대 교수), 유웅교(전북대 교수), 양극영(원광대 교수), 임영배(전남대 교수), 박찬규(충남대 교수), 온영태(경희대 교수), 유철갑(전북의회 부의장), 임종정(전북 건설교통 국장), 송재현(전북 공영개발 사업단장)

▶ **당선작 / 반도건축(우양근)**



조감도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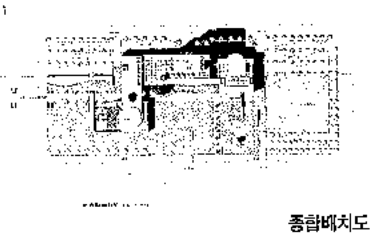
대지위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7번지 일원
대지면적	92,285㎡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공용의 청사부지
건축면적	13,326.97㎡
건 폐 율	14.44%
연 면 적	80,425.14㎡ 지상 : 61,008.65㎡ 지하 : 19,416.49㎡
용 적 률	66.11%
용 도	공공업무시설
규 모	지하 2층, 지상 18층
구 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주차대수	총 878대(옥내 362대, 옥외 516대) 장애자 전용 14대, 대형 10대 포함
조경면적	21,237.54㎡(23.01%)
외장재료	화강석 버너구이+메탈패널, 컬러복층유리

배치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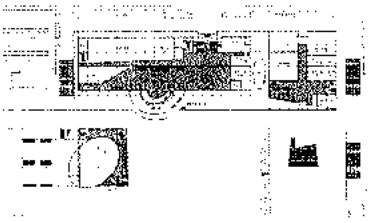
- 전체부지에 대해 시설배치가 균형있고 체계적인 계획이 되도록 토지 이용을 극대화
- 전통건축의 공간구성 원리를 현대적 개념에 맞게 구성
- 전주시 서부 신시가지의 Land Mark로서 상징적 이미지를 위해 도시 남북측 선상에 배치
- 대지 전면부는 도민 광장을 조성하여 열린장으로서 도민이 친숙하게 모여 즐겁게 교류, 휴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전북도민의 화합의 장으로 역할 부여
- 대지 후면부는 주차장을 분산배치하여 도청사와 의회의 이용자별 편리성 확보
- 도청사와 의회는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줄분수를 설치하여 별개의 영역성 확보
- 대지의 서측 시민공원에서 동측 체육시설까지 진입 보행축을 설정하여 접근성 및 개방성을 높임
- 도청사, 도민홀, 의회 등의 일체화를 위해 광장의 연속성을 고려
- 체육시설 부지는 장래 증축 예정지로 설정하여 향후 수요의 변화에 대응

주차 및 동선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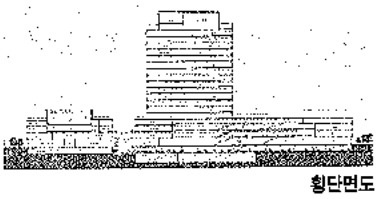
- 대지의 남측 차량 주출입구에서 후문에 이르는 내부 통과도로를 Under Pass 시켜 차량동선을 합리화시키고 보행자들의 안전성과 쾌적성 확보
- 합리적이고 명쾌한 보차 분리를 통한 원활한 청사출입 유도
- 도민이 집단적으로 토론, 협의할 수 있는 대회의실, 도민홀 등은 도민광장과 연계시켜 일반인 이용객의 동선을 단축
- 지체부자유자에 대한 해결책으로 장애자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고 각 건물 출입구는 경사로(Ramp)를 설치, 민원실과 화장실을 자유로이 이용토록 함.
- 기능별 독립 출입구 설치로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적 출입 가능
- 민원인 주차장과 직원용 주차장을 지상과 지하로 구분하여 설치함으로써 동선 혼란 방지
- 대지의 서측 광로에서 많은 인원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서측 광장에서 동측 체육시설까지 주 보행자 동선을 구축
- 도민광장 중앙의 주출입 동선은 도청사와 의회의 의전출입과 광장기능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보차혼용 동선으로 처리



종합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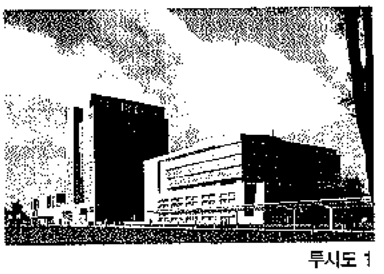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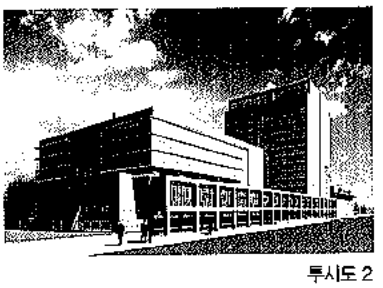


횡단면도

▶ **우수작 / 토문건축(최두호, 한남수)+율 건축(최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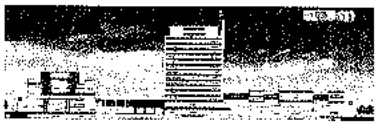


투시도 1



투시도 2

대지면적	92,285㎡
건축면적	9,455㎡
건 폐 율	10.24%
연 면 적	76,057㎡
용 적 률	53.53%
규 모	대만동 지하 2층, 지상 4층 행정동 지하 2층, 지상 16층 의 회 지하 2층, 지상 5층
외장재료	30㎜ 화강석 버너구이, 물갈기



단면도

+24㎜ 복층컬러유리

설 계 팀 신동훈, 임 철, 김용진, 김윤관, 문용현, 서운철, 배동석, 박혜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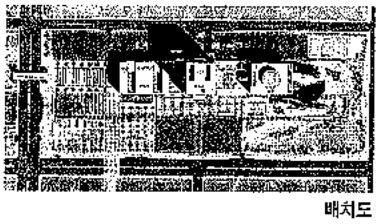
"한 인간이… 세상에 실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느낌…

건축이 있어야 할 중대한 이유이다. 존재에 대한 느낌은 주변, 크게는 우주질서와의 연관(Reconnection)을 통해 얻어진다.

단순한 도시적 연관이 아닌… 인간이 주변의 질서와 물리고, 그를 통해 자기를 확인,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연관(Reconnection). 그래서 건축의 요소는 지붕, 벽, 바닥이기 보다 하늘, 땅, 바람, 공기, 다른 인간들…, 그런 것이다.

본 안에서 주로 다루어진 Them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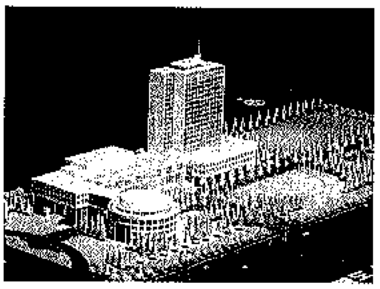
도청사 건물 영역의 제한, 나머지 부지를 공공에게, 그리고 부지와 건물의 경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 (Bou-ndary), 뚫어, 끼어, 맞대 들어옴 (Thre-shold), 땅의 연장으로서의 덩어리들 (Earth, Time), 채움, 비움, 채움, 비움…의 공간구성(Solid : Void), 축복, 희망, 믿음 등의 하늘들여옴(Sky, Light), 자리의 외짐(Edge)과 의회의 고민(Earth, Water, Sky), 중심자리와 대표로서의 청사에 대한 기대(Center), 자리의 펼침, 가림과 대 민 시 설 의 개 방 (Penetration, Wrapping) (글 / 신동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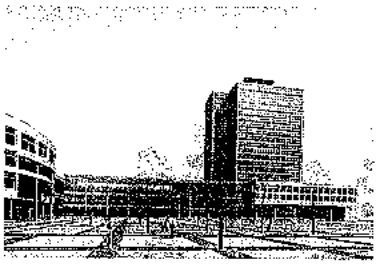
배치도

1층 평면도

▶ **가작** / POS-A.C.(심인보)+제3건축(전병갑)



모형도



투시도(도민광장)

투시도(도민홀)

대지면적	92,285㎡
건축면적	12,333.4㎡
연 면 적	79,967㎡
건 폐 율	13.3%
용 적 률	57.2%
규 모	지하 3층, 지상 19층
구 조	철골트러스,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지하 - 484대 지상 - 121대 합계 - 605대
외부마감	화강석, 투명강화유리, 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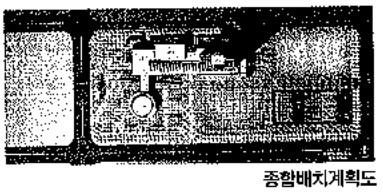
배치계획

- 도시질서의 창출
  - · 도시구성축에의 순응
  - · 도시의 발전축 및 신도시주축의 이중축 배려
- 시선의 집중 및 교류
  - · 외부의 대형 광장 및 Mass의 상징성
  - · 2개층분의 필로티를 통한 대형 광장간의 Dramatic한 공간 및 시선연결
- 보차동선의 완전분리
  - · 대지내 차량동선을 가급적 억제하여 보다 쾌적한 보행광장 조성
- 녹지공간 설치
  - · 도시내에 녹지공간으로서 도민휴게공원을 설치하여 도민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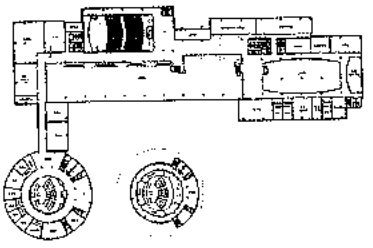
평면계획

- Grand Hall
  - · City Hall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전도민의 수용 및 전도민의 민원을 포용하는 상징적인 Hall.
  - · 초월적인 Scale로 내부공간을 에워쌈 (길이 : 210m, 폭 : 24m, 최고높이 : 28m)
  - · 자연광의 유도 : 내부공간의 무한한 깊이감 부여
- Hierarchy
  - · 거대한 홀은 다시 각 용도별로 독자적 영역을 확보하여 각 홀간의 Hierarchy를 명확히 한다.
- 기능배치
  - · 3개로 분류되는 도청의 기능은 도민홀을 중심으로 동측에 행정시설을 배치하여 각각의 영역을 지님과 동시에 상호간에 원활한 업무동선이 이루어지도록 계획
  - · 의회는 본건물과 분리시켜 독자의 고유영역을 형성하는 한편 3, 4층의 공중 연결통로를 설치하여 내부동선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 · 일시에 많은 동선이 집합되는 대회의실은 건물의 수직, 수평동선이 교차하는 도민홀 3, 4층에 배치하여 접근의 편리성을 꾀하며, 비상시에 신속한 피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Module
  - · 대홀은 24m의 무주공간으로 극적인 공간감을 연출한다.
  - · 12m×12m Module의 업무공간은 3m×3m로 구분되어 가구배치, 스프링쿨러, 조명기기, Diffuser 등을 합리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 · 의회동은 지름 52m의 대형 원을 22.5°의 각으로 16등분하여 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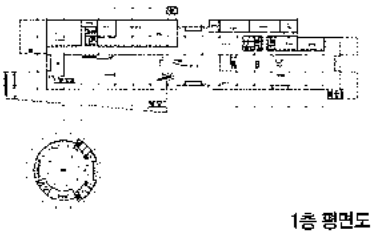
Unit(6m×9m)를 1개 Module로 실배치를 하여 장방형 Unit를 형성하므로써 원형평면의 단점을 최소화한다.



종합배치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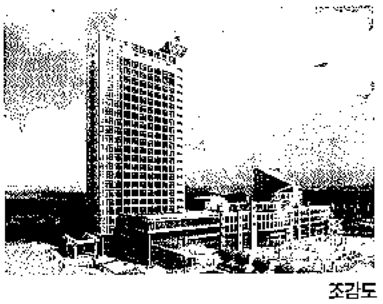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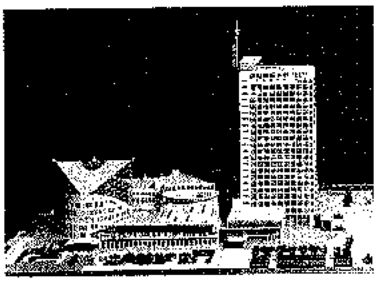


1층 평면도

▶ 가작 / 이배화+담건축(오평국)



조감도



모형도

대지면적	92,285㎡
건축면적	7,907㎡
연 면 적	80,595㎡
건 폐 율	8.57%
용 적 률	54.61%

규 모	지하 1층, 지상 21층(도의회 8층)
최고높이	103.6m
구 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계획총괄	신성준, 이대형
계 획	서광우, 나이주, 이병찬, 전유진
프리젠테이션	박종한, 권용대, 이성훈, 배영신

디자인 주제구성

이상의 입장에서 21세기를 밝혀줄 전북의 도청사는 전북의 역사, 정치, 경제, 인문, 사회, 지리, 환경, 문화, 예술, 전통, 인습 등과 계획대지의 입지조건 분석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디자인 주제를 선정하였다.

- 일반론적 접근
  - 청사가 전북도민의 얼굴이요, 자존심이며 인격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청사로서의 권위와 명예, 화합과 친근감을 건축어휘로써 표현하고, 전북인들의 21세기의 미래지향적 자신감을 부각시키도록 노력
  - 21세기의 미래지향적인 선도적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열린 도청의 쾌적한 업무환경과 민주봉사행정이 도청사 건물로 인하여 실현되고, 도민과 청사를 친근감 있게 구성하며, 아울러서 열려진 도민의 청사 창출
  - 전북의 고유한 상징성을 발굴하여 전북도청사를 새롭고도 시대에 맞는 전통성과 구별성을 세계만방에 알릴 수 있는 21세기의 장을 마련
- 건축론적 접근
  - 건축예술사적으로 구시대의 잔여물이 아닌 시대를 앞서가는 진취적인 예술미를 표현하여 독보적인 건축예술품으로 창출
  - 기능면에서 관청건물로서의 특수한 조건과 환경, 메카니즘, 피지컬한 면 등을 완숙하고 깔끔하게 처리하며, 나아가서 매력있는 새로운 공간 창조
  - 건물의 매스(Mass)와 파사드(Facade), 형태와 공간들의 레이어(Layer)와 연속 등을 풀어가는데 있어서 남과북, 동과서의 방향성, 그리고 자연 · 건물 · 인간 등이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통합과 조화를 이루도록 각각의 장(場)을 구성

디자인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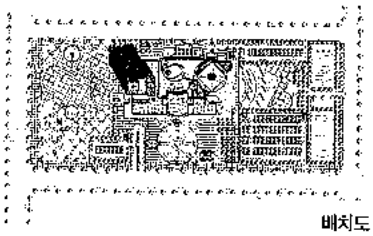
- 첫째 : 동과서, 남과 북으로 이어지는 용호상박의 대립에서 상호 화해하고 통합되는 조화의 원리를 적용
- 둘째 : 청사의 배치모습은 전북인의 미래 이상향인 여의주를 독수리가 품고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으로 표현
- 셋째 : 동서와 남북 2개의 우주축의 개념을 가지고 상호 대립과 보완의 상대적 개념에서 상호 역동적 힘의 흐름으로 풀었으며 이들은 우주공(宇宙空)이라고 하는 모체(母體)공간에서 통합을 이루며 여기서 시원의 원천과 종부를 맺는다.
- 넷째 : 도청사 전체를 동과 서 2개의 커다란 기능 즉 구시가지를 향하는 동쪽에는 도의회를 두어 떠오르는 희망과 상응시켰고 서쪽에는 도청사 오피스타워를 두어 미래 신시가지의 기능성과 접근 잠재력을 극대화하였다.

  북쪽에는 동선의 독립성을 살려서 대회의실과 지하1층의 후생시설을 Sunken Garden으로 기능을 한곳으로 모아 분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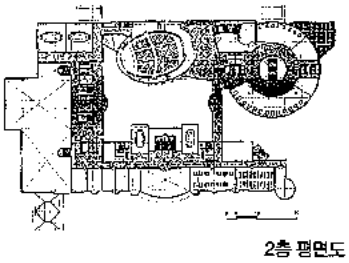
  남쪽에는 역시 전통적 선호사상과 역세권의 물리적 조건과 일치시켜 대민지원업무와 도지사, 부지사의 중추부대시설을 배치하였으며 특히 도지사실은 복(福)을 의미하는 박쥐모양으로 형태화 하였고 그 앞에는 전북의 상징인 까치 동상을 성역화하는 조각탑을 연계시키므로써 전체 도청사의 형태 가운데 중심의 핵(核)으로 부각시켰다.
- 다섯째 : 이상의 골격의 상(象)을 입면을 통하여 인격화 시키기 위하여 전통적 요소와 현대적 고양화를 건축예술적 차원에서 체계적이며 독창적으로 창출하였다.
- 여섯째 : 외부공간의 장(場)들을 연계와 독립, 그리고 개성화를 유기적 방법으로 역동성을 살려 나갔으며 도민에게 열려있는 공원적 뜰 성격과 행정업무의 권위의 사명감을 아울러 부각시켰으며 전통

문예의 애향과 고유성을 살려나갔다.

- 일곱째 : 관청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찾아오는 도민에게 민주적으로 봉사하고 공무원의 업무신체리듬을 체계적으로 고려한 공간디자인
- 여덟째 : 상징적 오브제(Object)를 각각의 장에 따라 표출



배치도



2층 평면도

대전 제2 농수산물 도매시장

Taejeon Agricultural & Marine Products Wholesale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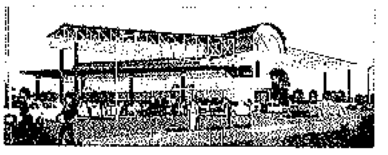
대전광역시는 지난 2월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을 위한 설계경기를 실시, (주)신화 엔지니어링(김인수+최재인)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이번 설계경기는 설계 평균 점수, PQ, 입찰가 등을 고려 점수제로 진행됐으며, 신화, 수성, 정주, 정원, 한림 등 6개 작품이 응모했다.

▶ 당선작 / 신화(엔)건축(김인수+최재인)

조감도

부분 투시도 1



부분 투시도 2

위 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 택지개발 지구내
대지면적	112,311㎡
지역지구	상업지역
연 면 적	49,970㎡
건축면적	36,551㎡
건 폐 율	32.54%
용 적 률	28.98%
조경면적	17,400㎡
주차대수	1,534대
외부마감	조립식 베이스패널, 샌드위치 패널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총 10개동
계획담당	오세욱, 이재명, 김효환, 김대인, 이은숙, 남혜경, 최혜정, 이현승, 정명호

계획의 기본개념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다른 건물의 유형에 비해 차량의 진출입 및 물건의 반출에 따른 기능적 요소가 상당히 중요시되는 건물로 교통을 원활하게 처리하여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추구하고 차후 유통규모 증가에 따른 확장을 고려하고 유통체계의 변화에 따라 대처하기 쉬운 구조로부터 출발한다.

계획의 주안점 및 설계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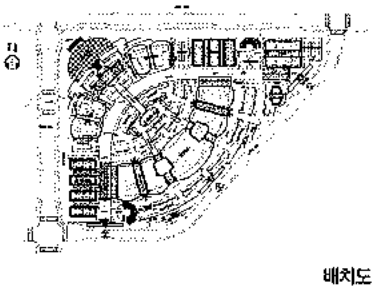
- 대규모의 공간 형태를 지양하고 공간의 분절 및 조화 도모
- 단일 박스 형상의 단조로움을 배제하고 변화 추구
- 기능별 특성을 고려한 건축물의 조형화 및 Mass 계획
- 새로운 이미지의 입면 및 지붕 디자인으로 미래지향성 추구
- 기능적으로 농산물 유통구조를 합리화하고 사용자의 편리성 제공
- 판촉, 문화공간의 부여로 단지의 활성화 및 대중성 회복

설계에 반영된 주요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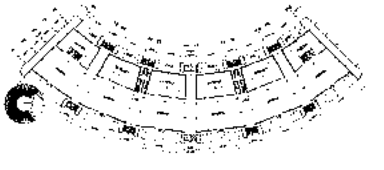
- 현재는 평치식이나 향후 Dock식으로 변환가능한 구조로 계획
- 트럭 판매동은 유통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주차장으로 사용되도록 계획
- 입면은 반원형 트러스구조로 하여 강한 구조미와 조형성을 강조
- 각동의 형태를 같은 Design 개념으로 계획하여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갖게하며 리듬감에 의한 친근감을 유발함
- 단지 중앙에 종래의 시장 형태인 천막구조로 시장분위기를 연출하고 판촉, 문화공간으로 독창성을 갖게함

기능별 동선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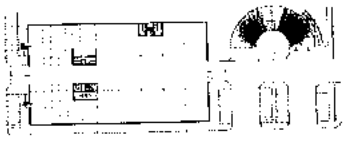
- 유사기능의 동선은 통합하고 별도기능의 동선은 분리함
- 각 특성별 동선체계를 구성
- 농수산물의 반입 반출이 편리한 동선 구성
- 동선의 빈도, 양에 대한 체계 구성
- 이용시간대별로 고려된 동선 System화
- 보차가 분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주차 및 흐름의 조화 및 편리성을 도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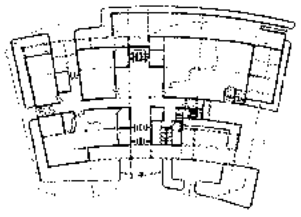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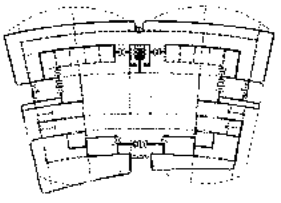
청과물동 1층 평면도



수산물동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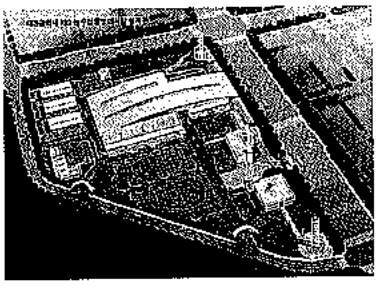
관리및 서비스동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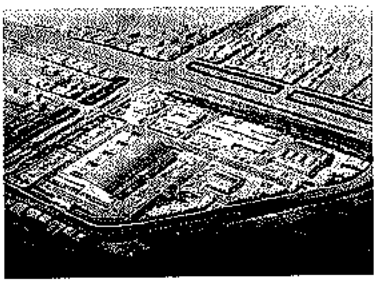
양념류 시장동 1층 평면도

▶ 참가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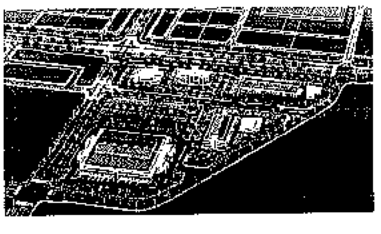
- 정주건축(안)



- 수성건축(안)



- 한림건축(안)



계획작품 process works

인크라인Ⅲ

하이콤연구소

화순 작은 호텔

부평중앙교회

부천종합운동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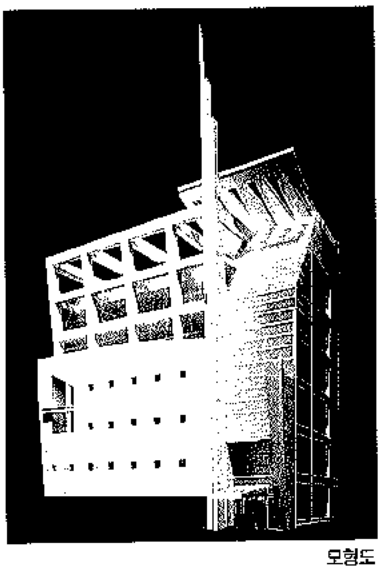
웨스틴 조선호텔 H. 빌라

명륜동 아남북합빌딩

인크라인 Ⅲ

Incline Ⅲ

주영정 / (주)예조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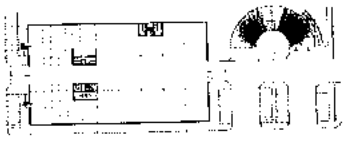
모형도

위 치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1-37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주차장정비지구, 도시설계지구
대지면적	470.00㎡
건축면적	269.69㎡
연 면 적	1,999.43㎡
건 폐 율	57.38%
용 적 률	321.37%
규 모	지하2층, 지상6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최고높이	24.60m
구 조	R.C조, 철골조(체육관)
층 고	3.3m
주요설비	각층 패키지방식+중앙난방(공용부분)
주요용도	근린생활시설
외부마감	THK4.0 알루미늄복합패널, 지정외벽단열시스템
내부마감	천정/암면흡음텍스, 벽/지정색 인코트스프레이, 바닥/THK 30 화강석 물갈기
주차대수	17대
조경면적	52.90㎡
설계담당	송문호, 소병권, 김광진
건 축 주	(주)지이드
설계기간	96. 6.~96.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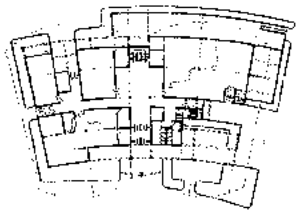
대지는 정리된 도심의 풍경이 형성되어 있는 테헤란로에서 한걸음 물러선 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도시설계구역으로 묶여진 테헤란로 일대는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빌딩군(群)으로 특색화되어 있다고는 하나 몇몇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상업적인 몸부림으로 인하여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도시와 더불어 호흡하고 있지못하고 삭막한 도심의 거리를 창출할 뿐이다.

건축적 반영에서의 요소를 든다면 사회적 맥락, 주변의 Context와 조화를 이루며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다. 사회가 어떠한 건축을 주목할 때의 가치 체계는 건축자체의 물적 현상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인간 삶의 문제에 주안점을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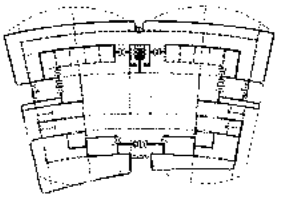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도시적 관계성을 추구하면서 그 자체로 도시적 경관의 재구성에 참여하며 도시와 건축이 서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시와 건축의 공생에 일조하고자 하였다.



수산물동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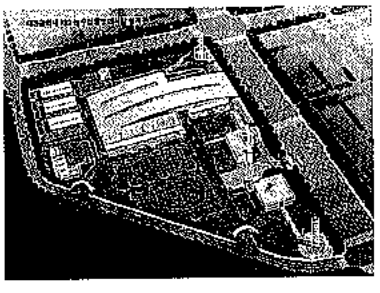
관리및 서비스동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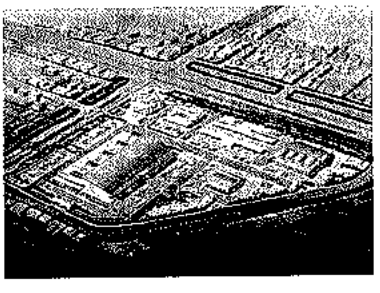
양념류 시장동 1층 평면도

▶ 참가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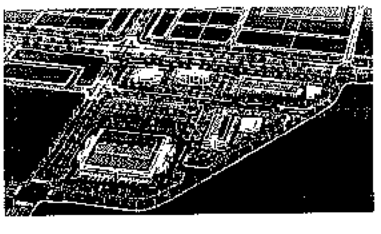
- 정주건축(안)



- 수성건축(안)



- 한림건축(안)



계획작품 process works

인크라인Ⅲ

하이콤연구소

화순 작은 호텔

부평중앙교회

부천종합운동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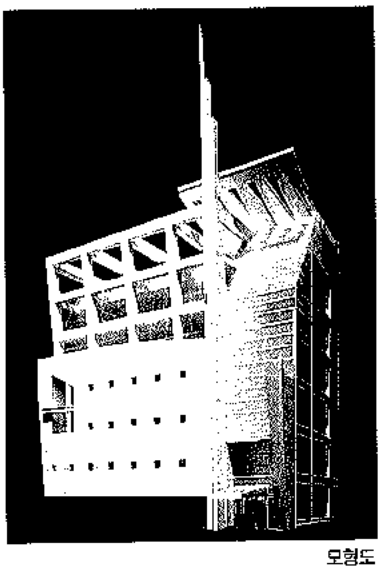
웨스틴 조선호텔 H. 빌라

명륜동 아남북합빌딩

인크라인 Ⅲ

Incline Ⅲ

주영정 / (주)예조종합건축사사무소



모형도

위 치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1-37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주차장정비지구, 도시설계지구
대지면적	470.00㎡
건축면적	269.69㎡
연 면 적	1,999.43㎡
건 폐 율	57.38%
용 적 률	321.37%
규 모	지하2층, 지상6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최고높이	24.60m
구 조	R.C조, 철골조(체육관)
층 고	3.3m
주요설비	각층 패키지방식+중앙난방(공용부분)
주요용도	근린생활시설
외부마감	THK4.0 알루미늄복합패널, 지정외벽단열시스템
내부마감	천정/암면흡음텍스, 벽/지정색 인코트스프레이, 바닥/THK 30 화강석 물갈기
주차대수	17대
조경면적	52.90㎡
설계담당	송문호, 소병권, 김광진
건 축 주	(주)지이드
설계기간	96. 6.~96. 11.

대지는 정리된 도심의 풍경이 형성되어 있는 테헤란로에서 한걸음 물러선 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도시설계구역으로 묶여진 테헤란로 일대는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빌딩군(群)으로 특색화되어 있다고는 하나 몇몇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상업적인 몸부림으로 인하여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도시와 더불어 호흡하고 있지못하고 삭막한 도심의 거리를 창출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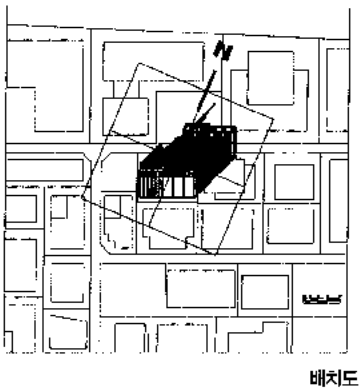
건축적 반영에서의 요소를 든다면 사회적 맥락, 주변의 Context와 조화를 이루며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다. 사회가 어떠한 건축을 주목할 때의 가치 체계는 건축자체의 물적 현상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인간 삶의 문제에 주안점을 둔다.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도시적 관계성을 추구하면서 그 자체로 도시적 경관의 재구성에 참여하며 도시와 건축이 서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시와 건축의 공생에 일조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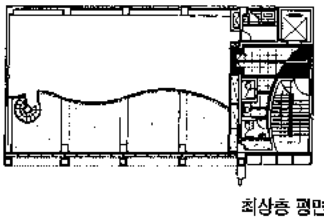
인크라인Ⅲ의 기본적인 Mass 및 입면개념은 절제된 방형과 잘려진 타원형의 단순한 결합의 하부와 도로의 사선제한으로 인하여 형성된 사면의 커튼월과 역응하는 8° 기울어진 격자형태의 골조를 노출시킨 상부의 조화로운 결합으로 개별성을 부각시키고, 새로운 공간감의 형성과 함께 입면요소로써 한 부분을 차지하게끔 계획하였다. Core상부의 Crown과 Tower는 사옥으로서의 상징적이미지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평면계획은 전면의 완만하게 호를 그리는 피막으로 둘러싸인 절제된 방형의 평면과 타원형의 계단실이 만나는 곳에 건물의 주진입구를 두어 시선을 이끈다. 그 아래로는 가로를 걷는 불특정다수인의 가벼운 선택으로 걸어들어 올만한 출입구가 위, 아래로 열려 있어 가로의 보행감각을 건물내로 연장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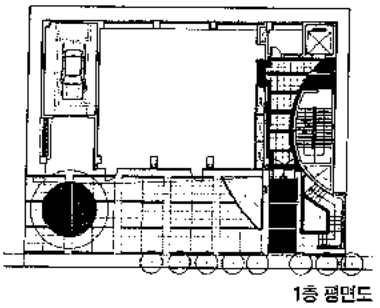
가까운 시일에 인크라인Ⅲ의 첫 삽을 뜨게 된다. 계획외의 여러 요소로 인하여 애초의 의도와 달라질 수도 있다. 항상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인크라인Ⅲ의 모습을 지켜본다. 〈글 / 주영정〉



배치도



최상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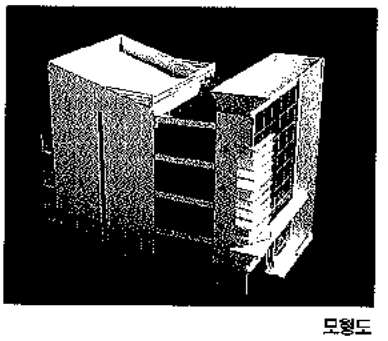
1층 평면도

하이콤 연구소

HICOM Software

주영정+이한석 / 한국해양대학교

투시도



모형도

위 치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53-6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	327.00㎡
건축면적	172.41㎡
연 면 적	1,066.09㎡
건 폐 율	52.72%
용 적 률	198.85%
규 모	지하2층, 지상4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최고높이	19.90m
층 고	3.6m
주요설비	중앙 냉난방식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
외부마감	THK30 인도사암, 노출콘크리트
내부마감	천정/암면흡음텍스, 벽/지정색 인코트스프레이, 바닥/O.A FLOOR위 타일카펫
주차대수	6대
조경면적	48.18㎡
설계담당	김귀현, 정미숙
건 축 주	(주)하이콤
설계기간	96. 10.~97. 1.

본 계획안의 대지는 서울시 한남동 주거지역내에 위치하며 순천향병원에서 이태원으로 올라가는 폭 15m의 도로를 북측에 면하고 있다. 이 곳은 남산의 자락이 한강과 마주치는 장소로서 주변지역이 지금까지 고급주택가로 형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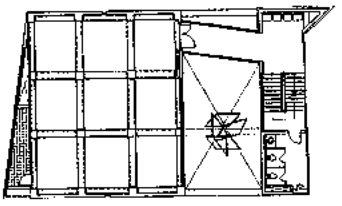
그러나 수년전부터 순천향병원의 남쪽에 한남로 교차지점부터 급격하게 상업화가 진행되고 이 지역이 유흥가로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이 도로를 따라 북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 도로 주변의 땅값은 상승하고 주거환경은 악화되어 남쪽부터 도로변 주택들이 점차 상업건물로 대체되고 있다. 이 대지에도 원래는 2층 규모의 주택이 있었으며 대지의 남쪽 즉 대지의 뒷편에는 아직도 2층 규모의 주거건물들이 자리잡고 있다. 도로 뒷편의 이 주거지역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건물은 번잡한 도로변과 조용한 주거지역사이의 완충지대에 위치한 동서로 길쭉한 대지위에 서게된다.

본 계획안의 주안점은 우선 대지가 위치한 이중적인 주변상황에 제대로 적응하는 것이었으며, 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적합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건물의 용도가 연구시설에서 나중에 상업시설(젊은이들을 상대로한 카페나 음식점 등)로 변화될 것도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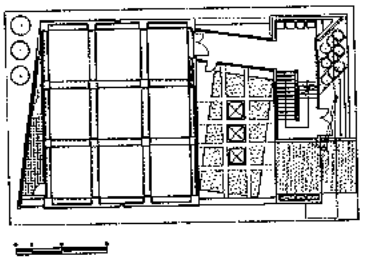
이러한 계획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으로 긴 대지의 형상을 이용하여 전체 매스를 남측의 주거지역에 면한 매스의 도로변에 면한 매스로 구분하여 배치하였다. 이렇게 매스를 분리하므로써 남북으로 공간의 켜(layer)가 발생하였으며, 분리된 각 공간은 연구 및 개발을 위한 다양한 일상생활에 대응하는 공간으로 발전되어 그 규모와 모양 그리고 세부 형태들이 결정되었다. 또한 공간의 켜 중심에는 매스와 매스사이에 자연스럽게 중정이 형성되어 전체 공간을 구심적으로 구성하며 쾌적한 연구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

본 계획안에서는 전체 공간의 구성, 이 구성체계내에서 각 공간들이 가지는 독특한 성격, 그리고 개별적인 공간들의 상호관계 특히 사람들의 움직임에 의해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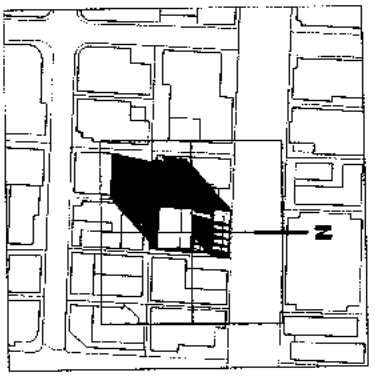
생하는 연속적인 공간 이미지의 중첩을 통해 다양함과 즐거움이 있는 공간 체험이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글 / 이한석〉



기준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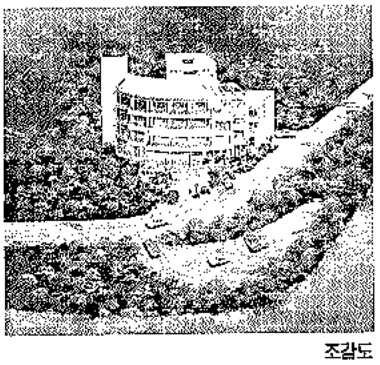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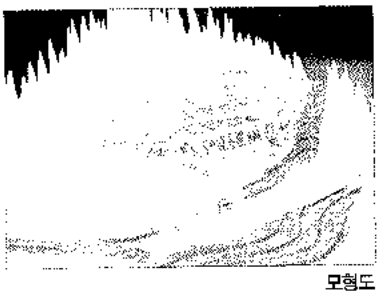
화순 작은 호텔

Hwasun Small Hotel

남상금 / 남건축사사무소



조감도



모형도

위 치	전남 화순군 동면 서성리 344
지역지구	농림, 준농림지역
대지면적	922.0㎡
건축면적	425.48㎡
연 면 적	1,735.55㎡
건 폐 율	46.15%
용 적 률	139.23%
규 모	지하 1층, 지상 4층
구 조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외부마감	벽 : 로라코트, 컬러복층유리 바닥 : 침목깔기, 석재타일
내부마감	벽 : 졸라톤, 우레탄페인트
건축설계	조윤숙, 정수환, 박성준
구조계획	하우구조
기계설비	우일설비
전기설비	김태호 기술사사무소

광주의 무등산 남쪽 줄기사이로 길게 뻗어져 이루어진 조용한 마을 서성리, 앞의 저수지(서성제)와 건너편 산과 병풍처럼 펼쳐진 바위절벽(서암절)의 수려한 경관을 배경삼아 건축형태는 그림이 되고자 한다.

객실 30실과 커피숍으로 구성된 작은호텔은 기존의 러브호텔 등으로 명명되는 여관의 이미지를 한껏 벗어나고자하는 몇가지 방법들을 시도하였다.

대지경사의 흐름과 주변경관을 거스르지 않도록 흔히 관리효율을 높이기 위한 고층화를 탈피하여 조망위주의 배치형태를 갖는다.

비밀스런 장소의 이미지를 탈피한 개방적인 평면과 넓은 창, 발코니 등 여행자나 휴식을 위한 고객을 대상으로 깨끗하고 밝은 이미지와 자연과 친화력을 높이는 구상이 주요하였다.

객실은 등고선의 흐름에 적합한 곡선형태의 특징을 살려 각각의 조망적 특성과 실내분위기를 달리하도록 5개 그룹의 개별적 특성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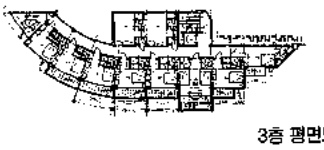
욕실은 일반적인 구성을 벗어나 욕조가 없는 대신 샤워부스가 설치되고 그 위치도 객실마다 구석이나 때로는 방 한가운데에 위치한다.

공동욕실은 객실내에 욕조가 없으므로 사우나시설을 추가하여 이용율과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한실, 양실로 구분되는 일반적인 객실 구성이 더욱 다양하여 고객은 특별한 선택을 할 권리를 갖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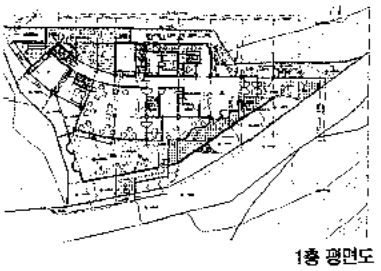
커피숍은 객실고객보다 오히려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의 이용이 높은점이 기대되어 전면데크를 설치, 개방적인 호텔이미지를 강조하여 인상에 남는 장소가 될것으로 보인다.

〈글 / 남상금〉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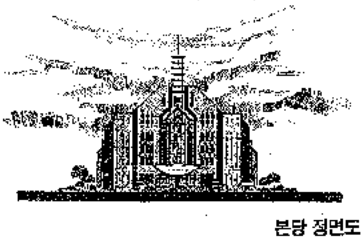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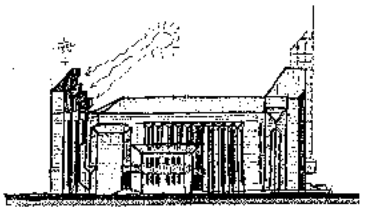
부평중앙교회

Bupyeong Joong-ang Church

문성운 / 건축사사무소 이상도시



본당 정면도



본당 측면구상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68-44외 10필지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	12,892.60㎡
건축면적	3,394.68㎡
연 면 적	10,267.89㎡
건 폐 율	26.33%
용 적 률	64.70%
지하층면적	1,926.20㎡
지상층면적	8,341.69㎡
규 모	5개동, 지하1층, 지상4층
구 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주요외장	적벽돌치장쌓기
설비방식	중앙공급식 냉,난방
주차대수	124대
용 도	종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건축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직업들을 가진 사람들보다 행복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때는 아마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접하면서 잠재되어 있는 창작욕구를 해소하면서 느끼는 아릇한 희열과 성취감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나의 경우 천직이라고 느끼는 이 작업을 취미처럼, 혹은 아주 재미있는 전자오락처럼 대개는 몰두하지만 가끔 그러한 것이 "일"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

"일"이라고 느껴지는 순간 그때부터의 작업은 하기 싫은 숙제를 억지로 하는 학생처럼 되어버려 몰래 도망가고 싶은게 솔직한 심정이다.

단, 내가 하고있는 것중에 작업외에 분명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사무소 운영과 관리이다. 정말 이것은 재미없다.

작년 중반이후 최근까지의 경향으로 볼때 전체적으로 실시설계보다는 계획설계의 업무가 많은 것 같다.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금융사의 대출 창구에는 건축사들이 줄을 잇고 있고, 이상한 입찰방식에 우루루 몰려다니는 폼세들이 우습기도하고 물쌍하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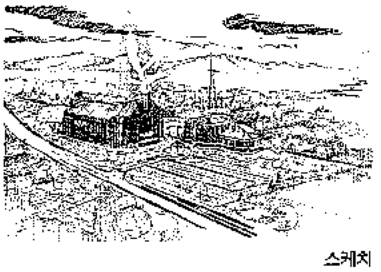
설계경기는 실력은 둘째 치더라도 뒷맛이 개운치 않아 쉽게 용단을 내리지 못하니 이래저래 걱정들이다.

나는 건축디자인의 방법론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있다. 하나는 조각처럼 내부적으로 파들어가는 형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외부적으로 돌출시켜 덧붙여 나오는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경우는 주로 첫번째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그 이유는 여유있는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기회보다는 도시내의 한정된 공간속에서 갖가지 법규제한을 적용한 후 나머지의 공통분모속에서 모든 디자인 행위를 시작하기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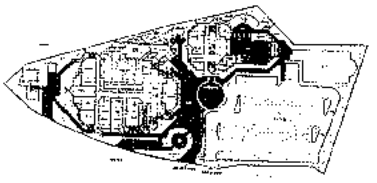
부평중앙장로교회는 현재의 부평동에서 교회창립 50주년을 기념하고, 협소한 현 성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축이전하는 것이다. 크게 본당동과 사회관으로 이루어지며 기타 부속동으로 구성된다. 본당동에는 대예배실, 소예배실, 친교실 및 각 기관실과 관리실 등이 있으며, 사회관에는 사회복지를 위한 탁아소, 경로당, 독서실, 다목적 강당, 선교원과 교육관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선교센터로 이루어진다.

전체적인 구성은 대지를 남북으로 축을 하여 북측에 본당이 위치하고 남측면은 주차및 옥외 활동공간으로 비워두며, 주진입로 정면으로 사회관을 두어 정면성을 주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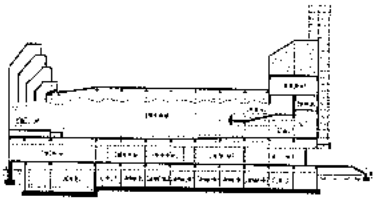
특히 사회관은 중정홀을 두어 생동감 있는 공간구성과 북측에 치우쳐 있는 실 등에도 채광이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선큰도 적절히 적용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도하였다. 외관은 까다로운 형태보다는 친근감 있고, 경제성도 고려하여 평범하게 디자인하였다. 〈글 / 문성운〉



스케치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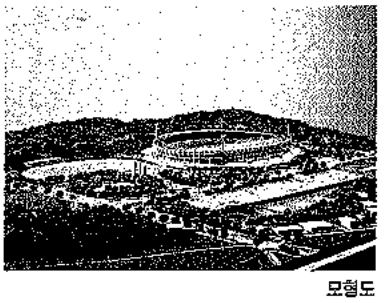


본당 단면도

부천종합운동장

Bucheon Complex Sports

노형래 /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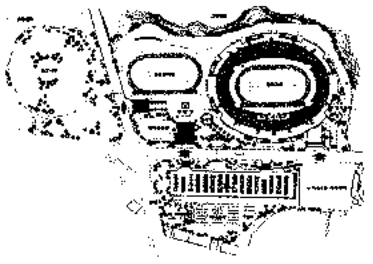
위 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산19번지 일원
대지면적	636,400㎡
건축면적	52,258.28㎡
연 면 적	73,100.15㎡
건 폐 율	8.2%
용 적 률	11.49%
규 모	지상3층
구조방식	철골, 철근콘크리트구조 (S.R.C구조)
수용인원	35,000석
건 축 주	부천시
설계담당	고종준, 노태근, 김서원, 김경희

본 계획은 부천시 도시설계를 바탕으로 현대식 종합운동장 및 관련 체육시설의 건립으로 국제대회 및 국내 주요행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지는 25m도로를 사이에 두고 2개로 나뉘어져 동측으로는 구릉지대가 형성되어 녹지가 있으며 서측으로는 지반고가 낮아지며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다. 이에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을 도로 동측대지에 배치하고 서측으로는 도로 Level과 같은 높이의 Deck를 설치하여 2개층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테니스장을 계획하였다. 주 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은 대지의 남, 북 방향으로 위치시켜 경기시 방향에 따른 햇빛의 영향을 최소화하였으며 그 사이에 주 광장을 계획하여 대지의 중심으로 형성, 각 시설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차장 및 테니스장으로의 통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를 관통하는 지하통로를 계획하고 이의 출입구에 소광장을 형성하였다.

평면계획에 있어 선수, 임원, 보도관계 및 관람객의 동선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Deck를 설치, 관람객의 출입을 2층으로 유도하고 선수 및 관리동선은 1층을 이용하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1층 부분에 스넥코너, 스포츠 샵, 헬스클럽, 유도, 태권도장 등을 계획하여 평상시에도 활용도를 높이므로써 유지관리에 효율적이도록 하고 시민휴식의 장으로 계획하였다.

Mass의 형태는 수평선이 강조되어 동측의 녹지에 순응하도록 하였으며 큰 타원형의 관람석 채택으로 본부석 및 본부석 반대측의 관람석이 많아지므로 둥근형태의 외관을 형성하게 되었고, 비와 태양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설치된 지붕으로 인하여 수평선 속에 우아한 타원의 외관이 형성되었다. 또한 외부로 노출된 외곽기둥들의 솔직한 외관이 수직적 비례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부천시의 새로운 사회체육활동의 장으로 생동적 Communtity광장이 되기를 바란다. (글 / 건정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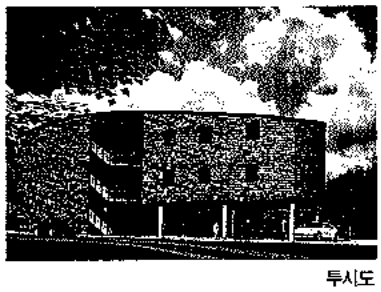
배치도

횡단면도

웨스턴 조선호텔 H. 빌라

Westin Chosun Hotel H. Villa

유원재 / 다 건축



투시도

대지위치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437-2, 30-1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3종미관지구, 고도제한지구(최고18m이하, 남산순환도로-1.5m이하)
용 도	연립주택(10세대)
대지면적	659.3㎡
건축면적	330.5㎡
연 면 적	1,103.6㎡
건 폐 율	50.12%
용 적 률	133.56%
규 모	지상4층, 지하1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9대
외장재료	복층유리+파벽돌치장쌓기
건 축 주	(주)조선호텔
시 공 자	(주)회훈건설
기계설계	에림설비연구소
전기설계	우림컨설턴트
설계담당	김영기

이 공동주택은 호텔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들을 위한 사택으로 지어지고 있다. 건축주인 조선호텔이, 그간 외국 직원들이 적절한 주거가 없어 호텔 객실에 기거함으로써 발생되는 객실 손실을 없애고 그들에게 좋은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함이 목적이었고 여분의 Unit가 생긴다면 임대사업도 고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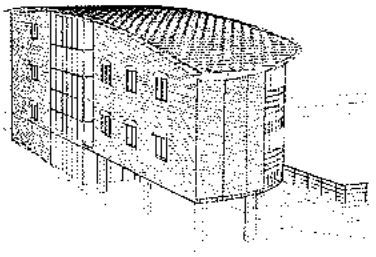
남산 순환도로와 인접되어 있으나 레벨이 10~12m 낮은, 좁고 긴 부정형의 대지이다. 순환도로에서는 볼 수 없는 곳이라 집이 숨어있게 되는 아쉬움은 있지만, 주거환경에는 도로의 소음으로부터 해방되고 프라이버시도 좋아지는 점들은 긍정적이다. 특히 남쪽으로 펼쳐진 서울의 파노라마는 일품이어서, 각 Unit의 창문을 통해 좋은 그림이 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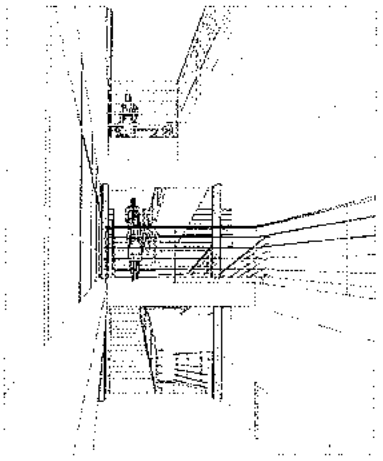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가능한 최대한의 용적을 요구하는 것과 같이, 이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이 땅의 경우는 남산 경관보호를 위한 고도제한을 받고 있어 최고 높이가 순환도로 보다 1.5m낮아야 하기 때문에 최대 용적을 위해 경사진 순환도로 레벨에 의해 지붕선이 정해지고, 그 경사진 지붕선에 따라 자연적으로 Skip Floor Type의 단면이 구성되었다. 다양한 직원들의 가족상황에 따라 가족형, 커플형, 독신형, 합숙형을 건축주의 요구에 의해 각기 다른 10세대를 평면과 제한된 단면에서 꿰어 맞추기란 마치 어려운 퍼즐게임을 연상시켰다. 즉 1동의 건물에 10세대의 서로 다른 주택을 설계한 것과 다를 바 없었다. 때론 건축설계는 노동의 대가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집과 도로와의 첫만남은 피로티로 되어 있어 주차장과 출입구로 이용하였고, 이 피로티의 개방감이 순환도로의 축대로 인한 도로의 어두운 분위기를 밝게 만들려 했다. 좋은 전망의 남향으로 Unit를 배치하고 북쪽 도로를 향해 계단실을 두었다. 이 계단실 전체를 유리 커튼월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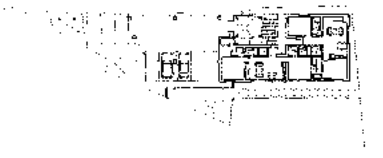
쇼케이스처럼 만들어 계단을 오르내리는 한지붕의 10세대 식구들이 연출하는 다양하고 역동적인 공간을 의도하였다. 특히 밤에 축대로 인한 도로의 어두움을 이 유리상자의 생기넘치는 연출로 활력있게 하려 했다. 각 Unit의 빠듯한 기능을 채우기 바빴으나, 도로의 연속으로 본 매개공간인 계단실은 건축가의 즐거운 유희를 즐길 수 있는 부분이었다. 길에서 계단실 벽에 걸릴 그림들을 즐길 수 있는 거리 갤러리가 되어 서울 뒷골목 한자락을 풍부하게 만들고 싶었다.

이런 건축가의 제안을 호텔 경영을 통한 공간연출 경험으로 기꺼이 받아 들여 주고 그런 공간들이 부가적 가치를 창출해 낸다고 확신하는 건축주에게 고마움을 느낀다.〈글 / 유원재〉





부분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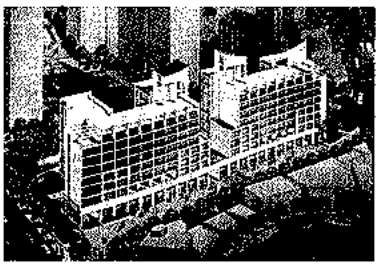


중 1층 및 2층 평면도

명륜동 아남복합빌딩

Myeongryun-dong Anam Complex Bldg.

김영택 / 다원건축



조감도

대지위치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2가 4-10
지역지구	일반주거, 도시설계지구
대지면적	5,375.05㎡
건축면적	2,798.37㎡
연 면 적	18,526.83㎡
건 폐 율	52.06%
용 적 률	245.10%
규 모	지하2층, 지상8층(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 136세대)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드라이비트+화강석+수성페인트
설계담당	김승환, 김영진, 김상기, 송창훈

대학로와 창경궁로가 만나는 명륜동 로타리는 창경궁로에서 동서문로로 이어지는 고가도로로 인해 시각적으로 지역내의 구심적인 역할을 하지못한 채 주변의 공간들을 단절시키고 있으며 로타리 주변의 환경도 지나치게 협소한 필지들, 현행 법규상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쉽게 개선될 것 같지는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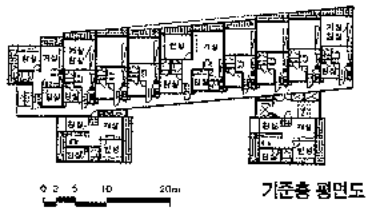
본 프로젝트는 로타리서측 기존 아파트 단지와 소규모 노변 건물군들 사이에 위치한 지나치게 좁고 긴 대지위에 주상복합시설을 계획하되, 사업성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최대로 확보하고 가급적이면 주거시설의 면적을 크게 해달라는 요구에서 출발하였다. 대지의 형상이나 향적 조건 등이 일조 및 조망을 필요로 하는 주거시설을 계획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최대용적 확보를 위해서는 향을 무시하고 대지의 형태를 따라 복도형으로 계획할 수 밖에 없었으나, 대지의 서측 기존 아파트와 면하는 곳에는 계단실형을 남측으로 배치하여 변화를 주고, 동측은 대지 경계선을 따라 복도형으로 배치하되 중간부분을 15m정도 이격시켜 복도형이 주는 지루함을 경감시켰다.

복도는 일부분을 완만한 곡선으로 처리하여 계단실형과 접하는 곳에서는 막히고 복도형만 있는곳에서는 터지면서 강북의 좁고 긴 기존주택가 골목들에서처럼 복도를 걸으면서 정감있는 공간감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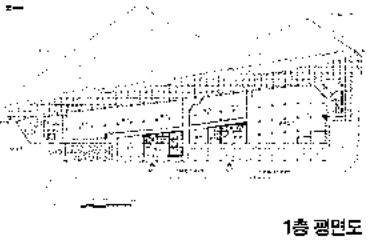
주상복합시설의 특징상 1층의 옥외공간은 상업시설 및 진입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하고 2층의 옥외공간에는 주거시설을 위한 어린이 놀이터 및 노인정, 휴게소 등을 배치하였다. 특히 동측 소규모 필지와 인접한 옥외공간은 창경궁로와 우암로를 이어주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조성하므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공개 공지의 개념으로 계획하였다.

먼 훗날 로타리에 면한 소규모 필지들이 재개발 되었을 때 본 단지에 조성된 보행자 전용도로가 더욱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글 / 다원건축〉



기준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rchitecture

Domus

Architectural Record

A+U

건축문화

신건축

Archite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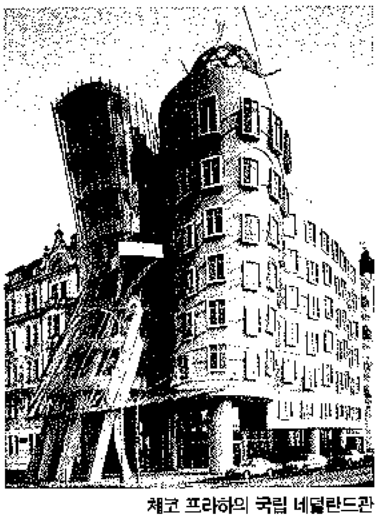
97년 2월호

체코 프라하에 세워진 Frank O. Gehry의 작품 프레드와 진저를 표지 이야기로 다루고 있는 이번 호에서는 건축에 대한 일반 건축주들의 인식 변화에 따른 건축가의 축소된 위상과 역할, 그리고 그 돌파구로 제시되고 있는 건축계의 미니멀리즘에 대해 알아본다.

프레드와 진저

▶체코 프라하의 국립 네덜란드 관은 그 자유분방한 형태에서도 드러나듯이 Frank O. Gehry의 작품이다.

모서리 부분에 위치한 두 개의 원통은 각각 징과 동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 조화는 옛 할리우드의 뮤지컬 배우 프레드 아스테어와 진저 로져스를 연상시킨다. 고딕, 르네상스, 아르누보 등 각종 양식의 건물들이 격자형의 도시구조 안에 모여있는 프라하 블타바 강변의 부지에, Gehry는 체코 건축가 Vladimir Milunic이 세운 계획틀 안에서 그와 협동작업을 하였다. 체코 대통령 Vaclav Havel은 19세기 건물들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너무 입체파적이지는 않은 건물을 원했고, Gehry는 주위 건물들의 구체적인 형태언어보다는 형태자체를 읽음으로써 그것들의 패데먼트, 장식, 개구부들이 가진 비례를 차용해 왔다.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Gehry는 뛰어난 조각가의 솜씨를 보여주지만, 그 능력은 아쉽게도 입면처리까지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기능상 무리한 처리들이 보이는 것이 단점으로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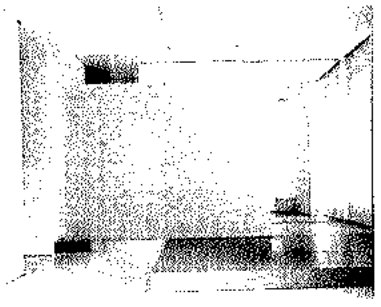
체코 프라하의 국립 네덜란드관

건축계의 미니멀리즘

건축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점점 더 부정적이 되어가고 있다. 기업의 경우, 그 본사 건축을 통하여 PR을 하기보다는 전기매체를 통한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건축에 대한 사회의 투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가들은 이러한 제한을 다시 새로운 양식으로 바꿀 방법을 찾았으니, 그것이 미니멀리즘이다.

▶뉴욕의 건축가 Daniel Rowen과 Frank Lupo가 설계한 한 유럽사업가의 아파트는 미니멀리스트 건축이 갖는 지적인 고품격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근래의 고급주택은 장식이 가득찬 종래의 궁전개념에서 바뀌어 이러한 극단적인 극소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건축계가 위기적 상황의 조건을 의미화, 양식화하는데 또다시 성공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것은 또한 새로운 양식이 다시 부유층의 전유물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사업가의 아파트
(Daniel Rowen + Frank Lupo 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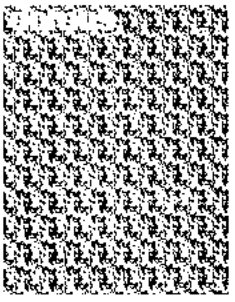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미니멀리즘이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상업적으로 미니멀리스트 건축물을 선호한 것은 패션계였고, 80년대 중반부터 뉴욕 매디슨 가에는 랄프 로렌, 캘빈 클라인 등이 건축주인 미니멀리즘 건축물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피터 마리노에 의해 설계된 죠르지오 아르마니 부티크는 다양한 요소들이 삭제된 채 오직 스케일, 비례, 위계에 대한 경시만이 드러나 있다.

기타

▶Arquitectonica나 Rem Koolhaas의 근작에서 그 영향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 근대 건축가 Morris Lapidus(현재 94세)와의 인터뷰, ▶카나다 브리티쉬 콜로비아에 설립된 Paktau Architects 설계의 공립 국민학교에서 볼 수 있는, 철골과 목재를 혼용한 새로운 구축법, ▶교량 등 토목 구조물들의 구조법을 차용하여 목재, 구리판 등의 재료를 조합시킴으로써 미국 위스콘신의 산림과 조화를 이룬 Vincent James의 주택작품 등을 다루고 있다.

Domus

96년 12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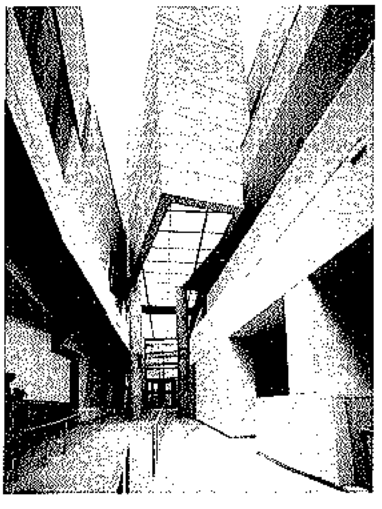


제6회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에 맞춰 이번 비엔날레의 총감독인 한스 홀라인과의 인터뷰를 게재하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는 요인들의 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동경과 파리에서 열렸던 전시회와 대표적인 국제 테크놀로지 박람회인 「Ars Eletronica」가 소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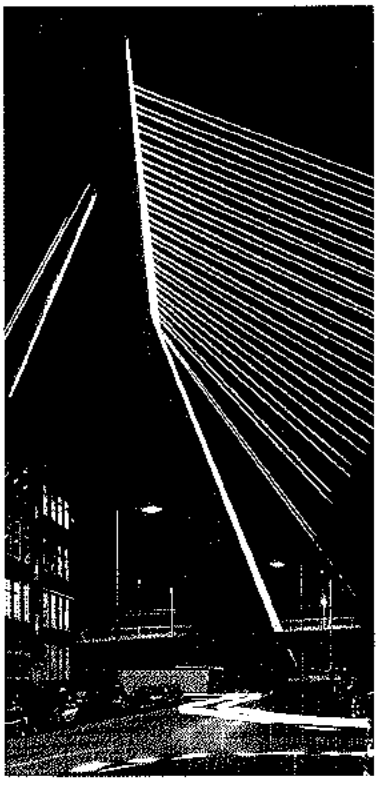
비엔날레에 대하여

사고, 구축, 상징; 장소, 형태, 사회, 기술: 지금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상황 - 이러한 요인들이 미래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는 밑바탕이 된다.
"미래 예측하기 - 지진계로서의 건축가"라는 제목의 제6회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에 맞추어 Dietmar Steiner의 Hans Hollein(본 비엔날레 총감독) 인터뷰를 게재하면서, 위에서 언급한 특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작품들을 분류하였다.

▶Peter Eisenman의 미국 신시네티 Arnoff Center for Design and Art



▶Van Berkel & Bos의 네덜란드 로테르담 다리



▶Rafael Violy의 일본 Tokyo International Forum

▶Eduardo Souto de Moura의 포르토 주거 건물

▶뉴욕 콜롬비아 대학내의 Casa Italiana

베니스 비엔날레에는 또한 북유럽의 젊은 건축가들의 작품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였는데 Nielsen, Nielsen & Nielsen의 덴마크 건축가회관, ARRACK Architects의 Hannu Kiiskila가 설계한 핀란드 국경 통관소, Soren Robert Lund의 덴마크 코펜하겐 Ark 현대 미술관, Anders Wilhemson의 노르웨이 목장, 그리고 Uti & Inni Architects의 아이스랜드 하수처리장 등이 소개되어 있다.

전시회

▶Shiro Kuramata전 (동경 하라 현대 미술관, 1996년)

얼마전 세상을 작고한 Kuramata는 인테리어와 가구 디자인을 통해 일본 근대 디자인계를 주도해온 인물 중 하나였다.

▶Frederick Kiesler전 (파리 퐁피두 센터, 1996년 7월3일~10월21일)

오스트리아 태생의 미국건축가 겸 디자이너, 화가인 Kiesler의 다매체의 작품들이 파리에서 전시되었다.
파리는 지난 1925년 Kiesler가 근대 산업 및 장식 예술 국제박람회에서 큰 성공을 거둔 곳이기에 본 전시회의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본 전시회의 배치계획을 맡은 Zvi Hecker는 자신의 독특한 방식에 의해 Kiesler의 개방된, 흐르는 공간 개념을 형상화하고 있다.

디자인

각각 다른 방법을 통해 유럽의 산업디자인을 주도하고 있는 30대 이하의 세 디자이너 Carlo Colombo, Peter van der Jagt, Michael Young의 작품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전혀 새로운 형태의 하드웨어와 개인별로 다양하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선보이고 있는 필립스사의 휴대용 통신, 오락기기 시바 등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하였다.

이벤트

대표적인 국제 테크놀로지 박람회인 Ars Electronica가 린쯔에서 시작되었다. 생물학자 Richard Dawkins가 언급한 문화계 정보의 기본단위인 'memes'에서 영감을 얻은 이번 박람회는 물건들을 전시해놓는 기존 박람회와는 달리 통신의 과정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본 전시회가 개최된 Ars Electronica Center는 Klaus Leitner, Walter Hans Michl의 공동작품으로 다양한 미래지향적 매체의 전시와 이용에 적합하도록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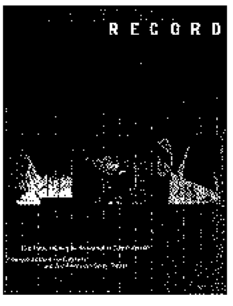
기타

▶뉴욕에 있는 필립 존슨의 작품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안내지도, ▶Frank Lloyd Wright의 작품을 총망라한 CD-ROM, ▶벨기에 현대 건축, Viollet-le-Duc에 대한 최근의 저서, ▶새로운 건축

재료에 대해 간략히 다루었다. 디자인 연구 전문지 Stileindustria가 부록으로 첨부되었다.

Architectural Record

97년 2월호



근작으로는 Eric Owen Moss의 미국 로스엔젤레스 새미타워 빌딩, Machado와 Silvetti의 뉴욕 Robert F. Wagner Jr. 공원, Helffand Architects와 Ehrenkrantz & Eckstut Architects의 펜실베니아 스와스모어 대학 콜버그 관이 소개되어 있다. 건물유형에 따른 연속기획에서는 건축물의 보존에 대한 문제와 모범적인 예들을 게재하였고, 도시의 공동주거 재정의 문제, 쿠바의 건축, 건축물의 조명에 대해서도 아울러 다루고 있다.

근작 소개

▶미국 로스엔젤레스의 새미타워 빌딩은 기하학적 형태의 중첩을 선호하는 Eric Owen Moss의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는 작품이다.

콘크리트, 벽돌, 철골, 목재 빔 등의 다양한 재료가 구조적 효능과 더불어 다양한 표현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 건축물은 또한 개발업자들과의 원만한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갖는다.

▶뉴욕 부두가에 위치한 Robert F. Wagner Jr. 공원은 도심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충족하기 위해 주위를 조망할 수 있는 기단을 형성하면서 그 밑부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였고 ▶Helffand Architects와 Ehrenkrantz & Eckstut Architects가 설계한 펜실베니아 스와스모어 대학 콜버그 관은 대학내의 기존 건물들과 어우러지는 입면계획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미국 L.A의 새미타워 빌딩(Eric Owen Mass 作)

도시의 공동주거에 대하여

40~50년대에 형성된 시카고의 카브리니-그린 공동주거 단지는 도시 속의 대표적인 슬럼가로 퇴락하였다. 이에 시카고시와 HUD(미 주택 및 도시개발 위원회)는 이 지역을 다양한 용도와 소득층이 공유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재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25년전 프루잇-이고가 결국 파괴되었던 것과 달리, 더 복합적이고 비정치적인 접근법은 이 지역을 재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는 지역 주민들이 직업을 갖는 등 사회적인 하부구조가 궁극적으로 조건을 충족시켜줘야만 가능할 것이다.

쿠바의 건축

사회주의 이상의 몰락과 함께 변환기에 있는 쿠바는 많은 고건축물들을 보존하고 있다. 공산주의 정권은 그 자신들을 건축 유물의 상속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보존에 큰 관심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연속기획-역사적 건축물의 보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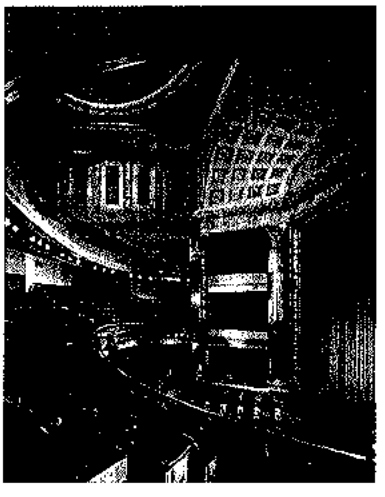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고건축물들에 대한 보존은 이제 산업, 상업 건축물이나 심지어 근대의 건축물들에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지역의 역사성을 보존하는 것과 더불어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시킨다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도 갖고 있다. 그러나 그것에는 현실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보존해야 하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시작하여 도시 재개발과의 상호 영향, 소유권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근래 과학기술의 발전은 보존공사를 보다 경제적으로 이루어내게 하면서, 그러한 건축물의 현대적 이용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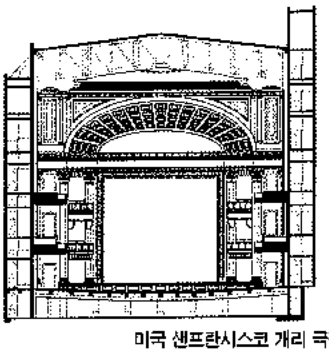
다음은 모범적인 보존과 독자적 증축의 조화를 보여주는 예들이다.

▶미국 워싱턴 D.C. 의회 도서관

▶미국 볼티모어 오커드 가 교회

▶미국 샌프란시스코 개리 극장





미국 샌프란시스코 개리 극장

건축물의 조명

건축물에 있어서 조명기구가 차지하는 위치를 고려하여 본지에서는 1년에 4번, 조명에 대한 중점적인 기사를 다루기로

하였다. 근작들에서 보이는, 다양한 기능들에 부합하는 조명의 예들을 소개하면서, 새로운 기술의 조명제품들과 그 구입 연락처가 함께 개제되어 있다.

기타

▶사무실 건축에서의 배선 문제 해결안,
▶대규모 건축물에서의 새로운 엘리베이터 시스템 등이 소개되어 있다.

A+U

97년 2월호

이번 호에서는 Tony Fretton의 Lisson Gallery를 포함한 3개의 작품과, George Ranalli의 KLoft , Jos Paulo dos Santos가 작업한 Loios 수도원의 호텔로의 증개축, 요트클럽 'L'Estartit'를 포함한 Carlos Ferrater의 6개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연재물로는 '전후의 현대주택' 제 2회분이 소개되었다.

Tony Fretton

Fretton의 작품인 Lisson Gallery 1(1986)은 기존의 화랑지역과는 거리를 둔 영국 런던의 노동자 주거지역에 지어졌다. 전면은 좁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넓어지는 형상을 한 대지에 맞추어 설계된 이 갤러리는 무질서한 세팅속에서 예술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Lisson Gallery 2(1992)는 런던의 중심에서 그리 멀지않은 주택과 상점이 늘어선 곳에 위치한다. 이는 학교, 고층빌딩, 고속도로가 기존의 지역환경을 파괴하여 파편화되어버린 곳에서 그래도 현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마련된 갤러리이다. 이 건물은 건물과 지역사회가 상호보완관계에 있도록 하고 있다. Lisson Gallery 1,2 모두 주위의 건물들에 스스로의 모습들을 맞추고 있으며 결코 눈에 띄지 않는 모습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Center for Visual Arts in Sway(Sway, Hampshire, U.K. 1996)는 소규모의 예술 센터로 마치 주택과 같은 분위기를 갖고 있다. 네오 버나큘라의 건축이 되도록 소재들이 선택되었으며, 이데올로기나 사회적 질서제도를 염두에 두지 않고 새롭고 사람들의 총의가 모여지는 앞으로의 가능성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George Ranall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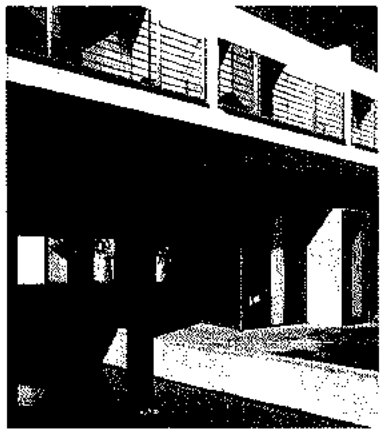
K-Loft in New York(New York, N.Y. 1995) 이 프로젝트는 두 사람의 예술가와 그들의 아이들을 위한 Chelsea에 있는 2,100평방 피트의 로프트 개축이다.

기존의 공간은 벽돌로 된 단일한 공간으로 되어 있었고 노출된 벽돌의 벽이 길이 방향으로 연속되어 있었으며 천정도 벽돌로 된 볼트로 되어 있었다. 이 공간을 주택으로 개조하면서 플라스터와 목재로 된 매끄러운 벽면이 추가되었으며 이들 면은 그대로 보전된 천정과 가끔씩 노출된 기존의 벽돌벽의 거친 벽면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Jos Paulo dos Santos

Loios수도원의 호텔로의 증개축(Arraiolos, Portugal 1993-1996)

포루투갈의 남부에 있는 Loios수도원은 감추워진 조화와 연결되지 않는 율동감, 희미해진 좌우대칭을 가진 모두 흰색으로 된 건물이었다. 중정과 회랑으로 구성되어 있던 이 건물에 새로이 증축된 부분을 더하여 또하나의 중정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근대의 조형언어를 그대로 사용한 증축부분은 기존의 건물과 훌륭한 조화를 이루어 내고 있다. 이 건물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미래를 향한 전진과 침묵이다.



Carlos Ferrater

Ferrater의 장점은 순수기하학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기능상의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최적의 구성이 되도록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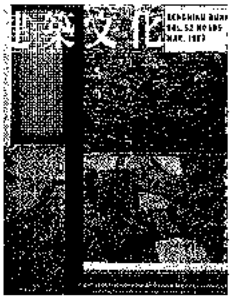
바르셀로나 건축학교에서의 교수로서의 경험은 그의 작품에서 불분명한 점이 없이 명확하고 명시적인 작품세계의 근간이 되고 있다.

요트클럽 L'Estartit, Hotel Rey Juan Carlos I 과 그 부속시설인 Fitness Center "Holiday Gym", 그리고 Local Council Chamber in Baix Llobregat, School in Lloret de Mar, Single Family House in Vallvidrera 등 총 6작품이 실렸다.

요트클럽 L'Estrtit(Carlos Ferrater 作)

건축문화

97년 3월호



이번호에서는 다께하라 요시지(竹原義二)의 주택작품들이 특집으로 소개되었다. '間과 廻遊의 住宅作法'이라는 주제하에 소개된 그의 작품들은 다시 4개의 작은 주제로 나뉘어 모두 11개의 작품이 다루어졌으며, 그의 작품세계에 관한 작가 자신의 에세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장소'가 소개되었다.

다께하라 요시지-間과 廻遊의 주택작법

▶원점으로 돌아가는 장소

그의 작품세계의 출발점이 되며 근간을 만들어낸 경험에 관한 작가 자신의 글에서 '건축과의 첫 만남', '건축의 원점을 파고드는 여행'을 언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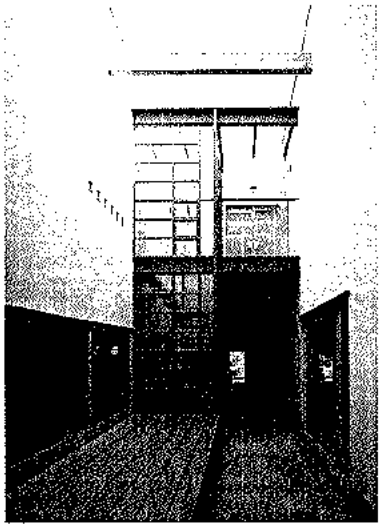
그는 세계각지뿐만 아니라 일본의 고건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 각 실들이 이웃한 실들에게 연결되고 나아가 외부와 내부가 일체가 되어 다양한 스케일감을 제공하는 수법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존재하는 벽

그는 벽에는 각각의 역할이 있다고 한다. 공간을 인식하는데 있어 기둥과 벽은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는데, 특히 벽의 힘은 공간을 분할하고 건축을 구축하는데 있어 중요한 존재인 것이다.

그는 도시속에 건축을 만들어 넣을 때 자연을 향해 자립해 있는 벽의 존재방법을 생각한다고 한다.

그는 벽의 표정들을 연출하고 있다. 벽이 주제로 되어 소개된 작품들은 '누리야쯔꾸리', 호잔쪼의 집 등 2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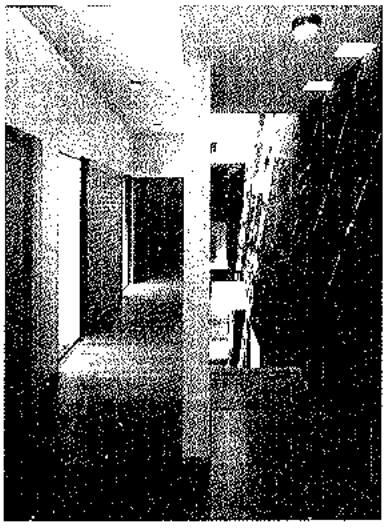


누리야쯔꾸리

▶빛과 벽의 텍스쳐

벽의 표정을 만들어내는데 있어서 빛과 그 벽의 텍스쳐의 역할을 강조한다. 벽에 빛이 비추어질 때 벽은 침묵하는 無의 벽에서 표현하는 有의 벽으로 변화한다. 그때 벽은 건축공간에 힘을 불어넣게 되는 것이다. 또한 빛을 표현하기 위해 그것을 반사하는 바닥면과 벽, 천정의 역할들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이 주제로 되어 소개된 작품들은 이시마루 주택, 센리야마 주택 등 2작품이다.



이시마루 주택

▶깊이 들어가는 집

도시에 산다는 것은 사람, 물자, 정보의 바다속에 자신을 던지는 것과 같다. 이러한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안심감이라는 심리적 욕구가 나타나게 된다.

오늘날의 도시는 사람들이 집합하는 場이기는 하나 쾌적하게 머무는 場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일본의 관서지방의 도심에는 지금도 2차대전 이전부터 있어온 長屋形의 깊이가 깊은 집들이 남아있다.

이들로부터 모티프를 얻은 작가의 '깊이 들어가는 집'이라는 주제하에 소개된 '개구부가 절재된' 작품들은 고하마 주택Ⅰ, 고또부끼 주택, 야마사까 주택Ⅰ 등 3작품이다.

고또부끼 주택

▶廻遊式 주거

'여행하는 집'이라 해석되는 이 주제는 르 꼬르뷔제의 건축적 산책로와 일본 정원에서 느낄 수 있는 '정원에 있어서 운동의 공간화'에서 그 모티프를 찾아볼 수 있다. 그의 건축의 주제들은 여기서 더욱 통합되어지고 풍부해지고 있다.

'廻遊式 주거'라는 주제하에 소개된 작품들은 신보인쵸의 주택, 야마사까의 주택Ⅰ, 쓰미요시야마테의 주택, 톤노수의 주택 등 4작품이다.

기타

그 외 ▶'건축 21세기'에서는 '역사적 근대건축의 수복과 보존'이, ▶연재물로는 '근대에 있어서 심적 신체와 그 공간 제2회 - 니진스키의 공간 Ⅱ', '공간의 시네마토 그라피 - 幻影의 파시즘'이 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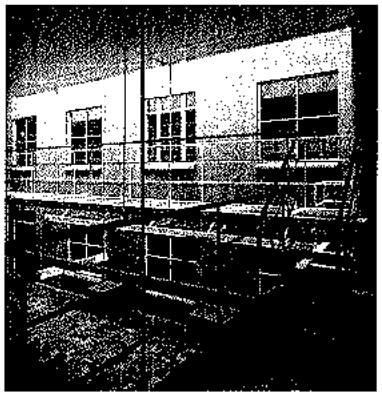
신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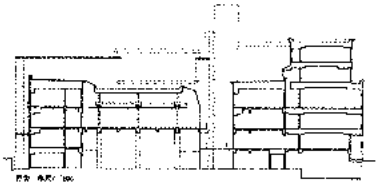
97년 3월호

이번호에서는 작품으로 동경대학 공학부 1호관, 동경대 대학원 수리과학 연구과동, Monte Este, Five 등 19개의 작품들이 소개되었다. 시공현장으로는 마꾸하리 Messe의 현장이 소개되었으며 Tokio계획 1997의 Project-03이 소개되었다.

작품

▶동경대학 공학부 1호관 (고아마 히사오 설계)





동경대 공학부 1호관(고아마 히사오 作)

공학부 1호관의 건물은 1935년에 지어진 건물로 주로 건축학과와 토목학과가 사용하는 건물이다. 구 건물은 고딕스타일의 의장을 지닌 2개의 중정을 갖는 건물이었다. 이 2개의 중정을 메우고 건물의 뒷편에 증축된 건물을 덧붙여 새로운 건물로 증개축하였다.

기존의 벽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건물의 전면과 측면은 옛모습을 유지하였으며, 후면의 증축부도 전면 유리를 통하여 기존의 외벽을 볼 수 있다.

제도실과 실험실로 개조된 기존의 중정부분도 그 외벽을 그대로 유지하여 실험실의 내부의 벽이 되고 있으며 실내의 벽이된 이들 기존 타일마감 외벽들은 새로이 마련된 매끄러운 표면의 벽들과 좋은 대조를 이루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기존의 중정부분에 마련된 실험실들은 옛 중정이 가지고 있던 공간감을 그대로 살리면서 천정으로부터 빛을 도입하여 활력있는 공간이 되고 있다.

▶Monte Este (오에 타다스/ PLANTEC 설계)

이 건물은 山一證券投資信託委託에 근무하는 사원들을 위하여 마련된 기숙사와 연수시설을 중심으로한 복합시설로 노후화한 기존 기숙사의 대체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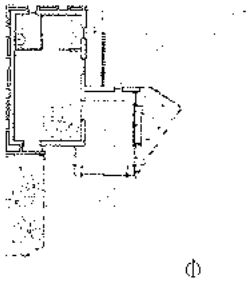
설계에 있어서 유의점은 기업에 있어서 앞으로의 후생시설을 제안하는 일과 각각의 용도가 갖는 다양한 '時感'이 있는 프로그램 만들기였다고 작가는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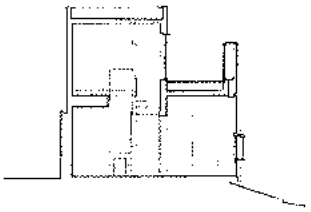
▶아까리의 交番 (히라꾸라 마오꼬 설계)

작은 交番(Police Box)인 이 건물은 지역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하기위해 빛의 발산을 하나의 중요한 디자인 요소로 다루고 있다.

1층의 사무실과 대기실, 2층의 휴게실로 구성된 이 작은 건물에는 전면의 교차로와 후면의 장래에 생길 공원에서 노는 아이들을 쉽게 관찰할 수 있으며 전면에 마련된 작은 전정은 소규모의 건물에 생명력을 더하고 있다.

Five (Architect 5 Partnership) Architect 5의 사옥인 이 건물은 좁은 대지에 위치한 8층 건물이다. 사옥건물과 함께 Architect 5는 '제도판 없는 사무실'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한 사무실의 운영 모습이 소개되었다.





아까리의 交番(히라꾸라 마오꼬 作)

TOKIO계획 1997 : Project - 03 Glassfarm Village

테크놀러지의 진보에 의하여 다음세기의 임해공업단지에서는 식물공장이 만들어져, 도시를 위한 식물의 생산이 행해질 것이다. 이 때 테크놀러지컬한 식물군과 주거가 혼성된 새로운 전원도시가 출현한다. 이곳은 인공자연적인 생상의 장임과 동시에 사람들이 사는 장소인 것이다.

〈번역 / 최원준, 강상훈〉

설계도서신고현황

97년도 2월분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2월분 8백1만8천6백97㎡ 보다 5.2%(4십1만7천3백86㎡) 감소한 7백6십만1천3백11㎡의 실적을 보임.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2월누계 1천5백8십6만6천5백69㎡ 보다 4.2%(6십6만6천2백8㎡) 감소한 1천5백2십만3백61㎡의 실적을 보임.

다. 전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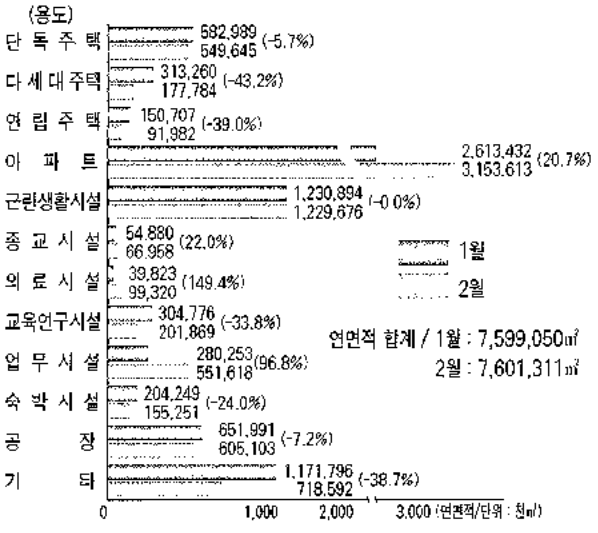
전월 1월분 7백5십9만9천50㎡보다 0.0% (2천2백61㎡) 증가한 7백6십만1천3백11㎡의 실적을 보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기준-전년동월비) (단위/㎡)

구 분		1996년도	1997년도	증 감	비율(%)
증가지역	대 구	717,514	793,407	75,893	10.6
	인 천	243,018	435,868	192,668	79.3
	광 주	220,822	414,566	193,744	87.7
	강 원	90,924	99,468	8,544	9.4
	충 북	169,261	196,243	26,982	15.9
감소지역	서 울	3,933,066	3,648,565	(284,501)	-7.2
	부 산	508,971	307,687	(201,284)	-39.5
	대 전	128,116	87,005	(41,111)	-32.1
	경 기	805,585	637,014	(168,571)	-20.9
	충 남	142,064	118,604	(23,460)	-16.5
	전 북	98,624	50,605	(48,019)	-48.7
	전 남	179,976	99,174	(80,802)	-44.9
	경 북	170,993	142,905	(28,088)	-16.4
	경 남	559,175	535,079	(24,096)	-4.3
	제 주	50,588	35,303	(15,285)	-30.2
합 계		8,018,697	7,601,311	(417,386)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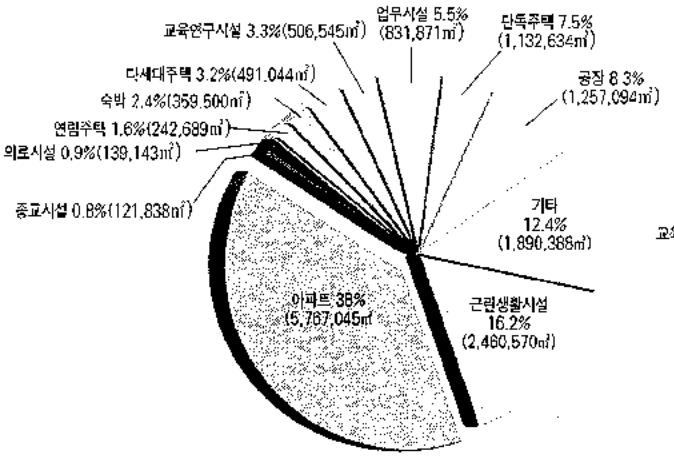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연면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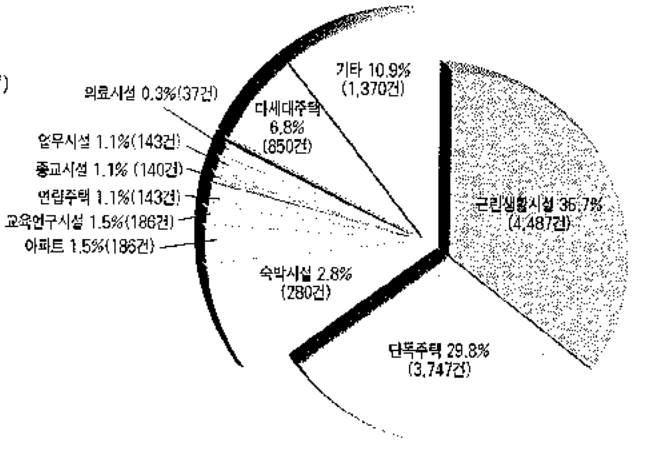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2월분)

구분 / 용도	1996년			1997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 독 주 택	2,509	2,552	708,635	1,864	1,927	549,645	(645)	(625)	(158,990)	-22.4	
다세대주택	469	496	311,283	324	339	177,784	(145)	(157)	(133,499)	-42.9	
연 립 주 택	91	95	109,849	67	71	91,982	(24)	(24)	(17,867)	-16.3	
아 파 트	106	184	2,699,933	75	143	3,153,613	(31)	(41)	453,680	16.8	
근린생활시설	2,490	2,607	1,320,041	2,298	2,356	1,229,676	(192)	(251)	(90,365)	-6.8	
종 교 시 설	68	79	78,809	79	91	66,958	11	12	(11,851)	-15.0	
의 료 시 설	19	21	35,847	16	17	99,320	(3)	(4)	63,473	177.1	
교육연구시설	67	58	261,054	80	96	201,769	23	38	(59,285)	-22.7	
업 무 시 설	58	60	485,803	68	71	551,618	10	11	65,815	13.5	
숙 박 시 설	113	141	90,549	116	128	155,251	3	(13)	64,702	71.5	
공 장	540	725	1,117,184	497	682	605,103	(43)	(43)	(512,081)	-45.8	
기 타	719	892	799,710	597	652	718,592	(122)	(240)	(81,118)	-10.1	
합 계	7,239	7,910	8,018,697	6,081	6,573	7,601,311	(1,158)	(1,337)	(417,386)	-5.2	()=마이너스

용도별 구성비(1997년 2월누계)



연면적 (총 15,200,361㎡)



건수 (총 12,575건)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현황(2월분)

구분 / 건축사회	1996년			1997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 울	1,536	1,540	3,933,066	1,095	1,114	3,648,565	(441)	(426)	(284,501)	-7.2	
부 산	591	756	508,971	306	418	307,687	(285)	(338)	(201,784)	-39.5	
대 구	805	805	717,514	392	393	793,407	(413)	(412)	75,893	10.6	
인 천	235	238	243,018	176	180	435,686	(59)	(58)	192,668	79.3	
광 주	212	274	220,822	663	713	414,566	451	439	193,744	87.7	
대 전	171	171	128,116	187	193	87,005	16	22	(41,111)	-32.1	
경 기	1,135	1,241	805,585	1,007	1,103	637,014	(128)	(138)	(168,571)	-20.9	
강 원	296	318	90,924	282	310	99,468	(14)	(8)	8,544	9.4	
충 북	306	368	169,261	333	398	196,243	27	30	26,982	15.9	
충 남	197	171	142,064	217	170	118,604	20	(1)	(23,460)	-16.5	
전 북	153	153	98,624	101	101	50,605	(52)	(52)	(48,019)	-48.7	
전 남	360	402	179,976	220	250	99,174	(140)	(152)	(80,802)	-44.9	
경 북	325	429	170,993	266	312	142,905	(59)	(117)	(28,088)	-16.4	
경 남	829	947	559,175	738	817	535,079	(91)	(130)	(24,096)	-4.3	
제 주	88	97	50,588	98	101	35,303	10	4	(15,285)	-30.24	
합 계	7,239	7,910	8,018,697	6,081	6,573	7,601,311	(1,158)	(1,337)	(417,386)	-5.5	( )=마이너스

지역별 전년동기대비 현황(1~2월분)

구분 / 건축사회	1996년			1997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 울	3,127	3,134	7,476,014	2,743	2,775	6,866,102	(384)	(359)	(609,912)	-8.2	
부 산	1,126	1,523	1,422,845	1,105	1,555	1,521,616	(21)	32	98,771	6.9	
대 구	1,828	1,869	1,406,056	677	678	965,598	(1,151)	(1,191)	(440,458)	-31.3	
인 천	479	487	473,815	567	586	949,891	88	99	476,076	100.5	
광 주	406	515	362,699	749	817	482,161	343	302	119,462	32.9	
대 전	269	269	165,391	325	336	176,286	56	67	10,895	6.6	
경 기	2,418	2,653	1,820,589	2,126	2,411	1,399,294	(292)	(242)	(421,295)	-23.1	
강 원	522	552	152,338	512	564	184,986	(10)	12	32,648	21.4	
충 북	505	594	300,146	569	735	490,851	64	141	190,705	63.5	
충 남	341	287	327,808	522	403	395,585	181	116	67,777	20.7	
전 북	268	270	294,125	209	209	234,330	(59)	(61)	(59,795)	-20.3	
전 남	550	614	259,340	437	485	215,134	(113)	(129)	(44,206)	-17.0	
경 북	566	782	320,090	575	665	286,708	9	(117)	(33,382)	-10.4	
경 남	1,456	1,679	998,427	1,265	1,456	936,667	(191)	(223)	(61,760)	-6.2	
제 주	172	182	86,886	194	213	95,152	22	31	8,266	9.5	
합 계	14,033	15,410	15,866,569	12,575	13,888	15,200,361	(1,458)	(1,522)	(666,208)	-4.2	( )=마이너스

신입회원 entrant
〈'97. 2.1~2.28 기준〉

강미숙:1966년생/동의대/평화 건축사사무소/556-8162/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440-1

강병수:1963년생/영남대/(주)길건축 건축사사무소/567-5838/강남구 역삼동 668-1 5층

강병훈:1959년생/홍익대/이감건축사사무소/546-2240/강남구 신사동 542 대흥빌딩

강영준:1957년생/제주실전/강영준 건축사사무소/21-3030/제주시 이도2동 1025-4

강철호:1962년생/경남공전/건축사사무소 강/25-4181/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62-8

고은영:1964년생/연세대/공 · 시 · 건 건축사사무소/548-4286/충남 아산시 온천동 72-2

김관회:1965년생/전주공전/유일 건축사사무소/87-4905/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34-7

김동균:1961년생/충북대/라인건축 건축사사무소/38-2643/경기도 용인시 김량장동 296-34

김병술:1961년생/전북대/토가 건축사사무소/251-9093/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173-32

김상균:1949년생/영남대/삼영건축사사무소/75-6027/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74-14

김선필:1962년생/단국대/연우건축사사무소/333-1884/마포구 서교동 366-24 예성빌딩 3층

김승범:1963년생/조선대/해인이엔지 건축사사무소/373-8966/광주시 서구 쌍촌동 1243-1

김용민:1964년생/건축사사무소 동하/462-4555/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62-5 대정빌딩 502호

김용익:1959년생/동의공전/가림종합건축사사무소/34-0450/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320-11

김안수:1966년생/울산대/철우건축사사무소/83-1813/경남 창원시 용호동 73-27 한서빌딩 7층

김창수:1964년생/부산대/(주)삼중종합건축사사무소/463-3667/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80-21 삼중빌딩 801호

김천규:1961년생/건국대/(주)테마건축사사무소/3472-092/서초구 서초동 1656-1 성재빌딩 3층

김철균:1954년생/전남대/(주)건축사사무소 연/361-6811/광주시 서구 농성동 628-6

김형채:1962년생/경기대/종합건축사사무소 공 · 시 · 건/546-8981/강남구 청담동 100-14 청담빌딩 4층

김 훈:1946년생/홍익대/(주)한진종합건축사사무소/587-0011/서초구 서초동 1534-5 코스모빌딩 401호

노병주:1960년생/두루 건축사사무소/532-0443/대전시 서구 내동 32-7

노훈조:1950년생/단국대/건축사사무소 노아건축/578-1644/서초구 양재동 277-5 한덕빌딩 3층

박승순:1964년생/조선대/유영건축사사무소/85-2262/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1042-3 세흥빌딩 6층

박은옥:1963년생/경북산업대/건축사사무소 한건축/426-0662/대구시 중구 동인3가 149-8

박점근:1965년생/일신 건축사사무소/567-0277/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256-5

박종술:1959년생/홍익대/현건축사사무소/3472-535/서초구 서초동 1363-4 양재빌딩 4층

박지선:1961년생/인하대/그룹 · 청송 건축사사무소/424-1264/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15-4

박철순:1960년생/대전공업대/표준 건축사사무소/484-6962/대전시 서구 탄방동 617 태화빌딩 501호

배호영:1948년생/영남대/건축사사무소 합동건축/253-8668/대구시 중구 수동 51-1

박희선:1964년생/영남대/대현건축사사무소/765-9760/대구시 수성구 수성2가 274-5

박홍동:1956년생/동현 건축사사무소/258-5441/경남 울산시 남구 신정3동 586-11

배석순:1959년생/조선공전/석 건축사사무소/32-5683/전남 나주시 송월동 10 99-7

배영주:1962년생/건축사사무소 디딤/85-4632/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5-2 평촌프라자 802호

배영준:1962년생/경희대/(주)씨씨 건축사사무소/597-2996/서초구 방배동 981-17 정학빌딩 301

변영주:1960년생/대전공업대/건축사사무소 초석건축/544-4374/강남구 논현동 241-8 502호

서석원:1965년생/동의대/(주)영탑 건축사사무소/462-1599/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54-1

서유근:1962년생/(주)삼중종합건축사사무소/463-3667/부산시 중구 중앙동4가 80-21 삼중빌딩 801

손성재:1963년생/부산산업대/선영건축사사무소/56-4364/경남 창원시 팔용동 169-2

송경섭:1964년생/관동대/건인건축사사무소/918-9596/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대화2205 태진빌딩 507호

송명수:1962년생/인하대/(주)종합건축사사무소 명승건축/574-2181/서초구 우면동 택지지구 3-11블럭

송영길:1941년생/한양대 대학원/건축사사무소 한공건축/558-4289/강남구 역삼동 814-5

송정환:1964년생/경남공전/나루 건축사사무소/441-9030/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61-9 녹월빌딩 705호

신종환:1960년생/동의대/평화건축사사무소/556-8162/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440-1

심영수:1961년생/홍익공전/대경컨설팅 건축사사무소/48-8315/강동구 길동 339-4

안 영:1960년생/계명대/건축사사무소 한터건축/476-6008/대구시 남동구 봉덕동 1301-22번지

안영묵:1957년생/전북대/건축사사무소 대지/52-3123/전북 익산시 남중동1가 218-8

오긍균:1958년생/충북대/(주)창 건축사사무소/422-2205/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201-32

엄학진:1957년생/홍익대 대학원/환경 · 건축 · 포럼 건축사사무소/238-5320/중구 장충동1가 118

오명렬:1954년생/한양대/비전21 컨설팅포럼 건축사사무소/761-2220/영등포구 여의도동 35 한국노총회관 310

오방온:1959년생/송원공전/한라건축사사무소/526-9944/광주시 북구 신안동 237-67

유은선:1959년생/강원대/(주)형제. K종합건축사사무소/243-0188/강원도 춘천시 조양동 43-1

윤경섭:1950년생/연세대/길상건축사사무소/486-4474/대전시 서구 월평동 940

윤자인:1958년생/국민대/우리건축사사무소/941-8555/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770-1 덕우빌딩 401호

윤창모:1957년생/대전공업대/라인 건축사사무소/824-0416/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445-3

이관식:1963년생/충주공전/(주)원 건축사사무소/221-3100/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동 355-4번지

이상섭:1961년생/인하대 대학원/건축사사무소 영신엔지니어링/554-2080/충남 천안시 문화동 69-3 201호

이성중:1959년생/영남대 대학원/건축사사무소 한터건축/476-6008/대구시 남동구 봉덕동 1301-22번지

이시명:1945년생/서울대/(주)다산건축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567-5973/강남구 역삼동 798-29 대홍빌딩 5층

이운구:1954년생/건축사사무소 이상건축/973-8047/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99-1

이종석:1962년생/동의대/이종석건축사사무소/208-5802/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317-70

이종철:1958년생/엘림 건축사사무소/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921

이래주:1967년생/대졸/(주)삼중 종합건축사사무소/463-3667/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80-21 삼중빌딩 801

이홍임:1964년생/제주실전/미르 건축사사무소/53-3900/제주시 도남동 58-3 58-4

임진섭:1961년생/원광대/호남건축사사무소/42-8338/전북 군산시 중앙로1가 10-2

이홍주:1959년생/한양대/건축사사무소 희성건축/514-0235/강남구 논현동 244-6 방주빌딩 1층

전영일:1960년생/인하대 대학원/주성건축사사무소/252-3996/중구 신당2동 336-8

정백식:1960년생/영남대/건축사사무소 정인/586-0275/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311-30

정연근:1957년생/서울대 대학원/건축사사무소 토원/758-2620/부산시 연제구 연산9동 399-10

정원석:1950년생/조선대/디자인 건축사사무소/529-0770/광주시 동구 계림동 98-102

정철수:1960년생/건국대/(주)종합건축사사무소 그룹예성/738-1130/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2호

정태인:1961년생/원광대/가원건축사사무소/253-0413/전북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2가 1-13

조영관:1960년생/동의대/동신종합건축사사무소/441-3663/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58-9

조태근:1960년생//신화건축사사무소/458-5002/경북 구미시 송정동 458-2

조학선:1961년생/인덕공전/송학건축사사무소/978-2216/경기도 고양시 토당동 899-1

조 현:1963년생/전남대/(주)종합건축사사무소 삼전에컨설턴트/511-0525/강남구 청담동 92-11 청담빌딩 2층

조희택:1957년생/(주)예일도시 건축사사무소/3443-642/강남구 논현동 18-3 영창빌딩 405호

주남규:1958년생/원광대/남영건축사사무소/374-0300/광주시 서구 쌍촌동 976-25

채한배:1960년생/건국대 대학원/건축사사무소 아키포럼/574-6511/강남구 도곡동 40-16 태정빌딩 4층

최기달:1954년생/한양대 대학원/(주)건축사사무소 한맨김건축/567-7430/강남구 역삼동 820-8 신성빌딩 801

최대림:1954년생/계명실전/협연 종합건축사사무소/484-0665/강동구 성내3동 416-1 둔촌빌딩 304호

최만희:1967년생/건국대 대학원/(주)모아종합건축사사무소/436-1901/중랑구 면목동 496-4

최영열:1956년생/영남대 대학원/건축사사무소 현대/855-6221/전북 익산시 남중동1가 86-123

한상일:1960년생/수원공전/협우건축사사무소/575-5970/서초구 양재동 328-8 화인빌딩 402

한재식:1964년생/안양공전/(주)우성건축사사무소/761-2216/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한충남:1964년생/경남대/도원 건축사사무소/43-7933/경남 진해시 이동 633-4

허태구:1961년생/부산산업대/진 건축사사무소/82-6500/경남 양산시 남부동 452-4

호성수:1958년생/도시건축사사무소/945-2021/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346-1

홍귀남:1961년생/충북대/성지 건축사사무소/758-3020/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4538-2

홍승학:1962년생/홍익공전/아키드건축 건축사사무소/569-3011/강남구 대치동 971-26 우석빌딩 4층

황두진:1963년생/서울대 대학원/(주)티·에스·케이 건축사사무소/588-2703/서초구 서초3동 1500-1

황영명:1963년생/(주)성문건축사사무소/204-5600/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325-18

황인주:1963년생/원광대/그린 건축사사무소/723-7660/전남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627-5

※ **고칩니다.**

지난호(97년 3월호 p.133~p.136) 「신입회원」 명단중 일부 회원의 최종 졸업학교명이 전산 출력상의 장애로 인하여 잘못 게재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고칩니다.

강길선 : 인하대 대학원 → 전남대 대학원/김경오 : 청주대 대학원 → 충남대 대학원/권산호 : 영남대 → 경북대 대학원/김영식 : 전남대 대학원 → 전북대 대학원/김종성 : 부산대 대학원 → 서울대 대학원/박영민 : 목원대 대학원 → 부산대 대학원/신동호 : 목원대 대학원 → 부산대 대학원/이길재 : 조선대 대학원 → 중앙대 대학원, (주)종합건축사사무소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웨스/이병인 : 관동대 대학원 → 한남대 대학원/이승우 : 청주대 대학원 → 충남대 대학원/이준수 : 전남대 대학원 → 전북대 대학원/장민호 : 청주대 대학원 → 충남대 대학원/조연성 : 전주대 대학원 → 조선대 대학원/조재관 : 충북대 대학원 → 한양대 대학원/최병철 : 청주대 대학원 → 충남대 대학원/최윤식 : 조선대 대학원 → 중앙대 대학원/허선구 : 동국대 대학원 → 동아대 대학원/허정행 : 부산대 대학원 → 서울대 대학원/황상묵 : 전남대 대학원 → 전북대 대학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454-1 251-3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454-1

세계 주요 건축관련 박람회

'97~ '99

타이페이 우량 건축상품 박람회
Exhibition of Building, Construction & Decoration
'97.6.20~6.24, 대만/타이페이

타이페이 가구 장식 및 건축자재 박람회
IEFB/Interior. Decoration & Building Material Exhibition
'97.9.28~10.1, 대만/타이페이

타이페이 건축자재 및 가구 박람회
Taipai Int'l Building Material & Furniture Exhibition '98
'98.12.19~12.22, 대만/타이페이

타이페이 건축기자재 박람회
Taipei Build/Building Materials Show
'97.5.2~5.5, 대만/타이페이

말레이지아 석재 박람회
Asian Stone Msalaysia '97
'97.9.9~9.12, 말레이지아/쿠알라룸푸르

말레이지아 건설기술 박람회
CTM '97/Construction Technology Malaysia '97
'97.9.9.~9.12, 말레이지아/쿠알라룸푸르

말레이지아 건축기자재 박람회
MALBEX/Malaysian Building & Construction Exposition
'97.9.9~9.12, 말레이지아/쿠알라룸푸르

쿠알라룸푸르 도시생활 박람회
Quality Urban Life '97
'97.7.23~7.6, 말레이지아/쿠알라룸푸르

미얀마 건축 · 건설용품 및 장비 박람회
Myanmar Construction Materials Fair '97
'97.6.13~6.21, 미얀마/양곤

미얀마 건축자재 박람회
Myanmar Building Materials & Construction Machinery Expo
'97.6.17~6.20, 미얀마/양곤

베트남 빌딩 및 건축 박람회
Building & Construction Vietnam
'97.12.3~12.6, 베트남/호지민

호지민 사회간접자본 건설 박람회
VIETBEX/Int'l Building & Construction EXPO
'97.9, 베트남/호지민

싱가포르 건축자재 박람회
Baucon Asia
'97.10.7~10.10, 싱가포르/싱가포르

싱가포르 동남아 건축 박람회
SIBEX/South East Asian Int'l Construction Exposition
'97.5.14~5.17, 싱가포르/싱가포르

뉴델리 도시 박람회
HABITAT INDIA
'97.4.22~4.25, 인도/뉴델리

인도네시아 건축 및 건설기자재 박람회
Building & Construction Indonesia
'97.9.16~9.20 '98.9.15~9.19,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자카르타 콘크리트 기자재 박람회
Concrete Indonesia
'97.9.16~9.20 '98.9.15~9.19,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인도네시아 건설플랜트 박람회
Contractors Plant Indonesia
'97.9.16~9.20 '98.9.15~9.19, 인도네시아/자카르타

고베 건축자재 설비 박람회
Kobe Int'l Home Fair
'97.9, 일본/고베

나고야 건축 종합 박람회
Architecture Exhibition Nagoya
'97.9, 일본/나고야

동경 건축자재 및 인테리어 박람회
Japan Home Show/Int'l B/D Materials & Interior Exhibition
'97.10, 일본/동경

오사카 종합 건축자재 박람회
Total Construction Materials & Equipment Fair
'97.5.28~5.31, 일본/오사카

일본 건축도시 종합기술 박람회
BUFF
'97.9, 일본/치바

일본 건설기계 박람회
CONET
'99.7, 일본/치바

대련 건축자재 및 호텔설비 박람회
DaLian Int'l Construction & Decoration Material & Hotel
'97.11.28~12.2, 중국/대련

북경 건축기계 박람회
BICES/Beijing Int'l Construction Machinery Exhibition
'98.5, 중국/북경

건축 및 실내장식품 박람회
BUILDING CHINA '98
'98.7, 중국/북경

중국 빌딩 및 건축 박람회
CHINABEX/China Int'l Building and Construction Exhibition
'97.10.14~10.17, 중국/북경

중국국제 건자재 설비 기술 박람회
China Building Int'l Building Exhibition
'98.11, 중국/북경

중국 건축기술 박람회
Construction Technology China
'99.7, 중국/북경

상해국제건축 및 실내장식 박람회
Building Shanghai '97
'97.9.9~9.12, 중국/상해

중국 국제 건축장식 및 호텔설비 박람회
CIDHF '97
'97.5.14~5.17, 중국/상해

심천 건축 및 장식자재 박람회
CIBAC/Building & Decorative Material Exhibition
'97.11, 중국/심천

천진 건축 박람회
China Int'l Building Materials and Production Exhibition
'97.10, 중국/천진

방콕 건설기자재 박람회
THAIBEX/Int'l Building & Construction Machinery Expo
'97.10.22~10.25, 태국/방콕

필리핀 국제건축자재 및 건축기기 박람회
PHILCONSTRUCT
'97.11, 필리핀/마닐라

세부 건설 박람회
Construction Show Cebu '97
'97.6, 필리핀/세부

홍콩 건축기자재 박람회
IBEX/Int'l Building & Construction Exhibition
'97.6.11~6.14, 홍콩/홍콩

홍콩 빌딩 박람회
IBS/Building Services and Systems Exhibition
'98.6.23~6.26, 홍콩/홍콩

오클랜드 건축 및 건설 박람회
BUILDEX HARDWARE/Int'l Building & Hardware Trade Show
'97.6.22~6.24, 뉴질랜드/오클랜드

오클랜드 토목, 건축 박람회
CONTRACTOR
'97.11, 뉴질랜드/오클랜드

멜버른 건축자재 및 장비 박람회
INTERBUILD AUSTRALIA/Interbuild Melbourne
'98.7.19~7.22, 호주/멜버른

퀸스랜드 건축자재 및 장비 박람회
INTERBUILD QUEENSLAND
'98.11.8~11.11, 호주/브리스베인

시드니 건축자재 및 장비 박람회
INTERBUILD AUSTRALIA / Interbuild Sydney
'97.6.8~6.11, 호주/시드니

뉴욕 빌딩 박람회
Building New York-Exposition
'97.4.16~4.17, 미국/뉴욕

미국 페인트산업 박람회
Industrial Paint & Powder Expo
'97.4.23~4.25, 미국/로즈몬트

밀워키 건설장비 박람회
CONEX-Wisconsin Construction Expo.
'98.1.21~1.22, 미국/밀워키

미국 주택 박람회
Multi-Housing World National Conference & Expo
'97.4.3~4.6, 미국/시카고

시카고 건축용품 박람회
National Building Products Exposition & Conference
'97.8.10~8.13, 미국/시카고

미국 건축자재 박람회
CSI/Construction Specifications Institute Expo.
'97.6.26~6.29 '98.6.25~6.28, 미국/올란도

미국 지붕자재 박람회
NRCA/National Roofing Contractors Association Convention
'97.2.4~2.7 '98.2.8~2.11, 미국/올란도

캔사스시티 건축 박람회
Home Design & Remodeling Show
'97.9, 미국/캔사스시티

미국 철로보수장비 박람회
REMSA/Railway Engineering Maintenance Supplies Association
'97.9.7~9.10, 미국/캔사스시티

빅토리아 주택 박람회
Victoria Home Expo
'97.9.19~9.21, 캐나다/빅토리아

캐나다 주택자재 박람회
Canadian Home Centre Show
'97.11.23~11.24, 캐나다/토론토

캐나다 주택 박람회
National Home Show
'97.4.4~4.13, 캐나다/토론토

과달라하라 건축 박람회
CONSTRUEXPO/Mexicoln Building Show
'97.11, 멕시코/과달라하라

멕시코 건축산업 박람회
EXPO CIHAC
'97.10.23~10.29, 멕시코/멕시코시티

몬테레이 건축자재 박람회
Constructo
'97.5, 멕시코/몬테레이

발렌시아 도로건설 박람회
Salon Int'l Construction Vialidad
'97.10.3~10.12, 베네수엘라/발렌시아

카라카스 건축 · 주택 박람회
Construya Vivienda '97
'97.9.23~9.29, 베네수엘라/카라카스

산타크루스 건축 박람회
Construcruz/Int'l Fair for Construction Furniture & Decoration
'97.4.23~4.27, 볼리비아/산타크루스

상파울로 건설산업 박람회
FEICON/Int'l Construction Fair
'98.5, 브라질/상파울로

코스타리카 건축 및 장식용품 박람회
DECOSALON/Building and Decoration Show
'97.9.12~9.22, 코스타리카/산호세

보고타 건축 및 디자인 박람회
Expo-Construction & Expo-Diseno
'97.5.22~5.30, 콜롬비아/보고타

파나마 주택 · 건설 박람회
EXPO CAPAC/Housing & Construction Fair
'97.9, 파나마/파나마시티

리마 건축 박람회
CONSTRUCTECNIA/Fair for Construction Machine Equipment & Material
'98.11, 페루/리마

데살로니키 건축, 냉난방 및 태양에너지 기자재 박람회
INFACOMA
'97.2.19~2.23
그리스/데살로니키

암스테르담 빌딩 박람회
Bouw RAI
'98.3.10~3.13, 네덜란드/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 산업보수 및 빌딩 서비스 박람회
INTERCLEAN/Industrial Cleaning Maintenance & B/D Service
'98.5.12~5.15, 네덜란드/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 건물보수기술 박람회
RESTORATION
'98.10, 네덜란드/암스테르담

노르딕 건축기자재 박람회
BYGG-REIS DEG Deg/Nordic Building Exhibition
'97.9.23~9.28, 노르웨이/오슬로

트론델라그 건축 박람회
Bygg Exhibition(Building Exhibition)
'97.9.1~9.7, 노르웨이/트론델라그

코펜하겐 건축기기 박람회
Building Exhibition
'97.9.16~9.20, 덴마크/코펜하겐

프리데리샤 건축기자재 박람회
BUILDING/Fair for Building Components and Equipment
'98.3, 덴마크/프리데리샤

헤닝 건축기자재 박람회
The Herning Fair-Building Trade Fair
'98.9, 덴마크/헤닝

뉴렌버그 창문 박람회
Fensterbau/Int'l Trade Fair of Windows, Doors & Facades
'98.3.26~3.29, 독일/뉴렌버그

독일 목재건축 박람회
Holzbau und Ausbau/Wood Construction & Home Improve
'98.4.30~5.3, 독일/뉴렌버그

도르트문트 건축모형 박람회
InterModellBau/Model Construction Kits Show
'97.4.9~4.13 '98.4.1~4.5, 독일/도르트문트

라이프찌히 건축 재 박람회
Herbst im Messepark
'97.9, 독일/라이프찌히

라이프찌히 빌딩 박람회
Int'l Building Trade Fair Leipzig
'97.10.22~10.26, 독일/라이프찌히

라이프찌히 빌딩설비 박람회
TGA/Int'l Exhibition for Building Engineering Equipment
'98.9, 독일/라이프찌히

라이프찌히 건축기계 박람회
Trade Fair for Constructing Machine
'98.10, 독일/라이프찌히

작센안할트주 건축 박람회
Building Fair-Sachsen Anhalt
'97.4.18~4.21, 독일/마그데부르크

뮌헨 건축 · 건설기계 및 장비 박람회
Bauma/Construction Machinery, Building Material Machine, Construction. Vehicle
'98.3.30~4.5, 독일/뮌헨

베를린 건축 박람회
Bautec/Int'l Building Trade Fair Berlin
'98.2.11~2.15, 독일/베를린

베를린 빌딩 유지 박람회
REINIGUNGSTECHNIK/Comprehensive Serivices for B/D
'98.9.30~10.2, 독일/베를린

독일 지붕, 벽 및 절연기술 박람회
DACH+WAND/Fair for Roof, Wall & Insulation Techniques
'97.5.7~5.10 '98.5.20~5.23, 독일/브레멘

브레멘 주택건설 전문 박람회
DACH+WAND
'97.5.7~5.10, 독일/브레멘

독일 창문기자재 박람회
FENSTERBAU/Fair of Window.

Doors and Facade Technology
'97.6.19~6.21, 독일/스투트가르트

스투트가르트 차광, 출입문, 경보장치 박람회
R+T/Fair for Blinds, Door/Gates & Sun Protection
'97.2.19~2.23, 독일/스투트가르트

에센 건축기자재 박람회
DEUBAU/German Building Fair International
'98.1.14~1.20, 독일/에센

에어푸르트 주택내장재 박람회
SPECTRUM/Trade Fair for Painter
'97.10.3~10.5, 독일/에어푸르트

칼스루에 빌딩, 거실 및 정원 박람회
INVENTA/Building, Living, Garden Exhibition
'98.3.26~3.29, 독일/칼스루에

프랑크푸르트 건축 컴퓨터 시스템 박람회
ACS/Exhibition Architect's Computer Systems
'97.11.12~11.14, 독일/프랑크푸르트

하노버 건축기자재 박람회
CONSTRUCTEC HANNOVER/Int'l Building Trade Exhibition
'98.11, 독일/하노버

하노버 환경보호 건축 · 건설 박람회
Terra-bau Hannover
'97.11.6~11.9, 독일/하노버

라트비아 건축 박람회
MAJA-1/Int'l Construction Fair
'97.4.16~4.20, 라트비아/리가

니즈니노보고로도 빌딩장비 박람회
Architecture & Construction Exhibition
'97.5, 러시아/니즈니노보고로도

모스크바 건축 박람회
STROYINDUSTRI & ARXITEKTURA '97
'97.9.8~9.2, 러시아/모스크바

모스크바 건축기자재 박람회
STROYTEKH '97/Int'l Exhibition Equipment & Material for Building
'97.4.21~4.26, 러시아/모스크바

상트페테스부르크 건축 박람회
INTERSTROL '97/Fair for Building & Construction
'97.10, 러시아/상트페테스부르크

상트페테스부르크 건축 박람회
INTERSTROYEXPO '97
'97.4.15~4.19, 러시아/상트페테스부르크

우파 건설장비 박람회
URALSTROY
'97.9.22~9.26 '98.9.21~9.25, 러시아/우파

크라스노야르스크 건축장비 박람회
SEBA '97/Int'l Exhibition on Construction
'97.6, 러시아/크라스노야르스크

페름 국제건축 박람회
Construction & Remont '97
'97.4.14~4.18, 러시아/페름

부카레스트 건축기자재 박람회
CONSTRUCT EXPO/Building & Materials Exbition
'97.5.5~5.9, 루마니아/부카레스트

엔트워프 바닥 및 벽재료 박람회
VIOEREN, WANDEN, HAARDEN/Floor & Wall Covering Exhibition
'97.11.15~11.23, 벨기에/엔트워프

코르트레이크 건축기자재 박람회
MATEXPO/Construction & Wood Industry. Road Building
'97.9.3~9.7, 벨기에/코드트레이크

민스크 건축기자재 박람회
BUDPRAGRESS/Building Materials, Construction Exhibition
'97.9.23~9.26, 벨라루시/민스크

플로브디프 도시건축 박람회
THE CITY '97/Int'l Exhibition on Urbanization Architecture & Construction
'97.6.11~6.14, 불가리아/플로브디프

스웨덴 건축산업 박람회
NORDBYGG/Int'l Building Industry Trade Fair
'98.3, 스웨덴/스톡홀름

로잔 가정용 건축기자재 박람회
BATITEC/Int'l Exhibition for Techni-cal Home Installation
'97.11, 스위스/로잔

루가노 건축자재 및 기계 박람회
EDILESPO/Construction Material and Machinery
'98.11, 스위스/루가노

루체른 건축자재 박람회
Altbau-Modernisierung/Building Modernizing Fair
'97.9.5~9.9, 스위스/루체른

바젤 터널공법 박람회
INTERTUNNEL
'98.1, 스위스/바젤

베른 건설기계 박람회
Baumaschinen-Messe Bern/Construction Machinery Fair
'00.3, 스위스/베른

제네바 건축기계 박람회
Foire de Machines de Chantier/Construction Machinery
'00.3, 스위스/제네바

마드리드 건축 · 건설 기자재 박람회
FICOP/Construction & maintenance Machinery Fair
'97.10.21~10.25, 스페인/마드리드

마드리드 도시계획 및 환경조성 박람회
International Town Planning and Environment Week
'98.11.17~97.11.20, 스페인/마드리드

마드리드 창문기자재 및 실내장식 박람회
VETECO/Window, Curtain Walls & Structural Glass Exhibition
'98.5, 스페인/마드리드

바로셀로나 건설기자재 박람회
CONSTRUMAT/Int'l Construction Fair
'97.4.7~4.12, 스페인/바로셀로나

바로셀로나 건축기자재 박람회
REHABITEC/Build Equipment and Renovation Exhibition
'97.4.7~4.12, 스페인/바로셀로나

사라고라 건축 및 광산기기 박람회
SMOPYC/Machinery for Public Works, Construction
'98.2.18~2.22, 스페인/사라고사

엘체 건설 기자재 박람회
FIRAMACO/Building Materials & Construction Exhibition
'98.10, 스페인/엘체

니트라 빌딩 박람회
CONEX/Int'l Building Fair
'97.10.15~10.18, 슬로바키아/니트라

니트라 목재 및 빌딩 박람회
LIGNUMEXPO/Wood and WoodProcessing Machine Fair
'97.10.15~10.18, 슬로바키아/니트라

브라티슬라바 건축기자재 박람회
CONECO/Int'l building Fair
'97.5.13~5.17, 슬로바키아/브라티슬라바

슬로베니아 건축 박람회
Int'l Exhibition of Construction & Materials
'97.4.15~4.19, 슬로베니아/고르냐라드고나

탈린 국제건축 전문 박람회
Rebuilding '97/Int'l Exhibition on Construction
'97.4.10~4.13, 에스토니아/탈린

스코틀랜드 건축기자재 박람회
SCOTBUILD/Scottish Building Exhi-bition
'98.11, 영국/글래스고우

버밍햄 국제건축 박람회
INTERBUILD/Int'l Building & Construction Exhibition
'97.11.23~11.28, 영국/버밍햄

그라쯔 빌딩 및 빌딩보수 박람회
FACHMESSE HAEUSLBAUER/Building, Rebuilding Exhibition
'98.1.22~1.25, 오스트리아/그라쯔

리트 추계 건축 및 정원용품 박람회
EURO-HAUS

'97.8.30~9.7, 오스트리아/리트

리트 춘계 건축 및 정원용품 박람회
EURO-HAUS
'98.5.20~5.24, 오스트리아/리트

비엔나 주택환경기술 박람회
Aqua-therm Int'l/Fair for Home & Environment Technology
'98.4.21~4.24, 오스트리아/비엔나

비젤부르크 건축 및 에너지절약 박람회
Bau & Energie/Building & Energy Saving Fair
'97.9.19~9.21, 오스트리아/비젤부르크

키예프 건설 기자재 박람회
Strojukraina
'97.10.27~10.31, 우크라이나/키예프

밀라노 창문기자재 박람회
TECNOROLL/Technical Windows Production Exhibition
'97.11.27~11.30, 이탈리아/밀라노

볼로냐 건축용 세라믹 박람회
CERSAIE/Exhibition of Ceramics for the Building Industry
'97.9.30~10.5, 이탈리아/볼로냐

볼로냐 건축산업 박람회
SAIE/Int'l Building Trade Fair
'97.10.23~10.26, 이탈리아/볼로냐

제노아 빌딩산업 박람회
RIABITAT
'97.5.21~5.25, 이탈리아/제노아

체스케부데요비체 건설산업 박람회
STAVBA/Building & Constructing Exhibition
'97.5.14~5.17, 체코/체스케부데요비체

프라하 건설 박람회
For Arch/Int'l Building Fair
'97.9.23~9.27, 체코/프라하

자그레브 빌딩 박람회
Int'l Building Fair
'97.4.22~4.27, 크로아티아/자그레브

니코시아 건축 박람회
ECODOMICA
'97.10.25~11.2, 키프로스/니코시아

안탈리아 국제 건축건설 박람회
MEDI-BUILD '97/4th Antalya Int'l Building Exhibition
'97.12.11~12.14, 터어키/안탈리아

앙카라 건축 박람회
TURKEY BUILD '97 ANKARA
'97.9.24~9.28, 터어키/앙카라

이스탄불 건축 박람회
TURKEYBUILD '97/Int'l Building & Construction Exhibition
'97.4.30~5.4, 터어키/이스탄불

이즈밀 건축 박람회
AEGEANBUILD '97/5th IZMIR Int'l B/D Exhibition
'97.11.7~11.10, 터어키/이즈밀

리스본 건축 및 건설기자재 박람회
SIMAC/Int'l building and Construction Exhibition
'97.5.23~5.27, 포르투갈/리스본

리스본 바닥재 박람회
SK/Int'l Wall & Floor Covering, Ceramics for Building
'98.4, 포르투갈/리스본

리스본 건설장비 박람회
URBI
'98.9, 포르투갈/리스본

포르토 건축자재 박람회
CONCRETA/Int'l building Materals Exhibition
'97.10.22~10.26, 포르투갈/포르토

그단스크 춘계 건축 박람회
GDANSK BUILDING SPRING/Building Fair
'97.4.23~4.26, 폴란드/그단스크

그단스크 창문기자재 박람회
WINDOW/Window Construction Exhibition
'97.4.23~4.26, 폴란드/그단스크

바르샤바 건축 박람회
EUROBUILD
'97.10.9~10.12, 폴란드/바르샤바

카토비체 건축 박람회
TARGBUD/Int'l Construction Fair
'97.4.24~4.27, 폴란드/카토비체

리용 건축 박람회
BATINOV/Technical Week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
'98.11, 프랑스/리용

트루와 주택건축자재 박람회
HABIMAT/Regional Housing Fair
'98.9, 프랑스/트루와

파리 건축 박람회
BATIMAT/International building Exhibition
'97.11.3~11.8, 프랑스/파리

파리 건축기자재 박람회
EQUIP' BAIE/Int'l Exhibition for Window, Door, Doorlock
'98.11, 프랑스/파리

파리 주택건축 박람회
Home Building Exhibition/Idees Maison
'97.11, 프랑스/파리

파리 건설기자재 박람회
INTERMAT/Equipment & Techniques for Construction Exhibition
'97.4.22~4.27, 프랑스/파리

파리 도시환경 박람회
URBAVERT/Amenety Areas, Landscaping, Gardening
'97.9.15~9.20, 프랑스/파리

탐페레 건축기자재 박람회
ASTA/Housing Construction Fair
'97.11.7~11.9, 핀란드/탐페레

헬싱키 건축 박람회
FinnBuild/Helsinki Int'l Building Fair
'98.4, 핀란드/헬싱키

부다페스트 건축기자재 박람회
CONSTRUMA/Int'l Building Trade Exhibition
'97.4.8~4.12, 헝가리/부다페스트

남아공 건축 박람회
AFRIBUILD/Int'l Building, Construction Infra Exhibition
'97.8.5~8.8, 남아공화국/요하네스버그

요하네스버그 건축 박람회
INTERBUILD AFRICA
'98.8.25~8.30, 남아공화국/요하네스버그

모로코 건축자재 박람회
SIB/Int'l Exhibition of Building
'98.10, 모로코/카사블랑카

걸프 건축 박람회
GULF CONSTRUCTION
'98.10.4~10.9, 사우디아라비아/담맘

리야드 빌딩 · 건축 박람회
Saudi Build '97
'97.10.26~10.30,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젯다 건축산업 박람회
Saudi Building Industries Exhibition
'98.11.1~11.5, 사우디아라비아/젯다

두바이 건축기자재 박람회
The Big 5 Show
'97.10.19~10.23, 아랍에미리트/두바이

암만 건축 박람회
Buildex/Middle East Building Exhibition
'97.11, 요르단/암만

테헤란 건축기자재 박람회
Building & Construction Machinery & Materials Fair
'98.5.15~5.29, '00.5.25~5.29, 이란/테헤란

텔아비브 건설 박람회
BUILDING & CONSTRUCTION/Int'l Exhibition for Building & Construction
'97.5.19~5.22, 이스라엘/텔아비브

〈자료출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제박람회 디렉토리〉

1997년도 건축사예비시험 시행 공고

5월 11일 시행, 시험장소는 5월 1일 별도 공고

건축사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건축사예비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7년 3월 17일

건설교통부장관, 대한건축사협회장

구 분	건 축 사 예 비 시 험
응 시 자 격	○ 건축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 대상자 1.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3.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4. 건축에 관하여 9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 건축사법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 규정에 의한 건축사시험 대상자
시 험 과 목 시 험 일 자 시 험 장 소	가. 시험과목 :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계획 — 객관식 선택형 나. 시험일자 : 1997년 5월 11일 다. 시험장소 : 1997년 5월 1일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
응 시 원 서 교 부 접 수 및 응 시 표 교 부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1997. 3. 24 ~ 3. 29 (09:00 ~ 18:00, 단, 토요일은 13:00까지)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대한건축사협회 각 시 · 도건축사회 ○ 서울건축사회 : (02) 581 5715~8 ○ 대구건축사회 : (053) 753 8980~5 ○ 광주건축사회 : (062) 521 0025~6 ○ 경기건축사회 : (0331) 47 6129~30 ○ 충북건축사회 : (0431) 56 2752 ○ 전북건축사회 : (0652) 87 6007~8 ○ 경북건축사회 : (053) 744 7800~2 ○ 제주건축사회 : (064) 22 3248 ○ 부산건축사회 : (051) 633 6677 ○ 인천건축사회 : (032) 437 3381~4 ○ 대전건축사회 : (042) 485 2813~7 ○ 강원건축사회 : (0361) 54 2442 ○ 충남건축사회 : (042) 256 4088 ○ 전남건축사회 : (062) 365 9944 ○ 경남건축사회 : (0551) 46 4530~1
제 출 서 류	가. 출원시 제출서류 ○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의 양식) : 1부 ○ 컬러사진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 2매 (응시원서 부착 제출) ○ 응시수수료 : 23,000원 나.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 응시표사본, 주민등록표초본, 학력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 1부 (단, 해당자에 한하며, 경력제출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합격예정자 발표시 공고함)
합 격 예 정 자 발 표	가. 합격예정자 발표 : 1997년 5월 23일 11:00 시 · 도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 나.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접수기간 : 1997. 5. 30 ~ 6. 5 (단, 토요일은 13:00까지) ※ 건축사자격시험 및 특별전형시험 시행계획은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이후 별도 공고할 예정임.
응 시 자 주 의 사 항	○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 제출대상자의 경력 및 학력은 중복되지 않아야 하고 경력인정 기준일은 시험시행 전일 (1997. 5. 10)까지로 합니다. ○ 응시표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표를 재교부하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및 반명함판 사진 1매를 지참한 본인이 시험시행전까지 본 협회에서 재교부 받아야 함) ○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 (09:30분)까지 응시표 및 신분증, 컴퓨터용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 개시후에는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실내에서는 흡연, 담화, 물품의 대여를 일체 금지하며, 시험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지정된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 오기 누락,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연락불능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응시자격의 결격사유 또는 허위증빙서류 제출과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부정행위를 한 자는 시험을 무효로 하며, 향후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장내에는 차량 진입이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응시안내서를 참고 바라며, 시험시행에 관한 문의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시험처 (581 5711~4) 또는 건설교통부 건축과 (504-9139)로 문의 바랍니다. ※ 본 건축사예비시험은 건축사자격시험과 별도 분리 시행하는 것이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안내

등급별 경력인정기준 등 소개

Ⅰ. 건축사예비시험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과 목	출 제 범 위	배 점	출제방법
건축구조	① 일반구조 ② 철근콘크리트구조 ③ 철골구조 ④ 구조역학	100점	필 기 (객관식을 원칙으로 한다)
건축시공	① 시공일반 ② 공사관리 ③ 건축재료 ④ 건축적산	100점	
건축계획	① 단지계획 ② 건축환경원론 ③ 건축계획각론 ④ 건축설비 ⑤ 건축사(史)	100점	

Ⅱ.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1. 제출서류 접수
   가. 기 간 : '97. 5. 30 ~ 6. 5 (단, 공휴일은 교부 및 접수 불가)
   나. 시 간 : 09:00 ~ 18:00 (단, 토요일은 13:00까지)
   다. 접수처 : 대한건축사협회 각 시 · 도건축사회

2.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구 분	대학졸업자 (건축전공자)	전문대학, 고등학교졸업자, 일반경력자(건축비전공자)
응 시 표 사 본	○	○
주민등록표초본	○	○
학 력 증 명 서	○	○
경 력 증 명 서	×	○

3.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구비사항
   가. 경력증명서
      1) 경력증명서에는 근무부서, 담당업무 및 근무기간이 명시되고 발행번호, 발행일자 및 증명발급처의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이 기재 · 날인되어 있어야 함.
      2) 경력증명서의 인정 범위
         가) 해당업체장 또는 기관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대한건축사협회장(시도건축사회장)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이 발행한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 건축사사무소의 경력 : 대한건축사협회장(시도건축사회장)이 발행한 건축사보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 건설업체,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주택건설사업체, 감리전문회사, 기술사사무소,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체 등의 경력 : 해당업체장 명의의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및 해당업체의 면허증(등록증)사본 (세무용 사업자등록증은 인정하지 않음)
         ※ 본인의 근무기간이 해당업체의 면허(등록)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공무원 : 부서 · 직종 · 직급 ·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명시되고 기관장이 발행한 것.
         • 대학원 학위과정 : 전공(수료)학과 및 학위가 명시된 총(학)장이 발행한 것.
         • 시간강사 : 강의기간 및 과목별로 주당 강의시간이 명시된 것으로서 대학(전문대) 총(학)장이 발행한 것.
         • 기타 소정의 경력 : 해당 경력증명서
   나. 학력증명서
      – 졸업일자, 전공학과, 발행번호, 발행일자 등이 기재된 것.
   다. 주민등록표초본
      – 병역사항(군별, 병과, 입대일자, 제대일자 등)이 기재된 것.
   라. 외국에서 발행한 각종 증명서
      – 해외공관장이 확인한 증명서사본 및 번역공증서(인증서)
      ※ 해외공관장 확인 : 증명서를 발행한 국가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확인을 말함.
   마. 사업체의 해산 등으로 경력증명서 또는 업체 면허증(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1) 해당업체 대표자의 경력사항 확인을 받은 공증서(인증서)
      2) 재직당시 이사 2인 이상의 경력사항 확인을 받은 공증서(인증서)
      3) 퇴직당시 발급받은 경력증명서의 공증서(인증서)
      ※ 공증(인증)시 첨부 증빙서류
         가) 해당업체 법인등기부등본
         나) 의료보험 피보험자자격 취득(상실)확인서
         다) 국민연금 자격확인통지서
         라) 갑근세 납세필증명서
      4) 해당업체 면허증 또는 등록증의 경우
         가) 해당업체 관할 행정관청의 면허(등록)보유확인서
         나) 법령 또는 관허(인)에 의하여 설립된 동종단체의 면허(등록) 보유확인서

Ⅲ. 경력인정기준 (건축사법시행규칙 제9조 : 별표2)

1. 1등급 (100%)
   가.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종전의 규정에 의한 2급건축사로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경력을 포함한다)
   나. 건설업법 또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등록한 감리전문회사, 기술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기술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지정 또는 등록한 시설안전기술공단 ·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체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다.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라. 대학원에서 건축분야에 관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 과정에 있거나 이수한 경력 (이 경우 석사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마. 건축에 관한 교직경력 (주 3시간이상의 시간강사 경력을 포함한다)
   바. 각종 연구원 등 연구기관에서 건축에 관한 연구경력
   사. 군의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장교로 복무한 경력
2. 2등급 (80%)
   가. 1등급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업체 · 기관 · 협회 등에서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나. 1등급 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곳에서 건축관련분야 (도시계획 · 조경 · 토목분야를 말한다. 이하같다) 업무에 종사한 경력
   다. 대학원에서 건축관련분야에 관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에 있거나 이수한 경력 (이 경우 석사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건축관련분야 교직경력 (주 3시간이상의 시간강사 경력을 포함한다)
   마. 각종 연구원 등 연구기관에서 건축관련분야에 관한 연구경력
   바. 군의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사병으로 복무한 경력
3. 3등급 (60%)
   2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력으로서 건축관련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Ⅳ. 경력인정에 관한 일반사항

1. 경력인정 기준일은 시험시행 전일까지로 한다.
2. 경력은 연 · 월 · 일 단위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총 합산한 경력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3. 건축에 관한 소정의 학력이 없는 자로서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는 만18세 이후의 경력만을 인정한다.

Ⅴ. 응시자 협조사항

1.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처리함은 물론 향후 3년간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2. 시험장은 시험시행을 위하여 임차 사용하는 타기관의 재산이므로 시험장내 각종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험장내에는 차량 진입이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건축사협회장

현상설계경기 공고

고양시, 도시 · 건축 · 문화예술 · 풍물의 거리(쇼핑몰) 조성계획 설계(안) 공모

고양시에서는 일산신도시 미관광장 및 보행자 전용도로와 그 주변에 「도시 · 건축 · 문화의 풍물거리」 조성계획에 따라 현상설계공모를 실시한다. 고양시민이 자유롭게 숨쉬고 도시인으로서 삶을 누릴 수 있는 틈새의 작은 공간이자 다양한 변화의 움직임이 연출되고 생명력이 넘치는 고양시만의 독특한 풍물의 거리와 문화적인 공간,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을 만들어, 때때로 호수공원과 미관광장에 연속하여 음악회, 민속놀이, 연극, 춤 오페라, 각종 전시회 등의 즐거움을 풍부하게 제공하기 위한 이번 현상설계의 공모개요는 다음과 같다.

공모 개요

- 위치 : 일산신도시 택지개발지구 28-12-1 블록외 59개 필지(60개필지)
- 지역.지구 : 중심상업지역, 도시설계지구
- 토지 용도 : 중심상업용지
- 필지별 규모
  - 필지수 : 60개 필지, 길이 약 2 ㎞
  - 필지별 단위 규모 : 700㎡ - 1,567㎡(212~474평)

경기방식 및 응모자격

- 일반공개 경기(현상설계)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또는 개인(도시환경 및 조경설계에 경력이 있는 자, 단 개인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당선시에 설계계약이 가능한 유자격자와 공동응모 가능)
- 응모신청서 및 지침서 교부 : 1997. 4. 11(금)~4. 22(화) - 10일간
- 등록기간 : 1997. 4. 22(화)~4. 26(토) - 5일간
- 등록처 : 고양시청 도시주택과 건축계

- 작품 제출
  - 제출기간 : 1997. 6. 20(금)~6. 23(월) - 3일간
  - 제출처 : 고양시청 도시주택계 건축과

건축연구원 모집공고

건축정책의 산실
「건축연구소」가 설립됩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되는 대한건축사협회 부설
「건축연구소」는
한국건축의 THINK-TANK로서
▲건축설계 및 감리 ▲건축법 · 건축사법 및 건축관계법령
▲건축제도 및 건축사업무 ▲시장개방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건축문화 정책의 산실이 될 것입니다.

「건축연구소」와 함께
21세기 우리나라 건축문화 창달을 선도해 나갈
유능한 인재를 초빙합니다.

1. 응모자격

구분	인원	응모자격	공통사항
연구소장	1명	- 건축실무 또는 연구경력이 15년 이상인자	- 석사 및 박사 학위 소지자
책임연구원	0명	- 건축실무 또는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건축사자격 취득자 우대
연 구 원	0명	- 건축실무 또는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외국어 능통자 우대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 없는 자

2. 전형방법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3. 제출서류 - 자필이력서 1통
   - 자기소개서 및 경력증명서 각 1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학위논문 1부(국문본)
   - 주민등록 등본 1통
   - 자격증 사본 1통(소지자에 한함)
4. 제출기한 : 1997. 4. 10~4. 19(토)
5. 제 출 처 : 대한건축사협회 총무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03-55
   ☎ 581-5711~4
6. 기타사항
   - 이력서 상단에 지원구분 및 연락처 명기
   - 우편접수는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불합격자에게는 개별 통지하지 않음.

- 국민과 함께하는 건축 · 미래를 준비하는 건축사 -

대 한 건 축 사 협 회

건축사사무소 직원모집

건축계획, 설계, 감리분야의 새가족을 찾습니다

(주)동현종합건축
- 건축설계(경력2년이상)3명
- 주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13-22
- TEL : 553-2211, FAX : 553-2214

(주)반도종합건축
- 설계부문(경력2년이상)
- 감리부문(경력3년이상)
- 주소 : 서울 종로구 평창동 66-4
- TEL : 395-1101, FAX : 395-1105

(주)한국종합건축
- 설계분야(부서장급), 감리분야
- 주소 : 서울 서초구 잠원동 28-1
- TEL : 549-2101, FAX : 511-2110

(주)그룹환경건축
- 건축설계분야, 감리분야
- 주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192-19
- TEL : 518-8818, FAX : 518-7207

(주)삼우공간건축
- 건축설계 · 감리직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3-9
- TEL : 598-1752, FAX : 598-1755

화인니스건축
- 건축설계직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14
- TEL : 598-1025, FAX : 598-1704

(주)서한종합건축
- 설계직(3년이상경력자), 감리직
- 주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5-4
- TEL : 562-3141, FAX : 562-4994

현신종합건축
- 건축설계, 감리분야
-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동 67-1
- TEL : 533-7457, FAX : 536-2208